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제30주년 인천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목차

발간사

인천5·3민주항쟁 관련자 증언록 발간에 즈음하여_이우재 8

격려사

○○○_이사장 10
○○○_남구청장 12
○○○_남구의회 의장 14

I. 자료

인쇄물 19
기록사진 30
언론보도 34
각계의 목소리 56

II. 증언

정말 궁금해요, 다들 현장에는 왜 있었는지_권병기 91
'선도투'에서 창살 아래 '감방투쟁'으로_권오광 107
을지로 인쇄골목, 또 하나의 저항_권순갑·안삼화 119

목차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_김명숙	136	대중을 움직인 건 '직선제 개헌'이었어요 _이민우	315
역사의 진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진 않아요 _김성복	144	반면교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_이우재	323
학생으로서 맡은 작은 역할이었어요 _김수영	154	'개헌 현판식 싸움'의 끝에서 _이지호·유종순	336
산업선교회 노동운동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_김정택	166	'5월 3일'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_이해미	351
타협하는 데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_김지선	174	노동운동의 진원지에서 외친 노동자들의 목소리 _이현경	360
선진노동자, 인노련, 삼민동맹 _김진국	183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이에요 _장기표	380
디딤돌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였어요 _박계동	197	함께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_장영달	393
다시 5·3을 끌어오고 싶어요 _박육남	209	'기만적인' 직선제 구호를 밟고 가두투쟁으로 _전희식	399
우리가 가진 전투력의 최대치를 보았어요 _서동석	219	'광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투쟁'이었어요 _정동근	413
강물에 흐르는 수많은 빛살 중의 하나일 테죠 _성효숙	230	실패한 집회였어요 _정성렬	420
민통련 활동가에서 공장생활로 _신순봉	238	인천5·3민주항쟁의 난장적 축제로 민주화운동 열어 _최원식	427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였는데 _신정길	248	저항은 해야하지 않겠어요? _호인수	434
'타도'였어요. 연설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_양승조	263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한 거죠 _황선진	447
인천을 넘어 시대 속으로 _양재덕	272		
보다 정교한 전술이 필요했어요 _유동우	285		
'도시 봉기'의 현장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다 _윤인중	292		
유인물 배포로 끌려간 대공분실 _윤현수	301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요 _이남희	308		

인천5·3민주항쟁 관련자 증언록 발간에 즈음하여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장
이우재

踏雪野中去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不須胡亂行

함부로 어지럽게 가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나의 발자취가

遂作後人程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서산대사의 시다. 그렇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가 훗날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30년 전에 깨달을 수 있었다면..

여기 30년 전 인천5·3민주항쟁 당사자들의 증언을 모아 증언록을 낸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만 왔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낼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은 점차 사라져 가고, 5·3 당시 현장에 섰던 당사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점차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이러다 영영 못 내는 것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박우섭 남구청장 이하 남구청 관계자들과 조성혜 센터장 이하 민주평화인권센터 실무자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

새삼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증언자들을 인터뷰해 글로 예쁘게 정리해준 김현석씨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여기 실린 기록들은 30년 전인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벌어진 인천5·3민주항쟁 당사자들의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당시 우리의 행보 하나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당일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좀 더 대의에 충실했다면... 작은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함께하는 더 큰 공동의 목적에 매진했다면... 새삼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끄럽기만 하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자화자찬이 되기 쉽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 기록을 작성하고자 애를 썼다. 국민 모두가 주인 되는 참다운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애쓰는 후배들이 우리의 잘잘못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받아들여 다시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끝내 모두가 주인 되는 대동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발간을 축하하며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원 학 운

인천5·3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을 모아 증언록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과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단순히 우리들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거나 과거를 지향하거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성찰이라 하겠습니다.

산의 중턱에 서서 올라왔던 길을 내려다보며 또 다시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숨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시절을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숭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정한 정치권력에 의해 억울한 희생과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퇴색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발돋움입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언론, 노동자나 민중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일입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아물었던 상처를 후벼 파듯이 힘든 일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축소, 미화하고 정당화하며 왜곡하려는 자들이 버젓이 힘을 쓰는 이 사회에서 한 가닥 기억의 끈을 부여잡

는 이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임을 생각하면서 이 증언록을 통해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욱 신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986년 5월 3일 그 날, 온몸으로 산 증인이 되었던 많은 시민들의 합성을 기리면서 증언록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거듭 축하합니다.

증언록 발간을 축하하며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박우섭

「인천5·3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담은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증언집이 빛을 보기까지 수년간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젊은 노동자, 학생, 인천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정부 수립 요구와 민주헌법 쟁취를 외치며 온 몸으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은 현재의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증언록 발간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인천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기억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남구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재평가를 받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증언집이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거울이 되어 그날의 정신과 민주적 가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의 역할을 수

행한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인천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적 가치의 소중함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장 승 덕

인천 5.3민주항쟁의 뜨거운 발자취를 생생히 기록한 증언록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증언록 발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은 인천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힘을 모아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항쟁의 불씨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이 땅에 민주주의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언록 발간은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당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천5.3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리고, 오늘에 이어받아 선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증언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러두기

1. 본 증언록은 1986년 5월 3일, 민주화운동 단체,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인천시민회관 앞을 중심으로 모여 일으킨 민주항쟁을 증언자들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2. 인천5·3민주항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언자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3. 인천5·3민주항쟁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채록하기 위해 경찰 등 항쟁 주체와 다른 입장에서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언채록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4. 기억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기억과 사건의 현재화'란 관점에서 구성하였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5. 구술자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살렸으나 경우에 따라 문맥 및 전체 구성에 맞춰 운문 과정을 거쳤다.
6. 증언 내용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 안에 표기하였다.
7. 증언자의 대표 직위는 1986년 5월 3일 당시의 직위를 표기하였다.
8. 자료사진 및 유인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I

자료

인쇄물
기록사진
언론보도
각계의 목소리

신한민주당 '헌법개정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안내문

⇒ 신한민주당

민 116405

仁川
가보자! 들어보자!
민주의 합성을!

헌법개정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5월의
민주봉화
仁川에서 드높이자!

일시 : 5월 3일 (토) 오후 2시
장소 : 인천시민회관 (주안역전)

**이민우총재, 김대중·김영삼선생
인천에 오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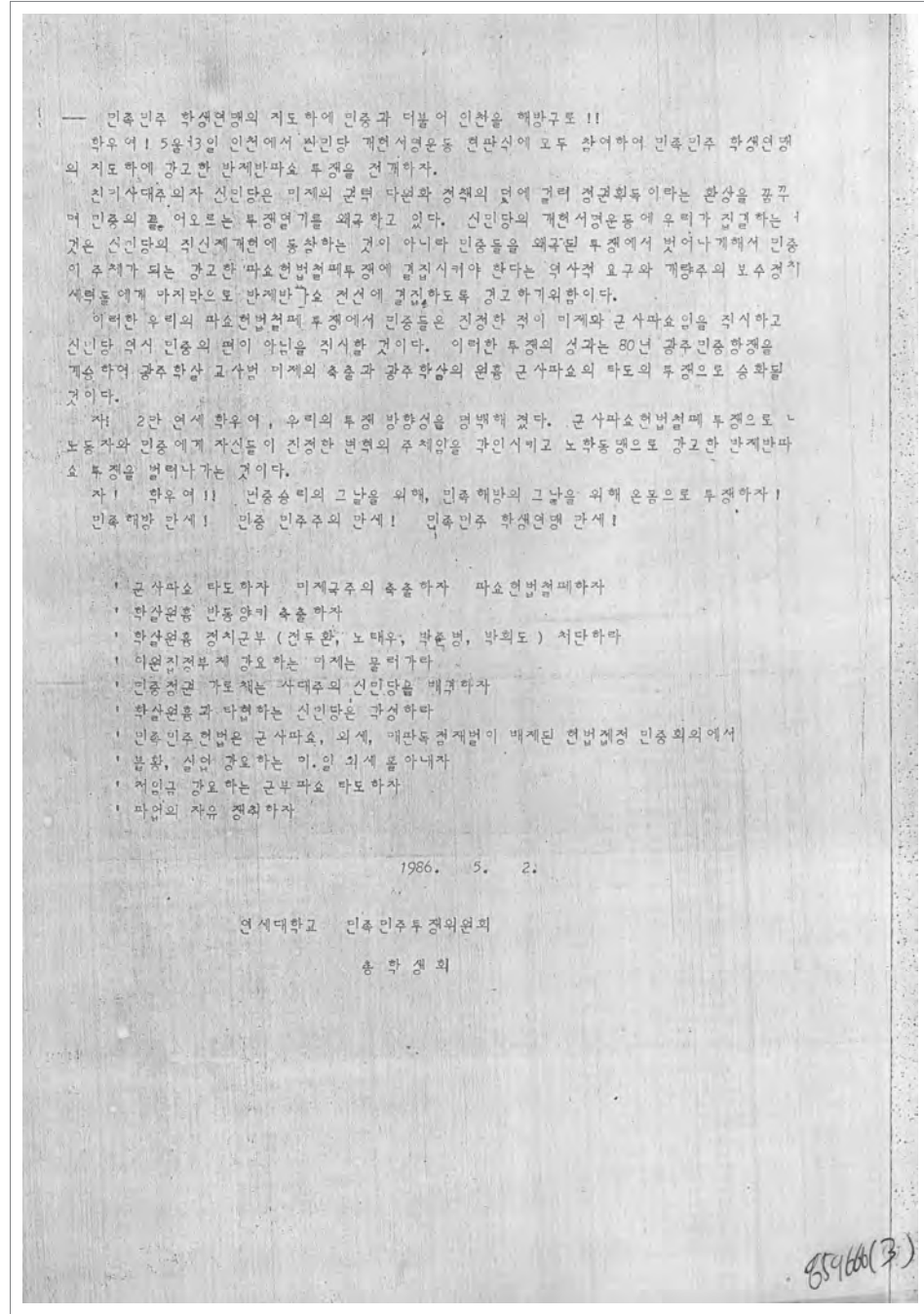
**1 천만명
개헌서명
독재헌법
철폐된다.**

支 部	支 部 長	副 支 部 長	支 部 長 盧 承 煥 부총재
仁川第1地區(中·南區)	明 華	明 華	의 원
仁川第2地區(東·北區)	柳 濟	柳 濟	의 원
京畿第1地區(水原·華城)	朴 旺	朴 旺	의 원
京畿第2地區(城南·廣州)	李 允	李 允	위원장
京畿第3地區(議政府·東豆川)	金 炯	金 炯	의 원
京畿第4地區(安養·光明·始興)	李 宅	李 宅	의 원
京畿第5地區(富川·全浦)	安 東	安 東	의 원
京畿第6地區(南楊州·楊平)	趙 炳	趙 炳	의 원
京畿第7地區(麗州·利川·龍仁)	趙 鍾	趙 鍾	의 원
京畿第8地區(松炭·平澤·安城)	鄭 鎮	鄭 鎮	위원장
京畿第9地區(坡州·高陽)	李 英	李 英	의 원
京畿第10地區(連川·抱川·加平)	鄭 在	鄭 在	위원장

신한민주당

민족민주 학생연맹의 지도하에 민중과 더불어 인천을 해방구로!! (1986. 05. 02)

연세대학교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총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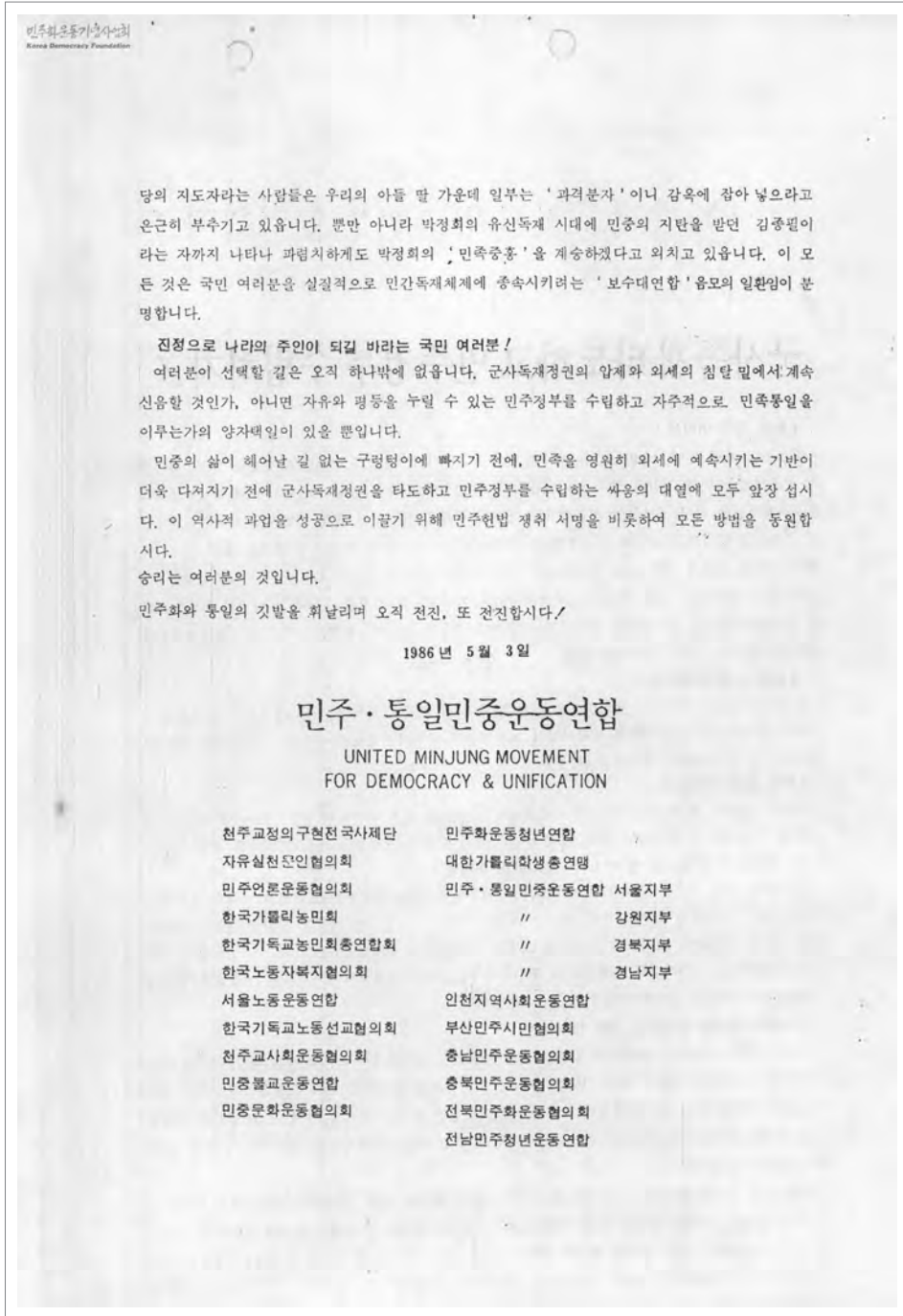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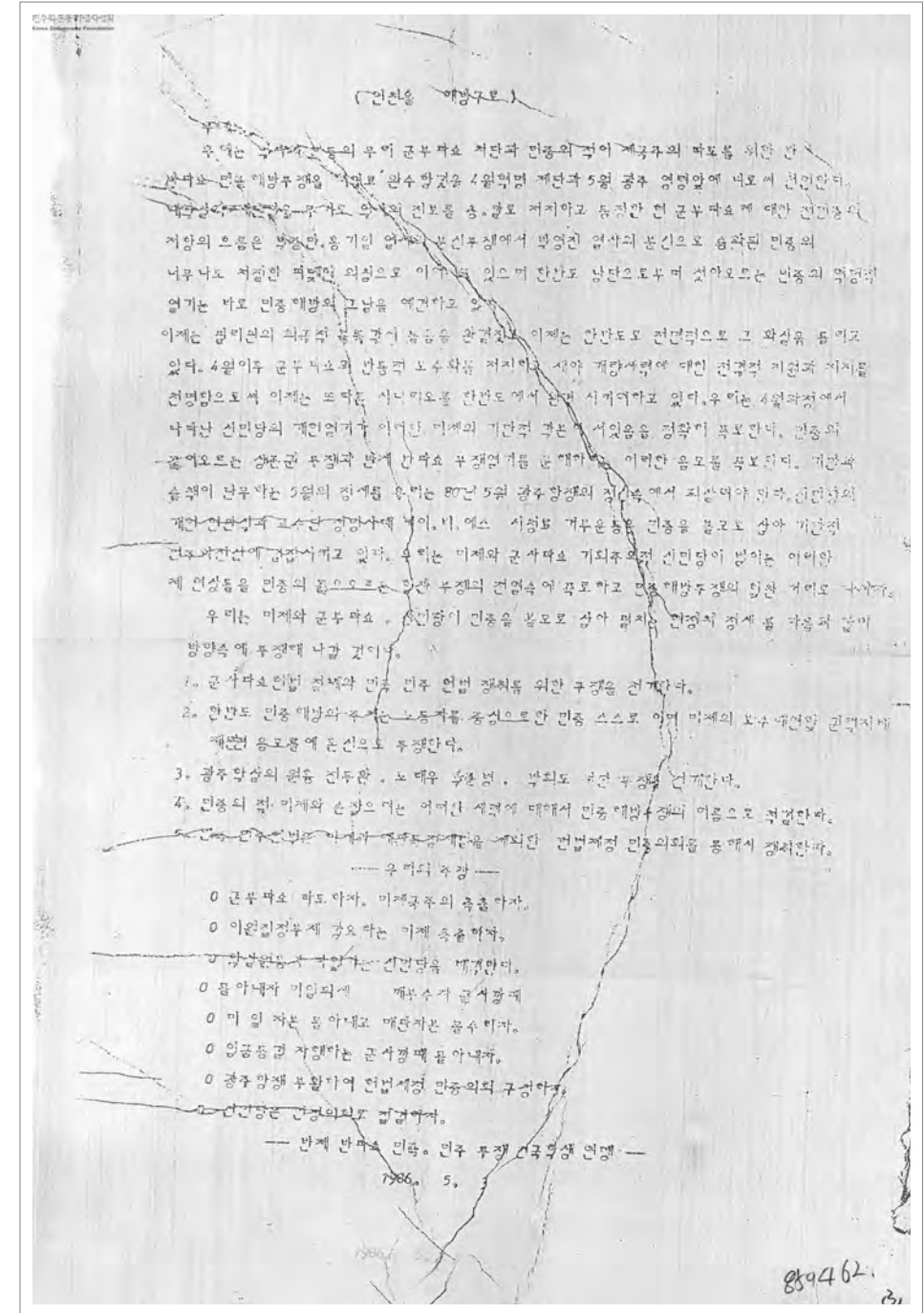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1986. 05. 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을 해방구로(1986. 05.03)

⇒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전국학생연맹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1986. 05. 19)

민중통일민중운동연합

1986년 5월 19일

'5·3 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은 오늘 오전 '인천사태에 관한 중간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발표에서 "선민당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구 결성대회 및 헌법외관 관련하여 극렬문제학생, 제이단체원, 일부 불순군로자들이 인천 도심지에서 급진 과격요동을 의도한지 방화, 파괴, 납치, 폭행 등을 자행한 목적소요 사내가 사회안정을 해치는 물론 국가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으로 보고 수색력을 총집중하여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발표에서 "급진과격 활동과 격렬한 폭력소요를 자행해온 민민주와 체제전복 기도 등의 범죄행위가 있는 정기표, 정승년 등이 핵심장부로 활동하고 있는 민통련 및 그 계열단체 소속원 등이 소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은 "인권을 해방구로 '해방인민 민세', '천만노동자 해방투쟁단체', '미일 외세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 '민주헌법 쟁취', '노동자 농민 피압박해 해방구'를 몰아내자'는 등 과격이 폭력의 상투적인 대담선전, 선동과 현재화 유사한 내용"이 인천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일차로 민정당사를 타격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청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치밀한 난공 소요계획을 수립, 종 계획에 따라 폭력시위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발표에서 "이 사건은 학원의 급진과격분자와 제야의 일부 과격세력이 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경기지구 결성 대회를 열 계획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시위를 감행하여 치안 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검찰은 "민통련 최원 우재구 (20·주체)가 5월 3일 14시~19시 30분 경기도청 소속 경찰관을 끌고 다니면서 전치 12주간의 제 5호 분리증상 등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23개 민중·민주운동단체의 연합인 민통련은 검찰의 이 발표가 나오기 이미 오래전에 "민통련은 최원재원 인사선이 선민당의 행사장 앞에서 주도한 폭력시위에 적극 참여했음"을 정명을 통해 일찍이 밝힌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민통련은 대구, 대전, 광주, 아산에서도 선민당의 행사를 제기로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분명한 주장하고 전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호소할 바 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최대의 운동과제로 천명하고 실천하는 민통련의 운동론에 충실한 투쟁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의 발표를 보고 분노는 커녕 절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발표의 내용이 온통 허위사실과 조작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검찰은 마치 민통련이 학살들과 사적인 '모의'하여 '방화, 파괴, 납치, 폭행'을 저지른듯이 단정하고 있으나 23개 운동단체의 연인이 된 단체에서 학생들과 사적인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더구나 검찰관을 납치하여 폭행한 장본인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우재구'는 민통련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단체의 회원도 아님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민통련의 정기표 총정리부장과 정승년 통일분과위원장이 "체제 전복 기도 등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기표씨는 육상독재시대 이래 민주화운동에 전념하다가 무고하게 '내란 예비혐의' 혐의를 쓰고 옥고를 치르거나 수배당한 경력이 있고, 정승년씨는 5.17 쿠데타 직후에 "김대중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는 허무니 없는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인천에서 등장한 구로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나라의 현실을 지적한 구로가 타당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가리기전에 적안정을 짓고 보는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가 더욱 경각하는 것은 '민주헌법 쟁취'라는 구로도 북한의 선전, 선동과 일치한다는 검찰의 상념이다.

우리는 또 "학원의 급진과격분자와 제야의 일부 과격세력이 선민당회를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경기도청을 공격하려 했다"는 '수미'를 보면서 그 권위를 가리기전에 검찰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새겼는가를 밝혀기를 요구한다. 전국에서 동원한 수만의 경찰병력이 무방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도청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정당화 투쟁을 '유모'나 '복거'로 왜곡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경주에서 수백명의 민중을 살상한 뒤에 납치, 고문, 폭행, 무릎을 자행해온 것은 바로 군사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다. 이제 민중은 이 폭압 아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민주주의 대열에 과감히 동참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학살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민주운동단체들의 운동을 '유공'으로 조작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민중·통일민중운동연합

7441 86917

5·3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1986. 05. 26)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민중의 언급도 없이 "노동자와 학생은 폭력시위를 전개해야 한다 (미민주)"며 마치 우리 노동자가 폭력적 본성의 주범인양 거짓선전을 한자가 누구였는가? 우리 노동자와 불구대전의 원수인 미국놈에게 미안하며 근성독재정권과 타협하여 노동자가 함어할 수 없도록 개인집회를 연기시킨 자들은 누구였는가? 특히, 인천집회시근석공원의 사남개우두머이인 강연장 지안본부장과 한반도에 압록 바운 미 대사관 권리와 이민주총지가 만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세시년 집회 연기 발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단호한 투쟁과 애국학생들의 반미 운동에 본선투쟁을 불순투쟁으로 몰아붙인 민구년 피동의 주역은 누구였는가? 노동자에 대한 근성독재의 공공연한 폭력과 무장유언과 구속, 고문에 대해서는 입대놓고 우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식권당방의 행위를 두고 "폭탄을 쓰는 자는 통지가 아니다 (김영삼)"고 나불대는 놈은 누구였는가?

올해의 미국놈의 조종에 따라 전두환 삼인정권과 약함하여 이원집정제를 몰도이는 집단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른나게 푸는 바이다. 우리 노동자는 최근 규정한 신민당의 태도 선포 결정하기에는 이공거리는 기술 속의 분노가 너무도 너무도 깊다. 2천만개의 생발 선 눈동자가 신민당의 과거의 실패 커나키는 너무도 특이하게 새겨져 있다.

4. '서노련'은 신민당에 대하여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번 신민당의 공산전염미 노동자에 대한 기만과 명사지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서노련'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면서 선전할 것을 본명이 요구한다.

1) 신민당은 5.3 인천민중집회에 참석한 5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에 대하여 무기비화개 개어진 경찰추진을 상시하게 밝혀라. 이른바 '인천사태' 폭력의 주범은 현 근성독재정권이며 최대의 비애를 입은 당사자는 바로 분반 남자와 고문을 당한 '서노련' 구속자들과 당일 6시간동안 5천여명의 권위 최후반에 생명의 위협과 부상, 질식사 등 무릅쓰고 투쟁한 서노련, 인노련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이다. 또한 당일 불변 언행되어 동류적인 온갖 유폐와 추행 고문을 당한 3백 20여명의 연행자들과 134명의 구속자들이다. 따라서 5.3 인천사태의 종언은 폭력의 주관인 김민상지안본부장이나 정승보 내부산과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폭력에 의해 최후의 비애를 입은 '서노련'과 구속, 연행자들이다. 국민의 공당이며 권위 개혁자로서의 신민당은 매함이 권 권권과 검찰의 악만권 폭력행위를 국민 앞에 폭로하고 규명할 의무가 있다.

2) 노동자와 함께 학력연광추진등을 확신하고 노동자, 농민의 피땀을 써는 미국노조 전두환 근성독재정권을 격으로 규정하고 공산기회권을 통하여 명백히 입장을 밝혀라. 또한 본질이 권 권권때론 이원집정제 음모를 삼십이 폭로하라.

3) '서노련' 활동가에 대한 불법남자 고문의 권상을 밝히고 고문의 원용, 국군보안사령관 중앙 이종구를 국외에 송신시켜 서노련과 대립시키고 공동기회권을 개혁하라. 또한 구속된 1700명의 노동자와 학생, 민주시민 권원을 즉각 석방시켜라!

4) 노동자와 애국학생을 탄압하는, 한남 권권안보범에 지니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끝내시켜라!

5) 권점으로 노동자, 도시민민, 농민과 애국학생을 위반하면 바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되는 삼면헌법을 지지하라. 이를 심전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삼면헌법쟁취 및 5.3 인천집회 투쟁 권선구민구민대표회의 결의'를 '서노련'과 공동 개혁할 것을 강력히 제의한다. 단, 우리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라.

우리 노동자는 신민당이 이 민족의 해방과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지에 힘찬 권력을 보낼과 동시에 국민의 공당으로서 자신이 선명한 자함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가 제의한 5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6월 5일까지 동보해출 것을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5. 노동자의 투쟁수에 승리의 깃발은 펴내려다.

우리 '서노련'은 미국놈과 전두환 근성정권과 가진 자의 어떠한 탄압에도 단지의 물리선도 없이,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의 권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고공에서도 해방을 갈망하는 권 민중의 선봉에 서서 권들과의 가차없는 싸움을 일으키기를 것이다. 우리 1천만 노동자는 구속된 무너동기들을 무이들의 손으로 구출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인 '서노련'과 우리의 선봉인 '노동자 선봉'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강고한 통일된 노동자의 조직을 건설하기 위하여 과거에게 무인 민주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권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피땀으로 지켜오는 권지권 권상을 통지위 위사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가 정치권력의 주체로서 법치계 통일되고 있으며 우리앞에 폭력적으로 발안하는 안중도 안되는 기권자들의 소멸의 계몽을 바라며 투쟁적 결연으로서의 노동자의 승리를 확신한다. 우리 노동자의 고난에 관 투쟁 속에 해방의 색 남은 성공을 다가 오고 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관세! 노동자 선봉 안세! 노동자 승미 만만세!

1986년 5월 26일 서울노동운동연합
(110: 용포구 삼선동 131와106, 전매일 기념관 내, 전화: 743-9074)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술책을 폭로한다!!

⇒ 5·3노동자투쟁위원회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술책을 폭로한다!!



천만 노동자여!
 이제 더이상 굶주림과 고통속에서, 배고고고 달리고 갈 수 만은 없다는 분노의 함성! 올해에도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일꾼인성투쟁의 불길도 타올라 왔음을 우리는 모이왔다.
 여기에 착달한 사장님들과 독재정부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사설특검단과 경찰을 동원한 무기한 폭행과 부당하고 그리고 주먹이 아니었는가?
 또한 노동자의 잘못, 우리의 박정희정부는 누가 물어봐 죽였는가?
 이제 노동자의 민중은 분명히 알았다. 대화와 타협으로는 살인폭력집단, 야수적인 억압착취집단을 꺾부술 수 없다! 깃누르는 이 고통스런 쇠사슬을 똑똑 끊을 수 없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눈앞에 폭로되어 버린 시종의 추악한 모습!
 이제 우리는 속지 않는다. 환희산 같은 분노도 의들을 끌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
 물과 두달 건넌 해도, '계'의 '계'지만 나와도 눈을 꾸러짐과 임비된 무적한 군마라들이, 김기거 배도가 돌변하여, 신민당의 개헌집회를 폭언, 발포하고, 김기거는 경찰로 포위까지 해주는 이 괴뢰인 사내는? 2,000여 광주민중을 약살하고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친두원 군사독재집단이 재발의 죄에 불과한 신민당에게 권력을 양보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저저은 죄가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주사회를 이룩 하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아니다. 저들은 우리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꺾부수지 않는 한, 하늘이 무너진대도 폭압과 착취를 계속할 권력과 돈에 미친 집단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이 한국민중의 변혁열기, 탄압과 착취의 쇠사슬을 똑똑 끊어버리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의지 앞에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저들은 현실이 사기극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하고있다.
 보라! 야수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쫓아 신민당에게 최후의 양보하라고 살피라는 자 누구인가? 신민당이 그 무슨 민중의 행동일 부우기며 팔작거리게 하는자 그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미제국주의, 바로 그들이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20년이나 조성하여, 우리 노동자·농민의 피땀을 우려먹은 자가 바로 미국자본가요,

85.8.4.2

원주민중의 봉기를 탱크와 총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천두화 군사독재정권을 세우도록 조종한 자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수입개방압력으로 이땅에 불황을 몰고와 이땅의 노동자를 실업과 궁핍속으로 처박은 것본인이 또한 미국이 아닌가?

또한 필리핀에서 민중의 열기를 받아들고, 근본적인 개혁없이 이키노와 군부를 손잡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 무슨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처럼 사기쳐먹었고, 반미의 거수인 리비아의 가다파를 죽이기 위해 일국의 수도 트리폴리에 폭탄을 퍼부어 무고한 시민 수백명을 죽이는 자가 또한 미제국주의가 아닌가. 미국 투쟁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몇 백, 몇 천명의 식민지 약소국 민중의 목숨쯤은 가소롭게 여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한국민중의 투쟁을 지원할리 없다는 것은 삼척자도 다 안다.

저들은 이번에 모든 억압과 착취를 꺾부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민중의 변혁의지, 힘이 두려워 이번엔 '개헌'이란 사탕발림으로 한국민중을 기만하고 사기쳐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놈 장단에 일찌구나 춤추는 신민당은 어떤 자자들인가?
 온 국민의 거머 속에 금뱃지를 단져 1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노동자·농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하였는가? 신민당은 친일지주, 자본가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계반, 외세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정당이다. 개헌대회장에서 민중의 진정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거이니 폭력이나 개강은 소리를 떠벌이고, 폭력살인정권에 대해서는 무적할, 비폭력을 중언저리며 실천기는 저들의 자태를 보라! 우리 노동자와 주축이 되어 강력하게 다그쳐야만 이들 신민당 기회주의자들은 정신을 반백 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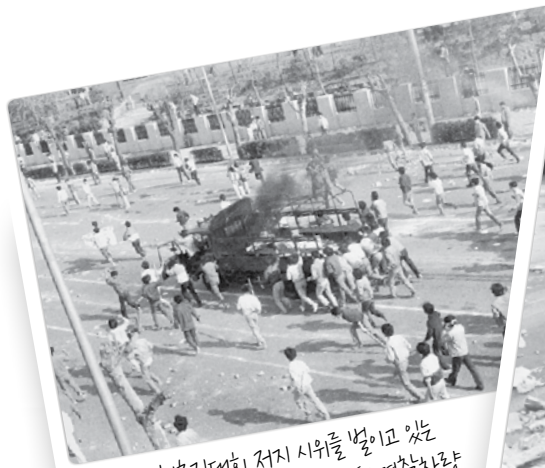
인권의 개혁회 달력을 일부러 토요일로 잡고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을 오후 2시에 박아놓은 그들의 적에는 노동자를 태제하고 기만하려는 명확한 반 노동자의 행위이다.

일천만 노동정계여!
 미제국주의와 군부독재, 그리고 신민당이 합작하여 벌이는 풀갑잡은 사기극을 노동자의 강철같은 팔뚝으로 꺾부수자! 노동자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노동자가 신봉이 되어 민중의 적들을 타도하고 기회주의자들을 응징하자.
 노동자의 쟁쟁, 이땅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때까지 한치의 양보없이 전진해 나가자.
 일천만 노동자여! 5월 3일 인천시민회관에 모두 모여 저들의 정치쓰를 폭로해 버리고 전 노동자가 하나되어 미제국주의 음모와 군사독재정권을 꺾부수자! /

- 우리의 주장
- 신민당 앞장세워 개헌으로 사기치는 미국놈들 쫓아내자!
 - 민주화살 시주한 미국놈들 몰아내자!
 - 노동운동탄압하는 군사독재 박살내자!
 - 민중고통 해결못할 개헌술책 속지 말자!
 - 8시간 일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파업권 쟁취하자!

민지말자 신민당!! 박살내자 군부독재!!
 몰아내자 양키놈!! 속지말자 개헌술책!!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술책폭로
 5·3 노동자투쟁위원회



개헌추진대회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 5.3항쟁 현장에서 파손된 경찰차량



바닥에 있는 '인천 민주의 선봉이여' 유인물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집회 중인 민통련 단체들



시민회관 앞의 인천 5.3항쟁



시민회관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



주인가든 앞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민회관으로 행진하는 신민당 지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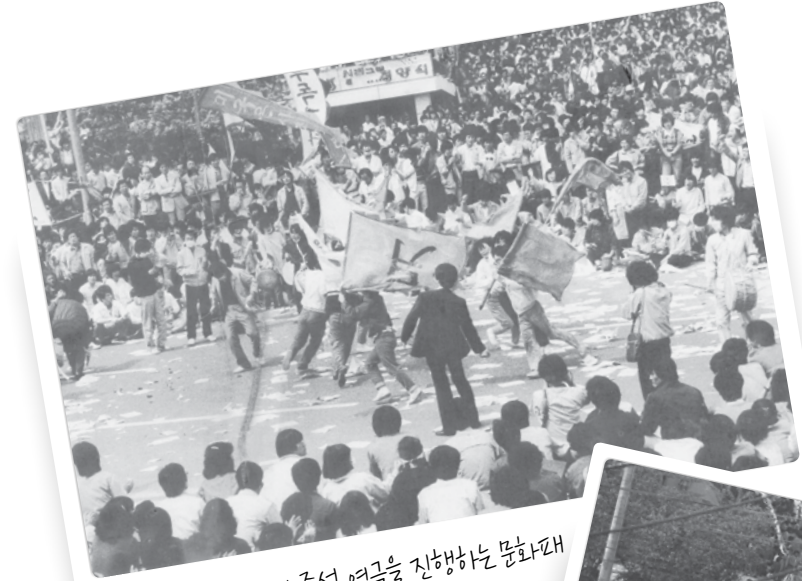
5.3 인천 항쟁 당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있는 경찰병력



시민을 연행하는 경찰



민통선 가양산세대의 집회



현장에서 즉석 연극을 진행하는 문화과



반미 시위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하는 학생들



시민회관 앞에서 시위 중인 시민들



주안 시민회관 앞의 인천5.3항쟁 참여자들

폭력난무 시가(市街) 공포의 도가니

- 신민 「인천대회」 학생 근로자 난동

(『경인일보』, 1986년 5월 5일자)

상가철시 및 역주변

신민당 개헌추진결성대회 장소였던 시민회관 주변 3백여 상가 대부분이 이날 대회 2시간 전인 12시부터 셔터를 내리고 모두 철시를 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

특히 이날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민정당 인천 제1지구당 앞 도로변에 위치한 50여 상가들은 12시부터 점포문을 닫는 등 완전철시했다.

또한 인천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석바위, 신기촌, 주안역 방향의 1백여m 거리내에 있는 2백여 상가들도 시위가 더욱 거세진 이날 하오 2시 이후부터 완전 철시하고 집안에서 공포에 떨며 격렬한 시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동안 가스냄새로 인해 가게문을 열지 못했던 20여 개의 식료품점 및 식당 등도 5일 상오에는 모두 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 시민회관 주변 상가들이 시위 이틀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한편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인천시민회관앞 도로에서 밀리기 시작한 시위군중들은 저녁 6시 20분께부터 8시까지 주안역과 제물포, 동암역 등에서 1백~3백 명씩 무리를 지어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 전철통행이 한때 불통됐으며 투석으로 역사 및 운행 전철 유리창이 깨져 승객들이 놀라 뛰쳐나오는 등 혼란을 빚었다.



특히 주안역에서는 경찰에 쫓기던 시위군중들이 담장을 넘다가 20여m 가량의 담장이 무너졌으며 시위대는 이어 전철승강대로 몰려가면서 투석전을 벌여 정상적인 전철운행이 1시간 30분 동안 되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7시 21분에 주안역에서 떠날 예정이던 323전철의 운전실 앞 유리창이 시위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깨졌으며 이로인해 주안역 내는 10여분 동안 승객과 시위군중 그리고 경찰이 질러대는 고향소리와 비명으로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어 주안역에서 쫓긴 1백여 시위군중들은 7시 40분부터 동암역과 제물포역 앞에서 다시 집결, 반정부구호와 투석전을 전개, 제물포역 유리창 10여 장을 깨뜨렸다.

한편 격렬한 투석전과 가스가 난무했던 주안과 제물포역 등에는 5일 상오 현재까지도 가스냄새가 가시지 않아 전철 이용 승객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매표구에 줄을 서 표를 사는 등 고통을 겪었다.

차량 탈취·방화

이날 4건의 차량 탈취·방화 사건이 발생 여타 시위사건과 다른 과격성을 보였다.

하오 1시 40분 주안역에서 시민회관쪽으로 몰려가던 시위대는 경찰 페퍼포그차를 포위하고 화염병을 투척 차체 일부를 태웠고 이어 1시 50분 시민회관옆 도로에 주차중이던 신민당의 깃발을 단 레코드로얄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져 넣은 채 시민회관앞 4거리까지 밀고 가 전소시켰다.

이때 차량의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차가 시위대의 투석으로 화재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1백여만 원의 피해를 낸 채 돌아갔다.

시위대는 이어 하오 4시 45분 주안역에서 5백여m 떨어진 곳에 주차중이던 경찰의 최루탄운반차를 탈취 적재중이던 최루탄 50여 상자를 뺏고 적재함에 종이를 쌓아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채 석바위 경인상가쪽으로 밀고가 차량 일부를 불태웠다.

강제해산후 간선도로에서 벌어진 산발적인 기습시위로 남구 도화동 도화국교 앞 교통초소의 유리창이 전부 부서지고 대기중이던 인천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봉고차에 화염병이 던져져 전소됐다.

시위대 해산 및 연행

경찰은 이날 행사전에 극렬한 시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압병력 자체 24개

중대 3천2백16명과 지원 49개 중대 6천5백66명 등 모두 9천7백82명의 병력을 확보, 행사장 주변과 시내 곳곳에 배치 시위에 대비했다.

다시도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은 경찰측은 많은 인원의 지휘를 위해 시내 12개소에 이동지휘소까지 설치하기도.

이같은 경찰병력도 시위대가 워낙 격렬하게 투석전으로 맞서자 경찰과 시위대들은 20여차례나 밀고 당기는 대치를 계속했다.

시위대들이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것도 부족해 미리 준비한 화염병까지 던지자 경찰은 가스차와 다탄두최루탄 발사기를 동원, 이를 몰아붙여 5시 45분께 대회장 주변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

격렬한 시위 속에서 경찰에 연행된 수는 모두 3백19명.

이들은 인천경찰서에 1백47명, 동부경찰서에 34명, 부평경찰서에 51명, 부천경찰서에 45명을 각각 수감하고 나머지 42명이 타기관에서 조사중이다.

혼란 저의(底意) 어디에 있나 -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

(『경인일보』, 1986년 5월 5일자)

평화로운 연휴의 주말 인천시민들은 겪지 말았어야 할 경험을 해야 했다. 대낮에 방화폭력이 난무하고 공공시설이 마구 파괴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보아야만 했다.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있을 예정이던 3일 하오 대회장인 인천시민회관 주변에 몰려든 학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격 시위로 주안 중심가 일대가 완전 마비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민당의 개헌대회조차 유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날 대회장 주변에는 오전부터 몰려든 시위학생들로 메워졌으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1시께부터 과격화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 과격학생들은 승용차와 민정당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했으며 버스정류장 시설물 과 공중전화 「박스」를 넘어뜨려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경찰차를 탈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주안역에 뛰어들어 시위대들은 전철 운영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같은 과격시위로 인해 경찰관 1백여명과 시위대 등 일반인 백여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우리는 전투가 휩쓸고 간 격전장과 같은 파괴된 시가를 보면서 이같은 파괴행위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지 의문하고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돌아켜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시위자들 자신에게 연장되고 사회와 국가에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날 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주변의 시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상가는 「셔터」를 내려 완전철시를 해야했고 주택가는 밤늦도록 최루 「가스」로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파괴된 공공시설로 앞으로도 당분간 불편을 줄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시민의 생업을 중단시킬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함에도 이성과 양식으로 대변되는 학생들로서 그같은 폭력과 파괴과 저질러질 때 그것은 시위가 아니며 학생일수도 없다.

그것은 시위라기보다 폭력적 혁명을 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일이다.

또한 급진좌경적인 극열구호와 살벌한 폭력행위에 섬뜩함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같은 또래의 경찰관에 어느 적에게 보다도 더한 가혹행위를 하는 저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한다. 이번의 구호를 보더라도 반미(反美)를 선동하고 북괴(北傀)가 즐겨쓰는 『철천지원수』 등 극단적인 용어까지 나오고 있으며 『인천해방구만세』까지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미(美)축출을 외치고 있지만 일단 떠났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장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6·25당시 4백만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으며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돌아켜 보아야 한다. 미군이 왜 주둔해 있어야 하는지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본질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북괴를 규탄하고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데 주역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북괴와 같은 주장을 하고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분노마저 느낀다.

시위를 보는 시민에게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물론 시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착잡했으며 학생들이 방화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때는 혀를 차고 걱정했다. 그러나 속으로 걱정하고 나무라는 정도로는 안된다. 하긴 과격시위대를 선불리 건드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모를 정도로 살벌한 판에 타이르거나 만류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앞에서 시설을 부수고 보도 「블록」을 깨는 행위 등은 저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시위의 기회나 장(場)을 마련해 주는 일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적어도 무슨 불구경이라도 하듯 단순한 호기심으로 거리를 몰

려나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이같은 극렬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배후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이같은 행위가 학생이나 집단시위라고 해서 용인되거나 경시될 수 없다. 만일 어느 보통 시민에 의해 이런 일이 저질러 졌을 때 어떤 처리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는 인천에서와 같은 극좌적(極左的)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배척에 나서야 하겠음을 강조한다.

좌익정체(左翼正體) 드러낸 인천사태(仁川事態)

(『경향신문』, 1986년 5월 5일자)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인천사태(仁川事態)는 이나라 좌익세력(左翼勢力)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웅변해주는 사건이었다.

인천사태는 피상적으로 보면 개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상습적인 가두투쟁인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사태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번 사태는 결코 대학생들의 개헌을 요구하는 상습적 가두소요가 아닌 폭력혁명기도의 성격임이 뚜렷이 드러났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인천사태는 극렬좌익대학생과 그 배후의 기성인들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추진한 것이다. 대학가의 극렬좌익학생 및 그들을 지원하는 운동권의 기성인들은 오래전부터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지부결성대회를 계기로 인천에서 제2의 광주사태와 같은 대대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민중혁명을 일으키려면 우선 한 지역에 그들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대규모 폭력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그 지역에 「민중평의회」를 설립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지구적(持久的)인 혁명투쟁을 전개해야 한



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개헌추위 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임박해지자 인천을 「해방구(解放區)」로 만들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사태에 참가한 투쟁요원들이 다른 지역의 개헌추위지부결성대회에서와는 달리 각목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전례없이 공격적인 무장을 갖추었다는 점과 진압경찰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전례없이 조직적이고 강력했다는 점 또한 그런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극렬좌익학생들과 운동권의 좌경기성인(左傾既成人)들이 이 시기에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려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이 시기가 개헌=민주화라는 선전으로 인해 일반대중의 정부에 대한 반감(反感)이 고조될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지방도시에서 있는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지부결성식의 열기에 대중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만일 4·30정와대회담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아마도 적중했을 것이다.

둘째, 인천지역은 노동자가 매우 많이 거주하고 도시산업선교회 등 과격노동단체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을 해방구로 만들려면 폭동진압병력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폭동 동조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과격노동단체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치밀한 사전준비아래 계획되었던 극렬좌익대학생 및 기성인 운동권의 좌경세력의 「인천해방」 기도는 일반대중의 비판적 방관과 당국의 적절한 대비로 인해 하룻동안의 가투(街鬪)로 끝나고 말았지만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한 사건이다.

이번의 인천사태에 비추어 볼 때 극렬좌익학생들은 이제 대학가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음이 분명해진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위험한 세력은 학생좌익세력뿐만 아니라 기성인좌경세력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들 두세력이 만들어낸 인쇄물의 내용과 그들의 투쟁방식으로 미뤄볼 때 극렬좌익학생들과 좌경기성인들은 「좌경(左傾)」이나 「용공(容共)」이란 형용사가 어울리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 학원 안팎의 공산세력은 지금 볼셰비키혁명 전 러시아 공산세력이 그러했던 것과 같은 내부 이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론 투쟁은 우리 사회를 공산화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곧바로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1단계 혁명론자)와 먼저 민중(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주도권을 잡아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파(2단계혁명론자) 간에 전개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전자(前者)만이 공산주의자이고 후자(後者)는 좌경학생정도로 보이나, 사실은 후자 역시 전자와 동일한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다. 후자가 철저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그들이 제작·배포한 유인물에서 잘 확인된다.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인물인 「민주주의의 알」(여기서의 알은 R, 곧 혁명이란 뜻임)은 우리 사회에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킨 다음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이자 엄청난 힘을 가진 프롤레타리아가 전세계의 인민지원기지로 자처하는 북한프롤레타리아의 강력한 비호와, 국경이 인접해 있는 세계프롤레타리아의 핵인 소련 및 코리아 인민과 운명을 같이해 온 믿음직스러운 민주주의국가 중국의 강력한 지원아래』 우리 사회의 프롤레타리아가 민중·민주체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공산주의체제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 안팎의 좌익세력은 때로는 분신자살과 같은 극렬한 수법을 동원하여 일반 대중의 관심과 동정을 유발하고, 때로는 불온인쇄물을 통해 불특정다수 독자들의 의식을 용공화하면서 북한공산집단의 남한적화혁명노선을 앞장서 실천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공산주의자나 좌익세력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은 민주화투쟁이란 명분아래 그들을 옹호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기도도 가공할 일이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일반 국민과 일부 정치세력의 안이한 태도와 그들을 옹호·이용하려는 자세이다.

이나라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모든 정치인과 각계각층의 지도층 및 전체국민이 그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 그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자신들의 공산혁명 목표가 실현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선도·전향시키기 위해 각성되고 단합된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천사건」의 과장 -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

(『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관심거리이던 신민당의 인천개헌대회 및 현판식이 학생, 근로자 등의 과격시위와 경찰의 완강한 저지로 무기 연기되었다. 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시민회관 부근은 대회 두시간전부터 몰려든 학생과 시민들로 매워졌고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최루탄발사로 인천시가는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졌다. 곳곳에서 투석과 방화가 자행되고 격렬한 시위와 경찰의 강제연행이 계속되어 저녁때까지도 「최루탄속의 시가전」 같은 양상이 벌어졌다.

민정당 지구당사가 파괴되고 신민당 승용차가 불태워졌으며 경찰의 최루탄차가 탈취되는가 하면 거둬들인 충들로 시민과 경찰이 수없이 부상했다. 특히 각목 등을 든 시위대가 전경을 인질로 잡아 구타하는가 하면 투석과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에 격렬하게 맞섰다.

이 통에 신민당 간부들은 대회장에 입장조차 못해 대회는 유산되었다.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대회가 유산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인천대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급진세력의 등장과 그들의 과격행동이다.

애당초 신민당의 개헌대회는 개헌서명운동의 촉진제로 정부 여당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이 대회에 운동권학생과 재야의 정치세력 그리고 과격한 시민들이 합세, 급진세력의 활동무대가 되어갔다. 대회가 열리기 전 후해서 거리에서 과격한 시위를 주동한 것은 신민당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인천대회는 바로 급진세력에 시위의 무대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그들의 구호와 유인물에 나타난 정치적 주장들은 지금까지의 개헌요구와 정권교체 주장이라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인천 시내에 뿌려진 학생단체와 재야세력 그리고 노동단체들의 유인물을 살펴보면 반미(反美) 선동과 파쇼정권타도를 외치는 격렬한 문구들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신민당을 성토하는 표현도 여기저기서 엿보인다. -민중을 수탈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삼민헌법 쟁취하여 노동자가 주인된 해방된 새세상을 건설하자. 민중을 오도하는 기회주의자 신민당을 규탄한다. 부산과 광주에서 수십만 민중이 모여든 것이 신민당의 정권욕을 지지해서라고 생각하는가- 등등. 이밖에도 과격한 주장은 얼마든지 산견(散見) 된다.

언제부터 우리사회에 이렇게 급진세력이 자라고 있었으며 그것이 좌경으로 흐르게 되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유신(維新) 이래 설 자리를 잃고 억눌려 온 소외계층이 지하에서 조직화되었고 그들이 일부 노동자 및 과격학생세력과 연계되어 이처럼 방대한 급진세력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이미 개헌문제는 관심 밖인 것 같다. 여야가 준비중인 개헌협상조차 미제(美帝)의 사주에 의한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민중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통한 삼민헌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재의 여당과 함께 신민당도 같은 보수정당이라는 시각에서 반동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진세력에 극렬시위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신민당은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다. 여야 모두 장외정치(場外政治)의 방지에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오늘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적대세력이 누구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민정당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수세력 연합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성정치세력이 대오각성하여 민주화조치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한쪽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급진세력의 설자리를 허용치 말아야 하리라고 본다.

「인천」과 여-야 - 공존적 대타협의 노선을 수호하길

(『조선일보』, 1986년 5월 6일자)



일(一)
이른바 「인천사태」는 단순한 폭력화라는 그 표면적인 양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착안점을 드러냈다.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와 시사점을 제대로 관독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정치를 할 줄 안다고 자처하진 말아야 한다.

첫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부 재야, 노동운동 그룹, 학생운동 그룹은 그동안 유지했던 신민당-민추(民推)와의 전술적 제휴관계를 공공연하게 끊겠음을 천명했다.

말하자면, 광의의 반정부세력 내부의 보수세력과 급진 그룹 사이에 결정적인 균열의 징후가 명백해진 것이다.

둘째로, 보수세력과의 제휴를 절단키로 한 급진 그룹은 그 주공목표(主攻目標)를 집권세력과 보수야당 세력간의 공존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깨려는데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셋째로 이들 그룹은 그 자체의 이념적-실천적 과제를, 반미(反美)-반(反)자본의 「노동자가 주인된 해방된 새세상」을 창출하려는데 두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급진 그룹들의 각종 유인물들을 보면, 이 그룹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적 목표는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신민당이나 민추(民推) 등 보수야당이 지향하는 민주화는 한낱 미국이 조작하는 기만적 보수대연합에 불과하다, 이것은 필리핀에서는 성공했으나 한국에서는 성공하도록 내버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키노 정권같은 부르주아 민주정권도 미국과 자본가들의 「앞잡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회주의적인 신민당-민추(民推)의 「집권 놀음」이나 「개헌해달라는 애원」 또는 「허구적인 직선제 개헌 청원」을 일축하고, 그대신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 자본가 X들과 그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무리들」을 축출하고 「민중정권」을 수립하겠다...』하는 것이다.

이(二)

급진 그룹들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본란(本欄)은 이미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도 부합할 수 없고 민주화운동의 효율성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극좌 모험주의임을 밝힌바 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그 성격에 관해 부연설명을 하진 않겠다.

다만 역설하고 싶은 것은, 이 그룹들의 동향이 『민주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냥 덮어두자』고 안일하게 유보해 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한 선결과제라는 사실이다. 민주화작업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체하다 보면 이러한 극좌적 오류가 언제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분파(分派)들 때문에 공연히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요소까지 싸잡혀서 피해를 입을 빌미라도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안될 수 없다.

따라서 신민당-민추(民推) 및 온건 재야 그룹들로서는 차제에 자신들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며, 그러한 입장을 절대로 「동류(同類)」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집단은 언제나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과 민추(民推) 등은 민주화운동의 필요에서 일부 급진적인 그룹들과의 모호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그룹들이 이제 와서는 신민당과 민추(民推)를 『민중의 적이 아닌가』라고 힐문하게 되었으니, 야당으로서의 자신이 과연 그들의 좌익혁명적 발상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시점에 몰려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을 선명하게 재천명하면서, 그 기준에 비추어 혁명적 급진 그룹과의 이동(異同)을 정확하게 가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사태를 보는 신민당과 민추(民推)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은 조금 불투명한데가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인천대회를 못한 이유를 오로지 최루탄 냄새에만 돌리고 있고, 급진 그룹들이 신민당 지도부의 진입로를 막다시피 한 것과 그들의 구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신민당의 이러한 태도는 사태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못될 뿐 아니라, 신민당이 왜 그런 노선을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 국민의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삼(三)

인천사태에 대해 70년대 이래의 집권세력이 절감해야할 점도 크다. 그것은 이러한 극좌적 경향이, 비록 극소수 분파의 일탈이라 할지라도, 유신독재의 후반기 이래 급속히 발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경이든 극좌든, 모든 사회현상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부정의(不正義)가 민주적인 통로를 통해 합리적-합법적으로 시정될 길이 막혔다고 보일 때, 사회의 뒷길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이단적 과격 분파가 발아함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물론, 아무리 사정이 나빠도 이런 분파의 과격성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수용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원인만은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은 혹시 치안대책이나 사법적 대응만이 그 전부인양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덜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대책은 정치의 민주화, 경제와 산업에서의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회복, 행정에서의 민의의 활발한 수렴, 그리고 언론-출판-신체의 기본적 자유권을 최대한 발양하는 환경을 이룩하는 데 있다.

급진과격에 대한 신민당의 명확한 자세표명과, 집권세력의 민주화 개방 노력이 서로 중심지대를 향해 다가섬으로써, 마침내 평화로운 공존적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대타협이 성사되기 바란다.

인천사태를 중시한다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

(『서울신문』, 1986년 5월 6일자)

지난 3일 발생한 인천소요사태는 한때 호 전국면을 맞은 듯한 우리 정국을 또다시 심각한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인천사태는 그동안 설마하면서도 경계와 우려만으로 그쳤던 좌경운동권 학생과 재야 반체제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국민앞에 집약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제 그 좌경세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인천사태를 보며 지난 80년 5월의 비극적 사태를 상기했다. 화염병과 폭력, 공권력에 대한 대담한 공격이 국민들을 섬뜩하게 했다. 인천사태는 그동안 막연한 경각심만으로 좌경화세력을 경계했던 우리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그 근본으로부터 바꾸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경고해 주었다.

예비혁명투쟁의 양상

인천사태는 우리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으려 예비적 혁명투쟁의 양상을 띠었다. 또한 운동권 중심의 좌경학생세력뿐 아니라 재야 일부 기성 좌익세력이 현재(顯在)하고 있



다는 놀랄만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들 두 세력이 연계해서 만들어낸 유인물의 내용과 구호 주장으로 미루어 이들은 이미 용공이나 좌경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복귀지지 세력들임이 분명하다. 반미·반자본주의 주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존보수세력 자체를 배격하면서 좌익혁명노선을 내세웠다. 국가민족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히 실재하는 좌익세력으로서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 이미 이념의 과제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며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국가보위의 문제이다. 마르크스 및 레닌의 혁명이론은 유럽이나 일본의 청년들에게 토론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논리 이전에 삶을 위협하는 위협한 도전임이 이미 오래전에 체험을 통해 증명됐다. 그 환상과 허구의 혁명이념이 「천만노동자 해방투쟁 만세」「인천 해방구」라는 구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인천사태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정치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민주화 염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통해 좌익노선을 추구하려는 극좌혁명세력에 의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이 인천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구호·행동에 나타난 그 과격성

인천사태를 피상적으로 보면 민주화 개헌을 요구하는 운동권 세력들의 상습적인 가두투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나타난 좌경구호와 조직적인 파괴행위, 투쟁목표 등이 보여주듯 그것은 이미 학생운동의 한계를 넘어섰고 운동권세력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수위를 극한으로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반체제세력의 좌경성향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관용을 보인 경향도 없지 않았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지적 욕구의 표출이거나 설익은 혁명이론에 대한 실험의 노력으로 치부하려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같은 관용과 안이한 관찰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점에 우리는 다같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대가 왔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학생운동은 우리사회의 특수성으로 해서 때로는 관용으로 또 때로는 발전과정의 진통으로 이해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제 크게 달라졌다.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과 극렬행동이 전체로 보면 부분적이고 극소수일지는 몰라도 바로 이들이 운동권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하다.

대체로 좌경급진세력이나 공산주의의 교조적 모험주의자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역량과 의지를 시험해볼 무대를 찾는다. 인천사태는 이들에게 그러한 시험의 무대를 제공한 결과가 된 신민당의 개헌추진위결성대회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사태는 신민당에게 좌경폭력세력으로 하여금 혁명시험의 장소를 제공해준 책임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운동권 세력의 지지와 동조가 착각이요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난동기회 제공한 신민당

신민당은 운동권세력이 자기들을 굳게 지지해줄 것이라고 착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환상이다. 해방 후의 우리 정치에서 재야반체제 세력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나 정당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존 정치세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세력을 다시 적극적으로 극복할 대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4·19학생의거로 집권하게 된 지난날의 민주당이 바로 학생들의 압력과 시위로 무기력하게 좌초한 사례가 그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난동세력들은 신민당에 대한 기존의 지지의사를 철회하고 신민당의 개헌목표를 배격했다. 신민당은 이 점을 깊이 아로새겨야 될 것이다.

어느 한 정치인이나 기존 정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명백히 노선을 달리하는 다른 세력의 폭력시위를 자제시키거나 지지세력으로 돌리기에는 무력하다는 사실도 인천사태는 일깨워준다.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를 보위하는 집권이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세력의 축적된 정치적 경륜과 책임능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때만 가능하다. 이 과정을 뛰어넘으려는 성급한 정권욕은 망상이며 허구에 불과하다. 신민당의 무모한 개헌추진이나 장외정치가 좌익혁명세력에게 또 다른 무대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법정서 「소요죄 성립」 법리 논쟁

- 「인천사태」 공판 재판장·피고 상해진단증거 싸고 설전

(『동아일보』, 1986년 8월 4일자)



5·3인천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일률적으로 증거로 제출한 경찰관 등 1백91명의 상해진단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벌어져 인천사태 공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일 낮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현경 피고인(23·여·전 서울무학여고교사·아남전기해고근로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소요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찰관 등의 상해 진단서가 나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란이 일었다.

인천사태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적용된 소요

죄의 경우 「다중이 합동으로 폭력 손괴 협박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다중」 속에 포함된 개개인은 구체적으로 「소요」라고 인식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결과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법적 견해여서 앞으로도 법정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렸던 인천사태 관련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피고인 모두에 대해 검찰측이 제출한 경찰관 등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일 공판에서는 이피고인이 재판장 김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이의를 제기, 피고인과 재판장 사이에 법정에서 뜨거운 「법리논쟁」이 오갔으며 논쟁 끝에 재판장 김부장판사는 『재판장은 야구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만 할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 제도상 어쩔 수 없다』며 방청객들이 야유하는 가운데 서둘러 이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끝냈다.

〈일문일답〉

다음은 김부장판사와 이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법리논쟁」의 요약이다.

재판장 검찰측이 제출한 경찰관 등 1백91명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서 동의하는가.

이피고인 그것이 제 행위에 대한 증거인지 아니면 인천사태에 대한 증거인지 아니면 인천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앞부분에 대동소이하게 기재된 인천사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재판장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이 상해진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즉 객관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피고인 객관적 사실 여부에 앞서 객관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인천사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판에 경찰관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에 대한 증거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다음 공판 때 증거조사절차를 속행하겠으니 피고인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

이피고인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만큼 경제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재판장은 야구심판관과 같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만을 할 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 제도

상 어쩔 수 없다.

한편 홍성우 변호사는 『소요죄가 워낙 생소한 죄여서 아직 국내에서 그에 관한 정교한 법이론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5·3인천사태」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수 석방 없이 민주화 아득 - 장기표 씨 (5·3인천사태 관련자)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2일자)



21일 오전 9시 55분께 공주교도소 정문을 나선 장기표(43·전 민통련 정책실장) 씨는 마중 나온 부인 조무하(38) 씨 등 가족과 계훈제·이부영 씨 등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추진위원회 인사들과 2년 7개월 만에 만남의 기쁨을 나눴다. 햇빛 파카에 감색 바지 차림의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장씨는 환영 나온 인사 50여 명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환영노래를 오른팔을 힘차게 뻗치며 함께 불렀다.

소감은.

→ 민주화운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하지만 같은 뜻으로 민주화를 외

치다 구속된 노동자·농민들이 못 나와 이번 석방조치는 기만적이다. 그들은 생계를 몸소 꾸리는 자들이고, 노동자·농민들은 어제 시국의 문제가 아닌가.

수형생활은.

→ 전보다는 교도소 사정이 많이 개선됐지만 비인간적 삶의 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1만 재소자의 머리 삭발, 신문구독 및 집필 불인정, 급식의 부실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행형법 개정과 재소자 처우개선 운동이 있어야 한다.

신문 등은 구독했는가.

→ 약 1개월 전부터 보았으나 기사 삭제가 많았다. 특히 교도소 내 기사나 민감한 내용은 하루 걸러 1번씩 삭제되기 일쑤였다.

앞으로 계획은.

→ 선배·동료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민족자주화, 민족해방,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해 완전한 군정종식과 민중민주운동 투쟁에 더 가열찬 노력을 하겠다.

장씨는 지난해 6월 민중투쟁으로 쟁취한 6·29선언을 선거혁명론의 환상에 얽매인 개량주의적 사고와 인사에 의해 완전한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 헌법이나 법 운용의 주체는 민중이어야 하며 그 방법론에서 민중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공주교도소에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38년간 복역하는 장기수가 있다며 이들의 석방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민족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승 씨의 석방 촉구를 위해 대전교도소에 들렀다 상경하자고 환영객들에게 즉석 제의했다.

타오르는 민족민주운동의 열기

- 5월 3일 인천 가두투쟁

(『민중화의 길』 제13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6. 05. 13)



반외세 반군사독재 투쟁의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신민당이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개헌국면은 학생들의 전방입소 거부투쟁과 김세진, 이재호군의 분신으로 그 정치적 열기가 증폭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범국민적

으로 수행된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군사독재정권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5월 3일 인천투쟁을 빌미로 삼아 학생들이 5월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망발을 내뱉으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결과 양에 있어서 80년 이후 최대의 가두 투쟁이었던 5월 3일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운동사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투쟁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은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회를 방해하였으나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하는 모든 노동자, 청년, 학생, 지식인 등은 치열한 투쟁으로 이에 대항했으며 그동안 축적된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힘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1. 민중이 새로운 변혁의 주체로서 등장하다.

5월 3일 투쟁은 미·일 외세와 군사독재정권, 기회주의적인 보수야권정치세력에 쉼기를 박는 결정적 투쟁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민주화운동은 진정으로 민중적 지지로 나타날 뿐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집단이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보수야권 정치세력은 군사독재정권과 지배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싸울 뿐이지 절대로 민중적 입장에 선 정치세력은 아니었다. 이번 5월 3일 투쟁은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과 외세의존적 성격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개헌, 더 나아가 민주화의 주체일 수 없음을 선언하고 민중이 바로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5·3투쟁을 계기로 군사독재정권과의 타협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던 신민당의 계획은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의해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이다.

2. 반외세 반군사독재 민족민주운동의 깃발을 높이 세우다.

5·3투쟁은 반외세 반군사독재를 외침으로써 군사독재 정권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미국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슬츠 국무장관은 반미적인 경향으로 투쟁이 발전하자 5·3투쟁과 같은 행위는 한국의 민주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보수야권정치세력에 대해 군사독재와의 타협을 중용하고 돌아갔다. 지난 40년 동안 혈맹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미관계라는 것은 미국의 한

국에 대한 간접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구실에 불과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판정,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통해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이미 리비아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침략행위를 똑똑히 목격했다.

5월 3일의 투쟁은 이러한 미·일 외세의 축출과 군사독재의 타도를 통한 민주민주정부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사슬에 짓눌려 온 우리 민중은 이제야말로 그 억압을 뚫고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군사독재 정권의 새로운 음모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음모에 의해 폭력과 방화가 조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복경찰을 시민이나 학생으로 가장하며 투입시켜 의도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할 구실을 만들어 내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현장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목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5·3투쟁 이후 곧바로 민정당이 신민당에게 ‘법정당시국연석회의’를 제의한 것만 보아도 이미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더욱이 군사독재정권은 학생운동을 급진, 좌경세력으로 완전 매도하면서 학생들이 ‘5월혁명’ ‘5월 봉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발언을 일삼음으로써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들이 5·3투쟁의 배후로서 민통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만 보아도 보수야권 정치세력과 재야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군사독재정권은 그동안 개헌서명운동으로 신민당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정국을 민정당이 주도하고 신민당을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바에 의해 5·3투쟁이 극렬화되도록 조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악랄한 범죄집단은 미국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군사독재정권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사독재정권은 보수야권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주적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조만간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민족운동을 지향하는 모든 노동자, 청년, 학생 등은 하나로 강철같이 뭉쳐 그들의 기만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 버릴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은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중항쟁이었다. 우리는 미·일 외세와 군사독재 권력에 의해 짓밟힌 광주항쟁의 의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5·3투쟁에서 보여준 우리 내부의 분열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기치 아래 운동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조직운동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제 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 민중회의 쟁취하자!!!”**
- 인천 5·3민중대회, 기만적 개헌술책 깨부수다

(『선봉』 제4호, 반제반파쇼 노동자투쟁위원회, 1986. 05. 13)

인천으로!! 인천으로!!

성난 파도와 같이 터져나온 반제반파쇼투쟁의 함성이 인천일대를 강타했다.

그것은 이글이글 불을 품어대는 화산이었다. 거대한 분노였다.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가 이끄는 대규모 정치투쟁이 드디어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이었다.

「헌법제정민중회의의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가 5월 3일 오후 1시 인천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열렸다.

모두 하나가 되어 외치는 『미제 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민중회의의 쟁취하자!』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고 민정당 사 무실과 경찰차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전두환 파쇼정권과 깡패경찰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기회주의 집단 신민당은 꿈꾸니를 빼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에서 개헌추진 지부결성식과 현판식을 가져온



신민당은 인천·경기지부 결성식을 4일(일요일) 시민회관에서 갖는다고 발표했다.

저 기회주의 집단 신민당의 꼴을 보라!

신민당은 지방대회 때마다 구름처럼 물러온 수십만의 민중들이 마치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인양 거들먹거리려 왔었다. 그러나 이제 인천·부천에만 50만의 노동자가 살고 있음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대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노동자들이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시간인 토요일 2시로 앞당겨 버렸다.

그러나 감히 누가 우리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가?

임금인상 요구했다고 해고되고, 감옥 갔다온 인천, 부천, 서울, 안양, 반월, 성남지역의 노동자들, 한겨울에 청소차에 강제로 실려 내팽겨진 허허벌판에 천막치고 모진 목숨 이어가며 쌓아올린 보금자리를 또 다시 빼앗긴 빈민들. 죽어라 농사지어 보아야 반죽정이란 손에 쥘 농민들. 학생, 시민들이 그동안 갈고 갈아왔던 투쟁의 칼을 꼭 움켜쥐고 인천으로 물러들었다.

불길에 휩싸인 민정당사

이날 대회는 1시 『헌법제정민중회의의 쟁취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3천여 명의 동지들이 도로로 뛰쳐나오며 『미제 축출! 파쇼타도!』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했다. 순식간에 1만명으로 늘어난 투쟁대열은 신기천쪽으로 발을 맞추어 행진했으며 선두에는 「반제반파쇼 노동자투쟁위원회」의 깃발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펄럭였다.

1시25분 민정당 인천 중·남구지구 당사 앞에서 최초의 싸움이 벌어졌다. 지구당사 안에 있던 경찰이 동지들에게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자 선두에 섰던 동지가 최루탄 파편에 맞아 손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분노한 동지들은 민정당 간판을 떼어내고 보도블럭을 던져 유리창을 모두 박살낸 후 화염병을 던지자 2층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공중전화 박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맞선 동지들은 리어카 위에 즉석 연단을 만들어 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허리를 분질러 놓고 강간 살인, 민중수탈, 핵기지화에 광분하는 미제국 주의자와 고문, 살인, 폭력, 구속으로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전두환 파쇼정권은 노

동자들의 해방의 함성이 거세게 터져 나오자 죽음의 벼랑 끝에 서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껄이며 기만적인 개헌논의로 전 민중의 반제반파쇼 투쟁열기를 무마시켜 보려는 저들의 최후의 발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신민당은 각성하라!

1시 50분 쯤 신민당 총재 이민우씨와 고문 김영삼씨가 나타났다. 이를 에워싼 동지들이 『신민당 각성하라!』 『헌법특위 결사반대!』 『이원집정제 결사반대!』를 외치며 신민당이 민중의 편에 서서 파쇼정권과 타협없이 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대형가스차가 동지들을 깔아죽일 듯이 달려오고 그를 1백여명의 경찰이 뒤따라오며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손에손에 각목과 돌을 쥔 동지들이 오히려 경찰을 포위하고 과감한 공격을 하자 모자와 곤봉도 집어던진 채 머리를 싸안고 도망치고 말았다.

밤늦도록 타오르는 투쟁!

끊없이 밀려드는 경찰들을 돌과 화염병으로 막는 동안 5시 20분 신민당은 자신들의 집회를 열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5시 45분 경찰이 미친 듯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몰려오기 시작했다.

6시 주안역 광장에서 전열을 정비한 2천여명의 동지들은 역구내와 광장을 점거하고 『미제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하자!』고 외치자 7시까지 전동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7시 10분 동인천행 전동차를 타고 제물포역으로 간 동지들이 역대합실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격투를 벌였다. 여기서 대열을 다시 갖춘 4백여 명의 동지들이 주안역 쪽으로 선로를 타고 5백m를 전진하다 7시 50분쯤 담을 넘어 도화국민학교 앞으로 나가 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봉고에 불을 붙여 교통초소에 처박아 버렸다.

또 9시부터 5백여 명의 동지들이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하였으며, 이어 용덕마루터, 화평교부근, 축현국교앞, 부천역에서도 밤이 늦도록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가자! 헌제민회 쟁취 투쟁대열로

5·3민중대회에 참석한 동지들은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속셈을 정확히 폭로했다.

또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신민당과 파쇼정권의 타협을 배후에서 조정해 온 미제국주의의 속셈도 폭로하며 전민중의 힘으로 제를 몰아낼 것에 뜻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파쇼정권에게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오직 쟁돌과 화염병, 각목, 차량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여 싸움으로써 파쇼정권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이제 방향성 없는 혼란은 모두 사라졌다. 우리의 길은 분명해졌다.

오로지 전민중의 힘에 의해, 강철같은 힘에 의해 미제를 몰아내고 파쇼정권을 깨부순 후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 헌제민회는 전 민중의 대표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민중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할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모든 민중·민주화운동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헌제민회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을!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운동연합」(가칭)의 결성을 위해 총집결할 것을!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는 헌제연 결성과 헌제민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이다.

반제반파쇼 노동자투쟁위원회 만세!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 만세!

민주화의 거센 물결 인천 강타!

- 민주화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다

(『인천의 소리』 제11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 05. 16)

5·3인천민주투쟁은 민중, 민주화운동에 획기적인 분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사회 건설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광주, 대구, 청주에서 용솨음쳐 솟아오른 군부독재에 대한 전민중의 분노가 인천에서 폭발하여 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이땅의 민중, 민주화운동세력을 진정한 민중적 정치세력으로 부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부독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인천으로! 인천으로!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중들은 앞을 가릴 수조차 없이 쏟아낸 최루탄 가스 속에서도 장장 5시간에 걸친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온몸으로 “군부독재타도, 외세배격”을 외치는 노동자, 청년, 학생, 실업자, 회사원을 비롯하여 피흘리며 쓰러진 학생을 들쳐업고 달리는 행상 아줌마, 시위행렬을 끝까지 지켜보며 빵과 음료수를 건네주고 격려하는 수많은 시민들... 이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민중들이 단결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중들이 갈망한 것은 다름 아닌 군사독재의 타도 그리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러기에 이땅의 민



중은 분연히 쫓겨나 것이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은 관제언론을 총동원하여 5·3민중투쟁을 “폭력”, “용공” 운운하며 전민중의 민주화요구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땅의 민중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폭력”이며 누가 용공인가?

경찰 스스로 폭력을 조장하였다.

5·3인천민중투쟁 당시 대회 개최시간에 1시간이나 앞서 일찍부터 모여든 1만여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자 인파는 더욱 늘어만 갔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경찰은 시위대열에 무차별하게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한편 고의로 시위대열과의 충돌을 유도하였다. 한편 시위대열에는 시민으로 가장한 경찰의 프락치가 끼어들어 시위에 앞장선 사람들 곁에서 “전투환타도!”를 함계 외쳤고 뒤에 가서는 이들을 연행하는 사복경찰로 돌변하였다. 신민당 승용차의 방화도 신민당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이들 경찰의 사주를 받은 프락치의 소행일 가능성이 짙다.

경찰은 스스로가 폭력을 유도하고 혼란을 조성하고서도 관제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를 이용해 그 책임을 민주화운동세력에 전가하여 민주화운동을 일거에 짓밟으려 획책한 것이다.

‘반미(反美)’를 용공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이땅의 민중들은 구한말 미국의 ‘가쓰라 테푸투 조약’으로 한반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0년 한국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2천여 광주 민중의 학살을 지원한 미국의 모습을 생생히 보아 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물밀 듯이 강요하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수입규제조치 그로인한 한국정부의 대량실업사태, 식민지 종속국에 시찰이나 온 듯이 개를 앞세워 장관실까지 수색하는 미국무장관 슐츠의 오만함을 보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미국에 기대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을 어떻게 칭찬하고 우리의 우방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땅의 민중들이 외쳐대는 ‘반미’는 우국충절, 민족적 자긍심에서 솟아나오는 절실한 외

침이자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장이다. 이제 미국은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지하고 한국 민중의 자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군 사독재정권이 '반미'를 단순히 "용공"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미국에 종속되어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신민당은 각성하고 민중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신민당은 민중과 군부독재는 이땅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민중을 배신하고 군부독재나 외세와 야합하여 타협적인 '보수대연합'의 기반에 옹한다면 지난날 민한당이 받은 민중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되풀이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전국의 민중은 군부독재의 철저한 타도를 외치며 일어섰다. 신민당은 각성하고 민중의 투쟁에 동참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헌신적,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

마산 10만 시민 또다시 '독재타도'를 외치며 쫓기하다

인천민중투쟁을 '폭력, 좌경' 운운하는 모략선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산 시민들이 또다시 쫓기하여 군부독재 타도를 향한 민중의 발걸음은 어떠한 세력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필연성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계엄을 방불케하는 철저한 통제를 뚫고 모여든 마산시민들의 용기와 민주화 열망은 독재와 억압이 없고 부당한 착취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여명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힘찬 전진만이 남아 있다. 휘청대는 군부독재의 종식을 위해 단결하여 나아가자.

이땅에 군부독재의 영원한 종식을!

이땅에 외세의 철저한 배격을!

이땅에 민중의 승리를!

**5월 3일,
찬연히 솟아오른 노동자 해방투쟁!**

(『노동자신문』 제15호,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1986. 05. 24)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 앞 광장, 비젯살 늘어진 사장님들과 살인마적 삼반정권이 자행하는 끈질긴 억압과 □□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한 노동자 해방투쟁이 찬연히 치솟아올랐다. 제반 단체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 만 오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저들의 노동자 배제 음모를 뚫고 서노련, 인노련을 중심으로 한 300여 명의 노동자들

이 참석하여 천만 노동자의 선언을 □□하였다. 서노련, 인노련의 깃발 □ 리어카로 만든 연단을 중심으로 천만 노동자의 요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일사분란한 대열로 행진하며, 단결되고 우렁찬 목소리로 ‘삼반정권 타도’ ‘삼민헌법 쟁취’를 외치며 이를 방해하는 폭력 경찰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주장과 제반 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결코 놀리지 않는 당당하고도 낭랑한 목소리로 일천만 노동자의 외침을 대변함으로써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을 노동자 투쟁의 대열로 끌어들이고, 가진자와 삼반정권의 착취와 억압에 피맺힌 원한으로 정당한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폭력경찰과 치열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입으로만 타도를 외치는 힘없는 단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경찰과 군중간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어느 편에 서지도 못하고 설자리를 잃어버린 신민당은 마이크로만 떠들어대다가 급기야는 개헌 집회를 취소하고 철수해버렸다.

우리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풀어놓은 2만여명의 무장한 사냥개들과 싸우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탁월한 투쟁성과 단결력을 보였다. 그 시각에도 숨막히는 작업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채 뼈빠지게 일만하는 동지들을 기다리며, 소시민들만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과 함께 외치기 위해 동료들이 합류할 때까지 청년 학생들이 다 이동하고 우리만 남더라도 끝까지 싸운다는 결의를 다졌다. 수없이 쏟아지는 적들의 무자비한 최루탄 공세, 질식할 것 같던 페퍼포그 속에서도 서노련, 인노련의 깃발 아래 모인 300여 명의 동지들은 흩어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폭력의 현장에서 저 가진자들로부터 받아오던 모진 학대와 멸시 천대는 쟁돌에 화염병에 실려 날아갔다. 적들이 집회를 깨기 위해 총공세를 취하며 밀고들어왔을 때도 우리 노동자들이 맡았던 석바위 쪽 전선은 최후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적들이 물밀 듯이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은 끝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깃발을 버리지 않았다. 총지휘부로 사용한 리어카 연단을 수북히 쌓인 돌더미 위로 끌고가면서 주안역까지 조직적으로 퇴각하였다. 민중해방의 주체가 될 천만 노동자들의 저력을 300여 동지들이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사장놈들과 독재정권, 신민당은 노동자들의 5·3집회 참여를 저지하려고 한통속이 되어 온갖 술책을 부렸다. 두 차례나 집회를 연기하고 일요일에 열리던 집회를 토요

일로 당기고 그것도 부족해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해 버렸다. 일요일도 쉬어 주지 않던 사장놈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야유회를 서둘렀고, 때아닌 잔업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장밋빛 세상을 구가해오던 저 사장놈들과 양키, 군사독재정권은 노동자들의 의지가, 노동자들의 집회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 노동자를 이 땅의 영원한 노예로 가두어 놓으려 한 저들의 음모는 박살나 버렸다. 비록 전체 지역 대중과 하나되어 싸우지는 못했지만 300여 동지들은 천만 노동자의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했고 또 우리 노동자의 입장은 신민당이나 다른 어느 집단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함성에 저 악독한 삼반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가진 자들의 언론을 통해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 선전하고 80년 5월의 그 잔인한 폭력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서노련 간부 14명을 구속하여 시위 배후조종, 극좌의 율가미를 씌워 허위 사실을 날조하려 하고 있다. 150여 명의 학생, 노동자를 구속하여 무차별 고문과 구타를 가하고 있다. 저 잔인한 5월의 폭력 그대로.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를 연행해다가 온 몸을 발가벗기고 □□□을 전기봉으로 지저버리겠다고 날뛰고 있다. 연행해간 노동자 학생중에서도 노동자에게만은 특히 극악한 고문을 해대 반주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빵처럼 부풀어 오른 시빨건 물체 이것이 바로 경찰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의 얼굴이다.

그러나 천만 노동자여 솟아오른 해방투쟁의 행진을 그만둘 수 없다. 죽이면 죽일 수록 오히려 살아나는 노동자 정신으로 해방의 그날까지 싸워 나가자.

인천주안거리 민주화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다

(『민중의 소리』 제17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 05. 24)



지난 3일 인천시 주안 4거리는 군사독재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우리민중의 자주적인 삶을 가로막는 외세를 규탄하는 학생, 노동자, 민중·민주운동가들 그리고 시민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인천으로! 인천으로!' 이 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중들은 앞을 가릴 수조차 없이 쏟아낸 최루탄가스 속에서도 장장 5시간 동안 5시간에 걸친 치열하고 치열한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민통련의 가맹단체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 주도한 범국민대회와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들이 선도한 가두투쟁은 광주학살의 원흉집단이며 나라를 외세에 예속시켜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민중의 증오와 싸움의 결의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간에 걸친 치열하고 치열한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민통련의 가맹단체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 주도한 범국민대회와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들이 선도한 가두투쟁은 광주학살의 원흉집단이며 나라를 외세에 예속시켜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민중의 증오와 싸움의 결의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5시간에 걸친 치열한 민주화투쟁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지부 결성식을 계기로 대회시작 2시간 전인 정오경부터 인천시민회관 앞으로 모여든 5만여 시민들은 민통련의 회원단체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이 주도한 범국민대회와 학생운동단체와 서울노동운동연합 및 인천지역노동운동연합(인노련) 등 노동운동단체들이 선도한 가두투쟁에 합세하여 광주학살의 원흉집단이며 나라를 외세에 예속시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현 군사독재정권을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 이날 집회는 '민중투쟁'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지로 뜨겁게 번져가는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워진 현 군사독재정권은 단말마적인 발악이라도 하는 듯 신민당의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20분경 대회장 주변에 평화적으로 운집하던 민중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 민주화 열기를 분산시키려 했다. 현정권은 또한 이날 신민당의 개헌추진 현판식이 '국렬좌경세력'들에 의해 좌절되고 '폭력현장'으로 화한 듯 위장하려고 사복경찰들을 동원 먼저 화염병을 투척하는가 하면 신민당차를 불태우고 자신들의 최루탄차를 군중 가운데로 밀어넣어 불을 붙이기도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에 더욱 분명히 현 정권의 폭력 만행성을 목도한 시민 노동자, 학생들은 함께 스크림을 짜고 주안으로 진출 시위를 벌였으며, 시민회관 앞에서는 인사연 주도의 '범국민대회'가 3만여 시민이 모인 가운데 '군사독재'와 '전경' 허수아비의 화형식이 거행되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시위대열의 일부는 주안역쪽으로 진출했으나 오후 5시 40분을 진압작전 H아워로 정한 현 정권의 하수인인 전경 및 사복 경찰들의 무차비한 폭도적 진압으로 많은 시민·노동자·학생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강제 연행되는 가운데 이날 '5·3인천민중투쟁'은 약 6시간만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을 목도한 시민들은 “현 정권의 계획적인 음모로 인해 신민당 대회가 결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쪽은 경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군사독재정권은 19일 검찰 중간 수사를 발표 ‘5·3인천민중 항쟁’이 ‘극렬문제학생, 재야단체원, 일부 불순 근로자들이 인천 도심지에서 급진 좌경 구호를 외치면서 방화·파괴·납치·폭행 등을 자행한 폭력소요사태가 사회안정을 해침은 물론 국가마저 위협했으며 이를 민민투와 민통련 및 그 가맹단체소속원 등이 ‘소요를 주동했다’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검찰발표는 허위

이에 민통련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내용이 온통 허위사실과 조작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경찰관을 납치하여 폭행한 장본인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우제구’는 민통련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단체의 회원도 아님을 밝히면서 “5·3인천민중 항쟁’을 왜곡말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금까지 신민당의 개헌현관식과 관련 민중투쟁의 앞장에 서서 시위를 주도 하다 구속되거나 수배된 민통련 관계 민주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소속·직책·관련사건)

<구속자>

- 위성삼(5·18 구속자협의회 간사, 3·30 광주)
- 위의환(가농전남연합회 이사, 3·30 광주)
- 김충환(민통련 경북지부 청년부장, 4·5대구)
- 김성오(민통련 경북지부 회원, 4·5대구)
- 남영주(민통련 경북지부 총무부장, 4·5대구)
- 김재수(충북민협 사무국장, 4·27 청주)
- 김두관(민통련 서울지부 사회부장, 4·27 청주)
- 송대현(민통련 서울지부 회원, 5·3 인천)
- 서동석(민불련 사무국장)
- 강구철(충남민청협 사무국장, 4·19 대전)
- 이준희(충남민청협 간사, 4·19 대전) 이상 11명

<수배자>

- 장기표(민통련 정책기획실장, 5·3 인천)
- 장영달(민통련 총무국장, 4·5 대구)
- 박계동(민통련 조직국장, 5·3 인천)
- 조춘구(민통련 사무차장, 5·3 인천)
- 여익구(민불련 의장, 5·3 인천)
- 안희대(민통련 서울지부 교육부장, 5·3 인천)
- 이호웅(인사연 의장, 5·3 인천)
- 이우재(인사연 집행국장, 5·3 인천)
- 홍성복(인사연 편집국장, 5·3 인천)
- 이강철(민통련 경북지부 사무국장, 4·5 대구)
- 김창중(전사협 사무처장, 3·30 광주)
- 김전승(전청련 민생위원장, 3·30 광주)
- 신영일(전청련 홍보부장, 3·30 광주)
- 정순철(전청련 사무차장, 3·30 광주) 이상 14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현상이었다. 이것은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어 왔었다.

민통련은 바로 이러한 전민중의 요구와 민주·통일운동의 당면한 과제 앞에 순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범국민대회」를 개최·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그 현장에서 제기된 민중의 요구가 이땅의 자유와 평화를 압살하고, 수천의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군사독재정권 완전한 퇴진과 민중의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정권은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국민대회」를 오후 6시 정각 최루탄을 일제히 발사하여 대응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는 무산되고 시민, 학생 192명이 체포되어 갔다. 그리고도 모자라 이 날의 집회가 용공·좌경세력의 난동이라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 선전하였으며, 문익환 의장을 비롯하여 장기표 정책실장 등 수십명의 민통련 활동가들을 체포·수배하는 민통련에 대한 대탄압을 시작하였다. 이것의 의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민주화세력을 민중으로부터 갈라놓자는 것이며, 이로써 군사독재체제를 장기화하자는 것뿐이다.

한편 4·30 청와대회담을 비롯하여 6·3청와대 단독회담으로 이어지는 현정권과 신민당과의 일련의 대타협이 착착 진행되었다. 현정권은 호헌에서 간선제 개헌으로 이제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고 형식적인 양보를 계속하면서 신민당을 장내로 끌어들었다. 문익환의장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신민당도 「헌특위」에 참가할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 바야흐로 「보수대연합」의 국면은 무르익어가고 있다. 현 정권과 미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보수연합을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진보세력에 대탄압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통련은 전국적인 민중투쟁에서 보여준 민중의 독재타도와 민족자주에의 의지를 외면한 그 어떠한 타협에도 반대할 것이다. 민통련은 현정권과 신민당의 일부가 함께하는 「보수대연합」에 결단코 반대하며, 또한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문익환 의장 및 몇몇 구속자들의 석방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에 반대하고 구속자 및 수배자들의 전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민당은 12·12 총선에서의 국민의 여망과 개헌추진 대회에서 보여준 군사독재의 완전 퇴진과 민족자주에의 열망을 끝내 외면한다면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민통련은 아무리 탄압이 가중되어도 정정 당당하게, 가해지는 탄압을 맞

받아치면서 의연히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민통련은 88년을 넘어가면서 계속될 정국의 복잡한 파고에 대비해서 내외의 객관적인 정세와 주체역량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다단계적이고 다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연대의 수준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겠다.

5.3 인천에서

(『인천주보』, 소금, 1986. 05. 11)

도에서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 오늘날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 정당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자가 누구인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불의에 눈감고 독재가 판을 치도록 침묵을 지킨 기성세대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책임의 한 부분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까지 현 정권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고 보면 모든 국민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끼리의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장님들처럼 5월 3일 학생·노동자들의 시위가 지나치다고 나무라기에 앞서, 80년 5월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시민학살의 천만부당함과 그 책임은 물어져야 한다. 또 양키고 흙의 구호에 당황하기에 앞서 멀리는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서 강요당한 불이익과, 가까이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 한 농부가 미군병사의 사격훈련과녁이 되어 죽어간 사실과 제천에서 임신 중의 여교사가 집단강간을 당하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들에서 미군병사들의 만행이 폭로되고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또 하나 인천시위 후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확대 왜곡하는 매스컴들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보다 냉정하게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5.3. 인천에서

홍분을 가라앉히고 지난 3일, 인천 시민회관 앞 신민당 개헌추진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에서 있었던 학생·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와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해보자.

그날 시위에서 나타난 학생·노동자들의 주장과 방법은 현재의 한국상황에서 수렴할 수 있는 이해와 동조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롭게 싸워온 그들의 공은 인정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과 또한 지적받아야 함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현 집권여당과 기성세대들의 의식과 태도에서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

오늘날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 정당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자가 누구인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불의에 눈감고 독재가 판을 치도록 침묵을 지킨 기성세대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책임의 한 부분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까지 현 정권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고 보면 모든 국민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끼리의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장님들처럼 5월 3일 학생·노동자들의 시위가 지나치다고 나무라기에 앞서, 80년 5월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시민학살의 천만부당함과 그 책임은 물어져야 한다. 또 양키고 흙의 구호에 당황하기에 앞서 멀리는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서 강요당한 불이익과, 가까이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 한 농부가 미군병사의 사격훈련과녁이 되어 죽어간 사실과 제천에서 임신 중의 여교사가 집단강간을 당하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들에서 미군병사들의 만행이 폭로되고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또 하나 인천시위 후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확대 왜곡하는 매스컴들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보다 냉정하게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홍분을 가라앉히고 지난 3일, 인천시민회관 앞 신민당 개헌추진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에서 있었던 학생·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와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해 보자.

그날 시위에서 나타난 학생·노동자들의 주장과 방법은 현재의 한국상황에서 수렴할 수 있는 이해와 동조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롭게 싸워온 그들의 공은 인정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과 또한 지적받아야 함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현 집권여당과 기성세대들의 의식과 태

5월 3일 주안성당

(『인천주보』, 빛, 1986. 05. 18)

인천교구 사제단이 마음을 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15일의 광주사태 6주기 추모미사에서 발표된 시국선언은, 그 행위 자체도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회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인천에서의 5월 3일 시위와 후유증으로 모두들 마음이 숙연한 때에 사제단은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인천에서의 5월 3일 시위와 후유증으로 모두들 마음이 숙연한 때에 사제단은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구절은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그것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괴리될 수 없기에 5·3 집회와 시위는 교회와 무관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참으로 적절하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한편 이에 대해 견해가 다른 신자도 있었다. 「서울 사는 신자인데 신문에 난 것처럼 성당에서 화염병을 만들어준 게 사실인가요?」하는 전화가 여기저기서 걸려왔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경위를 설명해 보자.

인천에서의 신민당 개헌추진대회와 현판식은 무성한 유언비어 속에서도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대회장인 시민회관이었으므로 바로 길옆에 위치한 주안1동성당은 누가 보더라도 대회를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마침 대회 당일이 되자 본당신부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러 외출한 뒤였고, 오전 시간부터 성당 마당에는 하나 둘 청년들이 들어와 앉아서 혹은 벽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는 더러 나이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오후 1시가 되자 자연스레 앉아있던 청년들은 무리를 지어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가방 속에서 플래카드도 꺼내어 펼쳐들고 당당히 어깨를 겨누고는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많은 시민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함께 박수를 쳐 주었다. 그러나 잠시후 네거리의 좌측 도로변에서 팡 팡 소리와 함께 최루탄 가스가 퍼져오기 시작했다. 그길 맞은편에서는 수천의 학생들이 함성과 함께 스크림을 풀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눈물은 물론이고 콧물과 재채기에 구토까지 나는 지독한 최루가스였다. 쫓기던 사람들이 성당으로 들어와 물을 찾았다. 우선은 씻고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게다가 주변 건물들에는 어디 한군데도 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어 몸을 피할 곳도, 화장실을 해결할 곳은 오직 성당 하나뿐이었다.

경찰은 마치 교회가 이날 있었던 시위의 결과에 대한 온갖 근원이자 공모자인 듯이 요란하게 떠들었다. 신문이나 TV는 덩달아 교회에 대한 묘한 호기심으로 경찰의 악성 선전을 부채질해 주었다. 이 사실을 신자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며, 고통의 원인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5월 3일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실질적 개혁없이 제2의 인천사태 막지 못해

- 「인천사태」 대검 중간 수사 발표를 보고

(『고대신문』, 시사발언대, 1986. 05. 26)



김찰은 지난 5월 19일 「5·3 인천사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인천사태는 과격학생조직인 「민민투」와 재야단체인 「민통련」 및 「서노련」「인노련」 등 4개 단체가 유인물, 플랭카드, 화염병 등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하여 소요를 선동주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들이 급진 좌경우호를 외치면서 방화·파괴·납치·폭행 등을 자행한 폭력소요사태가 사회안정을 해치는 물론 국기마저 위협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현재 149명을 구속·수사중에 있으며 도피자를 수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정부의 수사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큼지막한 사건들이 발생한 후 정부당국에서는 거의 비슷한 발언, 즉 급진 좌경이나 용공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사례가 다반사이었다. 이번 인천사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인천사태의 특징을 셋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민정당사에 투석하고 경기도경을 점거한다」는 등의 사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시위를 하면서 경찰차량 등에 대한 방화, 경찰관 납치 등 극도의 혼란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당국자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현 상황에서 어느 집단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봉쇄당해왔고 집권세력의 탄압이 계속 강화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 과격한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현정권의 타도는 물론 「신민당은 각성하라」「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신민당은 우리의 민주화 대열에 앞장설 수 있다」 등의 반체제적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 살포한 유인물을 통하여 신민당을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신민당에 의한 개헌운동을 배격하고, 소위 민중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을 모두 부정·규탄했다.

그렇다면 민중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면서도 평화적으로만 투쟁한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2·12총선에서는 민의, 즉 이전의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에 끌려가다시피한 정국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의 표출로서 지난 12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제1야당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롱당해왔던 국민들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단합된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인 신민당도 정쟁적(政爭的)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권력욕에 치우쳐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2·12총선의 민의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인물 플랭카드 구호 등에서 「인천을 해방구로」「해방인천만세」「천만 노동자 해방투쟁 승리만세」「미일의세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민중헌법 쟁취」「노동자·농민 피땀짜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는 등과 같이 북과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과 현저히 유사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점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위 민주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미의식이 강력히 나타나는데 국민들의 궁극증을 시원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점차 끓어가고 있는 광주사태에 그 일차적인 원인을 부여할 수 있다. 80년 이후 지속적인 이슈가 되어 온 광주사태에 대해,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으로 공식적으로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과 국군의 작전명령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올해들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전방 입소 거부문제와 연결되어 반미의식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가중되는 선진제국주의의 수입 개방압력으로 경제적 잉여의 유출로 인한 국내경제의 파탄으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자·농민이 위기의식을 느껴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세를 물리치자는 것은 엄연히 민족자주의식의 표현이며, 외세에 얽매이지 않고 민중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단지 냉전이테올로기적인 시각에서 용공세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주장들은 미·일의 외세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 혹은 획득하기 위해 외세에 의존하려는 정치엘리트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인천사태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신민당은 광주·대구·대전 등지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의 열기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특정정당의 정치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재야단체·노동단체 등과 같이 진정한 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부정의가 민주적인 통로를 통해 합리적·합법적으로 시정될 길이 막혔다고 보일 때 어느 상황에서든 또다른 이러한 제2의 인천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원인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사태에 대해 집권세력은 치안대책이나 사법적인 대응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진정한 대책은 국

민 모두가 열망하는 정치의 민주화, 경제와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회복, 행정적인 면에서의 눈가림식이 아닌 민의의 활발한 수렴, 그리고 언론·출판·신체의 기본적 자유권을 최대한 발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4년 11월의 민정당 중앙당점거농성사건, 85년 5월의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그리고 올해들어 전방입소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학생운동은 자체내의 재검토를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학원내의 분열조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만 학생운동의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지만 여하한 운동이든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중과 함께 호흡할 때 그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긴밀한 연대의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돼야

(『이대학보』, 사설, 1986. 05. 19)

상아탑으로 불리우던 대학이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원 내에서의 일련의 비판적 움직임들은 「학원사태」라는 부정적 반응 속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최근, 각대학의 전방입소거부와 5·3인천사태를 계기로 학원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데모-현장진압-구속이라는 예견된 도식 아래서도 학생 시위는 모든 대학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본교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회피한 채, 오히려 학원 내의 경찰상주를 고려해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돌이나 화염병 등 폭력적인 수단만이 강조되어 평화스런 학원을 어지럽힌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학원에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원인은 학생들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왜곡, 무시, 은폐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비판세력이어야 할 야당이나 교수, 언론들은 말을 해야 할 때에 가만히 있다가나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의 논리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시민이나 학생, 경찰 등 갈수록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학원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학원내부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학생, 교수, 정부의 3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생들에게는 생경한 구호의 남발이나 감정에 치우친 대자보의 내용에서 탈피, 일보 전진하여 차분하고 설득력있는 논리전개가 요구된다.

또한 교수들의 차원에서는 대학 주체임을 인식하여 학원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비본질적인 사고의 해결책이 아닌 학생과의 대화 속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원을 더 이상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학이 항상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본 모습은 떠들썩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을 부정하려들지 않고 폭넓은 수렴의 장이 마련된다면 학원문제는 「사태」라는 심각한 양상까지 보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학원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II

증언

권병기	유동우
권오광	윤인중
권순갑·안심화	윤현수
김명숙	이남희
김성복	이민우
김수영	이우재
김정택	이지호·유종순
김지선	이해미
김진국	이현경
박계동	장기표
박육남	장영달
서동석	전희식
성효숙	정동근
신순봉	정성렬
신정길	최원식
양승조	호인수
양재덕	황선진

정말 궁금해요, 다들 현장에는 왜 있었는지

권병기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사회부장



- 1959년 인천 출생
- 1978년 서울대학 의과대학 입학
- 1980년 광주유인물 사건으로 구속, 제적됨(1999년 졸업)
- 1984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가입
- 2003년 서울가정의원 개원
- 2011년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이사장

5월 2일, 새벽의 불청객

저는 시민회관에 가려고 했죠. 참석을 안 하려던 게 아니라 못 했어요. 5·3 전날 삼정동 성당에서 주안1동성당으로 물건들을 다 실어 보냈는데 나는 정보과 형사들이 얼굴을 아니까 우리 회원 한 명하고, 수녀님이 갔나? 자꾸 6월항쟁하고 헛갈려서. 하여튼 물건을 싣고 가서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삼정동에 나머지 네 명이 남게 됐죠. 그 중 한 친구가 부천에 어디 잘 곳을 마련해 왔다고 그리로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이 도대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아버지가 아프고 해서 집에 안 계셨던 거였어요. 할 수 없이 네 명이 같이 삼정동성당 근처에 있던 여관에 들어가 잤죠. 그런데 그날 여관을 다 뒤진 거예요. 나는 시치미 뚝 떼고 있으려고 했는데 칼이 한 20자루, 매직이 한 30자루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놓고 가자고 놓고 가자고’ 그랬는데 ‘아깝다고 아깝다고’ 해서 갖고 갔더니 결국 딸랑 잡혀 갔어요. 5월 3일 새벽 한두 시쯤 됐나 봐요. 우리 네 명은 5월 3일 당일엔 정작 부천경찰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참 운이 없는 경우다. 수도권 일대 재야세력, 학생, 노동자들이 ‘3일 인천으로!’를 외치며 인천시민회관으로 쇠도하던 와중에 정작 대회를 맡아 준비하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사회부장 권병기는 채동이 트기도 전인 5월 3일 새벽, 회원들과 더불어 부천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전날 밤 부천 일대에서 진행된 경찰의 예비검문 때문이다.

5월 3일 신한민주당 개헌현판식의 공식적인 개최 예정시간은 오후 2시였고, 5·3인천민주항쟁은 대개 낮 12시를 전후해 시작했다고 본다. 일자와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시위는 날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항쟁은 이미 외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5월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절인 1일, 구로공단 일대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삼민헌법 쟁취’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었다. 2일 서울대에서는 「이재호 김세진 열사 투쟁계승 및 인천민중투쟁을 위한 서울대 2만학우 총궐기대회」가 별도로 열렸다. 서울대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약칭 ‘자민투’)와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약칭 ‘민민투’)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회였다. ‘가자 가자 인천 해방구로’란 구호

가 학교 벽을 채웠다.¹ 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약칭 ‘민국련’)가 4월 29일 ‘학생들의 반미반핵해방논리 등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² 7개항에 걸친 「신민당과 민국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내놓고 ‘인천 현판식 대회에서 신민당의 공식입장으로 대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³ 당일의 검문에 대비해 학생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인천에 들어와 있었다.⁴

인천대회를 준비해야 했던 인사련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도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인쇄한 유인물을 들여오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며 하루를 보냈다. 주요 인사들은 하루 전날 인천에 속속 들어와 몸을 숨겼다.

민통련 사람들은 전부 와서 고잔동성당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호인수 신부님이 수배자들이며 해서 모두 쟁겼어요. 민통련 사람들은 거기 있었어요. 주안1동[주안1동성당] 신부님은 모르는 분이었는데 성당 지하실 쓴다고 해서 쓰게 된 거예요. 호신부님이 거의 신부직을 내놓으셨던 거죠. 시위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주안1동성당 지하에 집결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재 형[이우재] 말에 따르면 누가 그 사실을 밖으로 빼돌렸고, 인천에 있는 노동관이나 학생들이 화염병이고 뭐고 다 성당 지하에 쟁여놓았다고 그래요. 도와주는 성당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싸워야 할 일인데 그걸 한 번 말아먹고 땡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일단 여기 신부님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이곳이 다치지 않게 인사련 지도위원을 하고 있는 삼정동 이성득 신부님 성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요컨대 주안1동성당은 시위용품의 최종 집결지이고 삼정동성당은 작업장이었다는 얘기다. 권병기는 이곳에서 인사련 회원들과 함께 10여 일에 걸쳐 민통련 관련 단체들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제작한다. 마침 삼정동성당에는 인사련 사무실이 하나 마련돼

1 『동아일보』, 1986년 5월 1일자·5월 2일자; 『경향신문』, 1986년 5월 2일자.

2 『동아일보』, 1986년 4월 29일자.

3 「신민당과 민국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4 『경향신문』, 1986년 5월 5일자.

있었다. 이성득 신부는 인사련 창립 때부터 지도위원이었다.⁵ 1986년 2월 3일자로 주안3동성당 주임신부에서 삼정동성당 주임신부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⁶

삼정동성당에서 실무적 준비를 다 한 거죠. 기간은 한 일주일인가 열흘 걸렸나. 삼정동성당에 이성득 신부님이 계셨고, 거기 공간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쪽에 인사련 사무실도 하나 있고 그랬어요. 인사련 회원 한 여덟 명인가 일곱 명이 가서 플래카드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톨릭농민회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구호는 '부채탕감해라' 이런 거. 광주협의회에서는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라' 이런 거를 인천에서 다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서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래카드를 인사련이 총 제작을 한 거예요. 민통련 플래카드, 피켓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붓으로 다 썼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어찌고 했는데 그때 인사련 내에도 풍물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서○○도 인사련 풍물반을 했는데 어떻게 통해서 미대 다니는 학생 두 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플래카드를 한 30개 이상은 만들었을 거예요.

5월 3일 정오가 지난 후 집회를 막 시작하던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고 크게 쓴 플래카드 뒤로 300여 명이 10여 장의 플래카드를 받쳐 든 채 시민회관 바로 앞 도로 위에 줄을 맞춰 연좌해 있는 장면이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다.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처단하자'(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 '노동자를 짓밟는 군부독재 타도하자'(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농가부채 탕감하고 민주농정 실시하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충남민주운동협의회),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죄하라'(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민통련 강원지부), '군부독재 타도! 타도! 타도!'(민중불교운동연합) 플래카드상의 단체들은 대개 민통련 가맹단체들이다. 일부는 손에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한데 '8시간 노동쟁취,' '민중은 투쟁한다 신민당은 각성하라,' '외세 독재 물러가라,' 'KBS 편파보도 시청료 거부,' '서민 생계 보장하라,' '양심수 석방하라,' '운전자 생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적었다. 그야말로 각종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플래카

5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 1984년 12월 25일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6 『인천주보』 800호(1986. 1. 19), 천주교 인천교구.

드의 필체와 구도는 거의 유사하다. 권병기의 말대로 한 곳에서 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 속에는 유인물을 돌돌 말아 손에 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간혹 열심히 유인물을 탐독하며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잠바를 걸치거나 양복을 입거나 심지어 헬멧을 쓴 사람들까지 하얀 종이가 널린 도로 위에 뺨뺨이 몰려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억이지만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거리에는 엄청난 양의 유인물이 쏟아져 나왔다. 유인물의 양에 놀라고, 구호의 표현에 놀라고, 사람의 숫자에 놀랐다는 게 만나 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하는 얘기다. 작성자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5·3인천민주항쟁 당시 살포된 유인물에 대해 분석해 놓은 문건이 남아 있다.⁷ 모두 16건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서 제작, 인쇄, 공수했는지 모두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민통련의 경우는 을지로에서 인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확인됐다. 권병기는 인사련에서도 서울에서 유인물 작업을 했을 거라고 추정한다. 인천에서는 반정부 성향의 유인물을 인쇄할 만한 기반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마 서울에서 인쇄했을 거예요. 주로 서울 을지로에 끈을 대놓고 작업들을 했죠. 같이 징역 같 인쇄업자, 이런 걸 다 매칭시켜 놓고 진행을 했을 거예요. 가끔 을지로에서 인쇄업자들이 잡혀서 징역살고 그러기도 했어요.

시기는 잘 생각나지 않는데 옛날에 김병상 신부님이 가톨릭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찍던 때가 있었어요. 인쇄기를 돌리다가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인쇄업자에게 넘겼어요. 외주를 하게 되니까 마스터 인쇄기가 남잖아요. 그걸 모신부님이 얘기를 듣고서 "너희들 그런 거 안 필요하냐?" 그러시길래, "당연히 필요하죠." 그랬죠. "그럼 그걸 빼줄게." 그렇게 돼서 그걸 빼내서 삼정동성당 지하로 옮겼어요. 홍창만 신부님 계실 때예요. 새벽 두 시에 가톨릭회관에 들어가서 김병상 신부님이 직접 열쇠로 열어주시고 해서 그걸 트럭에 싣고 삼정동 성당 지하로 가져가서 거기서 일부 유인물을 찍었죠. 그건 5·3 이후 일 거예요. 나중에 6월항쟁 때는 삼정동으로 인쇄기를 가져 갔죠.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쇄를 받아냈던 게 동산고등학교 앞에 있던 인쇄소였어요.

7 『5·3인천 유인물 분석』

바로 그 주보를 찍었던 인쇄소였죠. 그 집이 인천 전체 주보를 찍는 집이었어요. 마스터기는 고장도 잘 나고 복잡한 과정이 많아요. 종이도 사려면 서울 가서 잘라 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보안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했죠. 내용도 '전두환을 때려잡자' 이런 건 안 됐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이런 정도는 신부님 통해서 그쪽에서 인쇄를 하기도 했죠.

‘남은 자’로 보낸 1년

여하튼 권병기는 5월 3일 새벽 무렵에 경찰에 끌려가서 5월 3일 하루를 경찰서에서 보냈다. 풀려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이미 시민회관 앞 시위는 정리돼서 동인천과 제물포 등지로 시위대의 일부가 이동할 때였다.

그 날 저녁에 다 풀어줬어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봤자 구류시킬 것도 아니고 하니깐. 경찰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성당에서 환경미화 하다 왔다. 당신들이 이러시면 곤란하다. 성당에 전화를 해 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들도 뻔히 알죠. 성당에서 환경미화 했으면 도구들 거기다 다 놓고 오지 그걸 왜 들고 돌아다니요. 끌고 갈 때부터 이 사람들 시위하려는 사람이란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5월 3일 저녁 다섯 시 반인가 풀려났어요.

상황은 끝났지만 한가하게 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다. 동인천에 있던 인사련 사무실은 5·3인천민주항쟁 구속자 가족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됐다. 인천에는 이전부터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약칭 ‘인천 구가협’)가 활동 중에 있었다. 5월 3일 당일에도 인천 구가협은 「노동운동 탄압과 대량구속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을 만큼⁸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5·3인천민주항쟁 구속자 가족들은 이와는 별도로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동’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호소문, 탄원서, 성명서 등을 통해 구속자들의 처우를 알리고 석방을 촉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인천소년교도소 내의 상황도

8 「노동운동 탄압과 대량구속을 규탄한다」

이들을 통해 외부에 전달될 수 있었다. 명칭을 달리 썼다고 해서 구속자 가족들끼리 경계를 분명히 했던 건 아니다. 대개 대학생들의 학부모이거나 노동자들의 가족이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힘을 모았을 뿐이다.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연행과 구속, 수감 과정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었던 공권력의 폭력이었다.⁹ 한 구속자의 부모는 자식을 면회한 후 탄원서를 쓰면서, “상처가 어찌냐”는 말보다 ‘너 그 상처를 하나의 증거 보존으로 남겨 놓아라’ 하는 말을 자식한테 했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라며 탄식하기도 했다.¹⁰ 대량구속자를 낸 5·3인천민주항쟁은 가족들의 ‘싸움’이기도 했다.

나와서 집에 갔더니 친구놈은 울면서 뛰어 들어오고, TV 보니까 이게 판이 보통 판이 아니야. 동인천에 인사련 사무실이 있었어요. 가톨릭회관도 거기 있었고, 5·3 다음날에는 동인천에 있는 가톨릭회관에 가 있었어요. 옛날엔 가톨릭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인사련 사무실하고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털리’ 오잖아요.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서 옆 건물 통해서 몇 명은 튀어요. 가장 가까운 게 가톨릭회관이예요. 거기 튀어 들어가면 못 잡아가요. 대개 돌아가면서 인사련 사무실을 지켰어요. 유인물 한 번 나왔다 그러면 ‘털리’ 오거든요. 그땐 사무실 지키고 있는 놈이 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속은 안 돼요. 3~4일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물 한 번 나온다 그러면 구류 살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잡으러 오면 ‘아, 그거 내가 썼어요.’ 이러는 거죠.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가톨릭회관에 가청[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청년회], 박스[PAX,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도 거기 구석탱이에 사무실이 있었죠. 그때 인사련에 수배 및 구속된 친구들도 있었고 ‘엄마’들이 거의 인사련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대응을 했죠. 인사련 사무실이 아니라 구속자협의회 사무실처럼 쓰이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속자나 수배자 문제만 집중했던 건 아니다. 5·3인천민주항쟁은 하나의 ‘사건’이었고, 인사련이 지역에서 해야 할 고유한 활동들이 있었다.

9 「진정서-5·3인천시위 구속자 잔혹 고문 및 허위조사 건」

10 「탄원서」

구속자 문제는 인사련 고유의 일이라기보다는 5·3사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뒷수습이었죠. 그건 어찌됐든 인사련 관계자 몇 명하고 구가협 몇 명하고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였지 인사련 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계속 유인물 만들어서 밤에 소위 말하는 ‘집들이’ 나간다고 해서 한 명은 눈치보고 한 명은 골목에 유인물 뿌리고서 사라지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5·3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수배를 다 때렸으니까 수배자 아니면 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개단체에 있는 간부들을 쉽게 잡아 가지는 못했어요. 공개를 했다는 거 자체가 보호막인 거예요. 공개운동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숨으면 숨을수록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공개운동은 뜨면 뜰수록 안전한 거예요. 아무나 못 잡아 가거든요.

이우재 선배나 그런 분들은 도망 다니면서 가끔 이런저런 비전을 넣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수배자는 뜬 거고 인사련 활동은 당연히 이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집회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뿌리고, 회보도 만들고 이런 걸 일상적으로 악착같이 했어요. 그런데 힘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공개단체에서 얼굴마담이 날아가 버리면 이건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권병기는 소위 ‘제2선’이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에 나가더라도 경찰에 체포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판이 클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즉 수배나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 뒤에 남아 단체 일을 맡을 사람도 미리 정해 두어야 했다. 시위 한 번 했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병기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집회에 빠질 수는 없어서 꼭 참석하고 싶었다. 앞에 서지 않으면서 토끼몰이 당하듯이 무더기로 잡혀 갈 상황만 직면하지 않으면 됐다. 권병기와 더불어 몇 명이 그런 2선의 역할을 5·3인 천민주항쟁 직전 부여받았다.

그때만 해도 인천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더군다나 그건 개헌 현판식이잖아요. 야당이 하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걸 쉽게 구속시키거나 불법적으로 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쪽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민통련 차원에서 수배자들이 생기기 시작 했어요. 그러면서 수배자들이 인천까지 코스를 따라 올라온 거죠. 당시로서는 인천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자기 신분 털어놓고 앞에서 집회를 끌어갈 수 있는 게 공개된 조직이 아니면 힘들었어요. 그걸 인사련이 커버한 거고 당연히 집행부들은 다 구속될 거를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인천 다음에 서울 현판식이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인천이 서울하고 가깝고 하니깐. 수배자들도 인천에 다 나타났죠. 어차피 수배되고 했으니 인천에 다 떠서 모두 잡혀가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인천사람들도 없어서 수백 명이 앉아 있다가 한꺼번에 전부 들러가자는 거였어요. 지도부들은 구속이 될 테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여파가 클 거라고 본 거예요.

세 명 정도는 떠서 민통련 쪽 사람들하고 같이 구속되고 남쪽에서도 그랬지만 사무실도 털어가고 회원들도 압박을 받을 테니까 나머지가 남아서 거기에 대응해 가자고 그랬어요. 어디나 다 그래요. 조직에서 싸울 때면 소위 깨질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놓고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아마 사회부장인가 했을 거예요. 김중현하고 조용호 선배하고 셋이서 남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앉아서 뭉개며 농성하다가 잡혀간다.’ 이게 기본 축이었어요. 현장에서 앞장서지 말고 모두 달려가는 데 있으면 일단 두 명은 빠지라는 거였죠. “야, 누구누구는 잡혀 갈 거 같으니까 너희들은 남아서 추슬러라. 언제 어느 선까지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조용호까지도 잡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들 지켜라.” 이런 거죠. 그때 사실은 ‘계엄이 터질까’ 하는 걱정도 했어요. 워낙 밑에서부터 크게 올라오니까. 광주에서는 자체 주장으로 20만, 30만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만큼 모을 수 없어요. 군사독재 하에서 20만, 30만이 모인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겁나는 일이죠.

권병기에 의하면 앉아서 농성하다 붙잡혀 가는 게 인사련의 기본 전술이었다는 거다. 소위 말하는 평화집회 구상이다. 그것이 주는 정치적 영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병기 자신도 ‘군사독재와 반파쇼에 대항하는 민주적 제권리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걸 5·3인 천민주항쟁의 가장 큰 목표로 보고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통해 표출하려는 생각이었다. ‘개헌 현판식을 통해 확보된 안정된 공간을 이용해서 보다 민주적인 권한을 획득하고 그걸 기반으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 기반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거다.

‘다 끌러가자!’ 이런 거죠. 평화집회로 하는 대신 도망가지 말고 어깨동무하고 있다가 끌어내면 한 놈, 두 놈씩 끌러가서 수백 명이 들어가자고 한 게 그때 기억나는 작전이었어요. 가능하면 집회를 키우려고 했죠. 사람을 모아내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보다는 깨지는 과정을 거치며 소위 정치적 역할을 키운다는 게 내가 기억하는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런 구상 속에서 제가 맡은 일이 시위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만드는 거였고 조용호 선배는 남아서 재정을 맡는 역할을 했었죠.

요구를 보여주는 건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이용했어요. 당시 플래카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농가부채 탕감하라’도 있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도 있고. 그때는 군사독재를 깨는 거였으니까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을 처단하자’ 이런 것도 나온 거죠. 그건 민통련의 기본 주장이었어요. 5·3을 위해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인사권 자체 유인물에도 나왔던 구호들이었구요. 적어도 민통련에서 나온 플래카드에는 ‘삼민헌법 쟁취하자’ 이런 건 없잖아요.

민주헌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민통련은 분명히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노동3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였구요. 농민에 대해서는 농민의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었죠. 소작제 폐지 문제 같은 건 많이 논쟁을 해왔거든요.

‘삼민헌법’도 없었지만 민통련 쪽이 내건 표현 중에 ‘직선제’ 구호도 거의 없었다. 당시는 개헌 국면이었다. 5·3인천민주항쟁에서 민통련이 선택한 구호는 ‘민주헌법’이었다. 개헌투쟁이 고조돼 가는 가운데 ‘민주헌법’은 다소 관념적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다 담겨있죠. 그때는 당면 목표가 군사독재를 꺾는 거거든요. 전두환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당 얘기는 뭐냐 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일단 선거를 치루고 나서 개헌을 하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헌법하에 가자.’는 거죠. 전두환 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내각제로 가면 내각제에서 자기가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의 당수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대통령제를 하지 않고 내각제로 갈 때 명확한 건 민정당과 신민당의 소위 보수 세력들끼리 나눠먹겠다는 얘기거든요. 밑에서 솟아오르는 요구들은 적당히 받아주면서 뭉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야죠. 그걸 깨는 수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구호죠.

5·3인천민주항쟁이 끝난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주최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도사빈민사목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개헌 투쟁에 대한 각 진영들의 입장을 점검, 정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기관지인 『민주노동』 17호, 즉 1986년 7월호에 실렸다.¹¹ 사실 상 5·3인천민주항쟁 이후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민통련이 연관된 첫 집단적 평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리된 목표는 ‘지배 권력의 약화를 초래시킬 수 있는 시황의 급소’가 ‘현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헌법 그 자체’를 없애 버리고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대중의 정치적 관심의 고양’과 ‘운동조직의 대중적 정치기반의 확대’를 단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행 헌법이 ‘비정통성, 반민중성, 비자주성의 헌법’이라는 동의에 기초해 나온 방안이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개헌 정국을 이끈 각 단체들의 입장을 ‘권력쟁탈 목적의 개헌투쟁,’ ‘헌법제정 등 이념적 투쟁,’ ‘개헌현판식을 활용한 비타협적 투쟁’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민정당의 경우 ‘호헌’에서 ‘임기내 개헌가능’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 이유를 개헌을 재집권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와 미국의 개헌 종용 압력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민통련을 포함한 사회단체들의 경우는 군사독재퇴진요구에서 시작해 민중생존권, 민족자주성보장의 입장으로 바뀌었고, 노동운동권은 일부가 삼민헌법을 구체화하여 적용시켰으나 신민당이나 다른 단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봤다. 학생운동은 개헌투쟁론과 개헌투쟁 무용론으로 구분해서 민주제 개헌투쟁, 삼민헌법투쟁, 파쇼헌법철폐투쟁으로 변화과정을 겪는 그룹이 있는 반면, 개헌투쟁을 민중과는 무관한 부르조아적 정쟁으로 보고 반제투쟁 등에 초점을 맞춘 운동으로 이끌어 오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여러 분석과 전망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민중의 주체역량과 국민 열망의 집약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 논의의 확산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과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헌법의 개정 없이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지 못할 거라고 본 것이다. 5·3인천민주항쟁이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여줬고, 결국 정권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으며 운동진영이 잠시 추진력을 잃기는 했으나 시대는 조금씩 ‘개헌’이란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 제단체들은 서서히 역량을 모아가던 중이었다.

11 『민주노동』 제17호(1986년 7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솔직하게 판 깨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건 브루조아판이니까 가서 우리 주장을 하자'는 거죠. 내부에서도 싸웠죠. 저는 인사련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출신은 지역팀이었어요. 거긴 학생조직도 있었고 공장에 들어간 애들만 4~50명 정도였어요. 학생조직을 동원할 경우에 200여 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죠. 5·3에 대해서도 '그건 브루조아판이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거나 '가서 깡판 놓고 깨버리자.'거나 아니면, '그건 너무하지. 대중에 대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오가고 그랬죠.

다시, '5월 3일'의 기억을 꺼내며

개헌현판식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게 데모를 해 왔어요. 민통련도 하고 민청련도 하고 인천에서도 수없이 학생들이 깨지면서 가투하고 공단에서 굴뚝 타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동원하는 게 몇 백 단위가 안 돼요. 반면에 야당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조직에서 개헌 현판식으로 불러 모으는 기본적인 동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수천 명은 끌어 온단 말이에요.

권병기 역시 5·3인천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개헌 현판식을 잘 활용하고 싶었다. 안정된 집회 자리였다. 우선 수천 명, 수만 명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 자리에서 민통련 소속 단체들이 마이크를 들고서 '신민당이 저쪽과 결탁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민주헌법을 요구하고 민중생존권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3권을 주장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다. 인사련이 처음 출범할 때를 생각해 봐도 그런 '판'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곤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인사련이 처음 뜰 때는 84년 11월이었고, 그때는 인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해 5월인가, 4월에 인천노협[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 났어요. 인천노협은 이어서 등장한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과는 달리, 전에

조합 운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생긴 단체죠. 인사련은 소위 학생운동 출신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애매모호한 우리 같은 소위 '지역팀'이라고 하는, 지역 자생적 서클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도 들어왔구요. 11월 14일에 창립할 때 가톨릭회관을 전경들이 완전히 2중, 3중으로 막아놓은 상태 속에서 했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민주협의회, 거기도 EYC, 개별 단체들, 학생조직들이 모여서 구성했고, 부산민주협의회도 있었고, 서울에는 서울민통련이라고 서울 지역 조직이 따로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조직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권병기는 5·3인천민주항쟁 당시 '반파쇼민주연합'이 '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해 그걸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했다고 본다. 이후에도 '전선'이 제 위치를 잡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걸 안타까워한다. 그게 '역사의 한계'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머리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 몇 가지 역사적 실천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분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상 인사련도 5·3이나 6월항쟁을 거치면서 결국은 민중신당, 소위 입당파들이 생겨서 일반 야당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었죠. 내부에서도 일정한 입장 차이는 있었던 거구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실천의 장이 다르니까 나중에 갈라져서 일부가 나가는 과정도 있었던 거죠. 그건 6월항쟁 이후에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얘기하면서 공개 정당을 할 때, 또 명확히 달라져요. 민통련은 소위 '비지'[비판적 지지] 입장이었던 거구요, 한쪽은 민중당, 즉 독자정당 쪽이었던 거죠. 민통련 입장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노태우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군사독재를 우리가 끝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거는 반파쇼 민주전선이 우리의 주전선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노동자 전선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반파쇼민주전선을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만일 제대로 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반파쇼 민주전선을 이끌 수 있는 힘과 노동자 조직이 있었다면 지금 판이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소위 노동자가 반파쇼전선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건 반파쇼 전선

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도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흡수되든, 진보정당으로 가든 그건 그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의 문제인 거죠. 도저히 이런 보수정당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반파쇼전선에서 열심히 싸웠다는 그런 정치적 영향을 갖고 그 힘으로 노동자 정당을 만들거나 했으면 훨씬 더 힘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정당이란 게 5·3 이후에 반파쇼전선하고 약간 괴리된 상태 속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니까 그 원통함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쉬움은 계속 이어진다. 5·3의 여파가 6월 항쟁까지 인천 ‘운동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5·3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5·3이후에 인천에서 자생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지역 어른들을 모아내지 못한 거예요. 연합단체의 장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1년 후에 6월항쟁이 다가오면서 인천에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못 만들었다구요. 5·3의 영향이에요. 1년 전의 5·3 사태를 생각하면 인천에 운동단체가 다 모인다고 했을 때 누가 거기서 공동대표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접촉은 다 했어요. ‘소위 난장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국민운동본부를 못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노동 쪽에서도 5·3을 거치면서 자기들끼리의 연결성도 다 깨지고 그러니까 더이상 밖으로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상황이었죠. 인천만 유일하게 공동대위였잖아요. 인사련, 가청, 산선, 뽁스 이런 팀들이 모여서 7개 단체가 할 수 없이 공동대책위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5·3인천민주항쟁을 그대로 묻을 수는 없다. 권병기는 지금은 역사로 남았지만 적어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시절로 돌아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건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과정을 통해 선택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5·3인천민주항쟁은 결국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현장에 나갔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사실 역사라는 건 그걸 되풀이해서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쯤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난 궁금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맨날 5·3때 자기는 뭐 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니까 난 할 얘기가 없어. 난 현장에 없었으니까. (웃음) 그런데 도대체 작전이 뭐였는지, 전술이 뭐였는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정치적으로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했는지, 자기 작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여 갖고 데모하고 잡혀간다고 해서 진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자의 진출이란 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역사적 흐름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한 번 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던가?’ 하고 그걸 밝혀야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적어도 당시에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어땠고, 자기가 속한 단체나 그룹이 있었다면 그런 그룹들은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었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5·3에 나갔는지,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했던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 해왔던 일이 과연 옳은 건지 어떤지, 적어도 개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평가인 거구요. 친구들 중에도 구속자들이 쪽 있어요. “도대체 넌 왜 그때 나와서 잡혀 갖고는 징역 살았냐?” 그러면, “난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왜 나갔지?” 그래요. 소위 위장취업해서 공장 다니고 있는데 선이라는 게 다 소그룹 중심이잖아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럼 도대체 역사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자기 내세우자고 되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뭔가를 볼 때 자기 시각을 분명히 하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된다구요. 사람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5·3때 그 자리에 나온 노동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학생운동 출신이야. 다 위장취업 했고, 소위 학생운동 연장해서 그 자리에 나왔고, 소위 자칭 노동운동이라고 얘기했지. 사실상 애초에 기층민중이라고 얘기하는 현장 출신들 거의 없어요.

어쨌든 5·3은 야당이 뚫어놓은 권력투쟁의 장인데 우리는 구경할 수는 없고 백성들은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의 주장을 좀 하고 싸움을 타협적인 국면으로 가지 말고 좀 전투적으로 끌고 나가자 이런 거였어요. 내 기억에는 그래요. 거기서 무슨 ‘사회주의정권을 만들자’ 이런 건 아니죠. 싸움을 할 사람들

은 깃발이 있어야 싸움을 하는 거지. 깃발 없이 무슨 싸움이 돼요. 그럼 민주헌법의 핵심이 뭐겠어요.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예요. 그게 싫으면 사회주의정권이든지, 소비에트든지, 제헌의회든지 자기의 주장을 딱 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물어봐야 돼요. 뭐였는지. 권력투쟁 국면에서 핵심인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볼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걸고 싸울 것이냐가 핵심문제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봤는지, 지금 30년 후에 봤을 때 자기는 뭘 생각했는지 난 듣고 싶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때 삼민헌법도 나오고 제헌의회도 나왔어요. 애매모호한 건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장한 권력구조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국면에서는.

‘선도투’에서 창살 아래 ‘감방투쟁’으로

권오광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부천지역
해투위 현장책



- 1958년 전라남도 광주 출생
- 1978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 1984년 부천 동양피스톤 입사
- 1985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부천지역 해투위 현장책
- 1986년 5월 8일 구속
- 2003년 파트너십 연구소 소장

대학생활과 노동야학

권오광은 인천5·3민주항쟁에 노동자로 참여했다. 이 일로 투옥 생활을 한 후 지금껏 노동단체 및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전형적인 사회운동가이다. 1958년 전남 광주 출생인 권오광은 경북 봉화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이후는 미군들이 지어 준 영세주택인 신림동 한민촌에서 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헤르만 헤세 등 문학책도 많이 읽었다고 한다.

권오광은 수도교회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교회에 모인 20여명의 대학생들이 사회과학에 대한 학습을 했으며 학내에는 '소프로스타스'라는 언더서클을 만들어 학습과 함께 노동야학을 시작했다.

78년도에 학생운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김상근 목사님이 있던 수도교회라고 있어요.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있었어요. 당시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섯 명만 모여도 바로 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학생운동 세력들은 모두 교회로 들어갔죠. 박형규 목사님의 제일교회나 문익환 목사님의 한빛교회, 우리 수도교회 등 5대 교회가 장로교회 중에서도 특히 학생운동권이 모이던 곳이었어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수도교회에 들어가서 학습을 받고 2학기부터 영등포산전에서 YH, 해태, 남양나일론 같은 3교대 작업을 하는 여성노동자들 대상으로 야학을 했어요. 그 때 동일방직 사건, YH투쟁을 지켜봤구요. 야학은 영등포산전에서 하는 야학이었는데 저는 한문을 가르쳤어요. 동학혁명이나 한국현대사에 나오는 단어를 한문으로 바꿔서 역사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도했죠.

야학을 계속하던 중에 집회에 나갔다가 잡힌 일이 있어요. 1979년이예요. 그 일로 갈등이 심했는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반강제 반자원식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82년에 제대했는데 곧바로 구로공단에서 공장생활을 했어요. 80년도에 무림, 학림 논쟁을 거치고 나서 82년 무림에는 거의 현장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봉제공장이었는데 이 때 폐결핵이 걸린 상태에서 학교 후배들이 잡혀가면서 언더서클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어요. 84년도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배를 받기도 하다가 2학기 때 다시 공장에 들어갔어요.

권오광은 대학에서는 기독교학생회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다가 1984년 이후 공장으로 들어간다. 구로공단에 있는 전기회사에 취직했지만 학술이란 게 발각돼 부천으로 내려가서 다시 동양피스톤에 입사했다. 부천에서 공장생활을 한 것을 계기로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 부천지역해투위 현장책을 맡는다.

부천에 동양피스톤이라고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 자동차부품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1년 정도 생활했어요. 당시는 '선도투'가 유행이었어요. 이게 인노련의 방침이었어요. 대중에 자리잡는 것보다는 몇 달만 공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은 거의 다 개량투쟁을 하고 있고 군사독재 아래에서 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약간 생각이 달라서 동양피스톤에 노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다가 85년 초에 해고가 됐어요. 해고 이후에 부천에 제1기 해고자투쟁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경원세기, 국제상사, 동양피스톤, 동양엘리베이터 등 다섯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죠. 당시 인노련 산하에 동인천, 주안, 부천, 부평의 4개 지부가 있었어요. 제가 부천의 해투위에 소속되어 있었구요. 거기서 투쟁하다가 인노련 '안개'로부터 5·3투쟁의 기획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요. 부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5시쯤에 끝나는데 당일 날 현장에서 어떻게 집회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기획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임해구 부평 현장책 등 4개 현장책, 해투위장, 안개그룹 등 7명 정도였어요.

인노련 현장 총책으로 맞이한 인천5·3민주항쟁

권오광은 여러 차례 공장생활을 거친 후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때는 해고자가 되어 부천 해투위에서 활동하던 때였다. 부천지역 해투위 현장책으로 다른 지부 현장 총책들과 함께 인천5·3민주항쟁을 기획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인노련은 소수의 선진활동가들이 정치투쟁을 만들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선도투' 주장도 있었고 어떤 입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쟁도 많이 벌어졌다. 학생운동권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입장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주장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인천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의 연합체인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입장이 조금은 달랐다.

86년 4월 30일에 노동자 200여 명이 부평우체국 앞에 모여서 투쟁을 하죠. '4·30투쟁'이라고 불리요. 200여 명이 경찰 500여 명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두 시간 동안 싸웠어요. 이 때 김현동이 4·30 주동으로 뜨면서 잡혀가서 임해구가 대신 5·3투쟁을 준비하게 됐어요. 4·30투쟁 이후에 세 차례 정도 모임을 했어요. '5·3대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우리 인노련 입장은 '민중생존권 쟁취와 직선제 쟁취'로 정했어요. 학생운동권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마 다른 친구들이 두 차례 정도 자민투와 민민투를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판을 깔 테니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때는 민민투와 자민투가 서로 안 좋았을 때예요. 자민투는 무조건 미제축출이 주된 구호였고 민민투는 CA, 즉 제헌의회로 정부 타도를 주요 타깃으로 정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어요. 인노련은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리어카 두 대로 무대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이 퇴근해서 현장에 합류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 주된 전술이었어요. 자민투는 인천을 해방구로 만든다고 해서 신기촌사거리에서 경찰청까지 계속 행진하면서 세를 구축해 하나의 해방구처럼 만드는 걸 모색했죠. 민민투는 주안사거리와 도화사거리로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쪽에서 역으로 이용해서 소요 폭동으로 몰아 계엄을 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었어요. 이미 판이 달아올랐던 거예요. 심지어 5·3항쟁 때는 안동대에 있는 대학생들도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인천이 한 바퀴 지방을 돌아와서 정점을 찍는 판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주된 판이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사련이 만든 판이었고, 인노련, 자민투, 민민투가 세 가지로 어우러졌던 판이라고 보면 돼요. 인사련은 민통련 산하였는데, 노동 쪽에서는 인사련을 크게 안 봤어요.

5·3민주항쟁 당시 저는 현장 쪽에서 있어서 그런지 인사련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인사련이 당시에는 힘이 강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화염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인사련과 잘 안 맞았어요. 저는 노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망가 중심의 민주주의 운동은 혁명운동에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자민투, 민민투, 노동운동을 주요 세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은 민주화운동에서는 민청련이 출범하고 천주교에서는 가톨릭노동사목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민통련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운동에 중심 고리와 주변 고리가 있는데 인사련은 주변고리로 이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권오광은 현장에서 부천에 있는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을 하였다.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날 일어났던 모습을 상대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계급성에 맞추어서 구호를 제기하되 대중적 구호로 내건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선제였던 것 같아요. 미제축출이라는 구호도 나왔지만 직선제 개헌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온 게 5·3투쟁이었어요. 재밌었던 일은 화염병을 두 가지를 제작해서 리어카를 담벼락에 세어 놓고 하려고 했었어요. 불 안 붙여도 되는 화염병을 제작해서 사거리로 진출했는데 그게 다 불발이었어요. 그런 바람에 앞에 나선 두 사람이 잡혔어요. 저는 그 때 잡히면 안 되는 역할이었어요. 계속 상황을 보다가 현장에서 결합하는 노동자들에게 오더를 때려야 했어요. 그래서 당일엔 많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날 트럭이 올라오는 것도 봤고 트럭에 최루탄 같은 것이 실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페퍼포그 차도 때리는 것을 봤어요. 인파도 많은 데 차량들이 지그재그로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많이 다쳤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뜯어 말리면서 '애들을 돌려 보내자.'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애들을 패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페퍼포그 차를 뒤로 빼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벌인 의도적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때 한 시간 반 동안 리어카로 연단을 만들어서 연설했던 것도 애들이 진격하면서 박살이 났어요. 그 전에 이미 자민투와 민민투가 빠져 나가서 사거리가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인사련 사람이나 시민들만 모여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투쟁력이 없었어요. 그 때 다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잡힌 거예요.

부천에서는 일단 해고자는 30여명이 참석했었고 현장에서는 워낙 판이 깨져서 어디로 오라고 해야 할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불가능했어요. 현장에서 저는 도망가지 않고 걸어 다녔는데 그 덕인지 잡히지 않았어요. 여성해고자 동지와 연인처럼 팔짱끼고 다녔더니 잡히지 않더라구요. 나중에 들어보니 잡혀서 들어가면 무조건 맞았다고 해요. 저는 수배 당했다가 5월 8일에 잡혔는데 사람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전경들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법에 관계없이 많이 맞았어요. 해고자 중에 한 명이 잡혀

서 저희를 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인천경찰서에 혼자 따로 끌려가서 맞았어요.

권오광은 인천5·3민주항쟁의 다양한 주장들은 83년도 이후 학생운동권의 격화된 사상투쟁에서 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다. 인노련 역시 '선도투'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대중적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저녁이 되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거점이 없어서 산발적인 모습을 보였죠. 현장 책의 힘이 많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선도투쟁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힘이 약했어요. 그때는 노조가 없었으니까. 현장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노련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선도투를 내세우면서 대중투쟁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 중의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게릴라 투쟁으로 나아가던지 했어야 해요. 기본 대중이 받쳐 주지 않는 채로 대중투쟁을 하는 건 힘들었어요. 자민투와 민민투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다 따로 가다가 뚜렷한 목적도 없이 각자 행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연대를 잘해서 시민회관 사거리를 잘 막고 있었으면 구경하던 시민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깨져서 흩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1983년부터 운동권에 사상투쟁이 벌어져요. 83년도부터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한쪽에서는 NLPDR적 성격으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성격으로 봤어요. 반봉건식민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은 사회주의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35년 코민테른의 2차 선언이 있었어요. NLPDR 중에서도 주사와 비주사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데 특히 북한의 주사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었어요. 밑바닥의 지도부는 이런 사상투쟁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합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인노련은 사상투쟁의 입장이 없었고 선도투를 통해 선진활동가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했어요. 제일 문제가 컸던 것은 자신들이 선배들이면서도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83학번부터 이루어지는 논쟁에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83학번 이전 선배들은 양심과 정의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83학번 이후에는 사회주의와 같은 사상논쟁이 크게

벌어진 거죠. 한총련도 그 맥에서 쭉 발전된 것이구요. 사상투쟁이 가장 심했던 곳이 사실 인천이었어요.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졌던 초기였기 때문에 5·3투쟁에서도 함께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창살 안에서 '민중항쟁'을 이야기하다

권오광은 인천5·3민주항쟁이 끝나고 난 후 닷새가 지난 5월 8일, 같은 회사 동료 집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교도소에는 인천5·3민주항쟁 때 구속된 학생,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있었다. 인권보호를 위한 이슈는 물론 '부천시 성고문사건'을 쟁점으로 교도소 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갔다.

제가 회사에서 노조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어요. 이때 친구한테 경찰들이 협박을 했더라구요. 그 친구 집에 갔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현장에서 정면 사진이 나온 게 없고 뒷모습만 나온 거예요. 저는 해고자라서 5·3현장에 단순 참여했을 뿐이고 화염병이나 돌은 던지지 않았다고 했죠. 맞으면서도 끝까지 주장했어요. 재밌는 건 학생운동 출신들은 대부분 사진이 찍혀서 다 실형을 받았는데 해고노동자들은 다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저는 단순가담자로 쉽게 넘어 갔어요. 경찰서에서 학익동[인천소년교도소]으로 넘겨진 후 '5사'로 가게 됐어요. 5사에는 세 명씩 수용했는데, 제가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잡혀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게 각 방마다 신호를 해서 '빵투'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제안되면서 분위가 달라지니까 10일쯤 있다가 절반 정도를 기소유예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12개 방에 나뉘어서 36명이 남아 있다가 마지막까지 20명이 남게 됐죠.

처음으로 투쟁한 것은 '부천시 성고문사건'이었어요. 여사에서 성고문 당한 걸로 싸우고 있으니 함께 하지는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전원이 단식에 들어갔죠. 우선 사동에 있는 모든 창문을 부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면회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병사를 점거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도관이 사동으로 쳐들어오면 밥그릇으로 준비했다가 똥 던지기를 했어요. 교도관이 두 번째 올 때는 훌쩍 벗고 팬티만 입고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옷, 책

들이 똥을 뒤집어썼어요.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해서 완전히 똥하고 산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큰일 났다고, 심각하다고 신부님이나 사제단에 알려면서 사회에 이슈가 되었어요. 그 투쟁 이후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운동할 때 축구도 하고 추석 때 제사도 함께 하고 술도 담가 나눠 먹고, 방 배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배치할 수 있었죠.

교도소 내에서 매일 저녁 5·3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면서 5·3의 성격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함께 논의한 내용으로 모두 진술을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지금도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5·3동지회'를 만들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모임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있던 적이 있어요. 당시 구치소가 인덕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어느 날 든 교도관이 저를 보더니 '아 5·3!' 하면서 내 얼굴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교도관은 30년 동안 교도관을 했는데 그 때가 가장 지긋지긋했다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5·3 그때는 교도소 안에서 참 투쟁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어요.

여사하고도 전담이 잘 됐어요. 중간에 교도소 소지도 많이 도와줬죠. 우리도 소지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했어요. 여사와 연계하는 것은 기름종이에 써서 소지가 전달하기도 하고, 면회를 오는 가족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해요. 엄마들도 밖에 있는 가족들도 단결이 잘 됐어요. 나랑 김창식이란 친구만 부모가 없어서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나머지 엄마들은 모두 열심히 했어요. 김창식은 지금 5·3동지회 회장이고 연락을 다 하고 있어요. 5·3동지회는 1년에 세 번 모이는데 성남에서 분신한 김윤기 열사기일과 뇌암으로 죽은 이현필 동지 기일에 묘소에서 만나고 연말에도 모이고 있어요. 10명 정도가 계속 만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놀러도 많이 갔었어요.

5개월 수감생활동안 매일 저녁 회의를 했어요. '5·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끝에 '5·3 민중항쟁'으로 결정하고 '모두진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3의 정당성과 자신의 소신을 재판 때 폭로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5·3을 광주항쟁처럼 민중항쟁이라고 생각한 거죠. 민중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한 투쟁으로 봤던 거예요. 재판 기피 신청도 하고, 변호사가 선처

받는 걸로 가지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 때 모두 선처 받는 걸로 했으면 다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5·3에서 잡힌 사람들 중 민통련이나 자민투, 민민투 지도부는 서울로 갔고 나머지는 인천으로 갔어요. 가장 큰 특징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었어요. 노동운동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주장을 별로 안 하고 결이 좋았어요. 초기부터 잘 대응했어요. 처음에 '골통'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부천시 성고문 사건'으로 연대한 거죠. 저희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이라 후배들과 잘 이야기가 되었고, 5·3은 안에서 이 싸움을 민중항쟁으로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 거죠. 출소 이후에도 같이 학습을 했어요. 김윤기란 친구가 성남에서 분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여 동지회 성격으로 됐어요.

교도소 투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 안에서 해방구를 이룬 거죠. 해고된 노동자들이 모두 다 자기 헌신적 모습을 보였고 잘 싸웠어요. 처음에 한 친구가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다 부수기도 했어요. 우리 그 때 재밌기도 했어요.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후배도 있었는데 5·3은 민중항쟁이라는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게 중요했어요. 밤중에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일반사동에 있었다면 그렇게 잘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있었으니까.

87년 인천노동자 학습사건과 이후 사회활동

권오광은 1986년에 5·3으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1987년, '인천노동자 학습사건'을 겪으며 다시 안기부에 연행됐다. 안기부에 연행되어 고통을 겪으면서도 새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하는 방식이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옥을 나온 후 현장에 다시 들어가 노동운동을 계속했어요. 노동현장이 조직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5·3의 중심된 사람들이 현장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조직에 안기부 프락치가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깨지게 되었어요. 나는 조직사건인 인천노동자 학습사건으로 묶여 들어갔어요. 안양노동자 사건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터진 시기였어요. 당시 '하라산'이란 시를 쓴 이산하 시인이 구로에 있었는데 저쪽 방송을 녹취를 해 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집에서 이걸 신고를 해서 '간첩 사건'이 된 거죠. 제가 인천학습조직에서 지도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돼서 엮이게 된 거예요. 그때가 1987년 6·29 이후, 대선 이전이었어요.

안기부에 가면 VIP방이 두 개예요. 화장실과 욕조가 따로 있고 CCTV가 있어요. 제가 그런 방에 있었어요. 애들은 심리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 경찰과 다른 점이에요. 들어가서 이틀을 진술했더니 위에서 빨간 줄을 그어서 갖고 내려오더라구요. 내 담당자가 별명이 간첩만 다룬다고 해서 '간첩'이었어요. 그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별 것도 없으니까 10여 일 있다가 VIP방에서 나왔어요. 이후에 그곳에 독일 유학생 사건도 있었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김현희 사건이었어요. 노태우가 당선된 한 이유가 김현희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을 때 높은 놈이 내려왔어요. 그 놈이 내가 모르는 학연과 인맥을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나와서 학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조직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조직사건에서 풀려 나온 뒤에는 가톨릭노동사목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노동운동을 20년 하였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합법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위원, 부천노동사목 사무국장, 희망의 나눔터 사무국장에 이어 최근에는 노동자 교육으로 파트너십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연구소는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후에는 조직생활을 정리하고 현장을 10년을 다녔어요. 큰 데를 못 들어가니까 한계는 있더라구요. 1993년에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에 교육 간사로 들어간 이후로 노동사목 활동과 천주교운동을 했어요. 천주교운동을 거의 20년 정도 했어요. 지역에서는 민중연대를 부천에 만들었어요. 부천 민중연대에서는 상임의장을 10년 정도 했구요.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사목을 통해 일반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부천지부 의장도 하고 지금은 경기도본부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일반노조전국협의회 교육기획단 위원으로 있기도 하고 민주노총 교육원 정책기획단 위원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노위 위원으로도 있고, 부천에서는 비정규근로자센터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제일 주된 것은 한국파트너십연구

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동자들 산별단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쳐 온 게 많이 있어요. 5·3 때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노동의 밑거름이 된 5·3 민주항쟁

권오광은 5·3인천민주항쟁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87년의 6월항쟁과 7·8월노동자대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5·3 이후에 인노련은 조직적 후과가 컸어요. 우선 해투위가 깨졌고 내부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울대 이과를 중심으로 '삼민'을 주장하는 그룹이 치고 나갔고 한노련이 결합해서 나갔어요. 당시에는 모든 현장 조직이 학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종의 캠퍼스 조직이죠. 이미 85년 말에 문건이 나오면서 정파적 입장에 따른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 분위기에서 5·3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3 때 다양한 정파의 혁명적 주장들이 대두하게 된 거예요. 주사그룹, 인민노회, 인민노련 등이 노동관을 만들면서 이후에는 노조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87년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5·3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87년도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모아낸 것이 이목희, 장명국 씨였어요. 이들은 한국노총 경험을 기반으로 대중조직의 운영논리와 관리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했어요. 당시에는 활동가들이 노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목희씨가 대흥기계, 한독금속, 코리아 스파이서와 같은 대기업들의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톨릭노동사목 경험이 있는 박순희나 YH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사상투쟁 논쟁이 벌어지면서 대중투쟁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 개량투쟁 지침이라는 문건이 나왔어요. 대중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나오니 활동가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문건이었어요. 이러면서 이목희씨가 알려진 거죠. 인노련에서 주장했던 선도투는 장단점이 있어요.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에 사투가 전개되는 속에서 선도투의 실천력이 있었고 이 투쟁이 1987년 민주항쟁을 끌어낸 것일 수 있어요. 그 때 경험했던 활

동가들이 이후에 87년에 주역들이 되었어요.

권오광은 인천5·3민주항쟁 이후 인노련이 선도투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대중투쟁 및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며 이에 맞는 활동들을 해 나갔다고 한다. 사회운동단체들도 인천5·3민주항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1987년 민주항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과 비교될 정도로 수도권에서 많은 세력들이 함께 한 ‘투쟁’이었고, 인천과 전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기반이 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광주민주항쟁이 규모도 크고 희생도 컸지만 5·3 민주항쟁은 지역에서 운동을 이어가는 전체 운동에 새로운 형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노동자, 시민 등 지역에 기반한 준소요 상태에 이른 투쟁으로 되었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함께 모여서 군부독재에 항쟁한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역의 힘으로 유지 발전되지 않은 점이죠. 그래도 그 이후에 인천 노동운동도 많이 바뀌었고 그 힘이 87년에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봐요. 87년에 인천에서 투쟁을 잘 했어요. 이런 점에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후 운동발전에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을지로 인쇄골목, 또 하나의 저항

권순갑

동방기획 대표

안삼화

우리인쇄 대표



권순갑

- 1955년 출생
- 1979년 'YH사건' 으로 구속
- 1985년 동방기획 개업
-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예비 검속으로 연행
- 1986년 동방기획 재개업
- 현 동방기획 대표

안삼화

- 1962년 출생
- 1983년 광진인쇄 입사
- 1984년 대동인쇄 입사
- 1985년 우리인쇄 개업
-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예비 검속으로 연행
- 1991년 다보기획 개업(현 다보기획 대표)

1986년, 을지로 인쇄골목 풍경

주로 그때는 타이핑도 아니고 원고를 손으로 써서 가져왔어요. 그걸 청타수가 청타를 쳐요. 청타가 끝나면 저희가 오려서 편집을 해요. 그림 넣을 거 넣구요. 그러고 나서 마스터 집에 가죠. (안삼화)

가리방, 등사기, 청타, 마스터, 읍셋. 간혹 용어가 시대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다. 골방에 숨어 가리방에 철필로 굽던 청년들의 시대는 청타를 쳐서 최신형 마스터기에 돌리는 청년들의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휴대용 워드프로세서를 들고 다니며 좁은 과방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던 대학생들은 골방에서 롤러의 잉크를 손에 묻히던 70년대의 대학생들과 또 다른 시대를 살았다. 5·3인천민주항쟁을 전후한 1980년대 중반, 그때는 청타와 마스터 인쇄의 시대였다.

제목 같은 큰 글씨가 있잖아요. 그건 청타로 안 돼요. 청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활자를 뽑아 치는 것인데 제일 큰 활자가 14포인트예요. 청타는 서체나 크기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목으로 쓰기가 나빠요. 그래서 큰 제목은 사식으로 했어요. 사식은 사진식사의 줄인 말인데 현미경처럼 길쭉한 카메라 아래 유리판으로 된 문자판을 두고 그 문자를 렌즈가 축소와 확대를 하면서 찍어서 인화지에 인화를 하는 거예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본문을 사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식은 비싸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청타로 본문을 만들고 큰 제목만 사식을 해서 대지에 붙여서 편집을 했어요. 사식과 청타가 그 무렵 을지로 인쇄골목 조판의 기본 골격이었어요. '청타집'과 '사식집'을 거쳐 본문과 제목을 가져 오면 사진과 그림을 함께 대지에 오려 붙이기를 하고 '마스터집'에 넘기는 거예요. 읍셋인쇄는 좀 다른 과정이구요.

마스터집으로 가게 되면, 연분홍색 감광용액이 도포되어 있는 두꺼운 종이판이 있어요. 그걸 감광지라고 하는데 감광지에 원고를 복사하듯이 전사를 해요. 이 과정을 '마스터 제판'이라고 하는데 제판기가 딱 복사기처럼 생겼어요. 복사하듯이 판을 만들고 용액을 묻혀서 잉크가 묻어야 할 자리와 묻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해 주면 판이 완성되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판을 인쇄 기계에 동그랗게 말아서 기계를 돌리면 잉크가 묻으면서 종이에 인쇄가 되는 거죠. 이게 마스터 방식이에요.

읍셋 방식은 원고를 촬영해서 필름을 만들어요. 그 필름을 아연판에 붙이고 다

시 빛을 쬐어 전사를 하고 용액을 묻혀 잉크가 묻을 자리와 묻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해 주는데 이 과정을 '소부'라고 해요. 필름을 만들고 소부하는 과정을 '읍셋 제판'이라고 해요. 그렇게 제판된 아연판을 기계에 말아 잉크를 묻혀 나오는 게 '읍셋 인쇄' 방식이에요. 마스터와 읍셋은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요. 마스터로 찍은 건 굉장히 거칠어서 점이 '빠박빠박' 나타나게 되고 읍셋은 확대경으로 들여다봐야 점이 보일 정도로 결이 곱죠. (안삼화)

인쇄는 기술이다. 한편으로는 사업이고 혹은, '운동'이다. 5·3인천민주항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물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유인물이다. 눈처럼 쏟아지는 최루탄 가루 아래 시위대의 잔해처럼 종이들이 쌓였다. 당시 유인물은 마이너 언론이었다. 신문이나 방송이 들려주지 않는 얘기를 이 안에서 찾아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86년 4월 30일 발행된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기관지『인천의 소리』 제10호는 '민주화의 대열에 함께 나아가자!'를 메인타이틀로 뽑았다. 1면은 3월 30일 광주에서 개최된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결성대회 당시 금남로를 가득 채운 군중들의 사진으로 반을 채웠다. 이에 반해 광주대회를 알리는 한 일간지 기사의 부제는 '방화배후 색출'이었다. '광주직할시 승격기념아치'를 불태우는 시위대의 사진이 함께 붙었고, 선동을 통한 '군중정치', '거리의 정치'는 불행을 자초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덧씌웠다.¹

유인물은 배달이 생명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달'되지 못하면 소용없다. 소위 '운동권'들이 야음을 틈타 골목을 누비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른바 '피세일'에 나섰던 건 잠을 쫓으면서도 알려야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라도 그 이야기를 전해야 했다. 박영근 시인의「그 방」에서 당시의 광경을 엿볼 수 있다.

그 방 용접불꽃에 먹혀 뜨거운 모래알이 구르는,
별정계 달아오른 쇳조각 같은 눈으로
문건을 읽었다 이 빠진 받침들과
시커멓게 뭉개진 활자들은 바로 세우고
읽고 나선 서둘러 아궁이 불에 태우던
한밤중, 어둠속으로 피세일을 나갔다 달빛은

1 『경향신문』 1986년 3월 31일자.

골목 어귀에 소식지 위에 날을 세우며 떨고
보안등 불빛에 쫓기며 한 바퀴, 또 한 바퀴……돌아와
새벽 시장 봉지김치에 라면밥 말아 먹던, 방
(박영근, 「그 방」, 부분)

안삼화는 1980년대 초 을지로 인쇄골목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며 ‘인쇄혁명’을 꿈꿨다. 대학에서는 출판을 전공했다. 선전운동의 역할로서 인쇄운동을 주목했지만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생각하고는 달랐다. 무엇보다 인쇄소 사람들의 복지 문제나 권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나중에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조를 만든다느니, 연합을 만든다느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감도 느꼈다. 선전을 하는 것과 인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 현장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으나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운동권의 인쇄물을 만들어 주는 일이 그만큼 급박한 시절이었다. 당장 찍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인쇄물을 만들 곳이 없었다.

‘우리기획’이란 간판을 걸기도 했지만 정식 명칭은 우리인쇄예요. 그때는 기획이란 말을 싫어했어요. 본질과 다르게 사용된다고 생각했죠. 당시 저는 인쇄운동을 꿈꾸고 있을 때였거든요.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선전운동의 핵심은 인쇄라고 봤고 운동의 매개로서 인쇄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었죠. ‘이 골목 안에서 인쇄소 사람들끼리 뭘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운동 영역이든 인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선전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인쇄운동이란 건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운동 안에서 인쇄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인쇄촌락 안에서 운동을 갖는 게 있죠. 본래 저는 양쪽 입장을 다 갖고 있었어요. 83년도에 제가 처음 입사한 곳이 광진인쇄라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현장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때였어요. 인쇄소 기사들, 청타수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 내고 함께 일하는 걸 지향했었죠. 그런데 그걸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운동권 일이 너무 시급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인쇄를 해 주지 않으면 선전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안삼화)

집회나 시위를 할 때도 각각의 구역이나 역할이 있듯이 운동권 인쇄물을 만드는 일도

어느 한군데에서 허점이 생기면 일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일들과는 달리 잠깐의 방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청타수도 제본사도 배달원도 이심전심으로 자기 역할을 문제없이 완수해줘야 했다. 특히 완성된 물건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배달원은 항상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했다. 형사들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배달원은 지업사 소속이 많아요. 요즘처럼 프리랜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업사에서 종이를 인쇄소에 갔다 줘야 인쇄를 하니까 주로 지업사에 속해 있었던 거죠. 배달원 계산은 고정 거래이면서 많이 쓸 경우에는 종이값에 포함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월 결제로 지업사에 주기도 하고 배달원에게 주기도 하는데 운동권 인쇄물은 인쇄가 끝난 다음에 그걸 어디론가 보내줘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조건 회당 결제를 했어요. 지업사에 속한 배달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개별 거래의 경우 지업사에서 주는 돈보다 비싸게 줘요. (안삼화)

그러니까 지업사에 주는 배달비는 아직 인쇄를 하지 않은 종이를 갖다 주는 배달비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배달비죠. 그 시절에는 배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배달하면서 사고도 많아요. 인쇄소에서 물건을 싣고 가다가 형사가 보고 있다가 잡아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러면 뺏겨요. 그러니 배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배달을 하겠어요. 다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 배달물 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더 받고, 우리가 더 주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조금 연세가 드신 배달부가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집 일을 많이 했는데 물건을 싣고 가다 형사한테 걸린 거예요. 걸렸으니까 누구 건지 나와야 하잖아요. 누가 시켰으니까 갖다 주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난 길에서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져다주라고 해서 가져다주는데 누가 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자리에서 돈 받고 이거 싣고 왔다.’ 그렇게 해서 안 걸린 일도 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나가는 물건은 배달을 시켜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때는 안기부였어요. 안기부 담당이 배달 직원을 꼬드겨서 ‘애네 집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을 납품하기 전에 자기한테 한 부씩 줘라. 그럼 20만원을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배달 직원이 한 부씩 빼서 갔다 왔

던 거죠. 이상하게 일하는 걸 경찰서에서 먼저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배달 직원을 불러서 다그치니까 얘기를 하더라구요. 5·3 이전의 일이에요.

그 전에는 안기부하고 시경하고 중부서하고 이 셋이서 경합이 붙었어요. 이 지역이 중부잖아요. 유인물이 하나 나오면 이걸 어디서 먼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중부서에서 먼저 발견을 못하고 안기부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역으로 돌아오면 중부서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자기들한테 먼저 보여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기도 했어요. (권순갑)

수사관들은 인쇄소 담당이 있어요. 동방 담당, 한신 담당, 대동 담당,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더 잘 알아요. 가끔 사무실도 들르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담당은 능글능글했어요. 비오면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비오는데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그러기도 하고. (웃음) (안삼화)

5월 2일, 계단을 치는 발자국 소리

5·3인천민주항쟁을 앞두고 의뢰받은 물건들은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납품이 끝났다. 어디로 향하는지 권순갑과 안삼화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물건을 차에 실어주면 할 일을 다한 거였다.

5·3사태 때 유인물이라고 하면 청계피복, 서울대, 뭐 온갖 데서 다 나왔어요. 모두 한꺼번에 나와서 인천으로 내려갔죠. 민통련이나 민청련이나 이런 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인천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인천 것도 해서 보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저는 5월 2일 저녁에 실어 보냈어요. 그쪽에서 차가 왔어요. 차가 어디로 올 거다. 나는 물건을 어디에 내어 놓는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차에 실어 주는 걸로 끝나요. (권순갑)

5·3에 쓰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상 잡혀 들어가니까 마치 제가 다 찍은 것처럼 뒤집어씌우려고 하더라구요.

5월 2일은 어디서 들어온 정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잡새’들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도바리’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별로 한 게 없으니 그냥 있기로 한 거죠. (안삼화)

권순갑과 안삼화는 납품을 끝내고 난 직후인 5월 2일 저녁, 낯선 남자들에 붙잡혀 어딘가로 끌려갔다. 보안사였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다. 지금은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5·3인천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날, 예비검속에 걸린 것이다.

5월 2일 저녁에 애네 사무실에 있다가 몽땅 다 달려갔어요, 보안대로. (권순갑)

그 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5월 2일 아침에 석사논문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 석사논문 교정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덕성여대 총학생회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 애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손정진이라고 대동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가 있었죠. 낮 두 시나 세 시쯤 돼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사무실에 쭈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무실이 복덕방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둘러 보더라구요. 저는 사무실 내용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진이 형이 그 사람들 가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잡새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을 했죠. 정진이 형하고 나하고 내려와서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행동하면서 인현동에 있는 인쇄골목을 괜히 막 다녔어요. 이 인쇄소에도 들어가 보고 저 인쇄소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을 보호한다고 연기를 좀 했죠.

그렇게 조심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퇴근했어요. 덕성여대 총학생회 친구하고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먼저 나갔어요. 그때 사무실에는 임병주하고 이선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갑언니하고 정진이형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죠. 언니는 올라오는 중이었고 저희는 나가던 중이었고.

길에서 나오는 곳에 곰손 칼국수라고 있어요. 오성볼링장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남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소방서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스카라극장 밑으로 해서 명보극장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곰손 칼국수가 있어요. 거기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떡대 같은 남자 둘이 와서 제 팔짱을 딱 끼더라구요. 그래서 순간 뿌리치고 곰손칼국수로 제가 뛰어 들어갔어요. “사람살

려 주세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 밑에 숨는데 남자들이 따라 들어오더니 “재 간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다가 전부 다 조용히 앉더라고요. 거기서 잡혀서 대각선 방향 맞은 편 주차장으로 갔어요. 공터 같은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앰블런스가 있더라고요. 저하고 덕성여대 총학생회 친구하고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저만 칼국수 집으로 들어가고 애네들은 이미 길에서 잡혔죠. 앰블런스에 타고 보니까 아침부터 석사논문 교정 보러 온 손님 포함해서 우리 사무실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한 여섯 명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앰블런스가 주차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얘기죠. 붙잡힌 날 건물 복도에서 순잡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언니가 잡혀 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듣고 ‘아, 언니도 잡혀왔구나. 그럼, 우리만 잡힌 게 아니라 을지로 전체가 털린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안삼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애네 사무실에 올라갔죠. 그리고 저녁을 시켰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저녁이 한동안 안 오다가 한참 지나서야 밥이 왔길래 테이블에 딱 펴놓고 한 입 물었더니 계단에서 ‘타타타탁’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실이 오래된 건물에 있었는데 나무 계단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였죠. 그러더니 문을 탁 차더라고요. 임병주하고 이선영 모두 해서 네 명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네 명이 잡혔어요. 임병주가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때리더라고요. 사무실이 이수라장이 됐죠. ‘왜 때리냐!’고 악을 썼더니 두 명씩 옆에 붙어서 끌고 내려갔어요. 차에 가니까 재네들이 먼저 잡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임병주는 우리가 탄 차에 태우지 않고 앞에 있던 까만 세단에 태웠어요. (권순갑)

앰블런스에 태워 연행하는 광경이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그 무렵에는 보안사에서 사람들을 연행할 때 환자를 수송하는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이용하던 방법이라고 한다.² 권순갑과 안삼화는 서로 다른 차로 나눠 탄 채 한참을 이동해 ‘전부 군복을 입은’ 사람들만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나중에 풀려나와 보니 ‘송파’였다.

2 김영일, 『강은기 평전』, 자유문고, 2014, 263쪽.

아무튼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니까 무슨 비포장 같은 데로 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테니스장도 있었어요. 내리니까 사방이 컴컴하고 마당이 있고 회색 시멘트 건물이 1층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개가 죽어라 하고 짖어대는 거예요. 세퍼드가. 수갑이나 이런 건 채우지 않았지만 저쪽 애들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거나 하면 뭐라고 그랬죠. 산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었어요. (권순갑)

보안사, 남영동, 검은 벽돌

권순갑은 그곳에서 일주일 가량을 보냈다. 안삼화도 5~6일 정도가 지났다고 느꼈을 뿐 명확한 기억을 잃었다. 당시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다. 앰블런스를 타고 간 탓에 처음엔 병원에 온 줄로 착각하기도 했으나 붙잡혀 온 당일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조사는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그 날 밤에 왜 별일이 없었냐 하면, 5월 2일에 우릴 다 실어갔잖아요. 데리고 가서 한 방, 한 방에다 하나씩 넣어 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청계피복[청계피복노동조합], 서울대,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룻밤 시간을 번 거죠. (권순갑)

5월 3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다닥 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신문지 뭉치를 제 머리 위로 막 던지면서 “이거 봐, 니들이 만든 물건들이 이렇게 다 피바다를 만들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잡혀왔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전까지는 여기 왜 붙들려 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안삼화)

‘피’바다. 인천에 유인물이 대량으로 뿌려졌다는 얘기가. 권순갑, 안삼화, 둘은 보안사로 연행됐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물건을 다 실어 보낸 후 붙잡혔기 때문에 인쇄물은 현장

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었다. 조사는 '5·3'에 집중됐다. 단순히 '불법 유인물'을 찍은 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둘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5·3사태의 유인물을 찾기 위해서 잡은 거죠. 조사를 할 때도 5·3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찍었는지는 별로 안 따져요. 어떤 걸 찍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인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인쇄를 정말 돈을 벌려고 했냐? 너희 색깔도 빨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물건이 왔냐?'라는 거 하구요. 그러면 '난 모른다. 누가 갖고 오면 인쇄 해주고 그랬다. 난 먹고 살려고 했다.' 그랬어요. 난 그걸로 밀어 붙였어요. 먹고 살려고 했다는 걸로. '그 많은 원고를 우리가 어떻게 읽나. 읽어 본 적 없고 해 달라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그랬죠. (권순갑)

저도 마찬가지로였어요. '누가 의뢰를 했냐? 몇 부 찍었냐? 얼마 받았냐?' 이런 거였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요만한 장부가 있었거든요. 장부를 개네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온갖 장부를 다 가져와서 '이건 뭐냐? 요건 뭐냐?' 심지어는 합산을 해보고 '합산이 틀리지 않냐?' 370원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너는 산수도 못하냐?'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웃음)

5·3과 관련된 유인물은 남은 게 없었어요. 저는 5월 1일에 다 끝냈어요. 그때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죠. (안삼화)

애네 사무실을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뭘 가져갔냐 하면, 청타라고 있잖아요. 그게 테이프가 감기면서 글씨가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테이프를 가져간 거예요. 테이프가 얇은 까만 테이프예요. '똑딱' 치면 한 자가 테이프에 감겨요. 내용이 다 거기 있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인쇄소에 다 남아 있어요. 그걸 보면 뭘 찍었는지 알죠. (권순갑)

권순갑은 요령 있게 조사과정을 겪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행된 경험이 있었다. 운도 따랐다. 담당 조사관이 다행히 어수룩한 사람이었다. 권순갑은 YH무역노조 부지부장 출신이다. 권력의 생리도 얼마간은 겪어 봤다. 노조 활동 시절 YH무역 여성노동자 170여 명이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한

일이 있다.³ 일명 'YH사건'이다. 해산 과정에서 상집위원 김경숙이 사망했다. 권순갑은 이 사건으로 수배를 받았다. 이후 우연히 을지로에 자리를 잡고 인쇄노동자로 살아가게 됐지만 권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끝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인쇄소 한다는 애길 하지 않고 을지로에 영지 버섯인가 하는 사무실 경리라고 그랬어요. 하룻밤 하루 낮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관악』이라고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만드는 무크지가 있었는데 내용이 진짜 강했어요. 그걸 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편집팀이 싹 다 잡혀 오는 거예요. 내 방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이었어요. 누가 잡혀 오는지 다 볼 수 있었죠. 제가 청계피복 노동조합 일을 했었거든요. 청계피복 당시 지부장이 또 잡혀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서노련도 잡혀 와요. 나는 앉아서 속으로 '최하 5년이다.' 이려고 있었죠. (웃음)

서울대 애들을 두 명 데리고 을지로로 나를 찾으러 나가더라고요. 캄캄해질 때까지 안 들어오더니 형사가 씩씩대면서 들어와요. 이튿날 나라는 게 결국 밝혀졌어요. 나는 징역 '복'이 없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웃음) 대질심문을 받으러 내려가니까 문을 여는데, 서울대 편집장 하던 애가 군대에 갔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새카마니까 못 알아 보겠더라고요. 방도 우리방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욕조가 있고 침대가 서 있는데 다 젖어 있었어요. 애도 옷이 다 젖어 있고. 진짜 몰라 보겠더라고요. "애 알지?" 이러길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애는 이미 나라는 게 밝혀졌고 나는 잡혀 왔으니까 내가 고생할까봐 "사장님 우리가 다 얘기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바른대로 얘기하시고 나가세요." 이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평평 울었죠. 그러면서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한 일이니까 사장님은 빨리 얘기하고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또 다른 방을 가니까 일하던 애들 둘이서 앉아 있는데, 축다마 있잖아요. 방은 새카만데 그 밑에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나를 찾으러 다녔던 애들인데 하루종일 을지로 골목을 헤매다가 못 찾겠다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우리 사무실에서는 내가 잡혀간지도 모르고 그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유인물을 찍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3 『경향신문』, 1979년 8월 11일자.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골목골목이 엄청났거든요. 거기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냥 들어온 거죠. 못 찾는다고. 근데 개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얘기했으니까 사장님 고생하지 말고 나가세요. 얘기 다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잡혀왔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 것들이, 아이고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러네. 평평 울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형사가 한 명 오더니 “너가 권순갑이야?” 이러길래, “네.” 그랬더니 자기들도 너무 허탈한 거죠. 나를 잡아다 놓고 잡으려고 돌아다녔으니까. “여기다 잡아다 놓고 참 하루종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멍청한 거지,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다 봤잖아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담당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따라서 나오고 못나오고 하는 게 달려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나이 좀 드신 분이었어요. 전라도 분이었는데 들어오더니 “시작해볼까?” 그러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았더니 수첩부터 보자고 해요. 내가 들어갔던 방 화장실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화장실이었어요. 전날 저녁에 수첩을 찢어서 다 찢어 넘겼거든요. 연락처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수첩을 췌더니 “이년 봐라.” 이러더라고요. “난 원래 수첩에 안 적어요. 난 원래 기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당신들 계속 지켜보지 않았었냐. 내가 된 짓을 할 수 있었잖냐.”고 했죠.

그때 나보다 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오니까, 조사하던 사람이 부장이었나 봐요. 전경이 오더니 “부장님, 빨리 저쪽 방으로 오시래요.”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나갔어요. 이튿날에는 경상도 사람이 들어왔어요.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뒤에 거는 안 보고, 내가 영지버섯 경리라고 적어 놓은 것만 읽고는, “영지버섯 경린데 여긴 왜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웃음)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물건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서는 자술서를 쓰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종일 기다려도 자술서 쓰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앞에서 지키는 애들한테 담당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불러주더라고요. 나 자술서 안 쓰게 하나요 그랬더니 “아직 안 썼어? 좀 기다려 봐.” 하면서 가더니 연필하고 종이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썼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었을 거예요. 나를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나왔어요. 마당에 나왔는데 세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따라 나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안 찾아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주민등록 다시 만들게요.” 이랬더니 “내가 한 번 놀러갈게.” 그

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랬죠.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올 거 같더라고요. 세단을 타고 나왔는데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중간에 머리를 드니까 “차 돌립니다.”라면서 접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 준 데가 아파트가 엄청 많았던 데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잠실이었죠. 아, 그리고 택시비를 3천 원 주더라고요.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순갑)

안삼화도 얼마 후 풀려났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일을 겪었다. 이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이곳은 이듬해인 1987년 1월 15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당하다 사망한 곳이다. 앞서 1985년 9월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 초대 의장 김근태가 역시 이 건물에 끌려와 고문을 당했다. 김근태는 평생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1년 사망한다. ‘인간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⁴ 남영동 대공분실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다. 즐겨 쓰던 붉은 벽돌 대신 검은색 벽돌로 옷을 입혔다. 김수근은 1986년 6월 14일, 간암으로 사망한다.⁵ 검은색으로 뒤덮인 대공분실 안에서 안삼화는 또 한번 힘든 조사 과정을 겪는다.

제가 보안사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임병주가 상도동 계열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인쇄소 자금이 상도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기획사를 차렸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주로 민통련의 하부 조직이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아니라고 판명이 됐는지 다음은 윤여연 씨였어요. “윤여연은 어딴냐?” 이러면서 사람을 뒤달을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거기선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5일? 6일? 정도 지난 거 같아요.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쓸 거 다 쓰고,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맞을 거 맞고, 밑에서 나는 모든 비명 소리 다 듣고 이런 과정을 전부 거치고 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디서 내려줘서 집으로 갔어요. 며칠 지난 후에 사무실에 나갔더니 판자때기까지 완전히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실대 80학번 중에 윤성환이라고 있어요. 전단을 해 갔었죠. 성환이 형이 송치돼야 하는데 너가 증인을 서주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4 『한겨레신문』, 2012년 11월 7일자.

5 강병국, 『김수근 선생의 인생과 예술』, 『건축사』 208, 대한건축사협회, 1986.

증인을 서주기 위해 을지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증인을 서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잡혀가는 거였더라구요. 그때 또 잡혀서 그 보안사로 다시 갔죠. 나와서 3~4일 후에 다시 잡혀 간 거예요. 저는 보안사에 가서도 증명만 해 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잠깐 앉아 있었더니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세단이 한 대 있었어요. 거기 탔더니 세진의 강은기 사장님이 같이 타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또 잘못됐구나.’ 하고 느꼈죠. 그때 강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삼화야,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한참 가다가 내려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남영동대공분실인지도 몰랐어요. 눈 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아무튼 방문 앞에 섰을 때 들은 말이 “안삼화 축하한다. 김근태가 있었던 방이다.” 이랬어요. 아, 그때의 절망감이란... 그제서야 눈치를 챘던 거예요. 거기서 또 며칠 있었죠.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말 그대로 패닉상태였죠. 그 사람들이 कै려고 했던 거는 단순히 운동권 인쇄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인쇄물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나와서야 봤네요. ‘가야호텔’이라는 간판을... (안삼화)

을지로 인쇄골목과 인천

상황이 끝난 후 을지로 인쇄골목에 소문이 돌았다. 저 인쇄소 사장은 간첩이라고 수군대기도 했고, 그동안 거래해 왔던 곳에서도 발길을 끊었다. 노출된 곳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소위 ‘찍힌’ 인쇄소가 됐다. 권순갑과 안삼화의 경우만 그랬던 건 아니다. 을지로에 있던 정화인쇄소도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다.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에서 발행하는 『서노련신문』과 『노동자신문』을 찍던 인쇄소다.⁶ 1986년 5월 3일 『노동자신문』을 찾으러 정화인쇄소를 방문한 서노련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수사관에 검거되며 서노련 조직원들이 연이어 붙잡혔다.⁷ 정화인쇄소도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5·3인 천민주항쟁을 전후해 을지로 인쇄골목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가 1년

6 『중앙일보』, 1986년 6월 3일자.

7 유시춘, 『김문수-유시민, 1986년 그들은 한몸이었다』, 오마이뉴스.

가량 지속됐다.

보안사 나와서 드는 느낌이, 애네들 분명히 다시 나를 잡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면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문 잠그고 일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네 군데에서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부서, 시경, 보안사, 안기부. 다시 소환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실에서는 불펜 한 자루 못 건졌어요. 바로 ‘도바리’를 해 버렸으니까. 애들은 출근을 안 하고, 우리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왔는데 우리 사무실이 계단을 올라가면 사무실이 쪽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거였어요. 우리 청타 치던 애하고 친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우리 청타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어요. 형사들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남산 가서 고생을 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도망 다녔구요. 다음해 1월에 다시 인쇄소 문을 열었어요. 그 정도 지나가니까 잠잠해지더라구요. (권순갑)

우리인쇄도 문 닫았어요. 5·3 이후 장사를 못했어요. 온 동네방네 간첩이라고 소문이 나서 개미새끼 한 마리 우리 사무실에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린 평범한 일거리가 있었어요. 학교와 종교쪽의 일이었는데 그 마저 끊겨 버렸어요. 제가 잡혀가 있는 동안 제작중이던 일을 납품을 못해서 손님이 저희 사무실 근처 인쇄소를 무작정 돌아다니며 겨우 인쇄물을 찾아 가기도 했으니 누가 우리에게 일을 주겠어요. 허구한 날 사무실에 나와서는 앉아서 만화책이나 빌려다가 읽고 그랬어요. 만화책을 빌리러 가도 만화가게 아저씨까지 저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죠. 저는 진짜 그 시절에 패가망신했어요. 86년 5월부터 5년 정도 아주 긴 방황을 하다가 91년도에 기획사를 다시 열어 정착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거예요. (안삼화)

권순갑은 1984년, 을지로에 처음 취직을 했다. 안삼화도 대동에서 만났다. 윤여연이 하던 대동인쇄였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실업자로 놓고 있을 때 지인이 ‘알바나 하라’고 소개해 준 곳이다. 세 평짜리 인쇄소에 작은 창문만 하나 있던 사무실이 었다. 여름이면 숨이 턱턱 막혔다. 그때는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이 영세했다. 얼마 안 있

어 윤여연이 수배를 당해 을지로를 뜨자 값을 치루고 대동인쇄를 인수했다. 곧바로 동방 기획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것이 지금까지 을지로에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됐다. 권순갑은 정이 없으면 인쇄를 하며 먹고 살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인쇄라는 업무 자체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었다.

인쇄소 사람들이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이 골목에 남았던 이 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기계를 하나 갖는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기술을 배워 한푼 두푼 모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못 배우고 고생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기계를 한 대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인쇄소가 없어요. 원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디자이너랑 편집하는 애들 데리고 편집을 해요. 이게 옛날에는 제판 집으로 넘어갔어요. ‘제판집’에서 다시 인쇄소로 가요. 인쇄소에는 종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또 ‘종이집’이 먹고 살아요. 인쇄가 나오면 ‘제본’집이 먹고 살구요. 또 배달이 있구요. 이런 구조예요, 인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 끈끈한 정이 없으면 힘든 일이에요. (권순갑)

지금은 제본도 다 기계로 뽑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하던 시절이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공정을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쇄소들이 생겨났다. 기획사까지 함께 겸하기도 했다. 그런 곳들이 생기면서 정으로 얽힌 관계가 점점 약화됐다. 파주 출판단지가 생기면서 빠져 나가기도 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종이 인쇄물도 사라지는 중이다. 5천 부를 찍던 걸 5백 부 내지 5십 부로 줄이고 디지털로 변환해 버리기 때문이다. 을지로를 떠나든가 디지털에 적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권순갑과 안삼화에게 인쇄는 운동의 일부였다. 돈을 벌어야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 뿐이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다. 5·3인천민주항쟁으로 고초를 겪긴 했어도 그동안 찍은 수많은 인쇄물 중 하나를 만들어 전해 주었을 뿐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사건은 계속 일어났고 인쇄소는 사건의 주인공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계를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회관 앞, 사람들이 유인물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는 또 다른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인쇄소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면서 이것도 운동의 일원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경찰에 잡혀 가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만 원을 받고 유인물 천 장 찍어줬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이 웃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걸 3만 원 받고 해주냐고, ‘그래도 나는 남는다.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권순갑)

잡혀가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5·3때문이란 걸 알게 됐어요. 조사가 단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라는 것도 알게 됐구요. 오죽하면 대공분실까지 갔겠어요. 아마도 을지로에서 인쇄물을 해주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 같아요. 왜 이런 걸 해주는지 우리를 잡아가서 캐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인쇄를 통한 혁명이나, 봉기냐?’ 이 문제 때문에 대공분실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자술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 하면, ‘내 스스로가 혁명과 봉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난 그런 걸 꿈꾼 적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본질이 바뀌어 버린 사건이었죠.

5·3때가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지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5·3때문은 아니었어요. 운동권 일을 하던 중에 5·3은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게 하나의 반환점이 돼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 전에도 운동권 일을 했지만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나게 비중이 크죠. 역사적 의미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했던 수많은 인쇄물 중에 한 부분이었을 뿐이니까요. 그 순간 5·3과 맞닥뜨렸을 뿐이죠. (안삼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김명숙

인천5·3민주항쟁 구속자 가족



- 인하대학교 경상대 무역학과 이용주(인천5·3민주항쟁 구속자) 모친
- 인천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만난 아들

어머니는 까마득히 몰랐다. 이용주는 5월 3일이 다가올 때까지 말을 아꼈다. 몇 년을 못 보며 지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주변을 정리한 후, 죽음을 각오한 채 ‘현장’으로 향하는 당시 학생들의 결심을 이제 와서 가늠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시절이었다. 어설픈 각오만으로 운동에 투신할 수 없던 시대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 특히 학생운동에 투신한 여느 ‘투사’들도 대개 그런 과정을 밟았다. 이용주도 마찬가지였다. 인천5·3민주항쟁은 인하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재학 중에 일어났다. 당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열릴 예정인 집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있었다. 이용주는 과대표로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

5·3때는 용주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였어요. 용주는 뜻이 있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역학과 대표를 하고 나면서부터 열심히 했나 봐요. 눈치가 이상했어요. 자꾸 바깥으로 돌더라구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따라 “어머니, 좋은 옷 입으세요.” 그러더라구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오셔서 어디 좀 가요.” 그래요. 성당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요. 5·3사태 준비하는 날이었던가 봐요. 승의동 성당이었어요. 용주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성모 앞에서 기도나 많이 해 주세요.”라고 하더니, 성당 앞에서 막 도망을 갔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과 헤어졌다. 몇날 며칠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 열리던 날, 아들을 찾으러 주안사거리로 나갔다.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우연히 아들과 대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치듯 잠깐의 시간이었다.

얼굴 본 건 그때가 끝이었어요. 5·3때 집에서 나와서 주안역에 오니까 엉망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신발을 잃어버려서 더듬거리고 있는데 그 신발을 찾아 들고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어서 수배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한 달 후에 비닐하우스에서 잡혀갔어요. 경찰들이 동네에 오고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야단도 아니었어요. 대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

들이 간첩이라니. 인하대 총학생회장 누나가 용주가 잡혀서 동부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면회는 연행된 후에 9일 동안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고 하면서 “간첩 아니지? 빨갱이 아니지? 나는 믿는다.”라고 용주한테 얘기했죠.

구속자 가족이 되어

인천5·3민주항쟁 때 자식들이 구속된 어머니들은 ‘5·3구속자가족협의회’를 만들어 서울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와 연대하면서 경찰서나 구치소 앞에 모여 ‘아들, 딸은 죄가 없다.’며 석방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인다. 이용주 어머니도 인천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아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웠다. 처음에는 자기 자식들의 안위와 석방을 위해 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딸들이 지향했던 그 길을 함께 걷는 부모들도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온순한 많은 어머니들을 ‘투사’로 변신시켰다. 이용주 어머니도 그런 길을 걸었다.

소중한 자식들을 왜 간첩으로 만든 거냐고, 맨날 욕만 했죠. 학생들이 그러더라구요. 놀라지 말라고. 용주가 고문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용주는 재판정에 가서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고 했어요.

5·3인천시위 구속자에 대한 폭행, 고문 사실을 폭로한다

가족들이 면회를 하면서 고문사실을 알았고, 신민당 유재연 사무총장, 이택돈 변호사 등이 구속자를 면담한 결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5·3사태가 만들어진 진상임을 알고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고문 사실을 폭로합니다.

※ 부천경찰서

구둣발, 주먹, 몽둥이로 마구 폭행을 가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죽여서 내버린들 누가 알 것 같으냐” 등 위협

- ◎ 김○○(무직)의 경우 : 미리 준비한 허위 조서를 강요하며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마구 부어 넣었으며 네 발로 땅바닥을 기어가게 하면서 여러 명이 마구 걷어찼다
- ◎ 황○○(연세대)의 경우 : 쇠몽둥이로 얻어맞고 무릎사이로 곤봉을 끼워 넣고 앉은 채 발로 짓이겼음
- ◎ 여학생의 경우 : 눕히고서는 가슴위에 올라가 입을 반창고로 막은 채 불 부친 담배 2개를 코에 꽂고는 “맛 좀 보라 이 년아” “옷을 벗기겠다.”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죽이겠다. 애 새끼도 못 낳게 만들겠다” 등 여대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여자들의 수치심을 자극 환멸감에 빠져 자포자기 심리유발시켰음

<중략>

※ 동부경찰서

- ◎ 이○○, 이용주(인하대)의 예 : ‘헤드락’이라는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는 경찰관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방안을 빙빙 돌리거나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또 한손으로는 턱을 잡고 좌우로 고개를 흔들어대는 수법. 머리가 부었다고 함. 무릎꿇기와 수갑 뒤로 채우기, 허리 주리를 튼.

<하략>

<5·3 구속자가족협의회 발행. 5·3구속자 소식>에서 발췌

김명숙 씨는 이용주가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상의 두 벌과 하의 한 벌을 처음 넣어주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오로(이용주의 세례명)가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헐벗어도 행복한 생활이라고’ 여겼다. 김명숙 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본명은 김마리아. 인천5·3 민주항쟁 당시 송의동 천주교회에 다녔다.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던 날, 이렇게 기도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순교자의 달을 맞이하여 성교를 지켜 온 순교자들과 저의 아들 바오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 그들은 진정 이 사회

의 빛이며 희망입니다. 그런 아들, 딸들에게 지금 이 정부는 잔혹한 고문과 폭행을 가하고, 어두운 감방에 가두었으며, 잘못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정말 부모 된 심정으로 비통한 노릇입니다. 주님! 저의 집 가장이자 장남인 바오로의 깊은 뜻을 당신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 그런 저희 바오로가 지금은 집시법이니 소요죄니 또 방화범이라는 엄청난 죄명까지 쓰고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지쳐있는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잔혹한 고문과 피로에 싸인 육신과 정신을 말끔히 씻어주소서. 아들이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은 뒤에도 손목에 새겨진 피멍자국과 여윈 얼굴을 보며 이 어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에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주안시민회관 4거리에 위치한 민정당 제1지구당 당사에 붙어났다. 화염병이 투척됐다. 경찰은 인하대 학생 두 명을 방화자로 지목했고 이용주가 그 중 한 명이 됐다. 방화자로 지명된 두 사람은 엄청난 고문을 받으며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동료 학생인 박○○이 ‘용주가 민정당사 화재를 냈다.’고 강요에 못 이겨서 베껴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판정에서 용주가 민정당사 방화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민정당사에 접근하기도 힘들었는데 용주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한 운동인데 쉽게 운동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고문을 하고 감방에 넣는다고 ‘반성’하는 건 아니었다.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돼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구속자들은 오히려 밖에서 하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다. 이용주는 1987년, 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된다. 그후 1989년 5월 2일, 인천청년회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구금되었다.

용주는 구속된 게 두 번이에요. 처음은 5·3 때였고 두 번째는 안동이었어요. 안동에서는 책을 소지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어요. 5·3 때는 1년 조금 넘게 감옥에서 살았어요. 당시는 구속자가족협의회(약칭 ‘구가협’) 사무실이 민주청년회라고 해서 주안에 있었어요. 5·3 직후에 주안1동성당 김영환 신부님, 주안5동성당 호인수 신부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구가협 모임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제

가 물표를 받았어요. 용주가 형량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 저보고 회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매일 모임을 했어요. 나눔의 집이나 인하대 등에서 계속 했죠.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구가협 활동은 직장을 다니면서 했어요. 인하대 후문에서 반찬을 팔기도 하고 바쁠 때는 교도소 앞에 신문지를 깔고 면회하기도 했죠.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용주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막내딸이 이제는 아줌마가 됐는데 용주보고 잘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동생들이 용주를 존경하고 좋아하니 다행이에요.

어머니들은 곧 당신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모든 구속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바자회를 열고 사회단체에 호소하며 활동비를 마련했고 이렇게 모인 돈은 구속자들의 영치금으로, 또는 석방된 활동가들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여학생들도 많이 연행됐어요. 그때는 굉장했어요. 재판할 때면 경찰한테 “니네들, 밧줄을 풀어 놓아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니들이 다 어려우니까 구가협 활동을 할 때 인하대에서 바자회를 하면 옆에서 부침개를 부치기도 하고 성당에 가서 모금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교도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돌봐주기도 했죠. 연탄을 사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전세금에 보태기도 했어요. 부모님들 중에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사도 하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죠. 또,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들고 와서 애들 석방을 위해서 애썼는데 다행히 석방이 되고 변호사 비용도 다시 찾아가도록 도와준 경우도 있어요.

학익동에서는 교도관들이 “어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니 집에 잘 들어가세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5·3때도 그렇지만 죄도 없는 애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가니 구가협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번은 문○○이라고 연세대 학생이 갑자기 실명이 된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다 해주기도 했죠. 이 세상에 좋은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이 집회에 나가서 다치면 엄마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니까 “그래 엄마 왔다.”라고 콧속 말로 속삭이면서 잘 끝나게 해 달라고 빌기도 했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구가협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죠.

아들 용주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서 첫 충격은 부친의 일이었다. 해방 후 성실하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는 친구를 두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모진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 교편을 잡고 있던 외삼촌도 한국전쟁 중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했다. 웅어리진 가슴에 맺힌 한이 아들의 구속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나왔다.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가진 걸 다 주었어요. 집에서 무엇이든 없어도, 제가 둘째인데 '둘째가 또 누구한테 주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래, 그래 잘했다.'라고 하셨죠. 아버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예요. 저는 4·19때 서울에 살아서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을지로입구에서 행진을 했던 기억도 나요. 오빠들도 고대, 연대에 다녔구요. 어렸을 때는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데, 돈암동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빨갱이로 몰려 고문을 많이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국가 폭력'은 동의반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국가=폭력집단'이라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행위가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국가는 '깡패'들의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특히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부터 간첩 조작사건 등 소위 '보안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전두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에 고문이 자행됐다.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을 비롯해 '무림·학림 사건'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 편의 사건이 폭력과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5·3민주항쟁 과정에서 약 400여 명이 연행되어 129명이 구속됐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죄' 등 죄명도 다양했다. 이용주를 비롯한 많은 연행자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먹이나 야구방망이, 당구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고 '통닭구이,'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성고문까지 발생했다.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이용주는 고문에 못 이겨 민정당 지구당사를 자신이 방화했다고 허위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환청, 환각, 정신분열증, 자해, 자살 등 고문의 후유증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이들에게 인천5·3민주항쟁은 여전히 그때의 시간 속에 멈춰 있다.

용주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후유증을 조금 겪었어요. 지금은 마음도 안정되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용주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애들 걱정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제가 천주교 성당을 다녀서 그나마 위안을 얻었지, 힘들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용주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5·3 동지회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해요. 용주하고 저하고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역사의 진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진 않아요

김성복
샘터교회 목사



- 1957년 경기도 안산 출생
- 1976년 연세대학교 입학
- 1983년 샘터교회 개척
- 1987년 박종철열사 49재 집회에서 연행
- 200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천지역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0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샘터교회에서 실천한 민중신학 이론

김성복은 1983년 샘터교회를 개척하며 민중교회 활동을 시작, 지금까지 33년 동안 부평 십정동에서 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했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공부한 민중신학을 민중교회 운동을 통해 실천하기 시작하던 무렵, 군사독재 정권의 강압적 통치는 도를 더해 갔다. 이에 맞서 교회 차원에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민중신학을 연세대학교 김찬국 교수님과 서남동 교수님에게 배웠어요. 서남동 교수님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가르쳐 주셨고, 김찬국교수님은 성서신학 측면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분들한테 배운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민중교회 운동을 하면서 철칙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동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둘째는 교인이 있어야 한다. 교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기존의 전통적인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또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니 야학도 하고 노동청년도 찾아왔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했어요. 오늘날 말하는 통섭이란 걸 진행해 왔던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많이 떠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복음서가 중에 ‘혀 잘린 하느님, 민중의 아버지’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을 들은 교인이 쇼크를 받아서 결국엔 그 분들이 건디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좋은 교인들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쉬움과 아픔으로 남아요.

김성복은 1980년대 초반 민중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천 만석동 아카사키 촌을 알아보다가 나중에 지금의 샘터교회가 있는 부평구 십정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동네는 대표적인 가난한 동네 중의 하나로 다른 교회활동도 있었고 사회단체들이 공부방 같은 활동을 하던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으로 만화가게를 빌려 18평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만석동에 아카사키촌이라고 있어요. 천막집들이 많이 있는 가난한 동네죠. 처음엔 아카사키촌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만석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십정동으로 왔어요. 여기는 부흥촌이었어요. 십정동 산25번지예요. 이쪽에 왔더니 저쪽은 서부감리교회, 이쪽은 선린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양 쪽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두 분 목사님들이 '다들 가난한 동네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당시에 민중신학을 공부한 나의 입장에서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 받는 공간이었던 부흥촌과 신덕골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신덕골에는 현 홍미영 구청장이 공부방으로 들어와요. 샘터교회는 1983년부터 개척해서 벌써 내년이면 33년째죠. 교회 활동에 청춘을 다 바쳤네요.

목회자로서 참여한 인천5·3민주항쟁

샘터교회를 개척한지 3년째 되던 해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당시 한국 사회는 1985년의 2·12 총선 결과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교회운동 차원에서도 민중교회운동 및 기독교운동이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다. 이 무렵 인천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선교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에 기독교 조직이 참여하고 있었다.

KNCC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 인천선교위원회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5·3항쟁 때는 다른 것보다도 민주화의 진행 과정 속에 있던 것이고 전 국민적인 의견들이 분출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민통련 대오를 준비하고 시민회관 앞에서 데모를 진행했죠. 거기 좀 참여하다가 경찰 쪽에서 최루탄을 쏘는 바람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주안역 쪽으로 도망쳤는데 그 때 주안역에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무너졌어요. 경찰이 계속 최루탄을 쏘며 다가오니까 도망치던 사람들이 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담이 넘어진 거예요. 그 날은 하루 종일 경찰에 의해 쫓기는 날이었어요. 당시에는 돌멩이와 최루탄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건 '미제 축출'이었어

요. '미제 축출'이란 구호가 학생들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구요. 민중교회를 하고 있었지만 생경하다고 할까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학생들 구호가 벌써 저기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 전에 학생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도 현장에서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안역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나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성복은 그중에서 '미제 축출'이라는 구호를 다소 생경하게 느꼈다고 회고한다. 미제 축출이라는 말은 문건에 나오기도 했지만 집회장에서는 거의 처음 들어봤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전두환 군부정권의 정권 연장에 대해서 저항하는 한편, 직선제 생취가 주 타깃이었어요. 직선제 개헌 투쟁은 87년 6·29 때 완성되는 거죠. 인천 5·3항쟁 이후에 탄압에 의해서 폭 가라앉는 분위기였다가 87년 1월에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사건이 생기고 49제 때 서울에서 항쟁이 있었어요. 그 때 제가 길 거리에 학생들과 같이 있다가 중부경찰서 끌려갔거든요. 87년 1월인가 2월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제가 잡혀가는 바람에 부흥회에도 참석을 못하게 되었어요.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모든 정치적 욕구가 일순간에 분출해 나오는 계기가 인천5·3항쟁이었어요. 그 때 기본적인 구호는 '군부독재 퇴진하라'는 거였죠. 개헌 이야기도 같이 나왔던 것 같고, 결국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주요 이슈로 삼았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정부가 있어야 했고 자주적인 정부가 있기 위해서는 미제의 철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제 축출이라는 주장을 학생들이 들고 나왔는데 생경한 구호였어요. 같이 시위를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많이 됐어요. '아마 한 동안은 수습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많이 구속됐을 거예요.

저는 '과격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극좌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민자당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지식인들의 급진성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5·3 이후에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천 5·3항쟁은 모든 정파, 모든 세력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다 분출시킨 백

가쟁명의 쫓기대회라고 할까, 그런 대회였죠. 그날 민통련이 가장 앞에 있긴 했지만 각각의 정파와 세력들이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당시에 신민당을 어떻게 견인하느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게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1983년에 시작된 샐터교회는 민중교회운동이 기본 틀이었기 때문에 '사회를 향해 열려진 교회'를 목표로 삼고 활동하였다.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민족해방교회나 민중교회로 정하려다가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정동이 열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샐터교회로 정했다고 한다. 샐터교회는 1983년 4월 17일 부활절 다음 주일에 창립되어, 십정동 산25번지에서 '섬기며 나누는 교회',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봉사공동체'로 나아갔다. 이때는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대학생들도 샐터교회에 많이 와서 노동청년 활동 및 교육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민중교회 연합단체인 민중교회운동연합은 조직적으로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그때 십정동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KNCC인권선교위원회 활동도 하고 목회자정의실천협회의도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민중교회운동연합이 교회운동의 주요 축으로 활동했던 거였어요. 교회들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신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말하자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고, 일부의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던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어요. 민중교회운동연합은 조직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 중에서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당시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학생들은 가명을 쓰기도 했죠. 인권선교위원회에서 기도회나 자체적인 행사도 있었지만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면서 민주화와 개헌이 주로 이야기 됐어요.

민중교회운동연합이 5·3에 참여하자는 결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중교회운동연합도 현수막을 들고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사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대체적으로 '군부독재 타도,' '헌법 철폐,' '민주적인 개헌'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인사련의 기독교 그룹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인사련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노동계까지 사회운동 하는 분들이 다 모였던 연합체였어요. 인사련이 나갔

다고 하면 모든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인사련에서 기독교 쪽으로는 EYC와 NCC 인권위원회가 주로 참여했고, 민중교회운동연합은 노동운동 그룹 쪽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민중교회운동연합에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야학을 하고 있었고 야학으로 해서 학출, 노출, 즉 학생출신 노동자출신으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노동 쪽으로 많이 결합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김성복은 인천5·3민주항쟁에 기독교 및 민중교회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였는데 전체적인 준비와 기획은 인사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쪽 인사가 5·3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수배가 내려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연행되거나 수배되었던 주요 대상은 인사련 지도부와 학생운동 및 노동계의 조직간부들이었다. 김성복은 인사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함께 이야기 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했다고 한다. 인천5·3민주항쟁 이후 1990년대가 되면 인사련에 가입되어 있던 기독교조직들도 점차로 독립해 교회단체로서 별도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내 기억에 이호웅이라든지 이런 분은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기독교 쪽으로 수배 내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명화섭, 유재연 같은 야당 지도자나 인사련 이호웅, 노동계의 각종 정파들, 학생들 조직인 자민투와 민민투 쪽 사람들이 많이 구속됐을 거예요. 민민투는 PD그룹으로 해서 87년도에 제헌의회 그룹으로 발전해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워낙에 최루탄 가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것하고 시민회관에서 최루탄과 페퍼포그에 밀리고 주안역에서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해산하고 십정동 교회로 돌아온 것이 그날이 나의 하루였어요.

인사련에는 기독교청년협의회(EYC), 주로 이민우, 정희운 이런 분들이 대표급으로 활동했지요. 저는 이 분들이 함께 참여하자고 하면 인사련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인사련과 거리를 두게 돼요. 민통련이 거의 해체될 수준으로 워낙 두들겨 맞으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는데, 인사련에서 독립해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독립된 분파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교회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독립하게 된 거죠.

노동청년 활동의 활성화와 민중신학 2세대의 등장

당시 민중교회는 담임목사의 유형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했다. 노동운동을 지도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노동관련 문제는 노동 활동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김성복은 민중교회도 교회 일과 사회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후자의 입장에서 있었다. 샬터교회는 노동활동가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나아갔지만 활동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5·3민주항쟁 이후에 탄압국면이 있기도 했지만 노동청년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운동을 지도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 복음, 신앙 측면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 밖에 노동에 관계된 것은 활동가에게 맡겨서 노동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활동을 했죠. 노동청년은 노동청년 대로 활동가들에 의해 조직분쟁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남고 그랬어요. 아픈 기억은 5·3민주항쟁 이후 탄압국면에서도 노동청년회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6·29 이후에 노동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그 때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활동가로 들어와 있던 유인식 형제 등 5명이 사고를 당했어요. 5·3항쟁 이후 노동청년회가 활성화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야학을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야학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와서 지도했던 청년이 민주노총 의장에 출마하기도 했어요. 그 청년은 건설노동자로 살면서 이러한 운동을 해 왔던 거죠. 샬터교회를 거쳐 간 사람들이 한번 다 모이면 대단한 인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원래 그런 데는 재주가 없어서. '역사적으로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밑바닥에서 작업하고 했던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1987년 이후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민중교회도 노동청년회가 했던 노동자 교육 기능을 축소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민중교회운동의 목표가 '생명평화' 중심으로 변화해갔다. 동시에 '민중신학 2세대'도 등장하여 1980년대나 1990년대와는 달리 민중을 만나는 공간이 특정 교회공간이 아니라 사업현장이나 길거리로 바뀌어 갔다.

그 이후로 노동자교육은 주로 노동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노동조합도 양성화되어서 굳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노동자이자 신앙인인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도록 노력했죠. 그후에 민중교회들이 생명평화 쪽으로 운동을 바꾸요. 반생명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핵발전소라든지 GMO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확장하는 생명평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중신학이 사라진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민중신학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속에서 민중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제2의 민중신학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2의 민중신학 세대들은 굳이 교회라는 틀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촛불교회처럼 고통의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대표적인 게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민중신학 2세대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수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중산층들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먹고 살만한 노동자들은 초과임금 나눠 쓰기, 젊은이들은 비정규직,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있잖아요. 민중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해결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신학 2세대들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독교사회운동 인권센터 부이사장으로 있어요. 인권문제나 남북평화통일문제 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김성복은 '인천5·3민주항쟁이 1987년 민주화투쟁으로 꽃을 피웠다.'라고 평가한다. 다만 87년 6·29 이후 대선을 거치며 양김이 분열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함께 교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뉘면서 점차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던 걸 안타까워했다. 87년에 대선후보가 단일화되었다면 교회운동이 좀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87년도에는 기독교 본부 쪽 청년분과위원장이나 인권선교위원회 임원 부서기 같은 작은 직책을 맡았어요. 당시에 인권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87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어요. 열 명 중 여덟 명은 지지했어요. 그 후에

김영삼 후보가 3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급격히 우경화하기 시작해요. 만일 87년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양보하고 김영삼 후보가 어찌됐든 집권했다면,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극우적 성향으로 바뀌어 있는 목사님들을 보다 민주적인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운명이겠죠.

5·3 민주항쟁 때는 편차가 컸지만 1년 동안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좁혀지고 대중이 원하는 수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인천 항쟁의 쓰라린 경험이 운동 상층부의 반성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래서 조급주의라고 할까, 머릿만 급진적이었던 모습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직선제 개헌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거죠. 그로 인해서 6·29 때 직선제 개헌을 받아내고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도 확충하게 된 거예요. '양김'이 분열되면서 실패로 돌아간 건 천추의 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성복은 인천5·3민주항쟁에서 감정적인 골도 생기고, 급진적인 주장과 함께 통일성 있는 투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의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필연적인 진통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진보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한번 다지면서 갈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수렴하고 가치를 쳐 낼 건 쳐 내면서 제대로 방향 감각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굳이 비유하자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3항쟁은 87년 민주화과정을 위한 진통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6·10항쟁 때부터 교회들이 열심히 투쟁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6·10항쟁은 5·3 인천항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도전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인천항쟁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에요.

역사의 진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거죠. 착오를 일으키는 것, 다시 말해서 더러는 실패하고 더러는 좌절하고 더러는 낙담할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그 시대에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인천 항쟁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투쟁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인천항쟁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87년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고 보니까요.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문제냐.' 따져 볼 때 인천 5·3항쟁은 이론 투쟁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론 투쟁의 현장에서 정리가 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고 87년의 민주화투쟁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5·3항쟁은 그런 의미에서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신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날 된통 당한 날이예요.

학생으로서 맡은 작은 역할이었어요

김수영

연세대학교 4학년 학생



- 1964년 출생
- 1983년 연세대학교 입학
-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 참가
-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
- 1987년 출옥
- 현 한겨레출판 본부장

저는 그 당시에는 자민투, 민민투, 그런 자각은 없었어요. 연대에서는 86년 초 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학습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나는 이런 경향이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나는 자민투야.' '나는 민민투야.' 이런 규정은 하지 않았어요.

김수영은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해 구속된 후 미결로 인천소년교도소, 영등포구치소, 기결로 김해교도소에서 1년 2개월 간 복역했다. 1987년 7월 10일 시국관련사범 2,541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단행할 때 석방됐다.¹ 유화국면을 앞두고 대학에 입학한 김수영은 서클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서클 생활은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구요. 대중서클이 있었어요. 오픈서클이었고 봉사서클이었어요. 그때는 오픈된 서클들도 상당수가 학습을 하고 학내 집회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이념서클이란 건 내용적인 거구요. 대개 대중성을 내세웠어요. 이를테면 우리문화연구회라고 할 때, 문화서클이면서 운동서클인 거죠. 당시 연세대학교 서클들은 정말 취미를 표방하는 몇 개만 빼 놓고는 대부분 이념 학습을 하는 주요한 학생운동 인자들로 채워졌다고 보면 돼요. 취미나 오락 서클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서클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법대에 다녔는데 법대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또 서클이나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도 '너희들 입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서로 '너 왜 운동 안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가 뛰면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6년 4월 29일,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약칭 '민민학련') 결성대회가 개최된다.² 민민학련은 주적(主敵)을 '한국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입하여 신식민지적 지배를 관철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

1 『경향신문』, 1987년 7월 9일자.

2 『경향신문』, 1986년 4월 30일자.

며, 미·일 자본에 예속된 국내 예속독점 자본의 지배도구인 예속 군사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³ '개량주의 신민당, 재야는 타협성·사대주의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반제·반파쇼 투쟁의 전위로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⁴ 민민학련은 각 대학에 조직된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약칭 '민민투') 세력이 투쟁의 집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한 '통일적 지도체'로,⁵ '헌법제정민중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각 대학별로 발간해 온 『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위상을 알렸다.⁶

민민투 세력은 '전국민적 무장봉기'가 인천5·3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갖고 있었다.⁷ 실제로 민민학련 산하 연세대학교 민민투는 인천5·3민주항쟁 직후 현 정세를 '혁명적 정세'로 파악한 후, 민민학련이 출범과 함께 천명한 '5월 투쟁'이 '80년 5월투쟁의 부활'이며 이를 막기 위해 '위수령, 휴교령, 군사쿠데타'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 '행동강령'까지 내놓기도 했다.⁸ 이 무렵의 학생운동은 70년대 운동과의 타협과 결별에 대해 고민하고, 운동의 주체와 목표에 대해 진단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이 시기 학생운동의 변화를 추동해 낸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김수영은 1980년대 전반기, 그러한 학생운동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해 가는 학생운동의 역량을,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운동 이후의 진로를 고민해간다.

80년 이후에 대중적으로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표출된 게 5·3이었다고 봐요. 5·3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모험주의라는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구호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걸 자민투와 민민투의 노선 투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노선을 갖고 논쟁하는 중심에 있던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갈래로 갔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다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느낌은 알아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주요모순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민족문제냐 계급

3 「전국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창립선언문」(1986. 04. 29).

4 「전국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투쟁선언문」(1986. 04. 29)

5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148쪽.

6 『민족민주전선』 제5호(1986. 05. 12), 성균관대학교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산하 선전위원회

7 「민민투와 자민투」, 『월간 말』 1990년 7월호, 1990, 180쪽.

8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학생행동강령」(1986. 05. 06), 전국반제반파쇼 민족민주학생연맹 산하 연세대학교 민족민주 투쟁위원회.

문제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상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구호를 무엇으로 갈 거냐 하는 거였죠. 이게 밖으로 외화되면서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보통 이런 노선 정리가 가장 빨리 되는 곳이었어요. 연대나 고대 쪽은 한 템포 느리거나 하는 단계였어요. 86년 초까지만 해도 하나의 노선으로 정리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정치적 구호는 5·3 때 혼재돼 있었어요. 구호는 '독재타도,' '민주정부수립' 이런 구호가 주요한 것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반전반핵'이란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집회에서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은 없어요. 5·3 때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헌의회 소집하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어요. '직선제 쟁취하자' 이거는 없었어요. 그때가 발전단계로 보면 CA에서 조금 분화되는 시기였거든요. 4학년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따로 학습은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양쪽 세력들이 크다고 느끼긴 했을 텐데 저는 사실 민민투니 자민투니 하는 것이 외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민투를 결성한다고 해도 결성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간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을 움직이는 브레인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적 연원은 잘 모르겠어요. 대개 70년대 후반 학번들이었죠. 제 기억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 선배들이 교육시킨 후배들이 서클을 책임진 거고, 그 후배들이 또 자신의 후배들을 교육시켰죠. 그래서 논의 구조의 상층에는 70년대 후반 학번들, 아마 이 세대들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 분들 동료들이 다 인노련이나 서노련같은 곳의 현장 활동가들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인노련이니 서노련이니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인천에 갔다.' 그런 정도는 들었어요. 빈민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누구는 빈민지역에 갔다.'라는 정도는 알았죠.

당시 학생운동은 학년에 따라서 부여받는 역할이 달랐다. 학습과 역할 분담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다. 김수영 역시 그러한 시스템 안에 위치해 있었다. 학습을 통해서 구성된 '단위'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다. 3학년 말부터 '역할'을 정하기 시작해 총학생회 일을 하는 사람, 서클이나 학회에 남아있는 사람, 집회나 시위에 대

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

운동의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5·3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83학번인데 1학기까지는 학내에 백골단이 있다가 2학기부터 철수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운동이 학내시위 중심으로 흘렀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84년부터는 가두로 나갔어요. 서울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가두집회를 하는 형태였죠. 집회를 시작하면 바로 체포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못하고 짧게 끝났어요. 85년도부터는 노학연대가 조금 더 넓혀졌어요. 대표적인 게 '청계피복 합법성 쟁취대회'예요. 그 전에는 가두시위를 하더라도 학생 중심이었는데 그게 좀 더 확장된 거죠. 그건 학생운동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계피복 합법성 쟁취대회'는 종로에서 시작해서 청계천을 지나 성대까지 이어졌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집회였고 학생과 노동자 중심이었어요. 노동자라고는 해도 현장 활동가들 중심일 수도 있어요. 84년도에는 '민정당사 점거 농성'이 있었어요. 거기도 참가를 했어요. 그 뒤에 '미문화원 점거 농성'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전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구속이었기 때문에 빠졌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1학년 때는 소위 '지도'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2학년 때는 일정한 지도의 책임을 맡게 돼요. 학습이 됐든 현장이 됐든 그런 과정이 심화가 되는 거죠. 3학년이 되면 서클과 같은 작은 규모를 벗어나서 큰 단위로 움직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서클은 서클대로 가고, 학회는 학회대로 가요. 서클 중에서도 일부는 더 소단위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하게 조직화 돼 있어요. 필요할 때는 넘나 들기도 하구요. 가령, 어느 서클은 후배들은 많은데 선배가 부족한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선배 하나가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선배는 많은데 후배가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했는데 참 어려운 경우죠. (웃음) 서클을 옮기라고 말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수가 유지돼야 하는 거였어요.

학습이란 건 일상적인 거였어요. 서클은 대개 이중적이예요. 같이 학습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따로 모여서 심화학습 하는, 두 개의 구조로 유지가 됐죠. 대중서클이라고 표방된 곳들은 흔히 이런 형태의 방식을 따라요. 서클의 기본 구조도 유지

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학습을 이끌어 가면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서클 자체는 그대로 굴러가고 지향성을 학생운동에 좀더 무게를 두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별도로 커리큘럼을 짜서 학습을 하죠.

소위 오픈이 있고, 언더가 있어요. 총학생회가 오픈 조직인 거구요. 그리고 언더가 있는 거죠. 총학생회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기 보다는 별개의 조직이예요. 작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개별 단위들은 크지는 않아요. 다섯명 정도 될까요? 그중 한 명은 연락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구요. 너무 많이 모이면 잘 드러나잖아요. 그 팀이 다른 곳과 연결이 돼요.

졸업 후 현장에 들어가는 건 자연스런 흐름이었다. 그걸 '투신' 또는 '존재 이전'이라고 표현한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현장에 가고, 현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게 기본단계로 설정돼 있었다. '존재 이전' 단계에서 빈민활동을 특화해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지만 농촌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큰 흐름에서는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 이런 것이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아니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선배들이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고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운동을 마치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존재 이전에 대해서는 3학년이나 4학년 때 생각해요. 상당수는 1학년을 지나면서 운동을 그만 뒀어요. '나는 지향이 이런 건데 그걸 다 버려야 하는구나.'라는 결정을 해야 하나니까요. 저희 서클도 동기가 많았는데 1학년 때 다들 떠났어요. 학생운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상대에 입학한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허구한날 집회하고 시위하는 생활을 반복할 수는 없죠. '내가 지향하는 것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계급적으로 뿌띠부르조아인데 결국은 혁명 과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주도적인 세력은 노동자이고, 노동계급의 역량이 가장 주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죠. 노동조합은 가장 기본 단위인데요 그건 첫 출발이 되겠죠. 20대에는 모두들 혁명을 꿈꾸잖아요. '단위에 가서 노조 운동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하죠. 그런 건 역사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2학년 말 커리큘럼 중에 각국의 혁명사가 있었어요. 러시아혁명사는 기본이고, 프랑스

혁명, 니콜라구아 혁명, 쿠바혁명, 여러 혁명사를 공부했어요.

결국에는 노동운동밖에 없다는, 그래서 '노동자 속으로'라는 이런 흐름은 1987년을 넘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노동 현장은 중요하지만 6.10항쟁, 특히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운동공간을 훨씬 넓게 보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거나 사회운동단체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투옥을 각오하고 찾은 인천시민회관

당시 시위에 나온다는 건 사진에 찍힌다는 걸 각오하는 일이었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이미 경찰의 손에 두툼한 사진 몽치가 들려 있었다. 투옥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였다. 김수영은 연세대학교 83학번이다. 4학년으로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했다. 4학년으로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었다.

보통은 정리하고 나오죠. 시위에 참여할 때 '오늘은 나가면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플래카드를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위대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고,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호를 선창해서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서로 잘 몰라요. 팀에서 '이번에는 당신이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4학년이 되면 거의 지정해서 내려 와요.

제가 맡은 역할은 대오를 유지시키는 일이었어요. 대오를 유지하는 것, 구호 선창, 그런 역할을 맡았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4학년이잖아요. 대략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 3학년 말부터 역할 분담을 해요. 시위 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몇몇 시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 중에 5·3이 하나 있었던 거죠. 뒷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싸움을 하거나 시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부분은 잡힐 경우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했다.'라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항상 있어야 하거든요.

투옥을 각오하고 찾은 인천시민회관 앞은 이수라장이었다. 현판식 자체는 무산이 됐고, 시민회관 앞에서는 민통련과 인노련이 대회를 진행중이었다. 학생들은 그런 대회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김수영은 동인천으로 최종 집결한다는 동선 계획을 건네 받고 대오를 유지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저희는 시민회관 정면 방향을 맡았어요. 학교별로 모여서 그쪽을 맡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서부지구 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걸 추측이에요. 당시에 대학은 서부지구, 동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희가 동부지구 사람들하고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외대, 경희대 이쪽하고 한 적은 없어요. 서부지구면 연대, 서강대, 이대, 홍대 이런 그룹이 되겠죠. 보통은 어디 집회에 나간다고 하면 지역을 설정해 주거든요. '어디에 가는데 어디에서 모여라.' 그렇게 돼요. 연락하는 라인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쪽 퍼져 나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다 모이게 돼요. 만일 5·3 때도 서부지구였다면 거기에는 서부지구 학생들이 다 가서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어선이었어요. 경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었어요. 워낙에 이수라장 같았어요. 대열을 이루면서 가는데 순식간에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자마자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일단 대회가 무산됐다고 하니 재야단체들의 움직임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대회가 무산됐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쯤 움직여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꼭 차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 자체가 재야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선도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여러 세력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인데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은 재야에 대해서도 자기 위주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민정당 지구당사 정도는 사실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정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더 큰 구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서울 시내 가두시위에 나갈 때는 플래카드까지는 준비를 안 했어요. 여

기는 워낙 큰 규모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했겠죠. 화염병은 대부분의 싸움에서 준비를 해요. 방어할 게 그것 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은 개인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항상 삼삼오오 움직이고 동선을 다 얘기 듣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모이게 돼요. 그날 동선은 끝이 동인천으로 가는 걸로 얘기됐을 거예요. 여러 갈래로 이동해서 동인천에서 합류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도 동인천까지 가기는 했어요. 걸어서는 못가고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근데 뭐, 갔을 때는 이미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구요.

인천5·3민주항쟁을 특징짓는 상징 중의 하나인 '반미 구호'는 85년에도 그 단초가 보였다고 한다. '한미은행 점거 농성,' '버키킹 점거 사건' 등 미국적인 상징을 타격해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알리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났다. 김수영은 이런 사건들이 '미문화원 점거 농성'과 궤를 같이 한다고 여긴다. 학생들은 민통련이나 인노련이 집회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란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 동인천까지 가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학습 커리큘럼에서 계급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역대 혁명 속에서 계급의 역할 같은 것을 분석하죠.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단계는 뭐냐.' '주요 모순이 뭐냐.' '주요 모순이 제국주의냐, 아니면 독점자본주의냐.'라는 논의를 해요. 그런 분석에 따르면 민통련 같은 경우는 소시민운동이 되는 거죠. 뿌띠부르조아층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민통련을 이끌어 가는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당연히 손을 잡는 세력이죠. 역량이 약할 때는 다 제휴하고 연대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단계가 주체세력을 압도하는 역량은 아니었으니까. 학생운동과 제휴나 연대할 세력이 되는 거죠.

교도소에서 만난 '타인'

시위가 소강상태에 빠진 후 김수영은 현장을 빠져나와 수배 생활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 시위에 한 번 더 참여하기도 했지만 도피 생활은 길지 않았다. 5월을 넘기지 못하고

서울에서 검거돼 1년 2개월을 인천소년교도소, 영등포구치소, 김해교도소에서 보냈다.

당연히 수배령 내렸겠지만 생각을 했죠. 전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학교 밖에 아지트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했던 팀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데 같이 있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나요. 검거돼서 경찰서에 잠깐 있었는데 겁을 엄청 주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심하게는 안 당했어요.

인천소년교도소에는 백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붙잡혀 왔다. 교도관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잡혀 온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이었다. 김수영은 수감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며 인천5·3민주항쟁의 주체가 학생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연대'라는 구체적인 말보다는 그 속에서 같이 행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만 놓고 봐도 그 자체가 '연대해서 간다'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 해요. 제가 인천교도소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정치범들, 어머니들은 항상 양심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교도소 안이 완전히 발각 뒤집혔어요. 거기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독종들이 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무가내였으니까요. 특히 학생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 교도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 번 면회 나가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0명이란 말이에요. '할 테면 해봐.' 이런 태도들이었죠.

거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온 거잖아요. 소년교도소에 있던 아이들도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들의 주역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사건으로 보면 거칠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보면 열일곱 살 전후의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구성비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적으로 5·3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60% 정도가 현장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인노련 쪽이든 어디든 대부분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어요. 그중에 한 20%가 학생이었던 것 같구요. 특이하게 신민당원도 한 명 있었어요. 이런 구성비가 인천지역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인천에 갈 때는 '학생운동이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현장활동가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배운 거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달랐어요. 만약에 학생들만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분위기였을 텐데 워낙에 그런 일에 단련된 분들이었죠. 거의 매일 이슈파이팅을 하고 사건만 일어나면 단식하고 그랬어요.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구속자들의 소내 투쟁은 끝이 없었다. 구속자가족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교도소 주변을 매일 나와 지키며 고행을 함께 했다. 김수영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인천5·3민주항쟁을 떠올리면서 ‘연대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구속자가족협의회 분들은 매일 오셨어요. 면회를 일단 하니깐. 면회를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사람씩 하잖아요. 만일 부모님들이 스무 분이라고 하면 스무 분 다 면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동시에 두 명 면회한 적이 없어요. 한 명씩 하거든요. 한 명이 만약에 20분이 걸린다고 하면 200분이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시간이 길잖아요. 하루 종일 가는 거죠. 매일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거의 매일 오셨구요.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 겨울에도 불을 안 떴다고 해요. 자식이 냉방에 있는데 어떻게 불을 떼고 살 수 있냐고.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시 학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순리적이고 또, 자연의 합법칙적 모습이기도 한데 운동의 맹아들이 커져 가면서 대중 쪽으로 좀더 운동의 역량이 확산된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87년 6월 항쟁이나 노동자대투쟁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해요. 모든 사물은 양면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5·3을 제대로 평가해 본 적은 없어요.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과오는 없었나? 이렇게 평가해 볼 시간을 가져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전체 설계는 모르겠어요. 단지, 학생운동 자체가 관념이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역량이 이만큼 컸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논리적으로 탄탄히 무장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죠. 대중도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을 거라고 좀 과도하게 판단하기도 했구요. 83년 이후 학생운동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실제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

의를 해줬어요. 지지를 해줬지요. 가두시위를 나가더라도 쫓기면 기꺼이 누군가는 도움을 줬어요. 87년 이전에도 그랬어요. 시위 나갔다가 막 쫓겨서 골목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다 숨겨줬어요. 다락으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밖을 내다보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가도 된다’고 얘기해 주고.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5.3 때 학생운동 지휘부라고 해봐야 나이들이 젊잖아요. 20대들이고. 물론 이 지휘부가 재야 선배들하고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었겠죠. 정세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역량을 과대평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험주의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것이 무엇에 고무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학생운동이 운동 전체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었고 조직화되어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엔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도 제기해 왔죠. ‘반제·반독재’라는 걸 일관되게 주장하기도 했구요. 그게 PD하고 NL이 갈라지는 핵심 고리이기도 하죠. 저희는 혁명을 꿈꾸는 세대들이잖아요. 역량을 떠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도야 가볍게 생각하는 세대였구요.

좀 더 유연하게 개헌 현판식을 풀어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5·3에 대한 평가가 여럿일 수 있겠지만 80년 이후 이렇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대의 힘’에 대한 경험이 86년 이후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 알의 귀한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인천에서도 그렇고 김해에서도 그렇고 길지는 않지만 감옥에서 노동현장에 있던 분들을 만나서도 많이 놀랐어요. 그 전에 운동하면 학생운동과 재야운동만 보아왔으니까요. ‘아,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노동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든든해졌어요.

지금은 퇴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쟁취해왔던, 정치를 비롯한 소중한 가치들이 모두 퇴행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89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선교회 노동운동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김정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부의장



- 1950년 제주도 출생
- 1971년 감신대 입학
- 1978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사회
- 1984~1989년 인천산선 제5기 총무
- 1999년 강화환경농업농민회 창립

YWCA 위장결혼식 사건

그 정도로 격렬하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치고 도망가는 식은 많이 있었지만 5·3 때는 거의 전투 상황이었어요. '삼민'이란 구호도 있었고 직선제 요구도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죠. 내가 5·3 때 직접 돌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인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싸우는 사람들은 도로에 있었죠.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각오가 대단 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투'는 비합법 노동자단체들이 중심이 된 거고 인사련에서 함께 전투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직선제 문제가 고민스런 문제였어요. 투쟁할 만큼 절절했으니까요.

김정택은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약칭 '인천산선') 총무이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부의장이었다. 기독교운동을 시작한 건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유신 시기에 청년 시절을 보내며 학생운동과 기독교청년운동을 했고 1980년대까지는 산업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운동에 종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환경농업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며 현장밀착적인 생명지향의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옥은 세 번을 다녀왔다. 긴급조치, YWCA 위장결혼식, 강경대 사건 때였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1979년 11월 24일, 서울YWCA회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사건 이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반발하여 재야인사들이 대통령 직선제, 유신헌법 폐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대회를 결혼식으로 위장해서 열었던 대회였다. 김정택은 당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으로 위장결혼식 사회를 봤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여섯 살 때까지 있다가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인천에는 1981년부터 살고 있어요. 1971년에 감신대에 입학했다가 1977년에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됐죠. 1978년 말에 나온 후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전국회장이 됐어요. 당시에는 청년 단체로 민청협[민주청년인권협의회]과 기독교청년협의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청년협의회 전국회장으로 1979년에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의 사회를 보게 됐어요. 신랑은 홍성엽, 신부는 윤정민이었죠. 주례는 박종태 의원이 봤어요.

1979년 11월에 있었던 YWCA 위장결혼식은 10·26 이후 최규하 대통령 대행 시기에 간선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반대하고 직선제 개헌을 위해 하게 된 거죠. 집회 장소에서 많이 끌려갔고 그중 주도자들 20명이 보안사에 갔는데 이미 김재규가 와 있더라구요. 각자 방에 끌려가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죠. 양순직, 박종태, 임채정, 최열, 박종렬 같은 분들은 모두 구속이 됐어요. 저는 이 일로 1980년 5월 광주 때도 감옥에 있었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인천5·3민주항쟁과 산업선교회의 역할

김정택은 기독교운동으로 출발했지만 1970년대 태동하고 있던 노동운동이 커다란 정치변화로 이어지면서 자연히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유신 시대에 한국노총은 어용화되었고 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극도로 제한되면서, 기독교에서는 1970~80년대에 도시산업선교회가 노동자교육 및 노조와의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우리 시대는 노동운동으로 시작한 거죠. YH 사건이나 부마항쟁이 터졌구요. 부마항쟁이 터지니까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이 정치상황으로 연결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YH노조 투쟁에 김영삼 신민당 대표가 함께 한 거예요.

특히 인천산전은 노조와의 연대가 활발해서 동일방직, 삼성산업, 반도상사, 태양공업, 삼원섬유, 신한일전기 등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천산전은 경찰의 노조에 대한 감시와 협박이 강해지자 새로운 전략으로 기존에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변화시켜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모임 활동을 모색,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반산전 공세'가 심화되었고 1978년 '동일방직 똥물투척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정택은 인천산전이 이렇게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1984년에 인천 산업선교회 총무가 되어 1986년 인천5·3민주항쟁까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천산전에서 총무는 사실상 대표자 역할이었다. 실제적인 노동운동 지원업무는 해당 역할을 맡던

간사가 주로 수행하였다.

1983년 김근태 형이 그만두고 양승조가 들어오면서 산업선교회에서 노동운동 지원역할을 함께 했어요. 양승조가 산업선교회 노동운동 쪽을 총괄해서 결합했고 블랙리스트도 담당했어요. 나는 1984년에 총무가 되었다가 1986년 9월에 그만두었어요. 5·3민주항쟁 때는 양승조와 박일성도 노동 쪽 업무를 했어요. 대림통상 투쟁에 함께 하기도 하고 구사대에 맞기도 했죠.

1984년에 복학이 되면서 동시에 산업선교회 총무 활동을 하게 된 거였죠. 기독교운동이 민중운동으로 넘어가고 교회운동도 전국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해서 나도 민중교회운동으로 합류했어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일 때 인사련에 부의장으로 결합한 거죠. 그러면서 인민련[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2대 의장을 맡았어요. 1대 의장은 이호웅이었고.

인천산전 총무는 사실상 대표자의 위치였다. 인천5·3민주항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실무단위 역할을 하는 간사들이 구체적으로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련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단체만 해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단체가 함께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택은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인천산전과 관계를 가진 노동자들이나 노조 활동가들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

산업선교회에서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역할을 했어요. 노동 쪽은 그때는 모두 비합법이었어요. 저는 인사련을 통해 공개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했고, 노동 쪽은 양승조와 박일성이 담당했어요. 5·3 당일에는 거기 갔더니 화염병 등이 보이면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길게 갔고 대단했어요. 양승조는 인노련으로 참여했고, 저는 인사련 부의장으로 함께 했죠. 산업선교회가 5·3민주항쟁을 준비하는 사전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공개적인 사건에 주로 참여했어요. 민통련 산하에 인사련, 한국노협 인천지회[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회] 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김정택은 인천5·3민주항쟁 당일 큰 시위가 일어난 것은 인사련 보다는 독재정권에

저항한 비합법적 노동단체나 급진적인 학생운동에 의해 진행된 강렬한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한다. 당시 시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민통련과 인사련이 있었고 주안역 방향으로 인노련과 서노련, 주안성당 쪽으로는 민불련 집회가 있었으며 도화오거리 방향으로 자민투와 민민투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로 서노련 그룹과 민민투 학생들이 비타협적 투쟁을 주장하여 보도블럭과 화염병으로 무장한 채 경찰과 격렬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택은 인천5·3민주항쟁 이후에 선교산업회 총무를 그만두었지만 민중교회 산마루 활동이나 기노련 활동을 병행하는 등 민중교회운동은 계속 이어나갔다. 1987년 6월항쟁 때는 대변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5·3민주항쟁은 주로 비합법 노동단체들이 화염병 등을 이용해서 투쟁을 가열하게 해낸 거예요. 여기에 인사련의 결합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요. 인사련과 노동단체들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비합법 노동단체는 인노련, 깃발, 반제반과쇼, NL, PD 등이 있었어요. 가두 투쟁도 하고 제법 역량이 있었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했는데 노동운동 쪽에는 '학출'과 '노출'도 있었어요.

저는 5·3 이후에 민중교회를 하면서 민중교회 산마루, 기노련 활동을 주로 했어요. 1987년 호헌철폐 민주항쟁으로 가면서 대변인 역할을 맡았고 기노련 활동과 공부방 활동을 주로 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주거지 문제와 생활복지 문제를 다루고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는 산업선교회도 공식적으로 지원활동을 했지만 주로 교회운동으로 나아갔어요.

검찰은 인천5·3민주항쟁으로 경찰 추산 191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민정당 인천 제1지구당사와 경찰차량 3대가 불타는 등 총 1억6천33만원 상당의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시위 참여자들에게 형법 제115조 소요죄를 적용했다. 참여자 중에서 129명이 구속되었고 60여 명이 수배됐으나 기독교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나 구속은 거의 없었다. 김정택도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이나 수배를 겪진 않았다.

5·3항쟁으로 수배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진 않았어요. 당일에도 그냥 집에 귀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85년에 결혼해서 가좌동 아파트에 살던 때였어요. 5·3

항쟁이 터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무적인 회의에는 산업선교회 실무자가 참석했어요.

비합법 단체 간의 대립 양상은 아니었지만 공개적인 노동자 활동의 한계에 대해 인식들을 하면서 단체들 간에 견해가 상충되는 것이 있기는 했어요. 인노련으로 간 후 회의에 가셔도 갈등이 심해졌죠.

김정택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며 각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아직 전두환 정권이 힘을 갖고 있었고, 이전까지는 이처럼 강렬하게 투쟁했던 경우는 없었다. 인천5·3민주항쟁 직후에 벌어진 비합법 단체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억압 하의 현실 상황에서 해결방향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투쟁 의지는 높았으나 대안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부족했다고 본다. 민주헌법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었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는 여전히 타도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물리력을 갖춰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민청련 등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6·10항쟁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로 집중됐는데 대중적으로 볼 때 직선제 개헌이 와 닿는 것이었어요. 인사련의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지역의제를 갖고 운동을 하자는 거였어요. 당시는 주로 직선제 개헌이 주요 요구였죠. 독재를 타도해서 혁명정부를 구성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어요. 직선제 개헌과 민주헌법 쟁취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주헌법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수립된 것이 없었어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투쟁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이 부족했던 거죠. 5·3항쟁은 대중의 투쟁열기를 모으는 면에서는 중요했지만 대안적인 목표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운동권이 전열을 갖춰서 나아가지는 못했죠.

노동운동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김정택은 1992년까지 민중교회 산마루 운동을 하다가 도시주민운동을 거쳐 1996년 이후에는 친환경농민운동으로 전환했다. 인천5·3민주항쟁을 전후해 노동운동을 지원

하기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에 기반한 사회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넘어서서 지역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고 지역운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운동을 뒷받침할만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1986년과는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마루 교회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하고, 이후에는 주민운동을 했어요. 연수구로 가서 우리밀운동도 했고 1996년도에는 요가와 단식도 지도하면서 안전한 식단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강화도로 귀농을 했어요. 강화도에서는 친환경 유기농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바닥부터 농민을 조직하고, 한살림 직거래를 하다가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급식운동으로 간 거죠.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공개적인 활동은 토대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직운동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주민운동, 농민운동을 했어요. 노동운동만으로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에 관계된 전면적인 결합을 해 들어가면서 활동해야 하죠.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정택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1987년 민주화대투쟁을 함께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기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한국에서도 변혁사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민운동이나 생태평화운동 등 새로운 방향의 운동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선교회도 사회복지선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존의 노동운동 지원사업에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회고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인민련 활동을 하면서 주로 동인천이나 부평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폐퍼포그 속에서도 열심히 버텼던 것 같아요. 부평에서 경찰들이 집회를 저지하려고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연설하면서 경찰들이 물러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일도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길거리에 자주 나갔어요.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92년 이후에 새롭게 내가 할 일을 찾아 나갔죠.

그 사이 소련이 해체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요. 운동이 제 아무리 NL이니 PD니 하더라도 둘 다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나름대로 전환이 되었죠. 제도권이든 어디든 각자 제 갈 길을 찾아가게 됐어요. 산업선교회도 이후에는 사회복지선교회로 전환해요.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신협도 하고, 생협도 했는데 인천산업선교회는 사회복지선교회로 변하는 바람에 약간 차이를 보였어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라는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시기에 맞는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타협하는 데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김지선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



- 1955년 대청도 출생
- 1985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사무국장
-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

유인물을 건네며

석바위 쪽에서 시민회관으로 오는 길 있잖아요? 저는 주로 그 길에 있었어요. 그쪽 주안1동성당 바로 다음 칸이 우리 전단 숨겨 놓은 골목이었어요. 임선미 씨 집이 있는 곳인데 가건물로 지은 집이었어요. 전날 가서 왕창 숨겨 놓고 당일 리어카를 갖고 가서 집회가 무르익기 전에 꺼냈죠. 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뒀어요. 임선미 씨는 같이 삼원섬유 다녔던 노동자 출신 동료였어요.

김지선은 대청도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한국전쟁 중 인천에 피난을 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어린 시절은 송현동 수도국산에서 보냈다.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가 된 건 열일곱 살 때부터였다. 첫 공장은 대성목재였다. 나이가 너무 어려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입사를 했다. 이곳에서 3개월을 다녔다. 열아홉 살 때는 삼원섬유에 들어갔다. 들어가던 해 12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부장을 맡는다. 인천5·3민주항쟁 때 유인물을 은닉했던 집주인 임선미와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인물 운반책임자를 임선미 씨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이 친구들이 집 앞 골목에 리어카를 대고 있더라구요. 임선미 씨 집에서 유인물을 빼서 갖고 나왔어요. 동 뜨는 친구들이 리어카를 다 만들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상관을 안 했어요. 유인물이 꽤 됐어요. 수천 장은 넘었죠. 크기도 컸어요. 현장 지도부들이 리어카로 연단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시민회관 앞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한 건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잡히면 안 됐거든요. 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씨는 아예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도 저까지는 유인물을 꺼내서 건네줘야 하니까 근처라도 간 거죠. 아무나가면 주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하튼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양승조 씨한테 모든 알리바이를 맞추는 걸로 했어요. 혹시라도 잡히면 도와주는 친한 선배로 하기로 입을 맞췄죠. 인노련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진출을 했어요.

‘구로연투’와 조직전환

김지선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약칭 ‘인천노협’)에 처음 관여했다.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 단체가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으로 조직 전환을 한다. 87년도에는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약칭 ‘인해협’)가 결성됐다. 1년 단위로 인천지역에 곁직한 노동자 단체들이 모습을 바꾸며 연이어 등장한다.

85년도에 구로연투가 있었어요. 구로연투는 공개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연대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깨지잖아요. 1,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아, 이거 안되겠구나.’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구로연투. 그 후에 인천지역에서도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조차 못하게 탄압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서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조직전환 논의를 했어요. 인천노협이 모여서 지금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계속 노협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해고 노동자들에게 도움도 별로 못 주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균열을 좀 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했어요. 그 전에 블랙리스트 싸움에서도 지리멸렬했고, 구로연투에서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깨지고도 80년대 들어오면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데는 다 깨졌거든요. 다시 70년대로 돌아간 기분 있죠? 유화국면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유화국면이란 없다는 분위기가 현장에서 팽배해진 거예요. 만일 현장 노동자들만 있었다면 아마 참았을지 모르는데 학생운동 출신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간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도 잘 하고, 결국은 노협 집행부가 모여서 조직을 전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름을 인천지역노동자연맹으로 하는 걸로 결정했죠. 사무실을 여기, 부평3동 성당에 두되 분명 탄압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쓸 거라는 걸 전제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죠. 그래도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결의를 했어요. 노협은 그때는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무실은 그대로 비어 있으니 나중엔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협을 재건한 거죠.

저희는 적어도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합법적인 운동이 인정되지 못하니까 그걸 조금 더 국민들한테 선도적으로 알리면서 노동조합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혁명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려면 완전히 전위조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합법 투쟁을 하고 싶는데 현장의 노동조합도 인정되지 않잖아요. 노동조합을 내버려 두면 현장에서 다 당하고 있으니 뭔가 이걸 깨뜨려주는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 주는 조직도 필요한데 민통련이나 이런 곳은 항의방문이나 할까, 안되니까 우리가 좀 세계 선도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이 단련된 조직도 만들고 노동자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거였죠. 그래서 노동자 정치투쟁, 대중정치조직이라고 했죠.

김지선은 인노련이 결성되면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겸임했다. 양승조가 위원장이었다. 인노련이 만들어진 후 곧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인노련은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삼민헌법’을 전면내세웠다. 인노련에는 공개지도부와 함께 ‘안개지도부’가 존재했다. 안개그룹은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밀조직이었다.

몰랐죠. 거의 끝날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고, 그게 인천에 따로 안개조직이 있었던 것보다 서울과 연합해서 인천을 좌지우지 한 거 같기도 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밝히려면 정확히 밝히려야 해요.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노련도 반성하듯이 자기들도 ‘이런 오류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도 견결하게 지키려고 했던 무엇이 있었다.’라고 내놓아야죠. 안개지도부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체도 운동의 하나의 선상으로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했고 이런 점은 한계였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걸 내놓아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인노련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기 시작하자 형사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5·3이 일어날 때 서노련은 이미 구속자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인노련이 5·3을 계기로 엄청난 탄압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상했죠. 그럴 때마다 승조 형[양승조]으로 알려바이를 맞추자고 했어요. 본인도 동의를 했고, ‘모든 걸 내가 시켜서 했

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승조 형한테 알리바이를 맞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사건이 아니면 단순 가담자는 구속돼도 금방 풀려나지요. 승조 형은 위원장이고 연대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형이 먼저 안개조직에 대해서 눈치 챌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리기도 했으니까.

예를 들면, 한 7~8명 정도가 지도부라고 해서 모여요. 모이면 그때마다 일주일 상황 보고하면서 핵심적으로 뭘 갖고 투쟁할 거냐, 투쟁 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정해요. 우리가 하는 방향이 바깥의 운동 제세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게 많죠. 토론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개지도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핵심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 갈 경우가 있어요. 그 논리가 굉장히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확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일주일 전에 피터지게 자기가 주장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다르게 반복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변했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다들 믿었던 동지들인데 조금 의심된다고 뭘 어떻게 하진 않죠.

우리는 신민당하고 합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건 아마 민통련도 좀 반대했을 거예요. 인사련도 그쪽 입장하고는 똑같지 않거든요. 둘이 연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은 있는데 그래도 온건하게 민주헌법 정도는 만들고 가고 싶은 거였죠. 우리는 민주헌법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구요. 그 사람들이 야합한 거 갖고는 안 되고, 우리는 좀더 세계,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탄압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헌법까지 바꿀 정도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했고, 그 자리에서 실행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를 주장해서 알리는 의미가 더 컸어요. 그때는 분명하게 그랬어요. 몇 만 명 모일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몇 만 명 갖고 그 사람들을 타도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는 이렇다. 노동자는 이렇게 치열하게 탄압받고 있고 지금까지 논의하는 내용도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걸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구속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 자리가 '혁명 상황이다.' 이걸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개헌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개헌의 맞대응으로 내세운 게 삼민헌법이었죠.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헌법 내용도 바뀌야 한다는 거였어요. 직선제라는 건 뽑으면 야당으로 넘어가지만 결국은 민중을 탄압하는 건 야당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탄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내용을 갖고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민헌법을 홍보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합법적인 공간에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는 개헌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이원집정부제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라는 게 너희가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번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파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 결국은 조금 나은 세력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진 않는다. 우리는 개헌을 하더라도 반민중적인 건 때려 부셔야 한다. 이거를 그동안 탄압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삼민헌법을 주장한 건데 이름 자체가 생소하고, 삼민헌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허공에 뜬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개헌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런 노동자의 요구도 있다는 걸 알림과 동시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컸죠. 싸워서 어쨌든 균열을 내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추상적이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게 화두였어요. 그걸 삼민헌법과 등식으로 생각했죠.

삼민헌법,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인노련이 어느 순간에 사무실을 폐쇄한 것도 아니고, 다 수배중이고, 일부는 현장에서 엄청 구속되고 했으니까 사실은 와해됐다고 봐야 맞는 건데 그래도 지도부는 끝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평가를 했죠. 나름대로 평가를 한 후에 결과를 현장에 돌렸어요. 얼마만큼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핵심적으로 연결된 데는 우리 평가가 들어갔죠. 물론 일방적인 평가는 아니고 해투 위라든가 현장에서 중심으로 투쟁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평가하구요. 그게 취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오늘은 어느 집에서 자야 하나, 맨날 이려고 살았으니까. 문건,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으니까.

5·3때까지 그렇게 많이 분열이 된 건 아니었어요. 5·3 이후에도 꽤 만났어요. 전

회식, 양승조 등 공개지도부는 다 만났어요. 탄압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렵긴 해도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만나서 회의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입장이었어요. 그 때 당시는. 출신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컸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들 삶이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도 또 현장에 가야되는 삶이었죠. 학출들은 자기 좋은 기득권을 버리고 들어온 입장인니까, 많이 배우고 그런 입장인니까 더 우리를 가르치려고 생각했어요. 또 의식화만 잘 되면 잘 될 것 같다는, 관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모임을 자주 하는가 하면, 사람한테는 1년, 2년 투자를 해야 돼요. 따뜻한 정도 느끼고, 신뢰도 쌓이고 따뜻한 정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지만 실천과정에서 의식화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학생출신들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85년도에 이미 노협 본부하고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학출이 워낙 많았어요. 현장에 들어가 있는 학출들이 자주 노동조합 만들다 깨지고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당연히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놔두면 노동자들이 1년, 2년 걸려서 노동조합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학생출신이 들어가서 조금하게 서두르니 그나마 있던 노동자들도 다 쫓겨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했고, 사실 그런 측면도 많아요. 그거 갖고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 분들을 노동자로 볼 거냐, 학출들을. 노동자가 아니다. 임시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논쟁이죠. (웃음) 정부에서도 위장취업자 정도로 보는 측면도 있죠. 나쁜 뜻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끝까지 갈 노동자로 보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인천의 많은 부분은, ‘지금 어쨌든 현장에 노동자로 살면 노동자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우리도 떠날 수 있는 거고, 떠나면 할 수 없지만 일단 본인이 현장에서 노동하겠다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 있는 동안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일을 도모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일종의 현실론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대학교 나오면 노동 못 해요? 지금 대학 나와서 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웃음)

노동자들의 조직이란 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다. 모여서 의논하고 거리에서 공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경찰이 쫓으니 숨어 다니고, 그런 활동의 반복으로만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해 나가던 사람들, 인노련이란 이름으로 묶여 ‘노동자들의 세

상’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품었던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결의’가 있었다. 또 그런 결의를 갖지 않고서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거리에 나온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거다. 김지선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1986년 5월은 그런 시절의 연속이었다.

인노련도 승조 형[양승조]이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워낙 수배를 오랫동안 당하고 혼자 있고 그러다가 운동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인노련이라는 게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을 잘 반성하고 평가해야만 그 다음 것도 어떻게 형성돼서 왔느냐가 보이거든요. 인노련이 대단했어요. 노동자들의 대중조직, 반합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을 단련시키고 정치조직화 시켰죠. 저 같은 사람도 혁명이라는 게 뭔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각오하면서 싸웠던 시기가 그때거든요. 나같이 순진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노동현장에 학출들이 들어와서 문제도 있었지만 중견 활동, 선진노동자들을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87년 6월항쟁이 그나마 5월 투쟁을 잘못된 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아간 거였어요. 그 투쟁에 노동자들도 또 반성이 있어서 참여한 것도 있구요. 다 5·3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역으로 직선제 개헌만 얘기해서 우리가 남은 게 뭐 있어요. 노동과 관련된 어떤 법도 직선제 하나 빼놓고는 다 환원시켜 버렸잖아요. 없잖아요. 필리핀 가서 놀란 건 필리핀은 오히려 마르크스 물리치는 탱크부대와 맞선 투쟁을 하면서 마르크스 독재자를 물리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따냈어요. 지금은 다 정치는 위에서 결정하고 노동자, 농민 배제하잖아요. 그걸 따냈더라구요.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를 의무적으로 뽑아서 국회에 들어가게끔. 우리는 그런 법도 없잖아요. 항상 우리의 요구를 법률화 하는 것은 읍소해야 하고, 싸움할 때는 우리가 피터지게 싸워야 되고. 직선제는 김영삼, 김대중 씨한테 사실은 공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 따낸 게 없다는 거야 딱 그거 하나. 둘이 단일화를 못하니까 또 다시 노태우 정권치하에서 6년을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5·3투쟁에서 인노련이 삼민헌법이나 그런 약간 노동자 현실에 맞지 않는 과격한 걸 보여주긴 했어도 그나마 노동자들이 대거 진출해서 나오고, 물론 학출인 활동가들이 많이 그 속에도 끼어 있기는 했지만, 선진노동자들도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특히 인천에서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는 인노련이 가졌던 약간의 경직성, 선도투 위주로 간 측면이 문제점이 있다고는 해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자각하고 성장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혁명하자는 데까지는 안 갔어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그때가 혁명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 대신 어느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죠. 지금 생각하면 다 이게 뜬구름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선진활동가들은 위기감을 엄청 느꼈어요. 소모임할 때도 방에 시키면 담요를 치고 했어요. 모임 하는 걸 누군가가 신고하면 잡혀가게 되는 주민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잡혀가면 용공으로 몰려서 어떤 탄압을 받을지도 모를 엄혹한 시기였어요. 5.3 항쟁 이후 전단지 숨겨놓은 임선미 씨 오빠가 경찰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고, 저도 수배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대공과 형사들에게 밤에 산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두건 씌우고 손에 수갑 채운 상태에서 집단구타 당하는 등 5시간 넘게 고문을 당했죠.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하고 타협하는 걸 박수를 쳐줘요?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싸운 거죠.

선진노동자, 인노련, 삼민동맹

김진국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안개그룹' 조직원



- 1958년 강원도 출생
- 1977년 서울대학교 입학
- 1984년 한일스텐레스 입사
- 1985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결성
- 1988년 삼민동맹[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결성
- 1989년 구속

‘안개’의 일원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달려갔을 때 다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하관계라는 개념으로 운영했던 건 아니었어요. 역할분담이란 개념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1985년 여름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김진국은 이른바 ‘안개그룹’의 조직원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사에서 ‘안개’는 일종의 비합법 전위조직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주 사용했던 말은 아니었다. 안개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도 많다.

안개그룹이란 인노련 때 밑에서 움직였던 그룹, 인노련을 움직이던 그룹이라고 봐야죠. 그게 인노련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비공개 조직이긴 하지만 전체를 다 엮거나 하진 못했어요. 인천에서 반은 포괄을 못했을 거예요. 포괄이 안 된 곳과 노협[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이런 데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논하면서 움직이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외 다른 데가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없었어요. 당시는 조직이 분화되기 전이라고 보면 돼요.

통칭 안개그룹이라고 했던 건 우리였고, 다른 데는 아직 형태가 명확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어요. 공장에서 해고 됐지만 연결이 안 된 친구들도 있었고, 따로 모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죠. 85년부터 가투는 쪽 했으니까 나름 동원체계나 연락체계는 있었죠.

안개그룹 간에 서로 관계는 하지 않았어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부평, 인천에서 공장 분구가 있다든가 하면 다들 아니까요. 거기 누가 있는지 수소문 해 보면 누구누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인노련을 앞세웠던 안개그룹은 몇 십 명 쯤 됐을 거예요. 백 명까지는 안 됐을 거구요. 점조직 형태였고, 집단지도체계 비슷하게 운영됐죠. 저는 거기서 김동민이란 가명을 썼어요.

주로 가투[가두투쟁] 중심으로 했고, 전등사 가서 싸우기도 했죠. 전등사 때는 86년 3월인가 그래요. 근로자의 날이 3월 15일이었어요. 원래는 야유회로 기획된 거예요. ‘총동원을 해서 우리 힘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겨울에는 유인

물 작업 정도만 했으니까 싸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겨우내 유인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로 해고자들이 했죠. 전등사에는 200여 명이 넘게 왔어요. 꽤 많이 모였죠. 그중에 반 정도는 학생출신이 아닌 공장에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공장별로 소모임하고 공부하고 유인물 작업하고 이런 걸 안개그룹이란 데서 쭉 해 온 거예요. 그러던 걸 3월에 한 번 결집을 한 거죠. 걸으로는 인천노협 주관으로 했어요. 근로자의 날 야유회를 간 건데 재네도 봄에 기선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좀 수상하다. 저거 치자.’ 이렇게 돼서 거기서 싸움이 돼 버렸어요.

‘안개’라는 말은 대개 5·3인천민주항쟁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연히 본인이 누구랑 만난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는 없었다. 김진국은 유인물을 만들어 배달하고, 사람을 만나 조직하고 하는 일을 맡은 인원을 50명에서 1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그 숫자도 정확히 알기는 힘든 일이다.

‘안개’라는 말은 5·3이후죠. 그 전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슨 이상한 조직도 아니고 어차피 다 알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빗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5·3을 계기로 조직이 분화됐다고 봐야죠. 5·3 전에는 내가 거기에 직접 연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런 식의 관계였지 그 후 정파투쟁하던 시절하고는 달랐어요. 실제로 유인물을 봐도 노선이니 그런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내용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였죠. 옛날 70년대와의 차이라면 ‘노동조합에만 머물면 어렵다. 정치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정도의 주장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싸울까 하는 건 모르죠. 정치권도 그 당시에는 분열이 안 돼있었거든요. 민주협으로 뭉쳐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전혀 고민할 게 없었어요. 저기랑 같이 싸울 수 있으면 같이 싸우고 지원을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이런 거지, 요즘처럼 노동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죠. 전두환이 있으니까 저쪽도 명확하고 이쪽도 딱 하나로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로 묶여 있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지금 관점으로 봐서 거꾸로 그걸 갈라보고 하는 건데 사실 5·3 이전까지는 거의 갈라져 있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인노련 공개지도부와 안개그룹은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가 애매하다. 둘 사이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된 경우는 있었다. 유인물 작업이다. 유인물을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돌리는지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곤두세워 찾던 시기였다. 김진국은 유인물 작업을 하고 싶으면 공개 활동을 포기하고 지하로 들어와야 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노련 공개지도부가 '안개'의 존재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안개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인노련 활동가들의 불만 중 하나가 '합의된 결과의 빈번한 번복'이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다음 회의에서 누군가에 의해 갑작스럽게 변경된다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이던 시절이었으니 문건의 출처나 조직 체계 등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인노련의 방향성을 결정한 건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노련 공개조직에서 대체로 결정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밑에 하부조직은 주로 조직 쪽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있었을까... 그때는 조직 자체가 워낙 단순해서. (공개지도부에) 지침을 주고 이런 정도까지는 없었던 거 같고, 긴밀하게 협력하던 관계죠.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밑으로 조직하는 일이었던 거 같아요. 프로파간다 같은 거, 유인물 작업 같은 거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인물 작업을 사무실에서 못했거든요. 전부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유인물 작업은 공개조직에서 못해요. 유인물 작업을 하려면 지하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보안이 요구되고 사수해야 했던 건 각 공장에 들어가 있는 라인하고 선전물이었어요. 더구나 서노련은 『서노련신문』이란 걸 정기적으로 냈잖아요.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다 몰라요. 배포조직 이런 게 다 연결되니까 그게 핑크나면 다 무너지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비공개조직으로 할 때 핵심은 그 두 개였던 거 같아요. 조직하고 홍보. 선전선동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 소그룹이란 게 그래요. 예를 들면, 한일스텐레스 같은 데선 공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좀 괜찮은 친구들을 모았다고 하면, 매일 술만 먹을 순 없잖아요. '야, 그럼 한 번 가보자.'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자기 행동은 트리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산전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가 보자.'라고 하고, 그러다가 좀더 진행해서 잘 될 거 같으면 가투가 있을 경우 처음에는 '그냥 가서 구경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걸 노협에 가서 묶어 놓으면 한 순간에 무너지

니까 못 하죠. 거기에선 주로 공개행사, 신민당을 찾아가거나, 서울대 총학생회를 한번 가보거나 이런 거를 해요.

조직형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대체적으로 아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하는 거였어요. 대신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부작업을 하게 되면 보안이 핑크날 경우 자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문제가 커진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일반적이었죠.

서노련과 인노련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조직'을 표방하며 등장한 단체다.¹ '새로운 형태'란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했고, 1985년 6월의 '구로연대투쟁'을 발판 삼아 '노동계급의 정치의식화와 조직화'를 지향하며 출범한 게 서노련이었다.² '서인노'(서노련과 인노련)가 대중정치조직인가 하는 문제는 5·3인천민주항쟁 이후 조직노선과 관련해 제기된 사안 중 하나였다. 특히 1986년 9월 7일,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 개최된 서노련 출범 1주년 대회 이후 전면에 부상했다. 서노련은 「서노련 1년 활동평가와 과제-전국 노동자의 통일을 위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대 건설'과 노동자들의 '전국적 통일작업'을 벌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³ '경제주의,' '경험주의,' '종파주의' 등의 비판과 함께 현장에서 오간 논쟁의 핵심은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형태, 역할, 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무렵에는 이미 '제헌의회(CA) 소집론'이 확산 중에 있었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 운동론'에 기반한 이른바 '반체동맹당'과 '맑스·레닌주의(ML)당'이 검거되어 '좌경용공사건'으로 발표되기 직전이었다.⁴ 9월 7일의 집회는 이와 같은 서노련 내부의 노선 분화가 일부 그룹의 집회장 퇴장 등을 통해 거칠게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서노련 활동에 대한 일부의 불만은 지도부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다. '지도부가 세상의 고민을 독점하고 활동가들에게 구원의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꽂으려고 동굴의 암흑 속에서 대기하도록 만들었다.'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경우도 있다.⁵ 서

1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언」(1985. 08. 25).

2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132쪽

3 『노동자신문』 제20호(1986. 10. 07), 서울노동운동연합.

4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312~321쪽; 『동아일보』, 1986년 10월 24일자·11월 12일자.

5 「동지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 무엇을 할 것인가?」(1986. 12. 04), 동부교회청년회.

노련은 결국 1986년을 넘기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인노련의 조직 운영도 서노련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그걸 인천에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진국은 서울과는 달리 인노련의 경우 큰 불협화음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인노련이 한 9월 정도에는 나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유인물 같은 데에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이런 이름으로 나가게 됐죠. 인노련 사무실은 없었어요. 장소로 활용한 데는 부평3동이나 인천 산선 등지였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인천에서는 관계는 꽤 좋았어요. 서로 역할이 다르긴 했지만 인노련 내의 관계가 서울처럼 서로 대립하는 관계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은 김문수, 심상정 등이 지하지도부 역할을 맡았고, 저는 이 둘하고 연결돼 있었죠. 셋이서 주로 의논을 하고 인노련은 인노련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노협하고 또 얘기를 했죠. 하여튼 뭘 하면 항상 노협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의논하고 그랬으니까 인천은 그렇게 막 트러블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도 해고되고 돌아다니고 했으니까 얼굴은 다들 알고 있었죠.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뻔한데. 말 안해도 다 알죠. 그 당시에 서로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충 '지하조직 일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됐겠죠. 또, 해투 위원장을 하면서 대우자동차 무슨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승조형은 위원장이 돼서 재네들이 찾고 있으니까 도망 다니고, 김지선은 교선부장 하고 있는데 주로 대외 일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가두투쟁의 시대

인천에서 하기 전에 서울에서 먼저 했어요. 5·3전에. 신민당이 개헌 현판식을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했죠. '인천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자. 이날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각 지역에서 그렇게 했어요. 서울도 했어요. 서울은 구로동쪽이 활발하게 못 움직여서 주로 학생들이 신민당 행사하는 데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인천은 학생운동조직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취약했으니까 우리가 하자고 한 거죠. 그때는 다 가두투쟁을 했어요. 85년 하반기부터는 싸움을 크게 한다고 하면 가두투쟁 형식으로 했어요. 가두투쟁 조직이 나름 발달을 했어요. 학생운동

에서 하던 거를 이쪽에서 많이 배운 거죠. 원정도 가고 몇 번 같이 하다보니까.

신민당이 개헌투쟁을 하는 데 5월 3일로 잡혀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우리도 결합해서 같이 싸우자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인노련에 소속됐거나 안 돼 있거나, 혹은 공개조직에 있거나 비공개조직에 있거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난 봐요.

'그걸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건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기는데 이 작업은 실행력을 갖고 있는 인노련에서 맡은 거죠. 유인물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싸움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 가두투쟁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택을 짜고 하는 거죠.

그때는 서노련은 좀 위험할 때라 활발하게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출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서노련 멤버들이 5·3 직전에 잡혀요. 그래서 끊어졌죠. 그런 이유로 인노련이 독자적으로 준비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유인물 작업하는 거하고 그날 전술, 조직 동원, 그런 정도를 한 거죠.

김진국은 인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아가 김민석을 만난다. 학생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긴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 학생운동은 해방구처럼 돼 있었다. 이미 민민투와 자민투가 등장할 때였지만 김진국은 그곳에서 그런 걸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 인천에서는 학생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운 때였다.

정치적인 주장이 세련돼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천에서만 200명 정도는 동원했을 거예요. 하여튼 인노련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죠. 인노련 할 때 같이 의논하고 움직이고 이랬던 친구들이 79학번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 참 그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좋아하죠. 그땐 우린 정말 되게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싸우는 거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능력들은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도 되게 헌신적이고 그랬어요. 우린 주로 가서 어떻게 뽐내고 어떤 식으로 싸우고 이런 것만 주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었죠. 묵묵히 자기 일 하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 멤버들이.

저는 그날, 계속 수배 상태이기도 했고, 더구나 서노련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경

거망동 하지 말고 은밀하게 활동하라고 했어요. 조직관리 책임이 총체적으로 있었으니까요. 주로 근처에만 와서 다니면서 보고 그랬어요. 향군회관 주변을 계속 돌아 다녔죠. 향군회관까지는 우리가 막았어요. 석바위 방향은 사거리 쪽에서 막았어요. 그렇게 막혀 있는 안쪽이 더 움직이기 낫죠. 이쪽 골목에서 싸우다가 깨지면 저쪽 골목으로 흩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계속 가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알아서 살아 돌아가야 했어요.

현장 지휘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 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정해져 있긴 했을 테죠. 그 당시에 동을 뜨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전에 학교에서 데모할 때와는 달랐으니까요. 행사 진행표가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만 잘 하면 되니까.

서울을 거치면서 저쪽의 대응이 꽤 강경해졌어요.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신민당에서 자체적으로 시민회관 안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막겠다는 식으로 세계 나왔죠. 그 전에는 평화롭게 했죠. '인천에서는 행사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인천이 잡혔을 때는 저쪽에서도 대대적으로 경찰을 동원했어요. 다른 지역 경찰까지 동원해서 여기는 원천봉쇄한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가투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민통련 집회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행사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헌 투쟁을 쫓 하던 것의 연장선인데 학생들이 대거 총동원되고 정치적 주장이나 이런 게 과격해졌죠. 그 전 행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싸우다 보니까 경쟁이 된 거 같아요. 정말 그 전에 했던 거랑은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가 봐요. 우리는 아무래도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장의 소그룹까지 연결이 돼서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란 걸 그렇게 갑자기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노동자 조직에서 이탈되어 있긴 해도 유리되거나 하진 않았던 편이었어요. 전투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죠. 물량 동원을 많이 한 거 같더라구요. 처음에 가서 김민석을 만나고 할 때만 해도 서울에서 했던 규모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하여간 엄청 커졌죠.

사태가 과격해지면서 다 고립된 거죠. 신민당과 재야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재야하고 학생운동하고도 거리를 두게 됐죠. 학생운동 내부에서 싸움도 치열해졌어요. 인노련 같은 경우도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사상투쟁이란 것으로 확 휩쓸리

게 됐어요. 그 후에는 노동자들 조직이나 노동자들의 활동, 아니면 노동조합, 이런 거에 기반한 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새로운 것발

김진국은 5·3인천민주항쟁 이전, 민한당사 사건 등으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1985년 중순부터다. 이 해 초에 한일스텐레스에서 해고된 후 노동운동단합저지투쟁위원회(약칭 '노투')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 4월에 결성된 노투는 해고자 연대 투쟁을 했던 일종의 해고자 모임이다. 그후 6월에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 노동운동이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5·3이전에 85년부터 이미 수배가 걸려 있었어요. 85년 6월에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셋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 쯤 지나서 7월 하순 경인가 마침 제가 집에 안 들어가는 사이에 경찰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잡혔죠. 그때부터 수배가 내렸는데 아마 민한당사 사건 같은 게 다 연결이 됐을 거예요. 노투 때도 어쨌든 핵심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잡으려고 했겠죠.

노투 활동은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다 잡혀 들어가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죠. 구로동맹파업 전까지는 노조 중심으로 싸우다가 그 해 봄에 대대적으로 색출되며 다들 떨어져 나오면서 해고투쟁으로 바뀌었고 다시 구로동맹파업 생기면서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 싸움의 형태가 가투형식으로 변해요. 5·3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이제는 사업장 안에서 싸우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사업장 안에서 노조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어려워지면서 가투투쟁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7, 8월 무렵에는 남아 있던 친구들도 다 잘리고 노조도 다시 뒤집어졌죠. 그 해 여름부터는 재네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잘라내고 그럴 때였어요.

노학연대라는 게 본격화된 것도 85년 여름, 구로동맹파업 이후라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끼리만 싸웠어요. 인천은 더군다나 학생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주로 위장취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던 학생들하고 노조, 노동자들 소그룹 이런 데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 당시에는 인천 산선

이 근거지 역할을 해 줬구요.

구동(구로동맹파업) 이후에 대량 해고자가 발생하면서 그 이전에 70년대 노동 운동 하시던 분들과고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노련이란 걸 따로 만들게 됐어요. 이걸 걸으러 떠 있는 합법 조직하고 같이 따로 소그룹 조직이나 비선 조직을 만든 거예요. 위에 있던 위원장 등은 밑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 분들은 합법활동 위주로만 하고, 여기는 비합법 활동을 포함해서 한 거죠. 비합법활동 중에 예를 들면, 기관지를 발행한다든가, 또 싸움을 조직하고 가투를 조직하는 일들, 노학연대 이런 걸 다 할 수도 없고 또 했다가는 한 방에 깨지니까 서노련을 만들어서 조직을 이원화 한 거예요. 서울이 그런 식으로 조직체계를 갖추니까 인천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밑에서는 공장이나 그런 연결되는 선들을 만들고 걸으러는 인천노협, 인노련을 만들고, 이거를 서로 사실상 같이 움직이면서 분리시켜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론이나 노선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이원화 안하면 다 달려가면 끝이니까. 그렇다고 민한당사 투쟁처럼 한 번 딱 하고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생각이어서 체계를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면 비공개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외창구를 완전히 닫을 수도 없으니까 일종의 합법조직이 대외창구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5·3이 갖는 특별한 의미 중 하나가 운동권이 분열하는 시발점이라고 봐요. 그날 썼던 인노련 유인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노련 주장은 정말 소박해요.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맨날 가두투쟁하고 경찰이 페퍼포그 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골목을 막으려면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화염병을 몇 개 던지고 맨 이런 거만 했죠. 전투부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위원들이 없었어요.

5·3때 서노련은 직전에 검거되면서 유인물 이런 거 하나도 못 내고 다 도망갔죠. 인천에서는 인노련이 움직였구요. 그 전에 몇 번 노학연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학생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 학생들이 짜 들어왔어요, 공간 안으로. 그러면서 유인물을 던지는데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쉬

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학생운동은 이미 사상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 '파쇼정권' 이런 것도 나오고, '미제타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우린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민민투, 자민투가 나오고 신림 사거리에서 분신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반미투쟁이 확 올라왔죠. 우린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학생들은 저렇게 하나 보다.' 하는 정도였죠. 하여튼 싸움하는 데만 치중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유인물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서 움직일 때 인천학생운동 쪽은 따로 안 움직였거든요. 인천에서 대학 다닌 애들 다 서울 가서 운동하지 인천에서 학생운동 안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학생운동은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인천은 사실상 노동자 중심으로만 있었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모르는 얘기들이예요. 인노련 유인물은 다 묻혀 버렸어요. 무슨 주장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반미투쟁 이런 거만 보인 거죠. '우리가 밥상 차려놨는데 반미투쟁 들고 쑥 들어와서 다 갖고 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쪽이 맞냐? 어느 쪽 입장이 맞는 거냐?" 이런 거 묻기도 하구요. 그전까지는 그런 입장을 몰라도 다 같이 잘 싸웠는데 이제는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거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 우리는 그거랑 입장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런 식으로 두리몽실하게 있던 사람들이 다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인노련이 5·3을 계기로 완전히 무력화 됐어요. 탄압을 받아서 무력화 된 게 아니라 그 충격으로 힘을 잃은 거죠. 우리는 '미제타도' 그런 걸 일상적으로 접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신민당도 5·3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운동권하고 연대 안한다면서 갈라서고. 그래서 우리도 병 땀어요. 굉장히 센 주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주장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꽤 쇼크를 먹은 거죠.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83년, 4년, 이때부터 현장에 들어와서 매년 준비하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보고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5·3인천민주항쟁을 거치며 등장한 새로운 주장들은 한순간에 퍼졌다. 모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서노련이 붕괴되면서 탄압 분위기로 돌아선 것도 일조를 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분열의 조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여러 노선들이 등장하던 시기 이긴 했으나 아직 '당'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때였다. 정강이나 정책 등을 만들려면 사상투쟁을 정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재교육'을 통해 사상학습을 받으라는 요구가 일부 학생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김진국은 이러한 '재교육' 요구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입장이 '확' 쏟아져 들어왔어요. 학생운동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게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못 봤어요. 그런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격을 '탁' 받았죠. 충격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씩 검토해보자.'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원심력이 생기니까 모두들 저처럼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찾아나서게 되고 그런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보니 우리 세대를 그 뒤의 학생들이 '재교육 대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재교육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상학습을 실제로 받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운동이라는 게 실천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런 거 보고서 움직이는 거냐.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온 건데 그게 사상이라는 종이조각리 갖고서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갖고 재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교육을 안 받았어요. (웃음) 근데 아마 그쪽으로 '끌려간' 친구들은 재교육을 받았겠죠. 거기에다가 서노련이 깨지니까『서노련 신문』이나 방침이 주로 공급되던 루트들이 차단되고 깨지잖아요. 자체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입장별로 나뉘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갈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나온 게 인민노련, 인천부천노동자회, 그게 NL이었구요. 그 다음에 사노맹도 나오고 민민투 했던 친구들이 제헌의회를 내놓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제헌의회가 뭐냐?" 그러기도 했는데. (웃음) 모임이 따로따로 되면서 모이지 못했죠. 전에는 그래도 7,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는 모임 자체가 안 됐어요.

서로 한꺼번에 복합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어요. 내부 분열도 있었고. 특히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나 대응을 보면 학생운동의 충격이 가장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민당과의 문제가 주요 요인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이 됐을 거예요. 서노련 자체의 문제였다면 서노련을 재건하든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각자 정파별로 흩어진 것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충격이 제일 컸다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은 복합돼서 나타나는 건데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전까지 같이했던 친구들이 그 무렵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강철서신」 같은 걸 갖고 온 게 86년 무렵부터였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왔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취업해서 공장에 좀 다니다가 했는데 이제 바로와서 「강철서신」 들고 와서는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그동안 우린 속고 살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그랬죠.

제 주장은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운동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들 실천을 통해서 누적해 오는 건데 그걸 사상투쟁이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해 온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안 먹히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서 쓰면 되는데 뭘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학생운동은 별로 관여를 많이 안 했었고 잘 모르기도 했는데 '그러면 입장이 뭔지 내놓아 봐라. 너는 뭐 갖고 할 거냐?' 이렇게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남한에서 노동운동이란 게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중에 주체사상 쪽이나 제헌의회나 이런 건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노동현장에서 절대 써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갖고 노동자들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아예 주사파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일부 센 데가 사노맹으로 빠져 나가고, 또 인민노련으로도 가고, 결국 남은 건 반도 안 됐을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다시 공장에 가서 노동조합이나 만들겠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쪽에서는 하나씩 다 '짜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나는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김진국은 학생시절 구로동에서 노동야학부터 시작했다. 막연하지만 사회주의도 꿈꿨

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력군 건설에 목표를 뒀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성적인 접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였다. 자연스런 흐름에 몸을 맡겼다. 5·3인천민주항쟁 이후는 그런 감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외부적인 압박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삼민동맹'[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을 만든다. 1988년 10월의 일이다. 이후 수감생활을 하며『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란 책을 펴내면서 1986년과 1987년을 거치며 겪었던 '분열과 이합집산'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무리 딱 들어맞는 것 같은 이론도, 그것이 지난한 현실 운동의 피와 땀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획득해내지 못하는 한, 결코 현실 운동의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⁶

남은 사람들은 삼민동맹을 했어요. 86년부터 87년까지는 맨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파가 나뉘니까 각자 행사한다고 그러면 가서 같이 할 생각은 안하고 유인물만 갖고 가서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지만 했어요.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 나고 다시 모이는 분위기가 되면서 사실상 더 큰 틀이 생기게 되니까 개별 정파들은 전부 묻혔어요. 86년 하반기부터 87년 1월 박종철 사건 일어나는 무렵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외부적인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데 내부에서 서로 찢어져서 막 싸우고 그런 건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서로한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니까요. 지금 거론하는 것보다 실제로 정파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삼민동맹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는 주사파나 사노맹이나 이런 데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걸 모아야지 찢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데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모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나중에 징역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 만나서 '합쳐야 한다. 비합법운동으로는 힘들다. 입장 차이를 모두 드러내 놓고 통합해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책도 냈어요. 출판사랑 연결해서 기획도 하고 있는 자료 모아서 정리도 하고 하면서 몰래 냈죠. 그게『선진노동자의 길』이에요. 서문을 제가 썼어요. 나중에 실제로 밖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민중당하고 통합할 때 다 모여서 통합했죠.

6 김진국, 「노동자의 깃발」,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소나무, 1991, 76쪽.

디딤돌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였어요

박계동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홍보부장



- 1952년 경상남도 출생
- 1971년 고려대학교 입학
-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홍보국장 겸 대변인
-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홍보부장
-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 현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CNP 논쟁의 등장

나도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싶었지만 서울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돈 관리를 제가 했어요. 인천에선 돈이 많이 모였어요. 한 6, 7백만 원 정도 모였죠. 인쇄물 값으로 『민중의 소리』를 천 원 받고 『아직도 광주에 살아있다』, 그건 오천 원 받았어요. 그 돈을 갖고 다시 서울 거 인쇄를 들어가야 하는 거였죠. 대구에서 판 거 갖고 광주 거 인쇄하고, 광주 거 인쇄한 거 팔아서 대전 가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박계동은 인천5·3민주항쟁 당시 현장에서 인쇄물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오랫동안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온 까닭이다. 현장에서 배포할 유인물이 없다면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민주청년인권협의회(약칭 '민청협')를 거쳐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에서 홍보국장을 할 때도 『민주화의 길』을 발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본래 민청련이 생기기 전에 민주청년인권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정문화가 대표를 했고 저하고 장영달, 그런 멤버들이 있었죠. 민청협은 조직만 있었어요. 사무실도 없었고 유인물이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해 오다가 민청련으로 가면서 사무실 내고 공식적으로 나간 거죠. 민청협은 민청련의 전신이에요. 80년도에 얼어터져서 다 '죽고' 83년에 더 확대발전을 해서 복원을 한 게 민청련이죠.

민청련은 79년도에 감방 살고 나온 각 대학교의 '빵집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도 홍보국장 겸 대변인을 했어요. 기관지였던 『민주화의 길』 1호, 2호, 3호를 만들었는데 내가 계속하기에는 좀 버거웠어요. 제자(題字)는 김지하 선배한테 받아서 만들었어요.

기관지는 공개화 하는 거잖아요. 처음인 데다가 그걸 인쇄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인쇄처를 뚫고 인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을지로에 강 선생[강은기]이 하던 세진인쇄가 있었죠. 세진인쇄에서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정화인쇄에 갔고, 정화인쇄 하다가 또 문제가 되고 협약해지니까 지방으로 뛰었죠. 그래서 전주에 가서 인쇄했어요. 전주에서 인쇄할 때는 오후 5시쯤 되면 아예 셔터를 내리고 인쇄소 문을 닫고서 했어요. 인쇄 가격을 시가보다 한 세 배 주고, 셔터 내려두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게. 한 새벽 두 시쯤 돼서 작업이 끝나면 전국에 발송할 분량을 하나로 뭉쳐서 고속터미널로 가져가고 거기서 각 지

역사무소로 다 발송해 버리고 털고 나오는 거죠.

민청련은 학생운동과 대중운동의 결합을 고민하면서 학생, 노동, 농민 등 부문운동간 결합체의 필요성을 느끼며 민주민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의 결성을 추동해 낸다. 이때 민청련에서는 대표격으로 박계동이 민민협 사무총장으로 옮겨 갔고, 일반사회운동 쪽에서 이부영이 대표를 맡았다. 민민협은 기관지로 『민중의 소리』를 발간하는데 박계동은 여기서도 『민중의 소리』 발간 업무에 관여한다.

민민협에서도 또 『민중의 소리』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찾아가서 '탁'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인쇄한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건 수행 능력이 없으면 안돼요.

민민협은 곧 국민회의와 통합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을 건설한다. 서로 다른 두 단체가 결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세에 대한 분석이나 운동방향 등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청련이 주도해서 만든 거죠. 민청련은 공개운동화 하는 걸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청년운동만 저렇게 공개운동할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죠.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약간의 틀거리들은 다 있었지만 아예 정권과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민청련이 생겨나니까 더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선적 구심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을 총괄적으로 결합하는 민통련을 만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던 주된 부분이 학생운동으로서는 민청련이었어요. 거기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부분적으로 주도를 한 거죠.

전선적 구심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을 결합한 거죠. 위로는 부문운동, 그러니까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화·사회운동, 언론운동, 그런 부문운동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그런 지역운동, 그것을 한꺼번에 다 엮는 전선적 구심체가 민통련이에요.

민민협과 국민회의 사이에 갈등이 조금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민민협 입장에서 볼 때 민민협은 조금 체계가 잡힌, 사회과학적 논리에 입각한 운동체였고, 국민회의는 명망성 중심의 운동이라고 봤거든요. 민통련 결성 이후에도 그런 갈등

이 약간은 유지가 됐죠. 그걸 논리와 실천을 갖고 쪽 이끌었던 사람이 김근태 선배였어요. 국민회의는 함석헌 선생부터 계훈제 선생, 백기완 선생, 이부영 등등 정말 명망성을 갖추고 있었죠. 민주화운동에서 명망성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나훈아 나와서 노래부르는 거하고 나훈아가 나와서 노래부르는 거 하고 관객이 달라지는 건데. 하지만 이쪽은 앞으로는 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에 기반해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국민회의 쪽을 견제했죠. 사실 대중성이나 전체적 영향력으로 보면 국민회의 쪽이 더 커요. 민청련은 국민적 지도력이 아직은 약하지만 사회과학적 기반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본래 우리 사회운동의 중심축이 그때 제대로 섰으면 우리가 집권을 했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게 결국 우리 내부에서 분열로 나타났고, 그게 가장 크게 분열돼서 나타난 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생긴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졌죠. 그때 재야를 중심으로 한 구심축은 사실상 깨져 버린 거죠.

재야 세력의 내부에서 태동하던 미묘한 갈등은 인천5·3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표면화되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CNP 논쟁이다.

그게 소위 CNP 논쟁이라는 건데. 어느날 민통련에서 부평에 있던 우리집에 전부 다 모였어요. 그때 이을호가 CNP에 대해서 발제를 했어요. CD와 ND와 PD로 나뉘잖아요. 사실 그렇게 세 갈래로 분류하고 갈라놓으려는 생각부터가 틀려 먹었어요. 지금 와서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쳤어요? 운동권 안에서 서로 계열이 다르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작살나게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쓸 데 없는 걸로.

하야튼 민청련 만들 때 나하고 김근태하고 두 사람이 발기문 작성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초안 서문을 놓고 저하고 근태 형[김근태]의 견해가 아주 달랐어요. 근태 형은 청산론적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아예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명망성 중심의 운동을 종식하고 이제 과학적 토대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감옥 살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명망성 중심의 운동’으로, 또 ‘비과학적 운동자’로 규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새벽 세 시, 네 시까지 싸웠어요. 타협이 안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불도 안 켜고 그 대목 하나 갖고 논쟁을 했죠. 결국 새벽 네 시쯤 돼서 적당히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민중의 길』 보면 제일 처음에 창립선언문이 실렸는데 앞대가리에 그런 절충된 대목이 있어요. 처음엔 더 심했어.

5·3 때도 다 나타나죠. 그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또 갈라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 걸 만든 시초가 CNP 논쟁이에요. 그걸 내 집에서 했으니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농구공에 가득 담긴 모금액

박계동은 각 단체에서 기관지 발간을 담당했던 탓에 인천5·3민주항쟁 때도 인쇄물을 제작·판매하는 일을 전담했다. 리어카를 옆에 놓고 유인물을 팔며 모은 돈으로 다음 집회를 준비하려고 했다. 인천 다음은 서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결국 서울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

인천집회를 준비하는데, 집회라는 게 대중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홍보물이 있어야 해요. 『민중의 소리』를 인쇄를 해야 하는 거죠. 인쇄물량이 그냥 ‘트럭떼기’예요. 인천집회 할 때 인쇄를 세진인쇄에 했어요. 세진은 경찰한테 찍힌 곳이에요. 폭탄 맞은 데였는데 그동안 한 7, 8개월 동안 세진을 이용 안했으니 결정적일 때 세진에 가서 인쇄를 한 거죠. 거기에 맡겼는데 인쇄물을 5월 2일에 반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진 인쇄소에 저녁 6시에 가져가기로 하고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안기부에 이미 들켰더라구요, 인쇄물 전부를. 그때 『민중의 소리』라는 폐이퍼하고 『아직도 광주에 살아있다』라는 화보집하고, 두 개를 찍어야 하는데 거의 다 해 놓고 들킨 거죠. 트럭에 다 실어놓고 갑바를 씌워 놓은 상태에서 세진 강사장님이 안기부에 끌려갔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진 인쇄소 직원들은 저녁 6시 되니까 다들 퇴근들을 했구요. 안기부에서 왔다가 금방 갔다는 거예요. 인쇄소가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 인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이달원하고 동국대 임병주하고 나하고 셋

이 세진 인쇄소 골목에서 한 30~40m 떨어진 곳에 봉고차를 세워두고 인쇄소 골목에서 끌고 다니는 수레에 인쇄물 담아서 봉고차에 막 실었죠. 안기부 사람들은 그걸 탈취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조금 전에 조사하고 그런 판에 어떤 놈이 그걸 갖고 가겠어요. 우리가 봉고차에 다 실었어요. 그렇게 갖고 오는데 역곡역 근처에서 검문을 하더라고요. 난리였죠. 학생들 가방 뒤지고 그럴 때였어요. 우리는 '봉고차 떼기'로 간 거죠. (웃음) 경찰들이 보니까, 유인물이라는 게 애들이 가방에 50장, 100장 이렇게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봉고차로 가니까 쓱 보고 말더라고요. 그걸 갖고 부평성당으로 갔어요. 호인수 신부님한테 방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 뒀죠. 열어 보니까 『아직도 광주는 살아있다』란 책은 아직 표지를 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풀칠까지 다 해서 책자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주안성당으로 갖고 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9시 반쯤인가, 인천 민주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민통련은 메인 행사장이 시민회관 앞이거든요. 임시 단상을 만들려고 거기 있는데 9시쯤 됐을 거예요. 이쪽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천 명 정도가 대오를 꾸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쓱 가서 민정당사 가더니 화염병을 던지더라고요. 2층이니까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바로 경찰들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붙지 않았어요. 그 후에 밀리더니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서 진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천은 평화집회 비슷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서울집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더구나 화염병까지 집어넣고, 경찰도 노동대 오들하고의 전선을 서로 밀려갔다 밀려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시민회관 앞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덩어리가 형성이 됐어요. 소란스럽긴 해도 민통련 주 연설장은 크게 훼손 없이 갔어요.

인천시민회관에서 이쪽에 오는 대오를 경찰이 쪽 밀고 가면 저쪽이 밀려 가잖아요. 대중들이 그걸 또 따라가요. 그럼 경찰들 한가운데에 있게 돼요. 그걸 왔다 갔다하는 거예요. 몇 만 명이 시가지에 나오면 한두 명 잡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잡아가서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사람도 없구요. 처음에 오전까지는 노동대오만 대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대처하는 경찰들은 여기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화염병 던지고 과격하긴 저쪽이니까. 돌맹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집단하고 싸우지 여기하고는 싸우지 않죠. 여기는 평

화집회였으니까요.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됐죠. 경찰도 이쪽을 진압해야 할지 저쪽을 진압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구요. 그게 오백 명, 천 명 단위면 제어, 봉쇄 이런 게 되는데 몇 만 명 되어 버리면 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조는 평화집회였죠. 그건 행사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언론에도 발표했어요. '이건 평화적 집회다.'라고요. 대처 상황이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나서면 안 됐죠. 서울에서도 인쇄물을 찍어야 하는데 앞에 나서면 안 되잖아요.

인쇄물은 인천시민회관과 연단 사이에 아예 리어카를 놓고 팔았어요. 일단 주안성당에 유인물을 옮겨 놓고 한 리어카 싣고 나가서 다 팔고 또, 한 리어카 싣고 오고 그러는 거죠. 불티나게 팔렸어요. 농구공을 칼로 찢어서 돈을 집어넣으면 밖으로 빠져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동전이고 뭐고 집어넣는 거예요. 농구공 하나 이용하면 나중에 보면 무거워요. 나는 홍보 일만 열심히 했어요. 머릿속에 서울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천이 이정도면 서울 구경은 문제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했죠.

마이크 잡는 거는 안희대가 사회 비슷하게 했어요. 한번은 안희대가 상용이한테 연설하라고 하는데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대가 "형은 빛이 많잖아. 쌀장사 하다가 못 갚은 빚도 많은데 빨리 올라와서 감옥 가. 감옥 가 있는 동안 빚쟁이 안 와." (웃음) 농담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희대가 막 불러올렸죠. 마이크 잡으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개됐는데도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 수배된 거예요.

인천시민회관 앞 집회가 끝난 후 민통련과 인사련 주체 세력들은 송도로 이동했다. 이후 일정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운협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 분들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나밖에 없으니까. (웃음) 끝나고 나서 송도 해변가에 집합했어요. 한 세 시쯤 됐을까요? 그때 완전히 시민회관 앞에 있던 본진에 공격을 했어요. 폐퍼포그 쏘고 최루탄이 '파파팡'하더니 '지랄탄'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아, 장사 끝났구나.' 그랬지. (웃음) 연단 자체가 다 박살이 나 버리고 전투장처럼 돼 버렸으니 이때는 다시 구심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남아서 더 할 사람은 하는 거고 갈 사람은 가고 그러는 거죠. 민통련은 조직적으로 다 빠졌어요.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집회 하듯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또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서울이 그 다음 일정이었죠. 그게 일주일 단위로 건너왔거든요. 우리는 계속 다음 집회, 다음 집회를 사전 준비하고, 학생들 동원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운협하고 전부 다 같이 얘기했어요. 플래카드는 어떻게 준비하고 인쇄물은 뭐하고 플래카드 준비부터 다 해갖고 가니까. 인쇄물이 없으면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 뒤풀이하고 밥 먹고 여관비하고 그런 것도 수월치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지운협이 민통련 지도부격이었어요. 집회 계획 같은 거 사전에 알아봐야 알려주지도 않고. 그거 알려주면 뭐해요. 들통나면 어찌려구. 광주집회면 광주에 가 보면 되는 거고. 대구집회면 대구에 가보면 아는 거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연단을 어떻게 준비하고, 플래카드는 어떻게, 그걸 알면 뭐해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서,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각 지운협이나 지역민통련 지도부들이 다 준비하고 만들면서 5·3이 시작된 거죠. 5·3 이후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바로 전주집회 행사 준비를 해요. 전주집회도 우리가 다 수배 당했는데도 내가 들어가서 다 했어요. 플래카드 펼쳐 들고 거리행진까지 했죠. 그러니까 5·3에서 1급 수배자가 전주집회에 나타나 주도하고 거리행위까지 다 한 거죠. 그런데도 경찰이나 검찰, 아무도 못잡았어요. 그래서 박계동이 홍길동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그 많은 기관원들이 다 보는 데서 주도하고 딱 사라지는 거니까. (웃음)

5·3이 끝난 후에는 송도해수욕장에 갔어요. 거기 한 이십 명 모였어요. 주로 인천사람들, 인사런이죠.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집회하면 그런 거 다 호스트가 하죠. 장소, 준비 이런 거는 인사런이 다 하는 거고. 광주가면 광주 사람들 끼리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거기는 먹고 끝나는 거지 논의할 그런 자리는 못돼요.

그렇게 '쫓'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명분으로는 저렇게 언론들이 공격해 대니까 '어찌면 저걸 빙자해서 더 이상 서울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우려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열기도 굉장히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도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할 거다. 경찰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박계동은 6·10항쟁이 도시별로 진행된 민주화나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결집해서 나타난 것으로 봤다. 인천 5·3민주항쟁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했

다는 것이다.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다 수배령을 내렸어요. 저도 수배됐죠. 인천에 가서 회 잔뜩 먹고 저는 수배 내렸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잤어요. 송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다 먹고 '야, 이제 일주일 뒤에는 마지막 서울이다. 파이팅!' 하고서 와서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임병주가 보안사에 '달려' 갔어요. 그리고 박계동 어디 있는지 쥐어짜고 있었대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자고 있고. 아침 9시쯤 돼서 가뿐하게 일어나 있는데, 아주 날씨도 맑았어요. 이호웅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디니?" 그러더라구요. "나 집인데." 그러니까 "너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 (웃음) 난 그 전화 받고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이미 다 잡혔죠. 다 잡혔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거라고는 경찰이고, 안기부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수배령 때리고 난리였는데 집에 가서 잘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부터 튀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죠. 서울 집회는 '나가리' 됐고. 그래서 서울집회 예정된 날짜에 전주집회를 잡은 거예요. 전주집회를 또 의논을 해야 하잖아요.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런 곳은 시끄럽고 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전주집회 논의를 새벽 네, 다섯 시까지 했어요. 전주집회에 대한 그림, 계획, 역할, 이런 걸 다 결정한 후에 택시를 타고 사우나를 갔죠. 거기 근처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논현동 삼정호텔 밑에 여관 같은 사우나가 있어요. 그곳으로 전부 갔죠. 우리가 밤을 새고 온 거니까, 옛날에 사우나 침대라고 해서 퍼질러 자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누우니까 자리가 다 찼죠. 그때 한 노인네가 새벽에 목욕을 왔다가 자기도 좀 드러눕고 싶은데 젊은 것들이 와서 누워있으니까 "아, 요새 수배자들이 많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웃음) 깜짝 놀라서 나왔죠. 막 나오는데 파출소에서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출소 새벽 근무 마치고 한 여섯시쯤 돼서 씻으러 온 건데 우린 또 우리 잡으러 온 줄 알고 빨리 빠져나오고. (웃음)

이호웅이 아는 분 집이 잠실에 있었어요. 그 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호웅하고 제가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둘이 있으니까 열쇠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복사를 해서 하나씩 갖고 왔는데 키가 들어가서 안 빠지는 거예요. 벤치로 뽑아 봐도 안 빠지고. 복사를 잘못해서 키가 들어가더니 안 나왔던 거죠. 어떻게 해요, 다

른 키를 하나 또 달았어요. 원래 있던 거는 밖에 꼽혀 있는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한 이틀 지냈더니 오후 네 시쯤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신분증을 보자고 하네요.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열쇠를 밖에 꽂아 놓고 있으니까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호웅하고 둘이서 점심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바둑 두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수배자의 가장 큰 방어무기는 태연함이에요. 경찰이 딱 왔는데 호웅이 형이 얼마나 태연하냐 하면, “주민등록증 좀 보자.” 그러니까 우리 가짜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줬죠. 경찰이 보기에 이렇게 태연한 놈들이 이상할 거는 없었을 테죠. 그러더니 여기 집 주인이 아무개 씨로 돼 있는데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랬더니 호웅이 형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아, 우리 나이에 애인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경찰이 씩 웃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6·10항쟁 때 서울시청에 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멤버들이. 나하고 이호웅하고 둘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침 9시 반쯤 돼서 서울시청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박○○이었어요. “상황을 보고 올게.” 이라고 가더니 “서울 집회 성사 안 된다.” 라고 해요. 5·3 이후에 집회 전 분위기가 본래 그랬어요. 마산 집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시를 해요. 가게들이 셔터를 다 내리고 철시를 해 버려요. 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집회 한 시간 전까지 그래요. 서 있는 건 경찰만 서 있고. 그러니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되면 다 튀어나와요. 몇 만 명이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산도 공설운동장이었는데 3~4만 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리에 철시해 놓고 구경 나오는 사람들도 없애기 위해서 노인들은 전부 다 관광버스로 시외에 놀러 보내고 했을 때예요. 서울은 그곳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박○○ 씨가 지방 집회 때 썰렁했던 걸 본 일이 없으니까 가서 9시, 10시 상황 보니까 경찰만 딱 들어차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집회 틀렸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 움직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일생에 한이 돼요. 이호웅하고 나하고 땅을 치면서 제일 아파했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6·10항쟁의 범민중적 운동이 어디서 엉뚱하게 무슨 종교운동처럼 돼 버렸어요. 마무리를 못 한 거죠.

다 지나고 저는 기대만 했죠. 87년 대선 때 야권 단일화가 될 거고 그러면 수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배생활 열심

히 잘 했죠. 그런데 거기서 사자필승론인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5·3은 서울까지의 마무리죠. 인천이 마무리죠. 디딤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예요. 최초로 정치권과 재야 시민단체와는 알력이 있었어요. 개헌 현판식을 놓고 우리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신민당은 신민당대로 엄청난 대중집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강당 안에서 행사하는 거야 얼마나 돼요. 밖에서 몇 만 명이 운집을 하고 있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플래카드 들고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야 빠지겠지만.

5·3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련의 부산 개헌 현판식과 군정종식, 민주화운동, 직선제 개헌 요구 투쟁이, 그거는 민통련에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운동본부까지 만들고 그걸 중점으로 잡았으니까. 그것을 대구집회에서부터 신민당 집회가 재야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결합한 거고 그것의 위력이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보인 거죠.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건 한계예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서울집회를 아주 극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인천을 잡지 말 걸 그랬네.’ 그런 얘기도 했고. 바로 서울로 해 버릴 건데 예비 집회 형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천 집회가 어쨌든 한 단계 마무리 집회였어요. 그 다음에 전주집회, 그거는 아주 꼭지점에서 여진을 보인 집회였고.

일련의 직선제 요구 투쟁의 정점이었죠. 화산덩어리도 끝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쪽 내려가잖아요. 그 힘의 에너지가 다시 인천이 돼서 종국적으로 솟아오른 게 6·10항쟁이죠. 그런 건 개헌 현판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제는 변화됐지만 전민중적 동원과 참여, 일관된 민주화 요구에서, 주제만 달랐을 뿐이지 군정종식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거는 5·3까지 쪽 꾸준히 이어왔던 거예요. 6·10이 그걸 갖다가 최고 정점에 올린 거고, 5·3때 거기까지 갔다가 그 주체들이 수배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폭 하고 꺼지는 거죠, 6·10까지. 그랬다가 폭발하는 거죠. 6·10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명확하게 쟁점화시키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직접 뽑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체육관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을 99.99%가 찬성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직선제 개헌 요구투쟁이나 군정종식이나 이거는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그것을 목표를 정확히 했고, 그 목표 하에 모든 시민들이나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참여하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대오전선에 서는 연습을,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동원연습을 수차례 한 최고 정점이 5·3인천이라고 생각해요.

5·3이 서울중심의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 정치중심의 역사관 때문에 비하됐어요. 그냥 한 해프닝 같이 보는 건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민통련이나 이런 데서 쪽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5·3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운동사적 가치도 크고, 그런 요구를 결집화 시킨, 하나의 슬로건으로 결집화 시킨 거죠. 정말 두렵잖아요. 철용성 같은 억압 체제에서 그걸 저항한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걸 한 발 더 나아가서 행동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실천하고 거기서 자신감을 확인한 거예요. 전주나 마산은 어차피 되는 거예요. 이미 부산, 대구에서 다 했으면 마산도 되는 거고,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했으면 전주도 되는 거지 뭐. 그러나 수도권 전체를 또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게 인천이거든요. 사실은 인천은 예비라고 봤지만 서울서부터 다 모였어요, 수도권은. 여태 안 한 강원도까지 다 결합한 거예요, 인천에서.

다시 5·3을 끌어오고 싶어요

박육남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선전선동부 회원



- 1960년 전북 순창 출생
- 1976년 한일도루코 입사
- 1980년 한일도루코 해직
- 1985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참여
-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선전선동부 활동
- 2012년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활동 시작

노동자로 살아온 세월

그동안의 다른 집회들하고 틀릴 거란 예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단 거물 정치인들이 오니까요. 실제 당일이 되니까 엄청났죠, 엄청나. 어휴, 난 그렇게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대단했어요. 여태까지 맛보기 힘든 해방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우리가 왜 여태까지 당하고만 있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도블록도 함께 깨고, 인노련이 예상했던 걸 훨씬 넘어섰죠. 그러니까 5·3 이후에 피터지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다들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박육남은 노동자다.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노동자다. 열일곱 살, 중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공장을 다녔다. 지금은 강화도에 살면서 김포에 있는 작은 공장을 다닌다. '삼민헌법 쟁취!'를 외치며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어울려 살길 바랐던 20대의 박육남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한 세대가 지났어도 노동 현장은 여전히 힘들다. 환경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탄압'의 '기술'은 오히려 성장했고, 노동자들이 받는 압박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박육남은 답답함을 느낀다. 의식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겹을 먹었고 운동의 폭은 좁아졌다. 5·3인천민주항쟁이 있던 시절이 그렇다. 그건 머릿속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다가오는 아픔이다.

그 당시는 직접적인 탄압이었죠. 옛날에는 잡아가서 구속시켰지만 지금은 다 벌금으로 하잖아요. 벌금 때문에 개인 파산 당하고 길거리에 나왔어요. '너희들은 먹을 것만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금속노조 개별 조합원으로 일을 하고 있겠어요. 저는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일을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가고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파견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5·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함께 했던 거예요. 사거리 공간 자체가 인도블록[보도블록]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전부 깨서 전투경찰한테 쏟아 부은 거잖아요. 일반시민, 우리 할 거 없이 다들 한 몸뚱아리가 돼서 그렇게 했죠. 그런

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다 보니까 조건도 현실도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에서 5·3이 참, 굉장히 그림쥬.

그렇다고 해서 5·3투쟁의 의미 부여라든가 이런 걸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살아온 게 워낙 굴곡이 많다 보니까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5·3을 떠올리게 된 계기라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억울하게 국가권력에 무너진 사람과 조직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상승시키려고 작업하는 걸 보면서 부터예요. 국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죠. 그런 게 계기가 됐어요. 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원으로도 좀 있었구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5·3투쟁을 비록 논리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진 않았어도 지금 우리 투쟁이 협소화 되고 겹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림쥬라고 할까요, 생각이 많이 나죠.

박육남의 삶도 평탄하진 않다. 남편은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고 해고와 구속이 꽤 긴 시간 이어졌다. 강화도에 자리를 잡은 건 교육지책으로 선택한 방편이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갔죠. 남편이 대림자동차 구속해고자예요. 나와서 마치코바 전전하다가 IMF 때, 완전히 공장도 문 닫고 그럴 때죠. 그때는 서구 신현동에 살았거든요. 서구청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워낙에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침 대우중공업 다니는 사람이 강화도에 땅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마치코바 다니면서 저축해 왔던 거, 근로자 저축 찾은 거, 그걸 모아서 250평을 같이 구입했어요. 500평을 사서 둘로 나눈 거죠. 그러던 중에 동네 사람이 김포에 있는 테이프 만드는 회사 소개시켜 줘서 거기만 16년째 다니고 있어요.

인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건 1985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약칭 '인천노복')에 가입하면서 부터다. 전 해 12월에 서구 신현동으로 이사를 왔다. 서울에서 한일도루코 공장과 구로공단을 다니며 노동운동을 해오다가 인천에 정착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약칭 '한국노복') 등과도 관계를 맺었다. 한일도루코에서는 노동조합 부지부장을 했다. 지부장은 김문수였다. 노조 활동을 하던

중 1980년 계엄사에 끌려가 사표를 강요당한 후 회사를 나왔다. 같이 끌려간 한 노동자의 메모에 의하면, 담당수사관이 '박육남이 밥도 안먹고 말한마디 않고' 해서 몹시 애를 먹었다고 한다.¹ 해고된 전 지부장이었던 김문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박육남의 남편도 같은 공장에 다니던 때였다.

저는 한일도루코 해고되고 나서 구로공단에 다녔어요. 남편은 한일도루코에서 같이 하다가 제가 나오고 나서 계속 노조 활동 하면서 해고됐죠. 1년 후에 자기 형이 소개시켜줘서 인천에 있는 대림자동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한 2년 만에 창원으로 이사를 간대잖아요. 남편이 1주일 정도 철야농성을 하더라구요. 회사 들어가서 한두 달 사이에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구속됐어요.

남편이 대림자동차에 취직이 되니까 고척동에서 부평까지 출퇴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84년 12월에 신현동으로 이사를 와서 15년 정도 살았죠.

인천에 와서는 인천노복을 거쳐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에 가담을 했고 인노련 해체 후에는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약칭 '공실위')에서 상근 활동을 했다. 공실위는 1987년 8월 13일 일꾼교회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곧바로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사무실로 소재를 옮겨 활동하다가 이듬해 10월 26일 해체식을 가졌다.²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받는 단체다. 박육남은 공실위 일을 끝내고 나서 다시 민중정치연합(약칭 '민정연')에 가입하며 1995년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런 단체들에 꾸준히 발을 들여놓은 이유는, 인맥 때문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실천의 폭을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노협[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에서 인노련으로 옮길 때는 정치조직이 낫겠다 싶어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인노련을 받아들인 건 제가 살아온 과정도 그랬지만 사실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이라든가 하는 것만 갖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 같았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들도 정치조직화 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1 「1980년도 전두환 군부의 노동계 탄압정책에 의해 연행 고문당한 한일도루코 노동조합 노동자의 수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2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했고, 그 부분에서는 인노련이 맞다고 생각했죠. 인노련 들어갔더니 그 안에 삼민투도 있고, 제헌의회도 있고 갈래가 많더라구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CA가 또 맞는 거 같아요. (웃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도 했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원전 같은 것도 좀 읽어 보구요.

활동을 전환할 때 제 머릿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논거가 있었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합이란 게 있지만 일반1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논의 속에 있었고 이게 옳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옮겨 가고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옮겨갔던 거 같아요. 인맥을 보면 진보신당하고도 연관이 있죠.

박육남은 공장생활을 하다가 인노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다. 그것이 인생의 큰 줄기를 형성한다. 남편이 대림자동차를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다. '남편이 구속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비합법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장에 묶여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밥벌이만 할 뿐 그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분노에 차 있던 시간이었다.

인천에 오자마자 남편이 감옥에 딱 1년 6개월을 채우고 나왔어요. 그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죠. 그때는 '집들이'를 많이 했어요. 탄압 국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들이를 하다보면 새벽에 끝나서 택시타고 들어오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남편 퇴직금 받아서 다 써버렸죠. 남편이 출소하고 나서 퇴직금 어딴냐고 그러기에 "아, 다 썼지." 그랬어요. (웃음)

1986년 5월 3일 박육남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구속된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 핏덩이 아이는 친정어머니 손에 맡겼다.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억울함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인노련 활동을 하던 와중에 5·3 인천민주항쟁을 만난다.

주안성당에 갔었죠. 확실한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는데 1차적으로 성당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옆으로 뒤로 막 나오면서 인노련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보도블록 깨던 생각도 나는데 잔뜩 각목이고 뒤고 들면서 구호를 외친 기억이 나요.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 있다가 제일시장 쪽으로 밀렸어요. 인천시청 방향에서 경찰들이 몰려오고 그때부터는 인노련 사람들하고 흠어졌죠. 그러다가 근처 주택가로 튀었어요. 아침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했던 거 같아요.

아직 끝낼 수 없는 노동자의 길

인노련에서 선전선동부 일을 했어요. 거기서 훈련을 엄청 받았죠. (웃음) 지선이 언니[김지선]가 같이 하자고 해서 출발 했는데 선전선동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작했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집회나 가두시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노동자 지원도 좀 했어요. 윤배 씨[박윤배] 같은 경우는 유인물 제작해서 뿌리기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그랬죠. 파업하던 공장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파업투쟁하는 데 가서 인노련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발언도 하구요.

토론할 때는 문건도 봤어요. 누가 만드는 거였는지 몰랐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할 때마다 배포됐어요. 윤배[박윤배] 씨가 가져올 때도 있고, 주로 인노련 활동에 대한 것이나 정세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점조직처럼 일대일로 만나고 그래서 비공개 지도부가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훨씬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지금도 비공개 지도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인노련 선전선동부에서 일을 하던 중 인천에서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 열릴 거란 소식이 들어왔다. 인노련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과는 별도로 그날의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갔다. 비폭력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폭력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인노련에서 5·3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크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 중의 하나가 폭력과 비폭력 문제였어요. '직선제,' '비폭력'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까지 과정이 우리는 계속 깨지지만 했어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치적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학생들도 데모를 많이 하던 시기잖아요. 구로 연투[구로동맹파업 연대투쟁]도 막 일어났구요. '폭력에는 폭력이라고 애네들이 전혀 집회를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건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맥없이 몸뚱아리 하나로 당할 순 없지 않겠어요? 애네들이 지랄탄을 쏘고 그럴 때 우리도 그냥 있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인도블록[보도블록]도 다 깨서 던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비폭력 입장은 신민당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많이 흡수한 거죠.

저는 준비하는 것 까지만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제가 각목을 사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노련이 주안성당에서 준비한 건 맞아요. 앉아서 당하지는 말자고 했는데 막상 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박육남은 지역적으로 '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 집회의 규모를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다.

크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김영삼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걸 우리 걸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하는 고민을 했죠. 저쪽에선 직선제니 평화집회니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박수쳐줄 순 없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선전적인 내용을 생각했죠. 인노련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지금 김영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직선제가 왜 잘못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려던 거였어요.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자는 얘기도 있던 있었어요. 인노련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노조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긴 해도 현장하고 연결지으려는 노력은 계속 했어요. 5·3때도 노동자들을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가볍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노조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노동조합 간부라든지 활동가들 있잖아

요. 그때는 학생 활동가들이 현장에 위장취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선을 통해서 몇 명 데리고 오게 하는 정도였죠. ‘너는 열 명 데리고 와.’ 이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인노련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우리 입장이 옳다고 동의한 현장 노동자들, 위장 취업자 노동자들, 그런 선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수준으로 얘기가 된 거죠.

5월 3일 당일은 상상 이상이였다. 인노련 회원들이라고 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낸 건 아니라고 한다. 인노련은 5·3인천민주항쟁 이후 내부적으로 많은 노선의 갈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도 미약하게나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게 5·3인천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폭발을 한 거다.

우리가 그때 당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3에서 소요죄도 적용되고 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구상한 것도 아니고, 민정당에서는 개려고 물리력을 동원한 데다가 그 와중에 폭력이 있다 보니까 커졌던 거죠.

인노련은 현장에서 주장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파’가 있다 보니까 시위 공간이 엄청 커지면서 ‘파’대로 막 한 거예요. 인노련도 현장에서는 그랬어요. 각자 놀기도 했어요. 꼭 한 가지로 간 건 아니예요.

박육남은 이후 ‘정치력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인노련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정치조직이란 건 권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잡아야 노동자가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노련 내에서도 정치적 이견들이 격렬함을 보이며 나타났다.

86년도에는 정치적 이견들이 엄청 격렬했어요. 5·3 이후에 이게 더 찢어진 거예요. 삼민투리든가, 제현의회라든가, 혹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구요. 그런 토론들이 치열했죠. 의견이 다르면 서로 연락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웃음)

옛날 같으면 우리가 회의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주 신중했고, 진지했어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동지애를 느꼈는데 그런 게 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면 신뢰도 안 가는 거예요. 5·3 이전에는 직선

제나 아니나 이런 문제였다면 5·3 이후에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더 이상 이끌어가기 힘들 정도로 침체화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흐지부지 된 거죠. 회의 소집도 안하고 서로 원수가 된 거죠.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뉘었다고 봐야죠.

그런 노선 갈등이 낫설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믿는대로 활동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미련은 없었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NL이니 PD니 분간을 하지만 당시에는 분간을 할 수 없었고, 그냥 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박육남은 노동자가 된 이후 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현재 금속노조 개별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얻었다. 살다보면 항상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그때마다 옳다고 믿는 길을 따랐다. 5·3인천민주항쟁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그때 그 시절 필요한 행동이었다. 시간이 지났다.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흘러간 1986년 5월 3일의 기억을 다시 반추할 필요가 있을까. 선택은 당시의 문제였는데.

너무나 개별화 돼 있고 너무나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5·3을 다시 끌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당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바뀐다는 게 평화적으로 가능할까요? 착취받고 배제되는 계층들이 점점 넓어지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밟히기만 할까요? 물론 지금은 노동자들도 의식이 높아졌어요. 경제투쟁 속에서 총파업이 아니라 정치적 총파업도 일어나리라고 봐요. 정말 요즘에는 정신적, 물리적,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계속 탄압을 당하면 누가 주장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찌 보면 조직된 노동자만 시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조직된 노동자 문제가 아니예요. 이젠 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도 위반하고 있고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운동이 왜 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구요. 여전히 실천활동을 하고 있는 건 거기에 조금 이나마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금속노조 가면 지역노조니까 ‘선배님, 선배님’ 그러잖아요, 호칭이. 그럼 난 참 마음이 한쪽으론 좀 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제가 선배님 소리를 들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 선배들이 뭘 해줬다

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는 상황 속에서의 슬픔, 저는 그런 게 제 인생 살아 오면서 가장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전투력의 최대치를 보았어요

서동석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 1954년 출생
- 1977년 (주)한국키스톤발부 품질관리부 입사
- 1980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입학
-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역임
- 1999년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민중불교운동연합 활동

1985년 5월 4일, 재가불자와 청년 승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불교운동연합(약칭 '민불련')이 창립됐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출범 강령에서,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이 보장되는 불국정도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주체적인 민중불교 확립'을 표방하며 민중불교 중심의 불교운동을 지향하였다. 또 민불련은 민중에 기반을 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강조하며 기존의 승단과 보수적 승려들의 행태와 노선을 강력히 비판했다. 발기 취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세우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민중불교운동의 정신을 구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정권의 일제 식민지 정책을 방불케 하는 불교재산관리법, 공원법 등 제 악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어용화, 이권을 둘러싼 종권다툼 그리고 조선조 억불 정책 하에서도 유래가 없던 1600여 년 한국불교 사상 초유의 10.27법란 등 한국불교는 끊임없이 정략적인 이용물로 유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불교는 자기 존립의 몸부림에 치져 민중의 고통스런 현실에 동참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초 종단적인 사부대중의 힘의 결집체로서 관제불교, 산속불교, 귀족불교를 배격하고 불교의 민중화를 이룩할 것이다. 본 연합은 부처님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거리로, 낮은 곳으로 모시는 운동이며 민중의 삶에 동참하는 운동이다.”

저는 집행위원장이었어요. 초대 의장은 여익구 선배였고, 부의장은 진관, 김래동이 맡았어요. 고문은 경우스님, 월운스님, 용태영 선생을 모셨고 지도위원은 고은 선생, 김지하 시인, 김승균 선생, 성렬스님, 지선스님, 소설가 황석영, 장기표 선생, 성승표 선생, 백영기 선생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간할 민불련 기관지 이름을 고은 선생이 지어주셨는데 『민중법당』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제호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중법당』은 1985년 7월 30일 창간호를 발간한 민불련의 기관지다. 당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인쇄나 배포가 쉽지는 않았다.

어려웠죠. 『민중법당』은 70년대부터 벌여 온 민중불교운동의 성과를 잇고 그

성과를 자산으로 80년대라는 상황을 반영하는 부정기 기관지였습니다. 최초 발행은 1985년 7월 30일이예요. 그때 창간호를 제작했어요. 당시 창간호에는 머리글로 진관스님이 ‘우리는 깃발을 들고’의 제목으로 지은 축시가 실렸습니다. 스님은 ‘우리는 승리하리라’로 시작하는 장편의 시 끝 부분에 ‘... 피로 물들인 이 산천에 서서/ 솟아오르는 핏덩이를 핏덩이를 핏덩이를 핏덩이를 불태우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빈민 굴 속으로/ 가리라 가리라 깃발 들고 가리라/ ...’라고 했죠. 시를 통해서 매서운 다짐을 하셨어요.

『민중법당』 창간호를 만들자마자 호된 신고식을 치렀어요. 당시 배포도 되기 전에 압수대상이 됐어요. 사실 그때는 인쇄물이 압수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다른 단체의 기관지 또는 인쇄물은 압수가 되는데 우리 민불련의 것만 멀쩡하면 펜스레 ‘쪽’ 팔리기도 하고 뭔가 내용이 빈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또, 사실은 이게 가장 압수되길 바라는 속내였는데, 경찰이 들이닥치고 인쇄물을 압수하면 중앙 일간지에 한줄 기사나마 실리기 때문입니다. 압수기사가 나가면 민불련도 자동 홍보도 되고 이 압수된 인쇄물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에서 걸려 왔었죠.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데, 우리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 정보과의 정○○형사는 압수가 있기 전날 귀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압수하러 온 이들도 무색하지 않게 사무실에 십여 권의 『민중법당』을 두었지요. 물론 인쇄된 물량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 감추고 몰래 배포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아예 싹 숨기면 정보기관은 이걸 기어이 찾아내려고 미행과 사찰을 더욱 심하게 할 터이니 아예 미리 약간의 보험료를 낸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서로 속 편하고 그저 정보기관은 기관대로 압수했다는 실적을 올리는 생색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당시는 『민중법당』 외에도 민주화운동단체들에서 각자 기관지를 발간하던 시절이었다. 민주통일민중연합(약칭 ‘민통련’)의 『민주통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의 『민주화의 길』, 민중문화운동협의회(약칭 ‘민문협’)의 『민중문화』 등 성격도 다양각색이었다. 이러한 기관지들은 진실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기존 언론들이 채우지 못한 틈새를 메워가고 있었다.

『민중법당』도 민불련만큼이나 수난을 겪었죠. 무엇보다 ‘증거물 압수’에 얽힌 사연이 꽤 많아요. 그때는 정보기관이 멋대로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해서 ‘압수’를 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였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영장을 발부 받는 ‘합법적 조치’이긴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법이란 게 순전히 칼자루를 권 쪽의 ‘합법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쪽은 분통이 터지기 마련이죠. 민불련에 대한 사찰과 법집행은 종로경찰서 정보과가 담당했어요.

지역운동협의회에 결합

민불련은 민통련 지역운동협의회(약칭 ‘지운협’)에 결합하며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시기는 계속된 학생들의 저항과 정치권의 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6년 4월 28일에는 서울대에서 전방 입소훈련 거부투쟁 과정에서 김세진·이재호가 “양키 고흠 반전 반핵”을 외치며 분신하였고, 다음 날인 4월 29일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약칭 ‘민국련’)에서는 김대중이 학생들의 ‘반미’ ‘반핵’ ‘해방’ 등의 과격한 주장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전두환은 4월 30일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를 만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건의하면 재임 기간 중에도 개헌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민당에게 학생과 단절하고 국회로 들어와 개헌논의를 하자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렇게 신민당이 보수대연합 쪽으로 기울자 민통련은 5월 1일민국련을 탈퇴했다. 신민당 개헌 현판식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민통련에서 86년 초에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신민당 개헌 현판식 공간을 대중집회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자고 논의했어요. 민불련도 민통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였죠. 1986년 1월경부터 지역운동협의회(이하 ‘지운협’)에 결합하면서 추진했죠. 처음에는 신민당과 함께 하는 걸로 하다가 대회가 지나가면서 민통련은 단순히 직선제뿐만 아니라 생존권 및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하면서 세 번째부터 별도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민통련 회의에서는 인천지역 개헌 현판식 참여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주관은 인사권이 맡는 것으로 했죠. 제 기억으로는, 5·3항쟁 이틀 전 부터 주안성당에 각

단체에서 파견된 실무자들이 모여 집회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화염병을 비롯해 손수레를 개조해서 현장에 이동식 지휘본부로 쓸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고, 집회준비에 바빴죠. 물론 우리 민불련도 실무자를 보냈어요. 전날에는 저를 비롯해서 회원들이 주안성당에 들러 준비현황도 살폈고, 또 시민회관 앞 도로 등 환경 사전답사도 하였고. 민불련 사무실에서 펼친막을 만들었는데, 복잡한 구호보다 아주 간결하고 반복된 문구로 하자고 의견을 모아, ‘군부독재 타도 타도 타도’라고 썼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이 펼친막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동석이 걸어온 길은 여느 운동가와는 그 이력이 좀 특이하다. 노동자로서 구로동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처음 구속되었다.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갔으나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집행위원장으로 86년 5·3항쟁에 참여했다가 또 다시 구속되었다. 두 번째 구속이었다.

저는 1954년생인데 70년대에는 공장에 다니다가 80년에 건국대학교에 들어갔죠. 경제학과입니다. 83년 5월,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학내시위를 주도하여 함께 구속됐다가 84년 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구속학생 가운데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석방되고 난 뒤 그 무렵에 각 대학 복학생이 모여 복학대책위원회(약칭 ‘복대위’)를 결성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건대 대표로 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 중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덕분에 다른 대학 ‘뺑뺑이’들을 여럿 알게 됐어요.

대학가기 전에 다녔던 공장은 구로2공단에 있었는데, 키스톤발브라고 미국계 회사였어요. 재미있게 다녔어요. 일반적인 수도꼭지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버터플라이밸브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79년 초부터 이상하게 사고가 연달아 나는 거예요. 선반 반장하던 동료가 손이 선반 가공축에 끼어들어가 오른손 손가락이 몽텅 날아가는 큰 사고가 나기도 했고, 공고 학생이 견습생으로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애는 주로 드릴로 발브 디스크, 스템에 정해진 자리에 형틀을 대고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 드릴에 팔목이 휘감기는 사고가 났어요. 또 제품을 싣고 가

던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서 제품이 망가지고 납품을 못하는 사고가 있었구요. 특히 검사가 끝난 완제품 도장작업을 하던 동료가 작업 도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때 공장에는 도장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가루를 모으는 장치, 즉 집진장치가 없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덩치도 크고 뼈대도 굵은 노동자였어요. 그런 친구가 화공약품이나 다름없는 '페인트'를 마셔대니 몸이 안쪽에서 녹아버리고 있었던 거죠.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문병을 가보니까 양쪽 허파에 구멍을 내어 숨을 쉬고 있더라구요. 튼튼한 몸을 가졌지만 끝내 견디지 못하고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로 공장은 어수선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공장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학은 1980년에 들어갔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해 봄이 전두환의 학살로 피에 물들었고, 대학은 계엄군이 주둔하는 병영이 되었죠. 그해 여름은 유독 긴 장마였는데, 9월에 학교가 열려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 이듬해, 건국대 홍사단 아카데미가 재편돼요. 나도 거기 회원이었죠. 홍사단 상징이 기러기라서 건대 홍사단 아카데미를 '기러기 백성'이라는 뜻으로 '안민회(雁民會)'라고 했습니다. 건국대에 이른바 '이념동아리'가 몇 군데 있었어요. 안민회가 가장 실천적이었죠. 83년 봄, 다른 학교하고는 달리 잠잠한 건국대에 학내시위를 조직하고 그때 학내에 상주하던 사복들하고 한판 붙어서 안민회 회원 등 10여 명이 연행되었죠. 시위를 이끈 저항 공범 2명이 구속되고 안민회 후배 8명이 강제징집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구속돼서 안양교도소로 넘어갔어요. 83년 12월에 전두환이 유화조치로 공안사범들을 많이 석방했죠. 그런데 나와 몇 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던 중 84년 2월 8일 아침에 교도관들이 와서 직접 짐을 챙기더니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석방된 거죠. 교도소 지프차에 타고 구로경찰서 대공과까지 왔고, 저희들끼리 나를 인수인계하니 어찌니 하더니 교도관은 돌아갔어요. 대공과 형사가 집에 연락해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다음 날인가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종로5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 종로5가에는 기독교인권위원회에서 하던 '목요예배'가 있었죠. 대학로 홍사단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개척자집회'가 있었구요. 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목요예배'에 양심수를 위한 집회가 열렸는데,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목요예배에 참석해서 양심수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익환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복교하고 얼마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1, 2학년 남학생들이 전방 또는 문무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후배들을 격려하려고 학교에 갔더니 안민회 후배가 나에게 풀 죽은 소리로 소식을 한 가지 알려주더라구요. 83년 봄에 전두환이 학교에 와서 기념식수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전두환이 심었다는 나무를 확인 했죠. 보니까 건대 대학본부 건물 앞, 황소상으로 내려가는 곳에 향나무인지 뭔지를 심어 놓았더라구요. 곧바로 후배한테 돈을 쥐서 휘발유를 사오라고 했죠. 사온 휘발유를 나무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나무가 화라락 불타는 걸 보고 황소상 쪽으로 내려왔죠. 그 때 본관에서 내다보던 총장이고 처장이고 와르르 '어마 뜨거라'하고 뛰쳐나와 소화기를 뿔어대고 나는 또 그걸 보니 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서로 죽자고 그들과 엉켜 남은 휘발유를 뿌려대고... 좌우지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 학교 담당 지역 안기부에서 '각하 기념식수'를 불 지른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방화로 잡아넣겠다고 하고, 학교는 학교가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서로 좋을 게 없으니 학교 차원에 맡겨달라고 사정했다 보더라구요. 정작 당사자인 나는 별 걱정 없이 학교에 갔더니 그때 학생처장이 '방화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당분간 학교 나오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알고 보니 그 나무는 죽었고, 똑같은 모양의 나무를 사다 다시 심어서 마치 '죽 떠먹은 자리'처럼 일을 덮은 겁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동석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신민당 직선제개헌 현판식 행사 이후 민통련 회원단체인 민불련 집행위원장으로 민통련 회의에 참가했다. 민통련은 신민당이 주도하는 집회에 단순 참가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집회를 시도했다. 인천 집회에 참석한 서동석은 이 행사 후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된다.

내가 민불련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강남포교원 활동이 연결고리가 됐어요. 이제는 강남구 역삼동에 큰 포교원입니다만, 80년대 초반에는 서초동의 상가건물에 포교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법원, 검찰청 등 법조단지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이곳에서 청년회 활동을 했습니다. 83년 학내 시위 때 배포한 유인물도 이 강남 포교원에서 등사기로 만들었죠. 그 바람에 강남포교원이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

감되어 있을 때 은사스님이 교도소에 책을 보내주었는데 그 가운데 불교와 사회, 실천적 교리해석 등과 관련된 책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익구 형도 알게 된 거죠. 석방된 그해 여름 여익구 형을 부천에서 만났습니다. 그 뒤 민불련을 만들게 되었고, 나는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85년 5월 4일 민불련이 탄생했고, 그 해 여름 ‘학원안정법 반대투쟁’, 또 10월에는 ‘IMF-IBRD 서울 총회 반대투쟁’ 등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량리 미주상가 앞에 도로를 점거, 가두투쟁에 적극 나섰죠. 민불련, 민청련 등이 주도한 시위였는데 그 바람에 우리 민불련 회원 전일곤 동지가 ‘동’을 떠서 구속되었습니다.

‘5.3인천항쟁’은 신민당이 주도하던 직선제개헌쟁취대회라는 공간을 민통련 등이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파쇼정권타도 민주정부수립투쟁’의 공간으로 설정했죠. 인천대회에 앞서 86년 2월부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점점 대회의 규모가 커지고 그 양상도 점차 치열해졌어요.

민통련도 인천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내부합의를 보았고 대전 대회 직후 인천대회를 위한 조직체계를 세웠어요. 민통련본부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 지도부를 맡기로 했습니다. 민통련 가입단체도 거의 매일 서울 장충동 민통련 본부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민통련 정책위원장 장기표 선생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인천대회 날 현장에서 대중 선동할 적합한 활동가로 안희대가 거명되었습니다. 80년 봄, 승복을 입고 대중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분위기를 휘잡았던, 고려대학 출신이죠. 그런데 5·3항쟁 무렵, 그때 안희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번 집회에 나타날 것이고, 현장에서 몸이 들썩여 대중 앞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나타났고 역시 현란한 몸짓으로 집회에 열기를 더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민불련 만들던 84년 가을 무렵에도 집행위원장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해 겨울부터 연락이 끊어져 내가 민불련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죠. 참 뛰어난 활동가였는데 나중에 정치관에 뛰어 들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헬멧을 손에 들고 펼친 대중연설

민통련 회원단체로서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어요. 현장 상황은 80년 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집회였고 또 그 집회의 열기와 투쟁의지도 5년의 단절을 뛰어넘었습니다. 낮 11시부터 주안 네거리 넓은 차도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공권력과 맞붙은 항쟁은 해질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공권력도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죠. 시민회관 앞 네거리는 완전 해방구가 됐어요. 거기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외곽은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네거리는 딱 찻고 소방서 방향으로 나가는 쪽, 주안역 나가는 쪽도 딱 찻어요. 대신 교도소 가는 방향하고 부천 방향에서 들어오는 주안 성당 앞쪽에서 오는 길은 조금 한산했죠. 물론 사방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전경 애들이 들어왔다가 쫓겨 나갔을 때 헬멧을 내가 거뒀는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참여한 시민으로 해서 대중연설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헬멧 들고 올라가서 한참 연설하기도 했죠. 연설 마치고 내려왔더니 동네 친구 놈이 구름 같이 모인 데에서 쭉 나와서 “동석아!” 하고 부르더라구요. “뭘 해줄 게 없냐.”고 하더라구요.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와라.”라고 했더니 일대는 다 문을 닫았고 어지간한 가게는 물건이 다 떨어졌으니까 지가 그 동네 사정을 잘 아니까 한참 있다가 잔뜩 싸들고 왔어요. (웃음) 그걸 다 나눠주고 그런 일도 있죠.

우리 민불련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빠져나와 구로동에 있는 포교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후 집에는 안 들어가고, 5월 3일부터 며칠 동안 상황을 알아봤어요.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보니 난 현장 채증 사진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배명단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옷도 갈아입을 겸해서 5월 7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평경찰서에서 이틀 동안 잠복근무를 했던 거예요. 결국 새벽에 잡혀서 구로경찰서에 갔다가 부평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잡혀가서는 뭐 물어보고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부평경찰서 지하에서 담요에 싸여 물매를 맞았습니다. 5월 3일, 시위대에 포위되었던 최루탄차가 빠져나오다가 전경이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복수한다고 언행지는 무조건 두들겨 팼습니다.

나는 조금 늦게 잡히는 바람에 조사할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수배명단에 올라가게 된 까닭은 현장에서 잡혀 두들겨 맞던 한 참가자가 집회 참석 동기를 얘기하

면서 내 이름을 댄던 겁니다. 그때 우리 집 건너편에 쌀집이 있었는데 이 쌀집에서 계속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평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소요죄 등으로 1년 6월을 받고 항소심 때는 안양교도소에 있었어요. 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공주교도소로 이감 됐죠. 87년 7월에 가석방으로 나왔어요.

안양 교도소 있을 때 일인데 그때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범들이 각 수형시설에서 '옥중투쟁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안양교도소도 옥·투·위를 결성했죠. 그때 나에게 몰래 도움을 주던 교도관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중 한 명이 밤에 몰래 신문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불펜심도 넣어주었죠. 신문을 훑어보다 필요한 부분은 옮겨 써 놓고 신문은 그 밤중에 다시 돌려주었죠. 옥중 소식지를 만들어 다른 동지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어요. 항소이유서나 탄원서 등을 쓸 때 사용하는 먹지를 대고 세 부 정도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각 관구별로 한 부씩 보내주었어요.

공주교도소로 이감 갈 때는 그동안 모아 둔 것은 그 교도관에게 주었고, 그 친구는 밖에서 내 집사람과 연락해서 그걸 전해주었죠. 87년 12월인가, 나를 도와주었던 교도관 중 한 친구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허름한 대포집에서 회포를 풀었죠. 전에도 알려진 비밀입니다만,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도관 모임이 있고 이들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일화도 아주 다양합니다.

서동석은 인천5·3민주항쟁이 '투쟁'이라는 큰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계파와 조직이 뒤엉켜 공권력과 맞붙은 전선이었다고 평가한다. 야당인 신민당, 재야라고 불리던 민통련,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진 학생조직 등이 하나의 투쟁 공간에 모두 결집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구호도 다양했고, 지도 노선 또한 제각각이었다.

5·3으로 나를 비롯해서 민불련 회원 몇 사람이 구속됐어요. 여익구 의장은 수배됐구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재편을 단행합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서 87년 6월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죠. 민불련 재편과 동시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함께 구속자 가족들이 치열한 투쟁을 벌여요. 내 집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아마 전국 교도소가 시국사범으로 넘쳐 났을 겁니다. 그만큼 구속자 가족들의 투쟁도 사상 최고조에 달했어요. 6월항쟁은 구속자 가족들의 투쟁으로 이끌어낸 성과물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불련 2기는 매우 바빴어요. 민주헌법쟁취 불교운동본부도 만들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불교 쪽에서는 86년 9월 6일에 해인사에서 큰 행사를 열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불교계의 젊은 승려들이 가두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성과를 안고 민주운동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87년 대선 선거 국면으로 가면서 깨지게 됐어요. 비판적지지, 단일화 후보, 민중후보로 갈라지게 되고 민통련도 다음 해에는 흐지부지되면서 전민련으로 가게 되죠. 민불련도 87년 대선 이후 비상체제로 가면서 내가 3기 의장을 하게 되었어요.

5·3항쟁을 지금 평가하면, 그 때 수준의 운동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두를 장악하고 당시 우리 전투력의 최대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지요. 5·3항쟁으로 대규모 가두시위의 경험을 했고, 이때의 성과와 비판을 바탕으로 6월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의지와 승리하리라는 정서를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5·3항쟁은 과정이나 영향으로 봐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려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불련 활동기간은 85년에 시작해서 91년까지 6년 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투쟁이 요구되던 시기에 그 요구를 비껴가지 않았습시다. 조직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투쟁조직으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여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화운동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민불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민불련이 공개조직으로 활동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싸웠고 실천의 근거가 되는 운동론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작업도 그 어느 조직보다 열심이었어요.

민불련은 91년에 해체됐지만 94년 3월에 있었던 조계종 개혁을 이끌어낸 주축 인사들도 민불련 출신이었고 이후에도 새로운 운동조직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안타까운 점은 운동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강물에 흐르는 수많은 빛살 중의 하나일 테죠

성호숙
'두렁' 멤버



- 1958년 부산 출생
- 1978년 홍익대 미술교육과 조소전공입학
- 2003- 2004년 인천민족미술인협회 대표
- 2007- 2008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장
- 2004- 2006년 노동미술굿 총감독
- 2013- 2016년 현재까지 약손을가진사람들 대표
- 2016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비 예술감독
- 현재 작가활동과 '소통미술' 예술치리사 활동 중

'두렁'과 함께 찾아 온 인천

그 시절에도 노동자는 약자였다. 성호숙은 대학 1학년 때 선배로부터 야학을 소개받으며 처음 노동자들을 만났다. 난곡동에 있는 난곡야학이었다.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학생들과 주변의 노동자들이 같이 하던 곳이었다. 미술을 가르치는 '강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 '학강'[학생]들과 천막에서 미술을 함께 했다.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학강'들의 열기가 천막을 가득 메웠다. 대학 1학년 강학들은 검정고시를 위해 공부하는 노동자들과 만나고 3학년부터 노동야학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미술 재료도 가져다주며 1주 1회만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과 마음이 합치되지 않으면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았다. 불편했다. 이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데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도 들었다. 3개월을 채우지 않고 곧 그곳을 나왔다. 당시 강학들과 공부도 하였는데 경제와 정치에 관해 공부 하면서 당시에는 예술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엔 이때의 경험이 내게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대학 3학년을 보내던 중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했다. 충격이었다.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아픔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반성을 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료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실은 알지도 못하고 왜곡된 채 잘못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것은 잘못된 예술을 하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들었다. 다시 출발선에 섰다. 선배들의 권유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마침 빈민운동을 하던 허병섭 목사가 공부 팀에 프로젝트를 들고 왔다. 노동자 교육용 그림을 그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5명이 6개월 여 동안 공동 작업을 했고 그림이 어처구니없이 분실된 탓에 발표는 되지 못했지만, 성호숙은 이 일을 '노동미술'을 했던 최초의 경험으로 여긴다.

졸업을 하며 학생이란 '보호막'은 사라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 얼마 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공장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세상을 좀 더 깨닫고 싶었고, 노동자에 대한 그림들을 기능만 빌려 주었던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으므로 생생하게 더 깊이 알고 싶었다. 혼자 구로공단을 헤매기 시작했다. 취업 공고판 앞에서 구직자들과 함께 안내문을 들여다봤다. 그때 쓴 소회를 당시 '두렁'의 라원식 비평가가 미술세계 잡지에 발표를 해주기도 했다.

결국 공장에 들어간 것은 졸업하던 해 출판사 일을 거친 후 1982년의 일이다. 구로공단에 있던 카세트플레이어 제조 공장이었다. 노동자들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잔업과 야근, 특근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도 저임금으로 빵 하나 사 먹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1983년도에 대구 경산공단으로 옮겼다. 삼성 하청으로 양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위원장이나 조합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었다. 이곳의 파업 과정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수사관들에 의해 치안본부에 끌려가 남영동에서 15일간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이미 '학출'이란 걸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대구의 일도 정리가 됐다.

대구에 있을 때 '두령 창립준비전'이 있었어요. 두령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치안본부에서 나와서 너무 착잡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기도 적절해서 두말없이 참여한다고 했죠. 그때 애오개소극장이 있었어요. 당시는 문화운동의 산실이었어요. 우리도 거의 한 달 동안 거기에서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현장들, 대학가에서 전시를 했었고 84년도에는 인사동 한복판 경인미술관에서 '두령 창립전'을 하게 되요. 미국, 독일에도 작품들이 갔었지요.

그때 운동의 흐름이 격동적이었요. 두령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일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서 '논두령'과 '밭두령'으로 나뉘었죠. 논두령은 대학 조직과 미술계, 오픈 쪽에 관여를 했고, 밭두령은 노동지원 쪽 언더 활동을 했어요. 저는 밭두령 쪽에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노동 쪽에 몸을 담아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밭두령으로 가게 된 거죠. 두령은 얼마 후에 인천으로 이전해 왔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같이 왔죠. 명신여고 맞은편에 비합법 아지트가 있었어요.

성효숙은 1985년 11월, 두령과 함께 인천으로 이전을 했다. 주로 문화 예술계 출신들이 모여 '언더'에서 활동을 하던 비합법 조직들이었다. 유인물을 만들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돌리는, 이른바 '피세일, 또는 집들이'를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고 노동자 교육용 만화, 판화 제작도 했다.

인천에 와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던 학습이었어요. 비합법 문건들을 읽고 정세 분석도 하고 그랬죠. 엄혹한 시절이었기에 점조직으로 서로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소속된 친구들 중에 노동 쪽에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조직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제공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하기 전 서울에 있을 때 인천산선 쪽에서 만화집을 만든 게 있어요. 제목이 '봄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84년도였는데 이 작업을 하느라고 인천을 오가기도 했어요. 그전에 만든 만화집 같은 걸 노동자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초기에는 공장을 가기 보다는 '피세일'용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했어요. 우리는 '집들이'라고 불러요. 일반 가정에 배포했죠. 거의 '군부독재 물러나라'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그림이 많았죠. 누구의 그림인지 잘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현세 만화의 까치 그림을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까치파다. 누가 그린거냐.'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밭두령이 '까치파'라고 이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성효숙은 구로공단과 경산공단의 경험을 갖고 부평4공단에 취업을 했다. 밭두령은 이후에 해소된다. 한 명, 두 명씩 인천을 떠나기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공장 소조가 생겼고 새로운 정치조직이나 문화 활동 조직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밭두령은 인천으로 이전해 온 거잖아요? 꼭 '해체하자!' 이런 거 없이 공장 생활이 힘들니까 자연스럽게 한 명씩 인천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공장에 들어가거나 공장에서 나오면서 나중에 문화활동과 결합하면서 분화가 된 거죠. 공장은 합의하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만든 작업들을 배포할 '(노동자) 밭'이 많이 없었어요. '공장에 '밭'이 있어야 우리가 만든 작업을 배포할 곳도 작업하자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밭'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예술 작업과 현장 작업자가 분리되어 협업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척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공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소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후 노동조합도 만들게 되었어요. 구로공단, 대구 근처 경산공단에 이어 인천에서는 처음 공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부평4공단에 있던 코스모스 근처 공장이었어요.

공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코스모스 전자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걸 목격한 것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대구 경산공단에서 제가 직접 파업에

동참 할 때는 실패했지만 인천 여성노동자들의 힘 있는 파업을 본거죠. 책으로만 보던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직접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구요. 그 전에 경험한 것과는 달랐죠. 대구에서는 자연발생적이었던 거였고 저는 치안본부에 끌려가버린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에 공장에 가보고 연락도 했지만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굉장히 허탈하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모스전자는 여성노동자들 집단이었는데 너무 활기차게 싸우고 있고, 교과서적이었던 ‘역사의 주체’라는 실체를 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주제로 ‘농성장’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 이후에 친한 노동자들하고 같이 대양전기에 들어갔어요. 87년도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다가 88년 5월에 함께 한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를 만들게 됐어요.

세 명과 동행한 인천시민회관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성효숙은 인천에서는 아직 공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 않았다. 발두령, 그리고 인천에 와서 만난 다른 문화집단들과 함께 활동을 막 벌여나가던 참이었다. 부평4공단에 있던 전자공장에 들어간 건 인천5·3민주항쟁 직후다. 당연히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 함께 당시 인천 시민회관 앞으로 찾아갔다. 신민당 현판식과 독재정권에 대한 집회가 벌어질 거라는 기본 정보 외에 따로 전달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5·3이 일어났을 때는 인천에서 발두령 활동을 하던 거의 초기 단계였죠. 1985년 11월에 인천으로 이전했고 그 이듬해 일어났으니까요. 제가 5·3 같은 경우는 단순 가담인 것이 5·3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행동을 어떻게 한다.’ ‘투쟁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게 전혀 전달이 안 됐었고, ‘5월 3일에 인천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있다. 여기는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소조의 리더인 친구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갔어요. 인천에 정말 신고식을 치르듯이 간 거였죠. 내부에서 조차 조직적인 참여도 아니었어요. 고(故) 박영근 시인이랑 지금은 소설가가 된 정화진(본명 황의돈), 그렇게 셋이서 갔었죠. 주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 집단들이 전단을 엄청 많이 뿌리고 있었어요. 독재 정권에 대한 유인물 이외에도 ‘미제 물러나라.’ 이런 구호가 담긴 인쇄물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 구호로 외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집단에서 유인물을 집회 대열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무지하게 뿌리고 다녀서 전단지 길에 완전히 깔렸죠. 그때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방팔방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물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학생운동 출신이라기보다 대학 때 작업으로 뭔가 표현하다가 철거를 당하거나 소모임을 하거나 했지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불러내서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건 본 적이 있었지만 5·3은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심 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구나.’라는 걸 충격으로 받았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랄탄(최루탄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각도로 쏘아져서 부른 은어)을 마구 쏘아대는 데 엄청났어요. 완전히 도시가 최루탄으로 뒤덮여 앞을 분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찾으러 시민회관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저처럼 다 물 마시러 온 거죠. 수건에 물을 축이고 나오자마자 시민회관 계단 위에서 ‘지랄탄’이 박영근 시인 머리를 비껴 지나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쏘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비켜났어요. 놀라서 계단 밑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감동스러웠던 그리고 안쓰러웠던 장면, 대학생들 같았어요. 치약을 잔뜩 바르고 전쟁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거리를 사수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시민회관을 나와서 정화진이 다리에 지랄탄을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 친구가 몸이 작아요. 내가 그 친구를 업고서 도망가느라고 뛰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서 갔더니 언덕이 나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꽂차있었고 사복체포조가 와서는 얼굴들을 훑어보더니 다 잡아가지 못하고 몇 명을 잡아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같이 왔던 한 친구가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절뚝거리면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5·3에 대한 의미라든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 못했고 ‘인천에 와서 이런 신고식을 치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평가를 한 적도 없고요. 가까운 친구들이 5·3 때문에 구속됐다는 걸 이후에 들었죠. 나는

단순 가담이었는데 5·3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구호나 이런 부분은 참 많이 회자됐어요. ‘군부독재 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한 구호였는데 미국과 관련된 부분을 거론했다는 게 화제였죠.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미국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제는 독재정권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았어요. 미제에 대한 언급을 책으로만 공부했지만 운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못했어요. 우리들의 첫 번째 관심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었고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때만 해도 민중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거론됐잖아요. 저는 그 구체적인 상은 잘 모르겠고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쉽게 얘기했지만 저는 구체적인 상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약자를 지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꾸는 것,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운동에 불평등 구조 속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서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쳤던 거 같아요. 노동자 지원이 경제투쟁에 머문다고 본 건 아니에요. 제 개인 역사에서도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는 게 있죠. ‘인간답지 못한, 너무 열악한 삶을 개선해야 한다.’ 또는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 ‘약자 편에 서야 한다.’ 이걸 일관된 것이었구요. 노동자들도 정치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경제투쟁에 머무르지 않는 선진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라는 건 강물이 깊어가면서 거기에 빛 조각들을 넘겨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빛살들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지만 시대의 역사라는 게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5·3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일관되지 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면면히 흘렀던 운동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구로동맹파업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구로동맹파업 이전까지는 수많은 노동운동과 희생들이 있었죠. 미 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광주에 말할 것도 없구요. 그렇게 물줄기들이 흐르다가 그것이 5·3으로 어떤 부분이 멧히게 된 분수령이 됐다고 봐요. 저는 현상적으로는 단순가담이지만 우리가 인천에 오게 된 게 앞으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거고, 새벽까지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6월항쟁으로 이어져 간 거죠. 그동안 해 왔던 비합법 활동들이지만 6월 항쟁 때도 분명한 역할을 했어요. 스티커 붙이러 다니다가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노동자들과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부평경찰서로 노동자와 같이 끌려갔지요.

저는 ‘역사에 대한 증언,’ ‘역사 되살리기’는 기억투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디에 제일 초점을 뒀야 할까는 차치하고 예를 들어 87년, 88년 투쟁을 강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자인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름을 찾은 것은 이후의 분들에게도 힘이 되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염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니까. 물론 실패한 투쟁들도 기억해 내야 합니다. 5·3 인천에 수많은 활동가들이 거의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제2의 광주가 될 것이다.’라고도 했죠.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인천을 거쳐 갔다고 그래요.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5·3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86년 이후 87, 88년 산곡동이나 청천동, 효성동은 많은 활동가들로 빼곡했어요. 그리고 공장에 가 보면 학생운동 출신들이 매우 많았어요. 정부에서는 우리를 위장취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양심 취업, 또는 존재 이전이라고 했지요.

1986년 5·3은 다음해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투쟁 등 굵직한 사건들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5·3이 시발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거의 것을 그냥 기념하자고 하는 것보다 현재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5·3에 대해 지금의 사건이나 무엇이 이어지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과 쉼어서 계승돼야 한다는 거예요. 박제화 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아직은 박물관에 갈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까지 관통해 오면서 이어지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짚어내면서 제대로 기억하자는 거죠.

저는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평화와 투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속에서 제대로 된 기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5·3은 현상도 그렇지만 과정이 면면히 흐르는 엄청난 강물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의 빛이잖아요. 독재 정권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평등, 부자유로 저는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작품을 빼앗기고 내 생각까지 빼앗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지요. 이후에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장소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듯이 기억 할 게 아니라 보다 현재화 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겠죠. 강물에 흐르는 수많은 빛살 중의 하나로.

민통련 활동가에서 공장생활로

신순봉
서울민통련 청년부장



- 1962년 경기도 양평 출생
- 1981년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86년 한성대 졸업
- 1986년 서울민통련 청년부장으로 인천5·3민주항쟁 참여, 수배
- 1986년 9월 6일 검거되어 구속(소요죄 2년 형)
- 1988년 서울 성수동에서 공장생활 시작, 5년간 활동
- 1993년 내일신문 창간 참여 뒤 기자 활동

서울민통련과 극단 '통일무대'

신순봉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약칭 '서울민통련') 청년부장으로 인천5·3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9월에 구속돼 실형을 살고 나온 만큼 그의 인생은 인천대회와 큰 관계를 맺고 있다. 1982년에 한성대 국문학과에 입학해서 1986년에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도 했지만 1986년 서울민통련에 가입하면서 사회운동에 발을 내딛게 됐다.

서울민통련은 1985년 3월 9일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60여 명의 민주인사를 발기인으로 결성되었다. 신순봉은 1986년 7, 8월 경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런 와중에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서울민통련은 민주통일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 서울지부의 후신이다. 국민회의 서울지부는 1985년 3월에 결성하면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의지로부터 소외된 군부체제와 민중의 삶에 뿌리박지 못한 독재정치를 용납할 수 없음을 민중 앞에 폭로하고 타파할 것임'과 '외세로부터 독립,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 분단으로부터 통일을 성취함으로써만이 인간해방과 행복이 이룩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10개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운동의 최대 과제로 삼고 '민족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재벌 위주의 경제 타파, 노동자·농민·빈민의 생존권 보장, 언론인의 각성과 언론기본법 철폐, 범민주세력의 대동단결' 등을 실천적 과제로 결의했다. 국민회의는 1985년 3월 29일, 민중민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출범시켰고 서울민통련은 1985년 6월 22일에 결성된다.

신순봉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민통련 문화패인 극단 '통일무대'에 참여했다. 여기서 공연 등에 참여하며 서울민통련의 문화부 차장, 청년부장 등을 맡는다. 극단 '통일무대'는 서울민통련 문화부장 유종순이 대표를 맡았다. 극단은 알음알음으로 사람들을 모아 연출가 박인배, 배우 여균동 등이 지도를 하였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무용가 안은미는 무용을 지도했다. 창단 작품으로 '그날이 오면'을 공연했는데 일제하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었다.

저는 198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때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두 차례나 성북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았고 졸업하고 7~8월 경 군대에 갈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86년 초 서울민통련에서 극단 '통일무대'를 만들었는데 '그날이 오면'이란 제목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허드렛일이나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연배우를 맡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대신 대본을 읽어주다가 주연배우까지 맡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공연을 계기로 기독교방송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MBC 아침 프로와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당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거죠.

아, 지금은 촉망받은 정치인이 된 김두관 씨는 당시 서울민통련 사회부장이었어요. 청주대회 때 구속됐죠. 저는 서울민통련에서 문화부차장, 청년부장을 맡았습니다. 주로 한 일은 공연과 집회 참석이었습니다.

저는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5·3에 참여하게 된 데는 이것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고잔 성당 회의

신순봉은 서울민통련 청년부장으로 있으면서 1986년 3월부터 진행된 신민당 개헌 현판식에 참가했다. 1986년 3월 30일 광주대회와 4월 5일 대구대회에 대규모의 군중이 운집하고 있었다. 서울민통련은 5월 3일 수도권인 인천에서 대회 일정이 잡히자 전조직을 동원하기로 한다. 인천 5·3민주항쟁을 준비하는 기획회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무렵, 고잔성당에 모두들 모여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갔다.

고잔 성당에서 마지막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인천대회 당일에는 각자 알아서 시내로 들어와서 주안성당 지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거기에 리어카, 장갑, 핸드 마이크 등 시위 물품을 준비해 놓았어요. 저는 사회단체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워낙 시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작 놀랐어요.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많은 유인물과 온갖 단체들이 나왔어요.

민통련도 인천대회에 총 집중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인천대회는 금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갖가지 주의, 주장이 난무하는 혼란스런 측면이 있었죠.

그전까지 저는 대부분 학내에서 시위를 했지 가두투쟁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성대 국문과를 나왔는데 연합시위 정보를 듣고 나가더라도 1~2분 안에 끝나곤 했죠.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종종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5월 3일 인천대회는 다른 곳에 가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너무 제각기 논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재야단체 밖에 없더라구요. 민통련은 시민회관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했고, 계획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날 이렇게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리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어요.

그전까지 직선제개헌 요구 집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인천에서는 통제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안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전남사회운동연합, 인천에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등이 있었죠. 각 지역마다 이런 지역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통련 소속이었지요. 고잔성당에서 본 분들은 대부분 민통련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고잔성당 회의에서는 이우재 선배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시민회관을 점거한 뒤 방송을 불리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5월 3일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격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동년, 이호웅 의장 등이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때 '인천을 해방구로!'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어요. 노동자 집회에서 더 많이 외쳤겠지만 민통련 집회에서도 이런 구호가 나온 거죠.

저는 집회 진행을 도왔을 뿐인데 조사받을 때 보니 경찰이 제가 움직이는 장면을 모두 사진 찍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된 후에 잡혔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당일에는 시위가 끝나고 훗날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약사회(약칭 '건약') 회장을 맡은 임종철, 유종순 선배 등과 같이 주안을 거쳐 동암역 쪽으로 걸어갔다 나중엔 전철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구호

서울민통련 청년부장이었던 신순봉은 인천5·3민주항쟁 때 민통련 집회를 통제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직선제 개헌이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긴 했지만 현장에서 전투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며 전체 집회의 흐름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회 참여자와 시민들을 흥분시켜 폭력시위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순봉은 이전에는 보기 힘들 정도로 주장도 급진적이었고 시위도 대단한 모습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직선제 개헌에 대한 주장이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주로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날 별도로 민통련이 다른 구호를 가져가자는 논의는 없었어요. 다만 시민회관이 우리의 통제권으로 들어오면 방송을 부르자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민통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신민당 현관집회인데 경찰이 민통련 집회를 원천봉쇄를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느라 다른 쪽에서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와 돌 던지는 장면을 본 정도였습니다. 민통련 집회는 해가 아직 지기 전이었으니까 5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전경차가 한 대 불탔던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통련 집회는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약간 이동하는 정도였지 격렬한 시위를 한 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통련은 현수막, 플래카드, 피켓 등 기본적인 시위 물품만 준비했고 화염병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위물품이 그다지 많지도 않았 습니다.

제 생각에 5·3대회 참가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처음부터 막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폭력집회로 몰고 가서 운동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스프레이로 벽이나 전경버스에 구호를 쓴 것은 많이 봤습니다. 유인물은 길바닥에 많이 뿌려졌어요.

8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세상의 운동이론을 무분별하게 받아

들인 것 같아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혁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가 문제였지요.

수배와 구속

서울민통련은 인천5·3민주항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5·3 당일에 간사 송대현이 체포되었고 사무국장 홍순우, 교육부장 안희대, 청년부장 신순봉, 조직부장 이남희 등이 수배되었다. 신순봉은 인천5·3민주항쟁 다음 날 조선일보에 난 '장기표, 신순봉 등 140명 수배'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장기표 선배는 그렇다고 쳐도 당시 20대 청년인 그가 같은 반열에서 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기사에 나왔던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당시 중앙일보는 민통련이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쓰고 있었다.

인천5·3민주항쟁 다음 날 신문을 사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더 놀랐던 건 조선일보에 장기표, 신순봉 등 140여 명 수배라고 적힌 헤드라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서울민통련 회원 몇 명이 잡혔는데 신순봉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울 민통련에서는 회원 송대현 등이 잡혔는데, 저는 수배가 되어서 4개월 정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인 최규성 의원이 당시 경기도 광명에 살았는데 그 집에 3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후배 집과 선배 집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홍순우 사무국장이 최규성 부의 장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신순봉은 인천5·3민주항쟁으로 수배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인 9월 6일에 검거되어 어딘가로 끌려가게 된다. 당시 독재정권은 이를 계기로 민통련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려 했던 것 같다. 민통련 핵심 활동가들은 대부분 조사받거나 구속, 수배가 이뤄졌다. 신순봉도 이전에 친형과 만났던 당산역 근처 다방에서 검거돼 처음에 광명 경찰서로 갔다가 다시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는 다른 동료들의 행방을 즐기치게 캐물었다고 한다. 신순봉은 이 일로 인해 9월에 갈 예정이었던 군대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5.3 이후에 4개월 동안 피해 다니다가 당산역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9월 6일엔가 잡혔어요. 서울민통련 홍순우 사무국장과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삼원다방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형(兄)이 경찰에 잡혀가서 저와 삼원다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경찰들이 그 이후로 삼원다방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다방을 나가려고 하니 경찰이 우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손을 떨더라고요. '경찰도 손을 떠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입대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 잡힌 거죠.

광명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또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첫 마디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방 저쪽 건너편에는 세면대와 욕조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아, 이거 죽을 곳으로 끌려 왔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곳이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경기도경 대공분실이었어요.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제 어디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나왔냐는 것인데 한참 동안 후배네 집, 선배네 집 둘러대다가 할 수 없이 얼마 만에 광명에 있는 최규성 부의장 집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런 것부터 물어볼까?'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다른 수배자들을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배자들에게 일 계급 특진과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캐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수배자들을 만나거나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사실 불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난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 몇 개 던진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소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었겠죠. 난 며칠 후면 군대에 가야 하는데 군대에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군대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검찰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구속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그런 답신이 왔나 봐요. 조사 받고 다음 날 점심 때쯤 부평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을 때 놀랍게도 서울민통련 이재오 부의장이 들어온 거예요. 저와 홍순우 사무국장을 면회하러 온 거죠. 이재오 부의장을 뵈니 잠깐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를 조사했던 고 부장이라는 놈은 저 보고 "대한민국을 신식국독자(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서를 꾸미더라고요. 결국 저는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2년형을 받았는데 87년 6월 항쟁 뒤, 7월 10일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10개월 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홍순우 사무국장은 저와 함께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최규성 부의장은 저와 홍순우 사무국장의 검거 소식을 모르고 서울민통련 간부회의를 우리가 잡힌 다음날 집에서 열다가 참석자들과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훈방되었어요.

저는 기결수가 되어 대구교도소에 있었는데 같은 사동에 있는 학생들 어머니들이 와서 6·29 이후에 많이 풀려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에 40명 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만 풀려났어요. 전남대 삼민투위원장 강기정, 조선대 교지 편집장 이철규, 구국학생연맹(약칭 '구학련') 해방선언 편집장 김종민...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민투, 민민투, 구학련 등 조직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더 있다 나왔습니다.

노동운동 전선으로

신순봉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이후 서울민통련에 복귀해 민족학교 간사 활동을 하다 1987년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만뒀다. 그리고는 1988년 초반에 노동현장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공장에서 약 4년여 동안 일하면서 노동조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이어 하반기에 노동자대투쟁이 이어졌고 88년과 89년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들이 결성됐다.

신순봉은 이후 1992년 하반기부터 내일신문 창간 준비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본사에 들어가 기자 일을 하게 된다.

저는 87년 말에 민통련 활동을 그만뒀어요. 대선을 앞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초에 노동현장에 들어갔어요. 약 5년 동안 성수동에 있었고 이후에는 내일신문 본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방독면과 고무보트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인 삼공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거긴 좀 허술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곳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모든 것이 열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1년도 채 못 되어 해고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간 여성 활동가 한

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 본다면 모두 다 생경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웃음)

분이 눈에 뜨이게 활동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이후에는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용접공, 선반공 등으로 일하며 노동상담소 활동도 했습니다. 당시 성수동에서는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집회에도 수백 명 정도가 참가할 정도로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는 오래 활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다 내일신문 창간 준비사업에 뛰어들고 곧이어 본사 기자로 가게 되면서 차츰 현장에서 멀어졌습니다. 1997년 말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일신문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문사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 정도 요양을 하고 IT 바람이 부는 시기에 전자책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 처음엔 웹매거진 편집장, 나중엔 콘텐츠 편집주간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했어요. 후배가 창업한 e러닝 일을 하기도 했고 형이 창업한 IT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신순봉은 이제 1980년대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넘어서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시를 공부하고 시를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동양사상과 불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정치활동도 새로이 시작했다고 한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한참 되었으니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상과 활동을 정립해 가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꿈이 시인이었어요. 마흔 한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5~6년 동안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학 때는 사상과 철학을 중시하고 30대 때는 신문기자를 했지만 나이가 드니 종교, 특히 불교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세상이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5·3항쟁에서는 설익은 온갖 이론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다보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니 제현의회 소집하지는 주장도 나왔던 것 같고 해방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온갖 이론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시는 사상의 자유가 막 발화되는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였는데

신정길

인천지역노동자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주안·하인천 지역 대표



- 1957년 경남 출생
- 1977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입학
- 1985년 대우공장 인천공장 입사
- 1986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주안·하인천 지역 대표
- 199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
- 2003년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화단 속에 숨긴 시위용품

우리가 즉석에서 시위용품을 다 끄집어내고 리어카를 개조해서 연단을 만들었어요. 연단에는 전희식 등이 올라가서 연설하며 선동을 했고 우리는 석바위에서 오는 길하고 신기촌에서 오는 길, 두 곳을 차단했죠. 주안역 쪽과 제일시장 쪽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경찰이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 맞지 말라고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엄청 큰 거였는데 그걸 흔들어서 뽑았어요. 뽑혀서 넘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폭탄 소리처럼 컸죠. 그걸 밀고 가서 막았어요. 일종의 바리케이드죠.

그렇게 전선을 형성해서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하니 경찰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페퍼포그가 밀고 들어오는 걸 봤죠.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잡았냐 하면, 그것도 우리가 고안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화염병 갖고는 페퍼포그를 못 잡아요. 우선, 박카스 병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넣어서 페퍼포그 유리창에 딱 때려요. 그러면 유리창에 빨갱게 딱 튀면서 운전수가 당황을 해요. 운전수가 당황하면 차가 못 움직인다고. 그러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은 거죠. 그거를, 그 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찰을 끄집어 내서 발로 밟고 때리고 난리가 났죠. 전 말렸어요. 애네들 보내라고. 그런데 워낙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차를 뒤집으려고 했어요. 뒤집어지진 않더라도 그거. 우리가 버스정류장 기둥은 뽑았는데 이걸 못 뒤집겠더라고. (웃음) 그런 식으로 하루종일 싸웠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칠 때까지 했으니까.

신정길은 편안히 앉아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회는 한 곳에 모이지 못한 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이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쪽에선 학생들이 판을 벌였다.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도 장소를 확보하고 연단을 꾸렸다. 무엇보다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다. 신정길은 그 역할을 맡았다.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화염병과 각목을 든 채 인간벽을 만들었다. 시위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찰들이 밀고 들어올 건 뻔한 일이었으니 현장에서 인의 장막으로 바리케이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무력시위를 통해 상대편을 어찌해 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취할 수밖에 없던

방어 수단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선도투쟁의 한 형태로 언급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바도 아니었으나 신경질은 더 깊은 속에서 문제점을 짚어낸다. 각목을 손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했다.

선도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인노련이 선도투쟁에 너무 경도됐다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선도적인 투쟁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확한 정치, 투쟁, 조직 노선이 없고, 또 계급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선도적 투쟁이야 어쨌든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선도투쟁과 대중투쟁을 잘 결합해야 한다는 건 교과서적인 이야기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87년도 6월 항쟁 이후 전체가 다 시민과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에 승리에 심취해서 판을 망쳤어요. 그걸 지금도 두고두고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단결해야 할 때 분열했다는 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당시 '싸움'은 5·3인천민주항쟁을 준비하며 선택한 인노련의 전술 중 하나였다. 인노련 지도부는 각 팀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정해 내려 보냈다. 현장은 혼란스럽게 보였어도 사전 계획에는 율(律)이 서 있었다. 신경질은 당시 인노련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약칭 '해투위') 주안·하인천 지역 대표였다. 시위용품을 현장에 들여와 시위공간을 확보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5·3 때 인노련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주안·하인천 지역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인노련에서 5·3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거기서 모든 전술이 내려왔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시위용품을 현장에 반입하는 것, 시위 장소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게 고민이었죠. 우선 각목, 화염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입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게 됐어요. 5월 2일 밤에 일부를 갖다 놓고 당일엔 일부를 갖다 놓는 방식으로. 그래서 2일 밤에 유인물이라든 각목이라든 화염병 같은 것들 일부를 시민회관 주변 건물이나 화단 같은 곳에 반입해 놔어요. 사거리에서 시민회관 대각선 방향에 큰 상가 같은 게 있었어요, 코너에. 그게 좀 큰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화장실 등에 좀 숨기고, 건너편에 또 숨기고, 건물 안에 뭐 화장실, 화단, 이런 데. 화단 같은 데도 막 넣었어요.

문제는 5월 3일 당일이었다. 시민회관 앞까지 시위 용품을 반입하는 일이 수월해 보이지 않았다. 인노련 팀들은 연단도 만들 겸 해서 리어카를 하나 구해 고물상으로 위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회 시간에 맞춰 현장 잠입을 시도한다.

화염병은 방어용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시위장소가 확보가 안 되니까. 당일 이야기를 해 보면, 당일엔 어떻게 반입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시위용품도 많고, 또 집회할 때 땅바닥에서 선동하게 되면 안 보이니까 연단을 만들자고 했죠. 그래서 헌 리어카를 하나 구해서 여기에 화염병, 짱돌, 쇠파이프, 유인물을 싣고 들어왔죠. 간석동 쪽에서 화염병이라든 싣고 오면서 석마위 사거리 조금 지나 오른쪽 언덕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지선 씨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인물을 대량으로 받아서 리어카에 마저 싣고 고물상처럼 위장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박래군이 친구가 완전히 뭐 고물상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웃음) 그래서 내가 그때 박래군 보고 '고무신 싣고, 밑짚모자 하나 쓰고, 니가 리어카 끌어라' 그랬죠. 결국 박래군이 고물상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좀 있긴 했는데 무시통과했어요.

시민회관 앞에 도착해 보니 군중이 너무 많았다. 예상하지 못한 구호들도 나왔다. 개헌 현판식은 진행되지 못했고 현장은 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공간만 같은 곳일 뿐 군중들은 한데 섞이지 못한 채 그룹별로 분산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차분히 헤아려 판단할 만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싸움'의 연속이었다. 신경질은 지금 와 돌이켜보니 같은 공간에서 서로 함께하지 못한 것이 크게 반성해야 할 과거였다고 생각한다. 5·3인천민주항쟁을 회고하는 건 그런 반성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를 단순히 회고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5·3투쟁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룹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서도 다 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거예요.

우리가 시민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안역부터 '미제축출, 파쇼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왔어요. 우리들은 욱 했어요. 인노련 일부 사람들은 '노동해방이지 무슨 미제축출이냐'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 정도

해고노동자의 경험과 5·3인천민주항쟁

해투위가 5·3인천민주항쟁에서 인노련의 무력시위를 전담한 건 우연이 아니다. 해투위는 인노련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고 인노련이 주도하는 시위를 이끌던 투쟁조직이었다.¹ 신정길은 해투위에 가담하기 전 대우전자 인천공장 노동자였다. 인천에 온 건 1983년 말이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다니다 공장에 들어온 ‘학출’이었다.

인천에 오기는 83년도 겨울에 왔어요. 그 전에 서울에서 버스 회사 정비공으로 일하다가 이 무렵에 제물포여객에서 버스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84년도 초에 병이 났어요.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둔 거죠. 조금 쉬다가 여기저기 마치고바를 다녔죠. 부평에 있는 아풍산업이라고 거기도 다니고, 부개동 마치고바 가서 기술도 배우고, 중간에 부천에 있는 신한일전기라고 거기 가서 또 조금 다니다가 85년도 2월 달에 대우전자에 입사하게 됐어요. 용현동, 인하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 당시 대우전자는 구미공장, 주안공장, 인천공장 세 군데 있었거든요. 인천공장에 85년도 2월에 입사를 했죠. 그때 내가 신한일전기 다니고 있을 때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대우전자에 다녔어요. 생산직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가서 중졸로 들어갔죠. 부산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를 못 써가지고 중졸로 들어가니까 일당 2,500원 정도 받았어요. 85년도 상황이 아시다시피 내가 갈 무렵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공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도 대우전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일단은 죽은 척하고 일한다’고 해서 관계는 안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공장에도 많이 있었더라구 활동가들이. 한 1년간은 공장에만 주로 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공도 차고 그랬어요. 내가 20대 후반이었니까 한 스물다섯, 여섯 이런 애들하고 술도 먹고 망둥어 낚시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소모임을 해서 ‘노동법도 보고 공부도 하자’ 이런 정도로 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86년도 1월 달에 노조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대우전자 노동조합 본조가 공장에 있지 않고 서울 여의도 노총건물에 있었어요. 노조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일반 생산직이 대의원에 출마를 못해요. 조장이나 반장, 사무실에서 지명하는 애들이

1 「유병진·오경석의 이야기」(<http://kasmusa.com/>).

주로 대의원이 되고 그놈들이 모여서 각 지부 지부장을 뽑아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을 뽑으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인 거지. 당시 대우전자 노조위원장은 김장선, 인천공장 지부장은 황00였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주장은 '생산직을 대의원으로 뽑자'는 거였어요.

결국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회사 내에서 대의원선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1986년 초 해고됐다. 회사를 나온 뒤에는 곧바로 인노련 해투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해투위에서는 가두에서의 '전투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구월동 산 속에서, 계양산 뒷쪽에서 비밀리에 화염병을 제작, 투척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실력'을 다지던 중 5·3인천민주항쟁을 맞이했다.

86년 1월 달에 해고돼서 인노련 산하 인천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에 들어갔죠. 부천, 부평, 주안·하인천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인노련이 가두 투쟁을 할 때 해투위가 거의 선봉대 역할을 했죠. 해고자들은 주로 방을 하나 얻어서 여러 명이 합숙을 하며 생활했어요. 거의 밤마다 한 12시쯤 되면 송림동, 학익동, 하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인물을 돌렸어요. 주안·하인천 해투위에는 박병무, 윤익수, 이진수, 최용석, 최용호, 김민영, 양복자, 이금자, 이병현, 김성수 등이 있었어요.

86년도에 우리가 했던 주요 투쟁들이 있는데 우선, 3월 10일에 인노련 주최로 임투전진대회를 계양산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서구로 넘어가는 징맥이 고개에 길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형사들이 깔렸어요. 그래서 강화도 전등사로 집회 장소를 옮겼죠. 전등사가 지금과는 달리 갈 길이 멀었거든요. 강화도 가는 버스를 타고 강화읍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전등사 입구에서 내려서 또 걸어 올라가야 했죠. 그런데도 막상 가서 보니까 한 200명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전등사에서 임투전진대회를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막 밀고 들어와서 싸움을 하고 일부는 산으로 넘어가다 잡히고 그런 일이 3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4월 12일에 부평역 앞에서 가두시위가 있었어요. 부평역 앞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느라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놔어요. 거기에 서기화씨 등이 올라갔고 우리 해고자들은 동을 뜨면 밑에서 교통을 차단해서 짱돌이랑 화염병 대놓고 대오를 유지하면서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하는 상황이었죠. 부평역 앞에

보면 로터리가 부개동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작전동 가는 길, 백운역 가는 길 이렇게 있었어요. 백운역으로 가는 길을 막았죠. 한 시간 가까이 제법 오랫동안 싸움을 했어요. 그때 시위 주동자들이 한 명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대차게 싸웠는지. (웃음) 그러면서 가두에서의 전투경험을 실질적으로 쌓은 거죠. 이날 시위 주동은 내 기억으로는 서기화, 김건호, 박병무, 이춘식, 김동식 등이었지 아마.

신정길은 '싸움' 속에서 대중을 봤다. 가두시위를 얼마나 오래 끄느냐 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싸움'을 대하는 태도에 더 민감했다. 투쟁성과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민의를 어떻게 모아서 추진력 있게 이끌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었다.

1985년 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대중들의 힘을 그래프로 잇는다면 두 개의 큰 꼭지점을 그릴 수 있었다. 5·3인천민주항쟁이 그중 하나의 언덕을 차지했다. 하지만 5·3은 그런 힘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후폭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 닥쳤기 때문이다. 신정길은 5·3인천민주항쟁이 뒷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운동역량이 갖고 있던 시대적 한계 때문이었다고 이해한다. 아직 6월 항쟁과 같은 성과를 얻어낼 만큼 힘이 결집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는 당시의 운동 역량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운동도 정치, 투쟁, 조직 노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생운동도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던 시기였죠. 그렇다고 해서 민통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전국연합이나 전민련하고는 달랐다고 봐요. 민통련은 재야 명망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죠. 지도력의 한계도 있었고, 전체적인 운동 내부의 주체적 한계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런 경험을 쌓아서 반성을 하고 교훈을 삼아서 87년부터 잘 나갔어야 했는데, 6월 항쟁 때는 잘 나갔어요.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면서 다시 분열됐죠.

노선의 분열과 정착

비록 5·3인천민주항쟁의 힘이 탄력을 얻어 힘있게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신정길은 5·3

인천민주항쟁을 거친 후 본인의 정치노선, 투쟁노선, 조직노선을 서서히 다듬어 갔다.

사실은 학생운동 거쳐서 노동운동 할 때까지는 뚜렷한 정치, 투쟁, 조직 노선이 없었죠. 그냥 뭐 '노동계급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정도였어요. 인노련 시절에 삼민헌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민족·민주·민중이란 말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치노선과 투쟁노선이 애매했던 상황이었죠. 87년 인민노련을 만들면서 정치노선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게 주체사상과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87년도에 와서 노동계도 주로 정치노선으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PD쪽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걸 부정하진 않았으니까. 87년도에 인민노련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이란 말이 정립이 돼서 그 뒤에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서도 계속 자주·민주·통일이란 노선을 정립해 갔지만 중점이 달라졌던 거죠. PD쪽은 민중해방, 노동해방이라는 민주화의 내용에 대해서 강화해 간 거고, 자주파들은 자주에 주요 모순을 좀 더 둔 거죠. 그때는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을 때예요.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 관점 등에 대해서 사회구성체 논쟁이 86년 말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드러났던 거죠. 한쪽에서는 식민지반자본주의, 다른 한쪽은 식민지독점자본주의, 이런 논쟁이 붙고. 식민지독점자본주의를 주장했던 자들이 인민노련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쪽으로 갔고, 식민지반자본주의 이쪽 주장들이 나중에 인노회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진 거죠. 정치노선은 87년도에 정립됐다고 봐야죠.

결국 붙잡게 된 이념적 화두는 자주·민주·통일이었다. 그건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신정길은 현재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약칭 '부천평통사') 공동대표다. 2003년부터 이 일을 했다. 부천평통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약칭 '평통사')의 지역조직 중 하나다.

'자주·평화·통일운동단체'를 표방하는 평통사는 '자주·평화·통일·비핵·군축 실현'을 모토로 내세우며 1994년 창립했다. 2003년은 '대중화·전문화·전국화'를 모색하며 평통사가 재창립을 선포할 때였다.²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새내기회원 길라잡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15.

나는 인천에 쪽 있다가 93년 11월에 범민련 사무차장으로 갔어요. 94년도 김일성주석 조문 파동 때 구속됐다가 95년도 6월에 나와 사무차장이 되고, 이어 그해 범민족대회 관련해서 96년 11월에 범민련 간부 30명 가까이 구속될 때 다시 구속됐다가 96년도 여름에 나왔어요. 그때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일을 못하면서 지역에서 쉬고 있는데 2003년도에 평통사가 재창립하면서 부천 동지들이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짧게는 30년, 길게는 40여 년 간 학생운동, 노동운동, 반전평화운동을 이어 온 뒤 남은 건 한편으론 '사람'이었다. 이념적 가치에 앞서 '사람'이란 존재의 가치가 함께 정립되지 못하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이란 건 공염불에 불과했다.

감옥에 있으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겪었죠. 나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인노련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치, 투쟁, 조직 노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주의(主義)를 하려고 해도 그런 인간형의 인간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런 인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86년도에 정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소련이 혼란스러운 걸 보고, 우리는 '소비에트연방의 좌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생각하기를, '체도를 바꿨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형 인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좌절될 게 아닌가' 하고 평가를 했죠. 물론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하는 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민주·통일이란 걸 중심으로 해 나가더라도 그런 인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죠.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은 5·3인천민주항쟁 이후 인노련의 분화과정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갔다. 신정길은 인노련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계급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고 반성한다.

한창 「강철서신」이 나와서 일부에서 읽던 시절이니까 반미문제, 민족문제를 제기하던 때죠. 그 당시 인노련이 어떤 식이었는데 하면, 86년도 5월 30일에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있는 한미은행 지점을 점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노련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반미투쟁 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웃음) 4월 12일에 가두투쟁 때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5월 3일에 가두투쟁하면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거기 다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감옥 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때도 우리가 한미은행 점거한다고 해서 영등포시장 로터리를 미리 갔어요. 갔더니만 얼마 안돼서 끝났어요. 시위도 제대로 못하고. 노동 쪽에서는 5:30 투쟁이 끝나면 서 내부 노선에 대한 반성과 논쟁이 시작됐죠. 인노련 내부에서 조직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하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가하자!’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기 전에 우선 7월 27일날 주안 5동 성당에서 결산 집회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그때 인노련 활동의 평가에 대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인노련의 마지막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1986년 7월 27일 집회는 「전국 노동자조직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실천대회」란 타이틀을 걸고 있었다. 신정길에 의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집단이기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집회였다.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 기관지인 『노동자신문』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8시간 동안 대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장소는 주안5동 성당이었다. 『노동자신문』은 이날 대회를 평가하며, ‘인천노동자 중에는 이번 집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집회 중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편협한 태도를 보인 점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입장을 보인 점 등에 실망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동요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³ 결별의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150~200명쯤 될까,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쭈욱 팀별로 나와서 발언하고 토론하면서 인노련과 서노련의 노선이라든지 문제점들이 그 집회에서 다 드러났죠.

그 당시 인노련 내 그룹을 크게 나누면 세 그룹 정도로 의견이 나뉘져요. 첫 번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정치노선?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일부 노선상의 문제는 기존 노선을 좀 개선하면 된다고 보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죠. 이게 나중에, 인노맹이든가 그게, 삼민동맹이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더 이상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다 탈퇴해서 이른바 ‘반지그룹’을 만들어요. ‘반지’라는 게 ‘반지도부’란 뜻이에요. 따로 조직을 만들죠. 그 팀들이 주로 ‘주사파’ 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어찌됐든 우리가 오류든 성과든 평가를 통해서 집단적,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룹들, 내가 아는 한에서는 크게 세 그룹 정도로 나뉘졌죠. 첫 번째 그룹은 인노련 간부들이 중심이었어요. 인노련 지도부에 가까웠던 상층부들이 대부분 그리로 갔죠. ‘반지 그룹’은 이른바 ‘주사’를 받아들였고, 일부는 산개하고 또 일부가 조금 남아 있다가 인민노련과 우리 인노회에 조금 참여했어요. 마지막 그룹이 소위 말하는 일동그룹하고 맥이 비슷하게 가게 됐죠. 그 해 11월까지는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 노선 정립, 학습 이런 거 중심으로 되면서 좀 침체기를 겪어요. 계속 수배가 엄청나게 되고 하니까. 87년 1월달쯤 됐을 때 각 그룹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한 몇 개월간 논쟁을 하면서 몇 개 그룹으로 정리가 된 거죠.

신정길이 이 날의 집회를 떠올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운동의 배타성이 어떻게 힘을 분열시킬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집회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3인천민주항쟁이 끝난 지 석 달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신정길은 계급이기주의의 부끄러움을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백한다.

인노련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각 팀들이 나와서 하고 이어서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와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눈물로 알리며 호소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계급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참여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때 발언했던 주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예요. 내가 말했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다. 투쟁 속에서 희생은 필연적이다. 슬퍼할 것 뭐 있다. 우리는 우리 노동해방의 길로 가야된다. 그런 건 하찮은 거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대를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내가 아는 친구였는데.

인노련은 결국 해체된다. 7월 27일 집회만 하더라도 참여자들에게 누가 어떤 구호를 외친다든지 하는 임무가 다 주어지던 때라고 한다. 그러다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8

3 『노동자신문』 19호(1986. 8. 26), 서울노동운동연합.

월, 안양유원지에서 평가회를 마친 후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걷는다.

우리 해투위 안에서는 평가하자고 해서 평가를 조직하는데 그 당시에 인노련 안에 공식적인 지휘체계 말고 비밀조직이 있었어요. 이른바 ‘안개 그룹’이라는. 김형보가 거기 소속돼서 우리 해투위에 일종의 지도원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조직원들이 지도부에서 준 문건이 아닌 이외의 문건들, 「강철서신」이라든지 다른 책들을 보면 못 보게 뺏고 그랬어요. 다른 노선이 침투하거나 지도부를 비판하는 문건은 못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해투위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으니까 선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부적인 토론을 계속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안양 유원지가 있는 삼성산에 들어갔어요. 한 30여 명이. 부평, 주안 해고자들이 다 같이 갔죠. 거기서 밤새 토론을 했어요. 평가를 쫓 하는데 거기서 한 이틀 했을 거예요. 꼬박 밤새면서. 이른바 ‘철투투’ (웃음) 철야토론투쟁을. 그게 아마 한 8월쯤 됐을 거예요. 여름이었으니까. 거기서 토론하면서 이른바 ‘안개 그룹’이란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김형보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 거죠. 토론 과정에서도 하나로 정리가 안 됐어요. 토론을 하면서 구심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멈춘 건 아니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인천지역의 노동운동단체는 계속 명맥을 이으며 활동을 이어갔다.

인민노련은 87년도 10월경에 실질적으로 와해돼 버렸어요. 나뉘져 버린 거죠. 하나는 인민노련, 하나는 인민노련에서 탈퇴하여 인준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일동이 하나의 입장을 가졌어요. 세 입장으로 87년 대선을 맞이하고 나서 대선이 패배하고 나니까 인준위[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룹, 자주파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88년도 3월에 인노회, 즉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죠. 그게 아마 88년 3월 달쯤일 거예요. 우리가 창립식을 하고 1년 간 활동을 하다가 89년도 2월 달에 간부들이 잡혀갔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나왔고, 또 2월 달에 바로 수배가 돼서 3월, 4월, 5월, 6월에 연달아 구속되면서 89년도 여름에 인노회가 해산이 됐어요. 나는 89년도 6월에 체포돼서 감옥 갔다가 1년 징역을 살고 90년 6월에 나와서 보니까 인노회는 해산이 돼 있

고, 일부 인노회에 남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해에 내가 한국노동자복지협회의 인천지부격인 인천민주노동자연합, 백운역 앞 부평3동 성당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최연봉씨가 대표로 있었죠.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가서 인천민주노동자연합, 인천노련이라고 불렀는데 인천노련을 재건하고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내가 인천민주노동자연합에 사무국장장으로 들어가게 됐고 최연봉씨가 대표를 하고 김재훈, 신나영, 김미경 간사와 함께 부평삼거리에 있는 신명보육원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노동자 상담, 교육 활동을 주로 했죠. 나는 인천민주노동자연합 활동을 쫓 하였고, 그 해에 인노회 해체 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인사련 노동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해고자들 모임으로는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가 있었고, 또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있었고, 일꾼교회에 이민우씨, 정동근 선배가 이끄는 인천기독교노동자회, 인사련 노동위원회, 인천민주노동자연합, 노동자문화패 일터, 그렇게 모아가지고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만들었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도 가입하고.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인민련’), 전민련에도 가입을 하고. 그게 90년 겨울 이야기죠. 그후 91년 12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결성되고 인천에서도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약칭 ‘인천연합’)이 결성되어 거기에도 참가하였죠. 그러다가 92년도에 대선방침을 놓고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인천노동협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인천연합 제도정치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93년도에 범민련 해체론이 나오게 돼죠.

신정길은 이미 87년 초부터 6월 항쟁이 시작됐다고 본다. 5·3인천민주항쟁으로 운동권이 타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민의는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87년도 2월에, 우리가 2월 7일 날 가두투쟁을 하게 됐는데 수도권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타투그룹, 부천에 있던 팀, 나, 영등포 산선에 김정근. 광명하고 안산 팀들, 이렇게 한 7, 8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2월 7일에 공동으로 가두투쟁을 하고 투쟁 성과를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 일단은 투쟁을 먼저 해보자’고 결정하고 공동 투쟁을 하게 됐어요. 그게 87년도 2월 7일 투쟁이에요. 남대문에서 했죠. 2월 7일에 고 박종철군 범국민 추도식을 민통련 주도로 명동성당에서 하기로 하였는데, 그날을 기해서 우리가 데모를 하기로 하고 부평, 인천, 부천, 영등포 산선, 구로 지역에 있던 노동 조직들하고 같이 몇 차례 모여서 시

위 계획을 짰 뒤에 남대문에 가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 박종철군 49재 날인 3월 3일에 또 한 거죠. 우리가 2·7투쟁 3·3투쟁이라고 부르는데 시청 앞, 남대문 같은 데 가서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꽤 좋았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숨겨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6월 항쟁이 시작된 거죠 그때 부터.

‘타도’였어요. 연설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양승조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위원장



- 1949년 전라도 함평 출생
- 1985년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위원장
- 198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상근 지도위원
- 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평화집회를 거부하고 '선도투'로

인노련은 노동자 해방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민통련이나 인사련은 제도권의 민주화 쪽으로 치우쳐 있었을 거예요. 초점이 많이 다르죠. 우리 인노련 같은 경우는 민주화보다는 '노동자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노동자를 이해하는 정권이 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 자체에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타도'였지. 우리는 '타도 전두환'이 주 목적이었다고.

양승조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위원장 출신이다. 무엇보다 인천5·3민주항쟁이 몇몇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될 것을 염려했다. '그날 싸웠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폭도'로 이야기 되곤 한다. 양승조에게 인천5·3민주항쟁은 '순수한 노동자'들이 참여해 만든 집회였다. 그런 사람들이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고 언젠가는 중심에 자리매김하기를 원했다.

인노련은 민통련 입장하고는 달랐죠. 산업화 이후 노동자의 처절했던 삶이 따로 있으니깐. 그래서 70년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촌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로 이입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임금정책, 장시간 노동이 주를 이루게 돼요. 이걸 배경으로 시작해서 전태일 사건이 나고 80년대 오기 전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게 됐죠. 전두환은 그 상황에서 정권을 잡는 정통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미국과 자본가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박정희 때보다 더 심하게 노동자 탄압을 했잖아요. 있으나마나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박정희 시절만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청피[청계피복]에 있을 때 정보기관이 다 노사간에 회의할 때 들어와 앉았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다 듣고 '이렇게 해라.'라고 오더를 내렸으니깐. 이것보다 더 심하게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런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두환을 몰아내지 않으면 처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정서가 밑에 깔려 있었죠. 노동자들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논의를 했지만 민통련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민통련 쪽은 쉽게 얘기해서 타협적이라고 할까, 호소식이었어요. 평화적인 집회 이런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집회가 아니라 화염병 들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해방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논리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회에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학생이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민통련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죠. 계속 조율은 했어요. 그런데 서로 얘기가 안 맞은 거죠. 우리는 각목이고 '꽃병' [화염병]이고 돌이고 해서 어쨌든 이 집회를 우리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계속 밀리고 당하는 게 아니라 대치선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인노련은 꽃병 만드는 팀까지 따로 있었어요. 그런 논의가 두 달 가까이 계속 된 거 같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요구를 유감없이 표출하려고 했어요.

인노련도 사실 학출이 다수였어요. 열 명이 있으면 여섯 명 이상은 학출이었으니깐요. 그 정도 임무 수행을 하려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안에는 형식상으로만 노동자가 조직의 장이지 몇 사람이 뒤에서, 우린 인정도 안하지만, 음모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동자 출신들은 앞에만 서고, 뒤에서 그 사람들이 다 조정해서 하고 싸움 자체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책임과 처벌은 노동자 몫이고 자기들은 지시하고. 당연히 조직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하고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공식 기구에서 결정하고 나면 다음날 다르게 안이 오고 그러니까 '야, 뭘 놈의 조직이 이래.' 그러기도 했죠. 허수아비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안개는 지도부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결정을 했어요. 여기와 다르면 바꿨어요. 계속 충돌이 나는 거죠.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시 결정해서 나오는 이런 식인 거죠.

학생출신이 노동현장에 들어올 때 특정 그룹에서 결정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깐 외피만 노동자인 우리를 올려놓은 식인 거예요. 이놈들이 항상 뒤집으니깐 불만이 많은 거지. 소그룹들끼리는 다 차단돼 있어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지역도 따로 있었어요. 주안지구, 무슨 지구, 이런 데는 각 그룹들이 들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바뀌니까 계속 불만인 거죠.

나는 넌지시 알았죠. 어쨌든 인노련 지도부는 양승조가 위원장, 김지선이 사무장, 서기화가 부위원장, 전희식이 해투장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 다니면서도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꼭 봤어요. 만나서 무슨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그

러면 결정을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던가. 여기서 결정하면 자기들 없이 결정한 내용이니까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정 날 수도 있겠죠. 이걸 그냥 바꿔치기 해버렸다고. 자기들 걸로. 그런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주로 두 그룹 세 그룹 정도가 주도권을 놓고 그랬어요. 전 안개지도부와 가깝지 않아서 푸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건마다 반대를 했으니까.

인노련은 자신들의 주장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막연하지만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유, 임금 문제, 폭력적인 분위기의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총괄적인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엮고 자본가를 타도한다.'는 주장도 소수이지만 나오긴 했다. 하지만 주된 생각들은 아니었다. 양승조는 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부에서 주장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반독재 투쟁, 군부독재 투쟁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었고, '노동운동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를 타도해야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일치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장을 신민당 현판식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뭐 '삼반'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점은 없었어요. 삼반이 아님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나만해도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군부독재, 전두환을 타도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 데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도투쟁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에요. 선도투쟁이란 게 대중이 조직화됐을 땐 필요 없지만 탄압이 극심해서 운동자체가 주저앉았는데 이걸 끌어올리려면 선도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나는 지금도 그때 민통련이 주장한 평화집회는 아니라고 봤어요. 평화집회라는 게 평화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독재를 하는데 평화집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싸움을 하자. 대치 전선을 만들고 서로 붙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조직 내부에서 의견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염병, 각목, 돌 등을 동원해서 한다. 하여튼 그때 우리 애

기로는 해방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온 힘을 다해 싸운다, 이런 기조였죠.

돌이켜 보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것도 안 됐고, 노동자 정부도 안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나?'라고 질문한다면, 전술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정확히 맞아 떨어져 실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한 번 붙어보자, 이런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맨날 기죽어서 살면 뭐가 되겠어요. '할 때 한번 아무지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하면 배울 점도 많이 나올 거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물론 민통련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같이 했다고 해서 나쁜 점은 없었을까요? 같이 했다면 전두환이 퇴진했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이해가 걸려있고, 자본의 이익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해봤더니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갖고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식화된 건 아닌데 5·3투쟁을 하면서 '반미' 문제가 조금씩 나와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죠. 그 때만 하더라도 민주민중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문 제도 있긴 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미국 문제도 해야 되고, 민중문제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부라고 자처하는 안개에서는 '미국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요. 우리 사회 주요 모순 자체를 민주민중문제 쪽으로 밀고 갔어요. '미국 문제는 전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민중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지 민족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현장에서 내가 있던 곳은 격렬하게 싸웠던 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엄호조도 있었을 테니까. 수배당할 때 원칙이 '절대 한꺼번에 이동 안한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다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민통련 쪽으로 안 갔어요. 민통련 집회하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가서 막 난리쳤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민회관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었거든. 시민회관 바라보고 우리는 왼쪽, 민통련은 오른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비타협적 투쟁 한다.'라고 그랬죠.

그 무렵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현장에 가니까 '오늘 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전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는. 나도 하여튼 원 없이 싸웠어요. (웃음) 전에는 맨날 도망 다니고 어물어물하다가 잡혀서 징역 갔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돌맹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전경과 일진일퇴 했어요. 해보니까 이거 별 거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이래서 무장투쟁도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11시 반인가부터 시작 했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오후 4시까지 있었는데 지쳐서 더 서 있을 힘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숨도 못 쉬겠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원 없이 투쟁 했죠. 4시 이후에는 저쪽 힘에 밀려서 다 해산했어요. 나는 곧바로 피신했죠.

인노련에 발길을 끊고

다른 사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5·3 투쟁을 참 ‘재밌다’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웃음)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하니깐, 내가 5·3할 때는 이젠 정말 안 잡힌다고 그랬거든. 죽어도 안 잡힌다고 그랬어요. 학림 사건 때 조직 만들고 어물어물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한 달 이상 고문당하면서 완전히 골병 다 들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끝까지 안 잡혔는데 서울에서 지도부 회의하는 날인데 놈들이 덮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 마누라가 교사야, 근데 해직됐어요. 그 집인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층집이었어요. 지도부 다섯 명이 회의하는데 이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숫자보다 더 많아. 이층집인데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마음먹고 내 허리띠를 놈들이 잡고 있어서 그냥 계단 밑으로 굴렀죠. 한 놈이 그래도 바지 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박전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면서 그놈의 손이 떨어지더라구. 그 순간 나는 ‘뺨스’만 입고 도망쳤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계속 한 놈이 따라오더라구요. 더이상 숨이 차서 뿔 수가 없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 그랬죠. 진짜로 왔으면 돌맹이로 박아 버렸죠. 이번에 들어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내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서 ‘이리 와, 죽여 버릴테니까.’ 하니깐 슬슬 뒷걸을 치며 가더라구요. 나만 탈출하고 다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조사 과정에서 도망간 놈이 양승조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풀어줬어요. 놓쳤다고 징계 먹을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구속될 사람들이 모두 훈방 됐지요. 내가 잡혔으면 모두 구속감이었을 거예요. 인노련 지도부였으니까요. 도망 나와서 신림동에서 부천까지 신발도 안 신고 상의도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 정신이상자처럼 행세하면서 부천까지 걸어서 왔어요. 저는 그때 부천에 월세방 얻어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5·3 끝나고 나서 계속 수배 됐잖아요. 무척 살벌했어요. 그때 지도부는 꼼짝을 못 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미 투쟁한다고 상징적인 목표물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출자해 만든 은행이 한미은행이라고 보고가 올라와서 영등포에 있는 한미은행을 깨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후에 주동자가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안개 지도부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미 투쟁을 했다고. 그 다음에 7월인가, 8월인가 상반기 평가가 있었어요.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그때 뭐 웃기지도 않더라. NL이고 뭐고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노련이 깨진 것인데 그리고 나서 10월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본다. 난 그만 하겠다.’ 그러고서 난 안 나갔어요. 인노련 지도부에 대해서 너무 반감과 비판이 많았으니까. 인노련에서 손 끊고, ‘안 한다.’ 그랬죠. NL이 잘했니, PD가 잘했니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식상도 하고요. 저는 나가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PD가 죽사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노련은 내부 논쟁과 투쟁 노선이 문제가 돼서 깨진 거예요. 서노련, 인노련이 선도투 중심이었잖아요. NL은 대중 투쟁해야 한다고 하면서 밑에서 부터 치고 올라왔었지요. 그 동안 내색은 안했지만 ‘음모 지도부’의 능력도 없으면서 독선적 운영에 비판이 쌓여 잠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팍 터지면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해산은 안 했지만 나는 어쨌든 안 갔으니까. 더 이상 인노련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어요. 서노련 같은 경우는 김문수 구속되고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봐야죠.

인노련을 그만 둔 후 양승조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에서 상근 지도위원을 맡는다. 단병호 위원장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하다가 1994년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만두었다. 인노련을 그만두긴 했어도 인노련이 선택했던 그 당시 ‘선도투’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다만, 대중노선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안고 있다.

나는 끝까지 안 잡혔어요. 89년 12월 31일에 노태우가 특별 사면해 줬지요. 그래서 수배가 해제됐죠. 그리고 나서 전노협으로 갔죠. 전노협 지도위원으로 갔어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변화도 그렇고 노동자 세력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하에서 핍박받고 눈에 피눈

물 나는 건 노동자들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서지 않는 한 사 이비고, 그러는 한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 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단결이잖아요. 선도투가 일정정도의 역할 을 했다고 봐요. 움츠리고 있었을 때 의식된 사람들이 선도투를 해서 넓혔던 것, 선도투를 통해서 경제투쟁만 했던 중심을 정치투쟁으로 옮겨간 것, 나는 이걸 대 단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대중과 같이 하는 대중노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이 시민사회 쪽으로 옮겨 갈 거 같은데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에 노동운동이 상당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몇 가지 가 있는데 크게 보면, 큰 제조업 공장이 없는 거예요. 임금 비싸고 세금 비싸고 이 러니까 제3세계로 빠지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 서비스업만 남을 거 같아요. 서비 스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고된 노동이지만 단결이 어렵고 자본가의 착취 가 잘 안 보인다고요. 미국이나 선진국 보면 이미 공장이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일부 남아 있는 건 금속이나 자동차 공장 같은 곳이 명맥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공장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대공장들이 노동운동을 계속 치열하 게 할 것이냐? 나는 안 한다고 봐요. 자기 자리 지키고 유지하는 걸로 족한데요. 그리고 행여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리고 이 미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주류인데 집에서는 가장이고 자기 밥통 깎 일이 없 다 이거죠. '이건 곧 보수화로 가서 노동조합 활동을 거의 포기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때문에 더 기울기 전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노조를 세워 노동조합 운동 축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원하게 보이지 않아요. 노동운동이 지리멸렬하면 운동 축이 시민운동 쪽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수화 되고 잠자고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노동조 합 간부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중에 지도부를 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민운동의 중심에 서서 해야죠. 앞으로 운동의 명 맥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피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중심에 서지 않고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배부른 사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운동이라는 게 하 소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쇼.' '부탁한다.' 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하면 우리노동자들이 반드시 내놓게 하겠다.' 이 렇게 계급투쟁을 통해서 내놓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혁이 가능한 것이 지. 그렇게 되지 않고 사정해서 되는 운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고 그래요.

이전에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 들이 지역 사회,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봐요. 그런 후에 노동운동과 연대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제자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5·3도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천에서 5·3 문제가 회의적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현 대사를 보더라도 인천에서 5·3처럼 거대하게 싸운 게 어딴? 왜 이걸 그냥 덮으 려고만 그러냐?" 이렇게 야단쳤거든요. 그나마 나는 쪽 되돌아보면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전태일이란 큰 사람이 일을 만들고 그 틈바구니에 끼 여 일을 시작했죠. 이런 부분이 상당한 행운이었다고 봐요. 이런 행운을 이제는 값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앞으로 5·3을 기억하게 만들 어야 하고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온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5·3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을 갖 도록 하는 일도 해야 하고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5·3처럼 적극적으로 원 없이 했던 운동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 찾을 건 찾 고, 지금도 일개 조합원들, 노동자들은 폭도로 몰려 있잖아요. 이런 건 고쳐야 하 죠. 그 책임 또한 부채로 앉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 각해요. 그래서 5·3을 조명하고 한명도 아니고 백 몇 명이 구속 됐잖아요. 이 사 람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인데 폭도란 누명을 쓰고 있게 되 뒤서는 안돼요. 당당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야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많이 부끄럽죠.

인천을 넘어 시대 속으로

양재덕

해태음료 인천공장 노동자



- 1948년 경기도 광주 출생
- 1968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입학
- 1973년 '민우지 사건'으로 구속
- 1975년 출소 후 공장 생활 시작
- 1984년 해태음료 인천공장 입사
- 1998년~현재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

한맥과 '민우지 사건'

한 대여섯 명 함께 간 거 같아요. 현관식 하나까 가보자고 했죠. 그래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갔죠. 직선제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일하던 친구들이 같이 와서 구경도 하고 동참도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재덕은 1970년대 중반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간 건 아니다. 아직 학생운동진영에서 '위장취업'이 유행의 물결을 타기 이전이었다.

내가 들어올 때는 75년도 넘어서니까 그때만 해도 공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 세대로 4·19세대가 몇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장 1세대예요. 2세대는 한국노총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교육과 정책연구 이런 걸 주로 했고, 그 다음 단계가 3세대, 우리가 공장에 직접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기관에서 활동들을 했던 거고 현장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몇 사람뿐이었어요.

양재덕이 공장에 들어간 때는 막 감옥에서 나온 직후였다. 양재덕은 1973년 '민우지 사건'으로 구속돼 감옥 생활을 했다. 1968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 학교를 다녔지만 등록금이 없어 한학기 밖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민우지 사건' 관련 기사에 양재덕의 직업은 '전 고대 문과 1년'으로 나온다.¹ 이게 최종학력이 됐다. 등록은 하지 못했어도 학교는 도강을 하며 다녔고, 고대 이념서클인 '한맥'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당시 고려대는 두 개의 서클 흐름이 있었어요. 한맥이란 서클하고 한사회[한국 민족사상연구회]라는 서클이에요. 기타 종교서클이 있었고, 한맥이란 데는 노동 쪽에 관심과 지향이 강했고, 한사회는 반독재운동에 관심이 컸죠. 나는 한사회 쪽에 관여를 하다가 한맥이 노동운동 쪽이어서 그리로 옮겼죠. 한맥은 학생운동도 같이 하되 노동지향적인 경향이었어요. 그때 김윤환 교수가 노동문제연구소란 걸

1 『경향신문』, 1973년 6월 21일자.

만들 텐데 노동문제에 전문성을 가지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대학은 잘 다니지도 못했어요. 다닌 건 한 3년 다녔지만 돈 낸 거는 한 학기만 내고. (웃음) 돈이 없어서 그냥 안 내고 다녔죠 뭐. 한 3년은 돈 안 내고 도장을 한 거죠. 대학 등록은 1학년 1학기로 돼 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69년도에 청량리 전농동에 서 독서실을 직접 운영했어요. 한맥 애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친해졌죠. 그때는 가리방으로 굶어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독서실을 하니까 데모를 하려면 그리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관 잡아주고 가리방 굶어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함께 다니다가 감옥까지 간 거죠.

그땐 데모가 많았어요. 교련 반대, 삼선개헌 반대. 그러다가 유신이 되니까 유신반대 운동하다가 민청학련 전에 우리가 감옥에 가는 통에 긴급조치가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는 긴급조치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들어갔어요. 『민우』지라고 그런 유인물을 냈어요. 유신반대하는 거를 『민우』라는 이름으로 냈죠.

‘고대 NH회 사건’으로도 부르는 ‘민우지 사건’은 유신 이후 대학가에서 터진 첫 공안사건으로 기록에 남았다.² 『민우』는 한맥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후 일부 학생들이 지하활동을 이어가며 작성한 잡지였다. 한맥은 1969년, 고려대학교 68학번 독서모임과 민맥, 한모임 등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통합해 만든 서클로,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윤환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은 탓에 노동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컸다고 한다.³

한맥이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된 건 서클이 아직 해체되기 전인 1971년, 회지인 『한맥』에 광주대단지에 관한 르포기사 「광주는 죽지 않았다」를 게재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광주대단지 안에서 한 여성이 배고픔에 지쳐 자신의 갓난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내용의 소문을 실었다. 이 일로 인해 같은 해 9월, 한맥 장신구 회장이 연행됐다. 한맥 회원 10여명은 곧바로 강의실을 점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가 10월 4일 농성을 풀었으나 다음날 새벽 교내에 군인들이 난입, 수도경비사령부로 끌려가게 된다. 농성 과정 중에 불

2 「(긴조 9호 세대 비사) 안암골 전설은 계속된다 (1)」『뉴스메이커』 556호, 경향신문사, 2004.

3 송기역, 「모든 것은 한 편의 글에서 시작되었다 -고려대학교 서클 ‘한맥」, 『희망세상』 2011년 1월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28쪽.

인 대자보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가 다시 이어지며 1971년 10월 15일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한맥은 이때 해체된다.⁴

한맥은 1973년 6월 21일, 각 일간지에 ‘학원 간첩단’ 공판 기사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낙중 사무국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을 선동, 해체된 한맥회를 대신해 NH회관 지하서클을 만들도록 하고 불온유인물인 『민우』지 등을 제작, 배포하게 했다는 혐의였다.⁵ 이 사건으로 김낙중을 포함 11명이 구속됐으며 양재덕은 김영곤과 함께 수배를 받았다.⁶

‘민우지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양재덕은 출소 후 곧바로 공장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한다. 기술을 배운 후 시작하기 위해 보일러 자격증을 땀다. 그리고 구로동에 있는 ‘동명’이란 회사에 입사했다.

공장 투신

거기는 2년인가 3년인가 복학을 안 하면 제적이 돼요. 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옥 갔다와서 복학을 하려다가 그것도 까다롭고 돈도 없고. 공장갈 생각이었으니까 감옥 갔다와서 바로 공장으로 갔죠.

공장 들어가기 위해서 보일러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실습 겸 이런 거 하느라고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보일러공도 했어요. 보일러를 익혀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좋을 때라서 소개소에 가면 공장이 꼭 나와요. 큰 데는 전과 때문에 어렵고 조그만데, 동명 들어가서도 신원증명을 떼어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오면 탄로가 나잖아요. 못 떼어다 주고 1년을 버티니까 회사에서 떼어 오더라구. 회사에서 알았죠. 그래서 상무는 자르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했거든요. 사장이 불쌍하니까 놔두라고 하더라구. (웃음) 그래서 거기 버티고 있었죠.

4 함상근 구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아카이브); 김영곤, 「1970년대 민중운동과 민중 지향」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561쪽; 「(긴조 9호 세대 비사) 안암골 전설은 계속된다 (2)」『뉴스메이커』 556호, 경향신문사, 2004.

5 『동아일보』, 1973년 6월 21일자.

6 『경향신문』, 1973년 6월 21일자. 양재덕은 ‘민우지 사건’에 대해 2004년 6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로 인정을 받는다(『대한민국정부 관보』 15730호, 2004년 6월 28일자).

동일방직 계열이었어요. 실 만드는 회사죠. 실을 염색을 할 때 보일러를 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부서죠. 구로동에 있던 회사예요.

양재덕이 구로동 공장에 들어갈 무렵의 사회 분위기를 잠시 들여다보자. ‘민우지 사건’ 이후 1973년도에는 8월에 ‘김대중 실종·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8월 8일 일본에서 사라진 김대중이 같은 달 13일 자택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납치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은 일본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⁷ 9월 14일에는 소위 ‘전남대 사건’이 발생해 『함성』이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붙잡힌 전남대생들의 공판이 있었고,⁸ 일명 ‘야생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검은 10월단 사건’은 10월 1일, 고려대생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⁹ 이어 10월 2일에는 ‘유신 선포 이후 최초의 학생 시위’라고 평가받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시위’가 발생하며 각 대학들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한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유신 반대 움직임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갔다.¹⁰ 이에 발맞춰 12월 24일, 함석헌, 장준하 등 재야인사 30명이 ‘현행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¹ 이듬해 1월까지 서명 인원이 30만 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1월 8일,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고 4월에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는 등 반유신운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¹²

4월 3일에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에 관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생운동은 점차 강경한 대응에 직면해 가고 있었다. 서중석은 이 무렵의 학생운동권이 ‘신중론’과 ‘즉각 투쟁론’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보면서, 결국 ‘즉각 투쟁론’의 주도하에 민청학련 사건까지 흘러가며 4월 3일 배포된 ‘민중·민족·민주선언’의 투쟁노선이 80년대 중반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한편, 이재오는 당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7 『동아일보』, 1973년 8월 10일자; 『경향신문』, 1973년 8월 14일자.

8 『동아일보』, 1973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1973년 12월 28일자.

9 『동아일보』, 1973년 10월 1일자.

10 「10·2시위~전국각대학동맹휴학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 사료컬렉션.

11 『동아일보』, 1973년 12월 24일자.

12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113쪽.

13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80~84쪽.

주장하는 ‘시기상조론’이 재야운동세력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내운동과 학생운동을 노동현장으로 방향 전환시키려고 했던 학외운동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기서도 ‘시기상조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고 보았다.¹⁴

이와 같이 양재덕이 공장으로 들어가던 1975년 무렵에도 이미 장기론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꾀했던 흐름이 한편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건 학생들의 선도적 투쟁이 유신체제를 지키려는 탄압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켜 결국은 힘을 약화·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했고, 전태일 사망 이후 노동현장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운동의 방향 전환을 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양자의 흐름은 어찌 보면 5·3인천민주항쟁이 일어나는 이후 10여 년 가까운 세월동안 계속해서 맞부딪쳐 온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서노련이라든지 인노련이라든지 또, 김근태씨가 공개 단체 했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인 투쟁을 지향하는 흐름이 있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조직이 잘 돼서 노동자의 주도세력이 확실하게 생기지 않으면 이게 표피운동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조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절제했죠. 공장에 들어올 때는 일체 관계도 끊었어요. 학교 친구들도 어디를 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김근태 이런 쪽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독재를 향해서 투쟁하는 부대도 있고 바닥에서부터 준비하는 팀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열악한 때여서 뭐가 조금 드러나면 전부 잘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결국은 저렇게 가면 유명해지고 정치로 나가는데 정치로 나가면 오십보 백보의 정당활동을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고 못마땅했던 거죠.

장기적으로 준비한 건 노동자들을 민주화의 영도세력으로 이끌어 내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의 작업이 필요했다. 그건 꽤 지난한 기다림을 필요로 했다.

14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년, 323쪽.

전체 노동자 숫자에 비해서 조직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래도 공장에서 투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뿌리를 못 내리죠. 싸우다가 뿌리가 뽑혀버려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그건 평가를 해봐야 알 거 같은데, 김근태씨는 공개투쟁이잖아요. 그것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변혁이 되려면 노동자 그룹이 모든 민주화 세력의 영도계급이 돼야만 제대로 변혁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니까. 그걸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거죠.

공장에 뿌리를 내려 노동자들이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선 조심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다. 특히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했다. 시위에 참여 했다가 향후 '신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공장에 온 '학출'들끼리 개별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긴 했지만 조직화도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그룹이 있던 때도 아니었다. 장기적 전망을 가졌다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고민하는 애들이 많이 와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한 번치고 나가면 구속될 테고, 공장도 가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데모를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잘리고 잡혀가고 감옥가고 그러면 공장 오는 데 우선 지장이 있으니까. 신원조회에도 걸리니까요. 학교도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와라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친목회를 한 세 개쯤 만들었어요. 15명 안팎의 모임이었어요. 그때는 노조를 만들려면 30명인가 35명이 조직이 돼야 했어요. 그래서 30명이 조직이 돼서 설립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류가 잘못됐다고 반송을 해요. 대개 노조탄압을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서류가 오면 회사 총무과로 오잖아요. 총무과에서 보면 먼저 열어 본다구요. 그럼 거기 인원 누구누구라는 거 다 알고 그 중에서 다섯 명만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탈퇴를 시키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30명이 안되니까.

81년도 노조를 만들 때 섬유회사에 전국에 7개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다 그렇게 깨졌어요. 버티질 못했어요. 제가 만든 건 3년 정도 준비했어요. 3년 간 친목회 세 개가 단결도 잘 됐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송도 안 됐죠. 제가 만든 거 하나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깨지고.

양재덕은 '동명'에 노조가 만들어진 후 스스로 사표를 낸다. 공장 내에서 마찰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교육지책이었다. 그 뒤 의왕에 있는 고려합섬에 들어간다. 공장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본사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회사가 매입한 수운회관 뒤편 가톨릭대학 건물의 보일러 관리자로 있으며 2년을 보냈다. 이미 80년대로 진입한 후다. 함께 지내던 후배들이 모두 인천으로 소리없이 떠나 버리자 양재덕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인천으로 들어온다.

81년도에 내 친구들이 행정고시를 봐서 한 명이 경제기획원을 들어가고 그 친구의 친구가 노동부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은 '위장취업'이라고 하지만 80년도만 해도 '위장'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노동운동한다는 말은 안 했어도 관심 있는 건 아니까,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때 1,000명이 넘게 인천에 들어왔다는 게 정보부에서 파악이 됐대요, 80년에. 노동부에 있는 친구가 노조 담당이었거든요. 그 놈이 그러더라구.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들어온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개는 인정을 하더라구 그걸.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위장취업'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걸 놔두면 안 된다고 정보부에서 대책을 세웠겠지. 81년도 이때쯤에는 구로동에 방을 얻어서 내가 후배들 한 2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의논도 없이 인천으로 싹 오는 거예요. 그만큼 흡인력이 있었던 거죠. 83년도에 고려합섬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도 내려온 거죠.

해태음료에서 마주친 5·3인천민주항쟁

해태음료는 부평 작전동에 있었다. 양재덕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중 5·3인천민주항쟁이 일어났다. 해태음료는 근무 시스템이 느슨한 편에 속했다고 한다. 일이 힘들어서 회사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당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회관 앞 집회에 참가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줬다.

그날 근무를 했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었어요. 해태음료의 특징이 비정규직을 현장에서 노가다 작업하듯이 관리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딱

오면 일을 배치하고 그랬어요.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나가고 그러니까. 안 나와도 일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거기에 정규직만 틀에 박혀 있고 나머지 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오면 배치를 하거든요. 빠져도 일에 지장이 없어요. 일당제니까. 회사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일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었어요. 거기 시스템이 그랬어요.

임금은 전에 비해 좋지 않았다. 양재덕이 동명에 다닐 때 받은 월급이 28만 원이다. 조수들은 7만 원을 받았다. 해태음료에 와서는 철야를 할 경우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철야를 하지 않을 경우엔 5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작전동 '닭장집' 방이 하나에 보통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양재덕은 방세를 낼 때면 돈을 주는 순간 '눈에서 불이 확 났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노동운동을 하러 공장에 들어간 입장에서 볼 때 해태음료는 조건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회사에 정착하는 비율이 떨어졌다.

인천에 내려오니까 해태음료가 한 오백 명 됐어요. 정직원이 백 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일용직이었어요. 해태음료가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2월에 한 백 명이 들어와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우선 손쉽게 들어오니까 그만큼 와요. 이튿날 그중에 한 60명이 나가요. 하루 백 명을 일을 시켰다가 60명이 나갔으니까 60명을 공짜로 일을 시킨 거죠. 셋째 날이 되면 남은 40명 중에서 한 30명이 또 나가요. 한 3, 4일 되면 거의 다 나가요. 남아 있는 건 두세 명이죠. 저는 마흔 한 살에 들어갔는데 40대 노장들만 남는 거예요. 노장만 남고 젊은 애들은 다 나가요. 그렇게 매일 나가고 매일 들어와요. 백 명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공짜로 일 시키는 게 2월, 3월은 거의 다 그래요. 들고 나고 하니까 노조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죠.

양재덕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목회를 만들며 노동조합 결성을 꾸준히 준비해 갔다. 그러던 중 1986년 5월, '현관식' 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자들이 이런 집회에 나가서 구경하는 거 자체가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5월 3일이 되자 양재덕은 친한 사람들 몇 명과 함께 시민회관으로 향한다.

여기서 현관식 한다고 굉장히 요란했어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이 얘기해줬던 거 같아요. 신문에서도 보고.

사거리로 와서 밀리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동암쪽으로 갔다가 최루탄 쏘면 도망가고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거리에서 주안역 쪽에 폐퍼포그가 불타고, 백골단들이 쭉 있다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주안역으로 튀었죠. 계속 밀려서 역으로 들어간 뒤에 건너편으로 가서 해산을 했어요. 그런 정도예요.

시위를 할 땐 붙잡히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노동운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외압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인천민주항쟁은 그런 경계심을 어느 정도 허물도록 할 만큼 감정을 고조시켰다. 양재덕은 마치 그 날의 모습이 유격전과도 같았다고 기억한다.

내가 과거에 노동운동 할 때는 구경하는 정도였어요. 잡혀 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죠. 같이 데모대 옆에 서서 움직이긴 했어도 잡히면 안 되다는 게 마음에 있었죠. 과격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선, 처음 본 노동자들의 경우엔 이질감을 느꼈을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면에서는 신나기도 했구요.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도록 갖고 싶어하는 걸 지금 깨는 거 아니에요? 깨는 과정에서 불도 타고 그랬지만 그런 정도로 과격하게 반대하고 하는 게 상당히 신바람이 났죠.

화염병이 나오고 이런 건 조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도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민통련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통제는 안 됐죠. 그냥 유격전의 양상이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지도부는 있었지만 부재했다고 봐야죠. 화염병이나 그 정도도 안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양재덕은 1986년 말경 공장을 나왔다. 공장 활동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질 때였다. 그후 노동상담소 일을 하며 공개적인 일을 시작했다.

84년, 85년 이때가 탄압과 색출을 아주 심하게 할 때였어요. 우리 골목에서만 열 명 이상 잡혀 갔어요. 해태음료에서만 그래요. 여긴 들어오기가 좋으니까 한 스물댓 명 들어와 있더라구요. 서로 알죠. 아무래도 표가 난다구요 '학출'들은.

‘학출’들만 잡아간 거예요. 골목에 닭장집이 꼭 있었는데 형사들이 계속 낚아 가는 거예요. 낚시질 하듯이.

거기서도 친목회를 만들어 가면서 거의 노조가 결성단계였는데 어느 날 밤 갔더니 형사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알려주더라구요. 어차피 달려갈 거 같고 일도 힘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보따리 썼죠. 86년 말인가 그래요. 거기도 한 2년 다녔어요.

87년, 88년 그때부터 언더에서 위로 나왔어요.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의식화하려면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면한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전투력 있게 싸울 수 있도록 자꾸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야 의식이 크면서 큰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섬세하게 훈련하는 게 몸에 배야 하죠.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 내가 공개로 나와서 노동상담소를 했는데 노조를 만들려고 엄청 많이 와요. 탁 보면 지금 만들면 안 되는데 성급하게들 해요. 그리고 잘려요. 조금한 거죠, 이 친구들은. 준비를 잘 하면서 투쟁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인천만의 운동을 넘어서

양재덕은 5·3인천민주항쟁이 반미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줬다고 기억한다. 한편으로는 직선제 요구도 있었다. 직선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집회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평화적인 시위로 이어지지 않아 민심을 크게 얻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시민과 동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해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5·3 인천민주항쟁이 반드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역공을 당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 오히려 이후의 성과를 이끌어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반성,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평가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간디 자서전을 읽으면서 평화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간디 같은 분은 평화운동으로 목적을 관철하는 데 상당히 철저한 분이셨죠. 무저항이라고 그러지만 철저한 저항이라

구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하는 철저한 저항이죠. 문제는 목적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데도 그 분의 투쟁 방법은 다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자서전을 보면 기획력이나 규모면에서 대중이 흩어지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하부까지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통일성, 이런 게 있어요.

민심이 자기들하고 완전히 등졌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런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의식을 바꿔줘야 목적 관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게 안 됐잖아요. 물론, 이쪽이 깨지면서도 그런 게 누적돼서 이한열, 박종철을 겪으면서 오히려 분출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는 해요. 간디 같은 경우는 조직력에서부터 통일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처럼 움직이면서 다 치지도 않고 목적이 관철되는 건데 이런 거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간디의 방법이 아주 좋다고 봐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만주에서 싸운 무장투쟁 방법도 있긴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봉오동 전투 같은 투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면서 적을 섬멸하고 그러는데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운동이 버터내지 못해요. 반격이 너무 세서 근거리까지 불을 지르고 조선족까지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옮기고 완전히 와해가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투쟁으로 같이 동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양재덕은 1986년 5월 3일의 일을 인천에서만 주목하는 걸 경계한다. 5·3인천민주항쟁이 인천만의 운동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이나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5·3인천민주항쟁에 집중되는 건 ‘은연중에 5·3이 인천에서 있었으니까 인천이 직선제의 호시라거나 그런 걸 독점하고자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좀더 넓고, 좀더 깊게, 양재덕은 5·3 인천민주항쟁이 현재의 역사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원한다.

전두환이 호헌을 해서 계속 집권을 하려던 것을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운동권들이 그걸 반대하고 박차며 나간 거잖아요. 그게 분열이 되고 깨졌다 하더라도 그런 결집과 힘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어느 계기로 인해서 또 모이고 싸우고 그러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건 그게 민중이라고 생각해요. 깨지고 그런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죽은 게 아니고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큰 공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직선제를 수용 안 할 수 없는, 5·3같은 게 연속돼서 그 열망, 치고 나가려는 저력,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직선제가 관철이 되고 7·8월 투쟁으로 이어져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단계로 조건을 형성해 가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요했다고 봐요.

5·3을 꼭 인천의 독점물인 것처럼 보는 거, 인천의 고유한 투쟁의 성과물로 주장을 하거나 인식하는 건 잘못됐어요. 전체의 흐름에서 수도권으로 집결한, 물론 와해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쟁이 인천에서 있었다.’ 이렇게 팩트를 잘 정리해서 인식하고 주장하는 건 좋은 데 ‘인천만이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죠.

역사인식을 넓히는 과정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대한 인식이죠.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출현해서 광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종교인들이라든지 여성쪽이라든지 일반 복지단체라든지 외연을 넓혀서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 설명이나 노력 없이 5·3만 주장을 하면 식상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을 매번 하는데 안 해도 알아요. 매번 우리 운동권끼리 모여서 기념식 하는 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회상시키는 거 밖에 안돼요.

토론회라든지, 역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역사학자를 불러서 강연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종교 쪽도 참여해서 역사 인식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계기로서의 5·3이 되면 좋겠죠.

보다 정교한 전술이 필요했어요

유동우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회장



- 1949년 경상북도 영주 출생
- 1974년 삼원섬유 입사
- 1977년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월간 대화』지에 연재
- 1980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 결성
- 1985년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회장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개헌 국면을 보는 시각

5·3 이전까지 축적돼 온 모순들이 5·3으로 분출된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싸울 때 화풀이 하듯이 멋지게 해놓으면 오히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맨날 밀지는 장사 하는 거죠. 보수정당을 어떻게 견인해 낼 건가 하는 데 대한 정밀한 전술이 없었어요.

5·3만 딱 찍어서 보면, 무엇을 성공시켰어요? 이쪽에 역량 손실만 엄청나게 가져온 건데. 반독재투쟁만 내걸면 어떤 형태의 싸움이든지 다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모든 싸움은 다 민주화에 엄청나게 기여했다고 건강부회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없어요.

유동우는 인천5·3민주항쟁 당시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다. 산하에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이 있었고 여기 대표도 겸하던 때였다. 중앙에서 논의가 있을 때 참여하고, 인천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참여를 했다. 인천 쪽은 대개 사무국장이 일을 맡았다.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사무실은 화수동에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안에 마련됐다. 주로 민중교회에 나오는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기노련은 민통련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노련은 민통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제단체들이나 핵심부들과 가까운 관계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아는 사이였어요.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이런 데서는 민통련 자체를 뿌띠부르조아로, 기회주의세력으로 몰아붙였어요. 오히려 가맹단체가 아닌 기노련하고는 얘기가 잘 됐죠.

민통련하고 여러 행사도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박영진 노동자 장례식 문제만 하더라도 민통련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갔죠. 기본적으로 운동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또 실제 기노련만큼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는 노동단체가 없었어요. 이걸 그래도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집회를 하면 2천 명, 3천 명, 이렇게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공개집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적당한 날 잡아서 행사를 개최하고 거기 들어와서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기도 했죠.

86년도는 개헌 국면이었다. 정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었던 건 신민당이였다. 신민당은 일부 운동권에서 바라볼 때 ‘뿌띠부르조아 정당’이었다. 기회주의 세력이었다. 유동우는 ‘보수정당으로서 신민당이 이끄는 개헌 국면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판단 하에서 신민당을 제휴세력으로 볼 것인가, 배제해야 할 세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정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회의장소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하지만 일사분란하게 단일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건 제쳐놓고 노동분야 부문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는 86년도 임금인상투쟁을 어떻게 추진해 가면 좋겠는가, 하는 논의를 해 나가는데 얼마나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개헌 논의가 86년도에 신민당에서 나오면서 운동권 쪽에서도 따로 논의가 진행이 됐었죠. 86년도만 하더라도 노동운동단체를 포함해서 사회운동단체들이 개헌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이를테면 신민당이나 보수정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뿌띠부르조아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봤죠. 집권세력들하고 야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이 강했어요.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대세였죠. 그걸 배제할 경우에 스펙트럼은 꽤 넓어요. 정파들마다 주장들이 달라서 천차만별이었죠.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권 쟁취거든요. 정권을 우리가 장악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서도 ‘그렇다면 어떤 성격의 정권인가.’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삼민정권이니 민중민주니 여러 가지가 등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하려던 것은 대중 동원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체 동원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했다.

아, 일차적인 관건은 동원이죠. 몇 사람 모여서 아무리 소리질러봐야 위력이 없는 거니까. 당시에 사회운동단체들의 자체 동원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동원역량이 많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은 주로 사업장에 얽매어 있고 의식을 가진 학술노동자들이나 좀 나오거나 아니면 학생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신민당이란 정당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죠. 그걸 활용하지는 의미도 있었어요. 일단 그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원력과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합치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예를 들어 한 백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할 때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그 자체가 위협이니까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일차적인 목표였어요. 개헌은 여하튼 해야 하는 거였어요. 5공헌법이라는 게 군사독재 헌법인데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보수정당을 높음에 높아나는 거라고 본 거죠. 이렇게 규정하고 경계하고 아주 배척하는 정파들도 있었어요.

논의는 같이 해도 각 정파들은 5·3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어떻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저마다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현판식을 활용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정교하게 통일되지는 못했어요. 신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신민당을 기회주의적인 보수정당으로 규정했을 때 군부독재를 반대하니까 넓게 봐서는 우리 편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측에 반하는 목적에 묶여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하면서도 견인해 가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현판식과 관계없이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신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걸 노릴 것인지 정교한 계산이 없었던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극대화라는 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이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죠. 이미 부산, 광주,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재들이 민의를 봤단 말이에요. 사실 10만 이상 참석한다고 하는 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개헌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그 와중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처럼 신민당에서 민중운동권을 쳐다보는 일정한 시각이 있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좌익맹동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봤죠. 서로에 대한 우려는 피차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했어요. 저쪽이 최소한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동지적 관계로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격한 일방주의는 반대를 했어요.

정교한 전술의 부재

유동우는 당시는 보다 더 강한 구호, 보다 더 강한 투쟁, 이것만이 운동을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믿는 풍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인천5·3민주항쟁에서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신명풀이'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말 이 세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안겨줘야 했었다. 일회성 투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끊임없이 앞으로도 개헌논의를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자체 대중동원력이 약했어요. 인사권을 중심으로 한 인천 계 운동단체들이 암만 용을 써봐야 만 명 동원하기 어려웠어요. 만 명이 뭐예요, 집회 해봐야 천 명 모이면 엄청나게 모인 거죠. 어쨌든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을 활용해서 우리도 운동단체의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술적으로 잘 한 거죠. 신민당이 결국 보수정당이지만 국민 대중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은 엄청난 거였거든요. 기회는 잘 포착했고, 잘 동원했는데 그런 점은 지혜로운 거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했지만.

분명한 건 5·3이 가져 온 정치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쪽이 저쪽 술수에 말린 거죠. 저쪽에서 폭력시위로 규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검거 선봉이 일었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재들은. 우리가 흔히 몇 명이 동원돼서 어디까지 밀거나 싸우고 몇 명이 구속되고, 이런 수량만 갖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구요. 운동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당시 목적이 뭐였나.' '그 목적은 달성이 됐는가.' 그런 관점에서 평가가 되어야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고, 몇 만 명이 모인다면 대중 통솔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전에 신민당과도 조율을 해서 이쪽에

서도 연사가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물밑 교섭을 하던가 했어야죠.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규모와 강도예요. 그날 참가한 규모, 투쟁의 강도, 이것만 남거든요.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시는 과격했고 이념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구호들이 난무했었죠. 결과적으로 신민당에서는 ‘이건 대다수 대중들에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쪽에서는 집권세력들이 용공으로 몰아서 탄압했잖아요. 적어도 우호세력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 이민우는 ‘학생들의 과격한 구호나 투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저쪽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쪽으로 하여금 우리와 딱 갈라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항상 그런 시위, 투쟁, 행사라는 걸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술,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설프었어요. 기회주의적인 뿌띠부르조아지 정당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정하게 올바른 입장으로 견인해 낸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견인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견인이란 게 어차피 목에 사슬 걸어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하고 상당히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민당 현판식을 기회로 지역 민주세력에 어떤 힘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신민당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끌고 가는 건 힘들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주 평화적인 시위, 이런 건 좋죠. 길을 가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위라면 난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숫자가 그 정도 모이면 시위 이전에 사실상 이쪽의 위력을 침묵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몇 만 명이 모였다는 거 자체가 위력이죠. 거기에 신민당 대표로서 한마디 하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정말 신민당에 대해서 신민당과 재야 민주세력하고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정말 멋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 역할을 민통련이 해줬어야죠. 민통련이 정교한 전술들을 개발했어야 하는 거고, 지역 민통련 단체들에 지침으로 내려 보냈어야 해요. 그런데 민통련 자체도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의 저장도 전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

면 완전히 그건 그야말로 ‘반동’으로 취급당할 만큼 분위기가 그랬어요. 결국 전술의 실패였죠. 견인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공격을 해버리니 그건 완전히 실패죠.

그나마 다음 운동의 교훈을 줬다고 한다면 반면교사라고 볼 수 있죠. 6월항쟁이 대비되는 싸움인데 6월 항쟁에서는 처음부터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여성계, 이런 부분 다 망라해서 논의를 해 나가요. 소위 다 보수들이죠. 당시 운동권이야말로 뿌띠부르조아예요. 6월 항쟁을 조직할 때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이쪽의 힘을 최대한 키웠어요. 규모를 키운 거죠. 그야말로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거부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내 나라 대통령도 내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거였죠. ‘내 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게 하자.’ 이게 바로 직선제 개헌이잖아요. 기본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소양을 가진 보통시민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목표였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을 택했어요. 혼란되지 않은, 겁이 나서 경찰하고 맞서는 것만 해도 두려워 피할 수 밖에 없는, 소리한 번 못 지르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였죠. 저녁 6시에 성당 종이 땡땡 울리면 차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린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두려움 없이 참여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개발했잖아요.

‘도시 봉기’의 현장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다

윤인중

인천평화교회 목사



- 1959년 부산 출생
- 1978년 한신대학교 입학
- 1981년 학내시위로 구속
- 1984년 부평 가좌동 소재 영세공장 근무
- 1988년 새벽교회 개척
- 2002년 인천평화교회 개척

저는 개별적인 현장 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5·3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는 충격과 반성을 많이 받았죠.

윤인중 목사는 인천평화교회 목사다. 신학교를 다니다 구속된 후 1984년 현장 이전을 선택하며 부평에 왔다. 인천에서 공장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은 산업선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도를 높일 때였고, 새봄교회가 인천에 정착하며 민중교회 개척을 시작해 가던 시기였다.

70년대는 인천에 민중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다만, EYC[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가 있었죠. 학교에는 인하대 K가 있었구요, 한국기독교학생회죠. 이런 정도가 70년대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산업선교회는 70년대말부터 용공세력으로 탄압을 받게 돼요. 산업선교도 변환을 모색해서 그 일환으로 광야교회가 생기죠. 나중에 백마교회로 이름을 바꾸요. 그러던 중 80년대 초반에 민중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산선에서 교회를 개척한 곳도 있고, 서울에서 새봄교회가 들어와 민중교회로서 인천에 개척을 시작하죠. 82년 무렵이에요. ‘하방’을 한 거죠. 노동선교에 뜻을 둔 기독교인들이 노동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평에 내려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공장 취업을 위해서 인천에 내려왔듯이 이 친구들은 공장 취업이 아니라 노동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교회를 만들어서 노동선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새문안교회 대학생들을 비롯한 YMCA 출신들이 그 팀의 주역들이었어요.

인천지역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이 강한 활동성을 보였다. 1980년대 이후는 민중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노동자들의 또다른 활동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윤인중 목사는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이 주춤하던 시기 그 역할의 일부를 광야교회와 새봄교회가 채워나갔다고 본다.

80년대 초반에 기독교운동이 아이덴티티 논쟁이란 걸 거쳐요. 정체성 논쟁이었죠. 주로 K 내부에서 한쪽이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졌어요. 그런 그룹을 ‘아이티그룹’이라고 해요. 어떤 의문이었는데 하면, ‘너희들은 기독교운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운동이 아니지 않냐. 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빙자하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운동을 기독교로 끌고 들어온 거 아

나나.'라는 거였죠. 이 아이티그룹의 기반이 새문안교회 출신들, 예장 통합 새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한 YMCA 그룹 일부였어요. 그랬더니 기장 쪽 제일교회가 '현실 사회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맞서 나오죠. 새문안교회와 제일교회가 당시 기독교운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70년대 '빵쟁이'들이 양쪽에서 150여 명 정도 나올 정도로 엄청났죠. 아이티그룹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그룹은 스스로 '전투적 기독교운동'이라고 표명했어요. 그걸 '전투파'라고 하죠. 이 둘의 논쟁이 쭉 이어지다가 아이티그룹 내부가 분화되면서 좌파와 우파가 나와요. 아이티그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실천은 전투파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새봄교회는 아이티 그룹 내에서 자랐지만 아이티그룹이 너무 소시민적이라고 보고 내려온 팀이에요. '민중파'라고 했죠. 아이티그룹 내의 민중선교파가 하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논쟁이 나온 건 당시는 공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나를 할 공간이 없었어요.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활용론이란 것도 나오는 거죠.

사실 새봄교회는 그 당시에는 뛰어난 거예요. 아이티그룹의 문제의식도 받으면서 노동운동에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런 면에서 새봄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40여 명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수가 온 거죠. 하지만 새봄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기독교사회운동을 재건한다는 자기 목적을 갖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에요. 인천지역 전체를 감당한다는 사명을 본인들이 안 가졌거든요. 어쨌든 1986년 이전까지는 광야교회와 새봄교회, 이 두 교회가 주를 이뤘다고 봐야죠.

한편으로 기독교사회운동이 5·3 당시 기노[한국기독교노동자연맹] 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기독교사회운동의 핵심들이 파괴가 됐어요. 다시 조명해야 할 사건 중의 하나인데 10·26 이후 12·12세력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그룹이었죠. 전면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괴멸을 당한 거죠. 한편으로는 쿠데타를 우습게 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는 그때 타격을 받지 않은 기독교사회운동 세력 일부가 밑에서 소모임 활동 정도를 했을 뿐이죠. 전면에 등장하는 기독교사회운동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이끌어낼 만한 역량이 없었던 거죠.

인천에서는 새봄교회 노동청년회 일부와 백마교회 일부 노동자들이 인기노[인

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의 멤버였어요. 민중교회들은 인기노를 통해서 외화를 했죠. 인기노 사무실이 백마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공간활용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윤인중 목사는 교회에서의 경험을 거쳐 학교에서 '성장'을 한 후 1981년 학내시위로 감옥을 갔다. 시위는 광주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 후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다. 1981년 11월에 들어가서 1983년 5월에 나왔다. 윤인중 목사는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기독교를 버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기로 결심한다.

저는 한신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죠. 기독교 운동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기독교와는 상관 없이 83년도에 감옥을 갔다 와서 학교를 84년도에 졸업해요. 그 후에 직업훈련원을 다니면서 용접 기술을 배워 공장으로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86년까지 몇 군데를 전전하는데 86년도에 저는 기독교운동가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졌어요. 그 안에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기독교운동은 전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대안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가장 죄를 지었다고 여겼던 게 뭐였는가 하면, 광주에서 기독교운동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79년도에 이미 핵심이 모두 꺾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당시는 나이도 어렸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죠. 광주항쟁에서의 기독교운동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크게 했죠. 제가 81년도에 데모를 했으니까 광주를 봤던 거잖아요. '기독교운동은 역시 한계가 있어.' 이런 생각에 빠졌죠. 그래서 '기독교운동을 버리고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 가는 것이 내 임무다.'라는 걸 감옥에서 결심하게 돼요.

그런 고민 속에서 현장을 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현장 이전팀'에 합류했어요. '빵'에서 나오면 다 접촉이 와요. '야, 너 현장이전팀에서 공부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지역 이전을 전제로 한 서울 쪽 팀이었어요. 거기서는 저 혼자 인천으로 왔어요. 적어도 다시 교회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현장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정신과 육체를 한계점까지 몰아 붙였다. 그러던 중 1986년 5월 3일이 됐다. 마치코바 노동자로 참여한 인천5·3민주항쟁에서 윤인중 목사는 그동안 고수해 왔던 운동 방향을 바꿀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일도 많았고 학습도 많았어요. 잔업은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해요. 세미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는데 서너 명 정도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노동자들하고 사귀다고 술을 또 한 4일 마셔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다고 마시고, 잔업 끝나면 간단히 마시고, 정신이 없었어요. 2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5·3을 겪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5·3은 운동사적으로 큰 사건이었어요. 완전히 ‘도시 폭동’이었죠. 자민투가 뭔지, 민민투가 뭔지, 둘은 어떻게 틀린지, 이런 걸 듣기는 했어도 생생하게 느껴보긴 처음이었어요. 규모도 그렇구요. 나로서는 깜짝 놀랐죠.

공장생활을 접고 다시 교회로

개별 참가자예요. 사실 집회가 있으니까 보러 가자고 한 정도였어요. 막상 왔더니 내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라구요. 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전에는 학습을 통해서 관념 속에만 존재했던 건데, 그때 우리는 학습서클을 조직해서 개별화된 서클 운동을 하고 있던 때잖아요. 5·3 이후에 노동운동의 단계가 변해야 한다는 논쟁들을 좀 했어요. 노동운동이 현장에 소모임을 만드는 단계에서 지역 노동자 정치조직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가속화 됐죠.

점심 때 1시나 2시쯤 도착했을 거예요. 다섯 시쯤까지 있었어요. 본 집회가 마무리 되고 계속 집회가 이어졌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폐퍼포그차가 진입하고 거기서 막 범벅이 됐죠. 한 시쯤 됐을 거예요. 공장 출근했다가 나왔으니까 그쯤 될 거예요. 현판식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현판식 이후에 뒤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상당히 대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만 그려 보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사실 대규모 투쟁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윤인중 목사는 청천동, 작전동 등을 거쳐 가좌동에서 마치코바를 다니고 있었다. 용접 일을 봤다. 공장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긴 했으나 5·3인천민중항쟁과 같은 대규모의 집회는 거의 없었다. 규모나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다.

저는 5·3을 겪으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노동자 대중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노동자 계급조직에 관심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현장 내 소모임 등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투쟁을 한다거나 좀더 나아가서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5·3을 거치니까 이미 노동운동의 진전이라는 게 개별공장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급격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현장 소모임에 기반한 노동자 계급조직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구체적 형태가 노동자 대중정치조직이에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미제축출’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던 모습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책을 통해 접했을 뿐 이론적으로만 언급되던 단어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자민투의 등장도 충격적이었죠. 자민투라는 존재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특히 ‘미제 축출’ 같은 말은 선언서에서는 보긴 했는데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꽤 놀랐죠. 가두에서 투쟁을 하면서 그런 걸 들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국주의 반대’라는 게 책에서 보는 것 하고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거기다가 처음 접한 대규모 가두투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충격적인 현장이었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1986년 12월, 현장을 정리하고 나왔다. 그동안 운동이란 걸 너무 순박하게 생각해 왔다는 반성과 함께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86년 12월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정리해요. 그동안 ‘사상이론적으로 불충분한

노동운동가였구나.’라는 반성을 했죠. 다 변명이긴 한데 현장 활동을 사실 잘 못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술 마시는 것도 힘들고, 잔업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 2년 들어가 있으니깐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사회주의노동운동을 하겠다.’ ‘공장 들어가겠다.’ 이런 두 가지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86년 12월에 ‘1차 공장활동은 실패했다.’고 나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곧바로 도망을 나오면서 같이 있던 그룹하고 헤어져요. 같이 공부하던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고 나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런 탓에 육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브루조아 근성이 우리한테는 다 비판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현장에 빨리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는 이미 탄 마음을 먹었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결별하게 됐어요. 내가 학습대상으로 몰리고 재교육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인교회로 들어갔죠.

공장 활동은 실패했고, 그 원인을 나는 내 사상의 부족에서 찾았어요. 서울로 갈까, 인천에 남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나는 87년 1년간을 팜플렛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의 변혁론을 세워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현장을 나온 거였어요. 소박한 현장 운동론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상무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짐 하에 공부하러 나온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있을 데가 필요하잖아요. 공장 있을 때는 용접 일 해서 제법 벌었지만 이제는 돈도 못 버니까.

그때 마침 내 친구가 해인교회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인천을 뜰 수는 없는데 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회 사찰집사로 위장취업을 한 거죠. 교회에 가면 비록 골방이라도 공간하고 밥은 보장되니까요. 교회는 주일날 하고 평일 저녁 말고는 모임이 없어요. 낮에 공부하려고 했던 거죠. 월급은 물론 없었어요. 실제 취업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사찰집사로 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윤인중 목사가 해인교회를 찾을 무렵은 인천지역에 민중교회가 본격적으로 개척돼 가던 시기였다. 1986년에는 지역 내 10여 개 교회가 참여해 ‘인천지역 민중교회 목회자 모임’을 출범하면서 교단보다 지역을 우위에 두겠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¹ 특히

1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역사」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1986년 4월, 부평구 삼산동에서 창립예배를 가졌던² 해인교회는 노동자들이 재정을 마련해 설립한 교회였다.³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시점이 해인교회가 노동자 소모임을 몇 개 하던 때였어요. 밤에 주로 했죠. 인노련이 막 발전적 해체를 하면서 전환되던 시점이었어요. 나중에 인민노련이 되는 한 팀이 거기서 소모임을 하고 있었죠. 여러 정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였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죠.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들어간 거였는데 내가 신학교 출신인데다가 담임목사가 친구였어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해인교회 일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옥을 거쳐서 현장에 오며 버렸던 교회가 내 적성에 맞는 거였구나 하는 걸 느꼈죠. 나는 기독교 운동을 버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기독교 운동 안 돼!’ ‘교회 운동 안 돼!’ 하면서 감옥에서 반성하고 현장에 온 거였잖아요. 81년도부터 86년까지는 비교회, 반교회 시절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해인교회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덕에 사회주의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현장 학습서클들이 나름대로 정파로 전환되던 시기였죠.

해인교회를 찾아가면서 윤인중 목사는 다시 한 번 방향을 전환해 민중교회운동에 몸을 맡긴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는 등 시국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기독교운동과 결별했던 윤인중 목사는 인천5·3민주항쟁을 거치며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가치를 믿었고, 다시 1987년 6월항쟁의 문턱에서 민중교회운동의 가능성을 봤다. 시대의 과제들이 그렇게 흡수돼 가고 있었다.

교회에 들어온 이유를 왜 잊어먹게 됐는가 하면, 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요. 시대가 격랑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죠. 그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노동자 소모임이든 탈춤반이든 그런 게 많고, 아침에는 피세일 나가고 그랬죠. 공간이 없으니까 다들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민

2 「창립 5주년 기념잔치」, 해인교회, 1991.

3 이준모, 『해인교회』, 『총체적 복음사역의 신학과 실천』 제6호, 총체적복음사역연구소, 2009.

중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어요. 내가 암자를 들어갔는데 암자 자체가 노동운동의 후발전진기지로 활동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돼서 나는 87년부터는 민중교회운동을 해요. 기존의 기독교사회운동의 대안을 민중교회운동에서 찾은 거죠. 기독교사회운동은 기구적이었고, 계급적으로는 소시민적이었어요. 민중교회운동은 현장 가까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5·3을 광주항쟁 이후 지하에서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려던 노동자, 학생, 민주세력들이 도시봉기로 외화시키려고 했던 사건으로 봐요. 그때는 이미 제가 기독교를 버렸을 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기독교운동은 5·3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독교노동자연맹[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이 대신 짊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분들은 기독교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 때문에 참여했다고 하겠지만.

유인물 배포로 끌려간 대공분실

윤현수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 1960년 인천 출생
- 1976년 노동자생활
- 1986년 인천EYC 회장
- 1988년 한국EYC 조직부장
- 1989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활동
- 1993년 민족농어업연구소 초대 소장

인천제일교회 사건과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윤현수는 인천5·3민주항쟁을 말하기에 앞서 1981년에 있었던 ‘인천제일교회사건’을 먼저 떠올렸다. ‘인천제일교회사건’은 1981년 5월 21일 제일교회 대학부에서 5월 23일까지 3일 간 ‘민족의 교회,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청년선교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다. 행사 첫 날인 이날 한완상의 강연회가 끝난 후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스크림을 짜고 ‘전두환 파쇼 물러가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축현초등학교 앞까지 시위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 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이민우, 광야서점 대표 강우경, 인하대 학생 송영수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또 그날 밤 경찰이 광야서점을 급습해 직원 이생우와 부친공전 학생 김재봉을 연행하였고 경기다방에서 감리교 서울신학교 2학년 서광석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의 조사와 검거가 계속 이어져 7명이 구속되고 6월 20일 전원이 기소되었다. 윤현수도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구속된 이날 시위를 계기로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일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30년 정도 지난 일이라 잊힌 것도 있고 착각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서 걱정이 돼요. 난 96년 이후부터는 거의 생업에만 있었어요. 5·3 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난 원래는 노동자 출신이에요. 노동운동을 한 건 아니었구요. 교회 쪽에 김성수 선배가 제 스터디 선배였어요. 그러다가 산선 쪽 일꾼교회를 다니면서 청년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김근태 선배, 김동환 목사님과 함께 산선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청년협의회(EYC)운동을 하게 된 것 같구요. 1981년도에 인천제일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1,8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함석헌, 한완상님이 오셨어요. 이민우, 정희운, 서광석과 함께 있었죠. 그때 EYC가 타격을 받게 돼서 제가 EYC를 맡았고 그걸 계기로 청년운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인천출신이에요. 1988년도 초에 중앙 한국EYC로 올라갔어요. 1984년 인사련 만들 때도 같이 했었고 사회운동은 1981년도 EYC부터 시작했어요. EYC 회장,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제가 하게 된 거죠. 유일하게 합법적인 공간이 종교 영역밖에 없었고 동인천교회, 제일교회, 창영교회 등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합법구조와 비합법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중교회의 역할과 교회 내부 갈등

윤현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일에 전념한다. 민중교회들은 당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식화 활동을 전개했고 내부에서 논쟁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인천에 있던 민중교회들은 민주화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공간에서 의식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 과정에서 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EYC 활동은 1985년도에 총무하고 1986년도에 회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EYC 활동에 전념을 했어요. EYC 총무의 역할은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EYC는 낮은 수준의 협의체였지만 공개적 수준에서 의식화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 기장이나 예장 등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쪽에서 주로 조직을 확대하는 작업을 했어요.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초기였어요. 지역조직이 별로 없었죠. 5~6개 정도 밖에 없었어요. 선도투쟁이나 대중투쟁이나 하는 내부 논쟁도 많이 있었어요. 정○○ 선배가 할 때만 해도 PD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할 때는 대중적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라는 개념은 단순한 복음적 선교도 있었지만 ‘미친 운전사가 운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라는 본훼퍼(독일 신학자)의 말처럼 정치신학으로 해석하는 개념도 있었어요. 전두환이라는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를 끌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선교라는 거지요. 보수적 교회를 민중적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도 선교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교회 집회는 연합집회였어요. 교회활동은 동인천교회에서 했어요. 동인천교회는 민중교회였는데 교인을 구성하는 경제적인 수준이 민중적인 수준이었어요. 제일교회는 학구적인 풍이 강했고, 창영교회는 서울대 운동권출신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동인천교회가 운동 활동가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내부적으로 교회 개혁운동이나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통일운동 활동가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교회운동이나 지역향토사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교회 목사들은 보수적이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라고 감신

대생이 있었는데 불심검문에서 책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어요. 교회 목사가 지도관리 잘 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사인하면 내보내준다고 했는데 당시 교회 목사가 경목(경찰내 신자를 위한 예배를 하는 목사)이었는데 사인을 안 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 때문에 목사와 신자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어야 하는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대신에 인천제철 위쪽에 있던 동인교회 이국성 목사가 해 주어서 그 사람이 나왔지요. 목사가 진보적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살벌한 때였잖아요. 사실은 박정희 때보다 전두환 때가 더 살벌하지 않았나요? 당시 진보적인 목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적이었어요.

대공분실 연행

1986년 5월 3일에는 인천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약칭 '인기노'),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 공동명의로 '일어서자! 이땅의 일천만 노동자여!'와 '가자! 일천만 노동자의 벼락치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엎는 노동해방의 대열로!'라는 제목의 유인물 2종이 제작, 배포되었다.

윤현수는 인천5·3민주항쟁에서 많은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에 이 건으로 동부서 정보과에 연행되었다가 대공분실로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인물을 인쇄했던 인쇄소 사장을 동부서에서 만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을 품었다고 회고한다. 대공분실에서 주로 조사받았던 것은 유인물을 왜 배포하였느냐는 것이었다.

5·3 때 제가 동부서 정보과로 먼저 잡혀갔고 민족인쇄소(상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사장님이 잡혀 오셨어요. 지금도 미안한데, 정보과 형사가 그 사장님에게 폭력을 휘두르더라구요. 이 분이 집회 전에 위협을 무릅쓰고 성명서 등 인쇄를 해 주셨어요. 이 양반만 유일하게 인쇄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성명서 내용은 '직선제 개헌,' '삼민,' '반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 유인물이 한 장도 안 남아 있더라구요. 5·3 당일에 배포도 했는데. 저는 오후에 잡혀서 정보과에서는 별로 조사를 받지 않고 저녁 때 눈가리고 대공분실로 끌려갔었어요. 거기서 3일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잡혀간 거 알고 NCC에서 석방

촉구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갔던 곳이 구월동 대공분실이었어요. 거기가 위장 장소여서 지하는 개척교회고, 1층은 상가였던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잠 안 재우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저는 사상적인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한 것 같아요. 조사받을 때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맞는 일도 있었죠. 2층이었는데 문을 조금 열어 놓고 밖에서도 맞는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난 다시 찾아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물 구조였던 것 같아요. 조사받은 것은 '유인물을 왜 냈고 그 내용이 무엇이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시위는 많이 했어도 잡혀가서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공포스런 기억이 많아요.

사실 5·3 전후에 유인물을 대학부 친구들과 상당히 많이 살포했거든요. 제가 경찰에 연행된 것이 정확히 5·3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시에 저희도 화수동에 있던 산업선교회에서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신민당 현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 집결하지는 암묵적 합의는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공식적인 연대회의를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당시 인천이 논쟁도 많았고 분파도 심했고 주장의 수위도 다양했고, 지역에 있던 팀도 있었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파도 있었어요. 목적의식적으로 5·3때 무언가를 하자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현수는 5월 3일, 하루 종일 시위에 참여했다. 어렵겠지만 시민회관에서 주관역을 거쳐 제물포역으로 이동했다. 경찰이 쏘아대던 최루탄,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경찰의 진압, 문득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다. 그날의 주된 주장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이었다. 일부 그룹에서 나왔던 '반미' 주장은 인기노 쪽에서는 내세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대중성을 잃은 구호였다고 평가한다. 30년의 세월은 너무 오랜 시간이다. 기억이 흔재되어 있기도 하고 크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건 없다.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연장선 안에 있던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5·3 무렵에는 시민회관과 부평 쪽에도 유인물을 살포했어요. 시민회관 앞에 있다가 부평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한극장 건너편 우체국 건물 옥상에서 집회를 했

던 것 같아요. 5·3 때는 동선이 길어서 하루 종일 시위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미 구호를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대중노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구호를 외쳤던 거죠. 반미를 외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시민회관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쏘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거칠게 진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시에는 그 전에 하던 시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5·3이 굉장히 커지기는 했죠. 저는 주안에 있다가 제물포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일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부평 쪽에도 갔던 것 같아요. 부평에는 제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 다른 친구들이 주안역담이 무너져서 제물포 철길로도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5·3 본대회가 끝나고는 계속 가두시위로 이어졌어요. 대학생부 애들은 화염병도 일부 준비한 것 같아요. 당시에 뿌린 유인물은 18,000장인지 180,000장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많은 양을 배포했어요. 물론 이 유인물은 EYC 명의로 만든 것이었죠. 당시 EYC 활동했던 분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 EYC를 소속감보다는 활용공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지라는 개념이 많았어요. 이념적으로는 논쟁이 많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5.3에 대한 평가도 했을 텐데 금방 떠오르는 기억은 많지 않아요. 당시에는 시위가 많았고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많았었던 때니까요. 평가를 하기는 했겠지만 지금은 큰 기억은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제 자신이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윤현수는 인천5·3민주항쟁 이후 계속해서 인천청년기독교협의회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약칭 '기사연')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생활협동조합운동, 민중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드는 일에도 참여한다.

5·3 이후에 계속 EYC에 있었고 한국EYC 조직부장 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확대를 해 28개 지부를 만들었어요. 이후 1989년에는 기사연[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에서 일했구요. 기사연 이후에는 한마음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1993년도에는 김영진의원 등 20여명과 함께 민족농어업연구소를 만들었죠, 당시는 우르파이라운드로 농어민 문제가 심각할 때여서 민중적 입장의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모임 조직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주안에 살다가 현재는 옥련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활동은 그만두고 생업에 집중해서 노가다도 하고 정해진 직업 없이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목수로 다세대주택을 하나 지었지요. 원래 노동자출신이었으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저는 1976년부터 노동자생활을 했어요. 교회는 어릴 때 창영교회를 다니다가 동인천교회로 갈라지면서 동인천교회에 다니게 됐죠. 저는 노동자였다가 민중교회에서 스테디하고 청년운동을 하게 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요

이남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조직부장



- 1957년 서울 출생
- 1977년 건국대 입학
- 1988년 대학 졸업
-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조직부장
-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투쟁부장
- 1988년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1994년 인천노동교육연구소 교육실장
- 현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언더서클과 혁명운동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땐 노환을 제일 많이 가요. 그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 같이 좀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서클을 한 거였고, 운동권 입장에서 그 서클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 내 삶은 그 조직이 전부였어요. 지금은 다 흩어졌지만.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개념 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혁명운동을 했어요. 그걸 한 번도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건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민주화운동이어서, 노동운동이어서, 빈민운동이어서 차별성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논리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바뀌기는 했죠. 처음에는 현장에 다니다가 노운협이란 단체를 만들고 그 일을 하다가 90년 초 중반에 공백을 가져요.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대투쟁이 나오고 노동자가 주체세력으로 중심에 서는데 그 주변에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었어요.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2~3년 정도를 쉬었어요.

인천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재정리 과정을 거치게 됐고 문화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의 주체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내가, 아니면 우리 주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끝난 얘기라고 봤죠.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지나면서 주체세력이라고 평을 하지 않아도 주체세력들이 나와서 하는데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떠들면서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재정리가 필요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 후배나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건 문화운동이 기본일 수밖에 없다고 봤죠. 삶 속에서 문화형태가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삶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철학적인 성찰,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권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 간부하고 그러면 뭐해요.

그 속에서도 별의별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무엇보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툭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돼요? 같이 생활해야지. 생활 속에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적어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운동은 후배들이나 새로운 젊은 사람들, 더 내려가서는 아이들을 잘 놀게 해주고 생각을 열게 해주는 게 문화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노동문화제 대표를 십년 이상 쪽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나이 스무 살 먹고 사회에 대한 문제, 운동, 이런 걸 알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은 없어요. 이 세상이 결눈질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구요. 내가 특별하게 먹고 살려고 일하는 이런 것 말고, 순진한 마음으로 말한다면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더 커요.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거예요. 노선 문제에 집중돼서 판을 계속 가르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해 보게 돼요.

이남희는 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때 언더서클에 가입한다. 막 출발하던 서클이었다. 나이들도 비슷했다. 멤버들이 200여 명 정도였고 노동자 출신은 60~70여 명 가량이었다. 특별한 이름이 있던 모임은 아니었다. 인천5·3민주항쟁 때 서클 쪽에서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거친 토론이었다. 일하고 있는데 현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한 사람이 발각되면 줄줄이 걸려 들어갈 텐데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으로 이남희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약칭 '서울민통련') 조직부장이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민통련 서울지부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서울지부 사무실은 광화문 뒷골목, 논장서점 앞에 있었다. 이남희는 서울민통련 소속으로 준비 단위에 참여해 신민당 개헌 현판식 '싸움'을 준비해 간다.

평화적인 연좌시위는 반대했어요. 앉아서 뭐해요. 싸워야지. 연좌시위는 무슨. 연좌시위는 되지도 않았어요. 시민회관 앞에 연단 만들었다가 바로 깨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참여'였어요. 그 정도예요. 민통련은 싸움을 준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민통련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하는 부분

이 큰 싸움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재야정치조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정치를 하려던 조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재야정치'를 추구했죠.

저는 서울 쪽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현판식 때문에 계속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민통련이란 조직이 지금으로 보면 연대조직인데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각 조직에서 판단했어요. 서울지부에서도 '어떻게 참여할 거냐.'라는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결국은 단순 참여 형식으로 참가하기로 했죠.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가보기로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통련은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거죠. 싸워서 쟁다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해서 화염병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준비모임은 계속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자리는 민통련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단위가 전국을 계속 돌았어요. 저도 대부분 같이 했어요. 현판식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만든 모임이죠.

민통련 입장에서는 직선제, 사실은 동조하고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통련이 독자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재야 세력이 뭉쳐서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걸으려는 그렇지 않은 척 얘기한 부분들은 있었죠. 왜냐하면 입장이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인천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신민당은 인천에 가니, 안가니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석한다는 결정이 들려왔죠. 민통련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결국 깨지면 다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책임선을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역사적 의미와 개인적 시각

이남희는 후에 인민노련 투쟁부장을 맡는다. 학생들을 비롯해 각 지역들의 조직들을 만나 '싸움'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에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서울민통련이 주안1동성당에서 준비를 했죠. 다른 팀들도 있긴 했는데 누군지

는 서로 몰라요. 지하실 공간 자체를 여기저기서 활용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하실이 아니라 1층 구석에 둔 걸로 기억해요. 리어카에 스피커를 달아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갖고 나온 거죠. 같이 쪽 내려온 거예요, 사거리까지.

현장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예견이 되니까 한 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거 또 한 번 깨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걸 조직된 싸움이 아니었어요. 많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견한 일이었으니까 아주 놀랄 일은 아니었죠.

5월 3일이 어떤 모습이 될 지 궁금했어요.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중이예요.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문제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나쁜 놈들이죠.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어떻게 모인다 해도 어떻게 저항하며 싸울 것인가, 이런 현장의 전술은 항상 있었어요. 그 자체도 나중에 다 비판받기도 했지만. 과연 그렇게 싸워서 뭐가 남았냐 하는 비판이었죠. 어쨌든 민중봉기나 그런 형태가 그렇듯이 도시에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기와 대중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또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죠. 싸움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80년 광주를 거친 이후에 각 지역에서 계속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같이 싸우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 잘 알죠. 무엇보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참여해 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5·3에 참여했던 다수가 신민당이라는 이름하고 직선제라는 구호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죠. 시위 형태를 예측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단순히 신민당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통련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재야단체나 노동자들이 다 나온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안 온다고 했어요. 신민당 들리실 필요는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편으로는 '큰일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죠. 인원이 많으면 싸움으로 커지니까. 그때 싸움이라면 경찰은 최루탄 쏘고, 우리는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거였죠.

학생들 조직 일부, 노동자 조직 일부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화염병 만들

어서 짱박아 놓고, 각목 준비하고 그 정도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직된 대중이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사진 한 방이면 끝나요. 경찰도 수백 명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예요.

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죠. 경찰과 우리 사이의 물리적 싸움인데 물리적 싸움은 이기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건 생각해 봐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장에서 아주 큰 혼잡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이남희는 주안역으로 이동한 후 동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에 올라갔다. 다음날 신문에 이름은 올라갔지만 명확히 수배를 당한 건 아니었다. 그날 이후 30년이 지났다. 이남희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다음날 사무실도 안 가고, 집도 안 들어가고 상황파악을 해봤죠. 바로 다음날 기사에 '민중봉기' 어쩌구, 서울 민통련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서울지부 동료 한 명이 잡혔는데 조직부장이었던 내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산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고향집을 가도 '누가 찾더라. 무슨 일 있나?' 이런 정도였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과 잡으려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시골집에 확인해 봤더니 시골집도 다녀왔다고 그래서 마산으로 해서 2~3주 정도 있다가 올라왔죠.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일 편했어요. 마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서울 올라와서는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담당형사도 만나고 그랬어요. 안 잡아갔죠.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혁명조직이야? 신민당에서 직선제 개헌 때문에 집회 한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것도 못 가요?" 이랬죠. 정식으로 지명수배가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수사에 필요해서 명단만 올라갔겠죠.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안하거나 상관없이 그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5·3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일 많이 언급했던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걸 잠깐씩 얘기하고는 했죠.

역사적으로 그 당시가 어떤 의미였는가, 그 지점에서의 5·3, 그렇게 바라본다면 맞을 거라고 봐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떠들다 흩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의미

는 있지만 그걸 너무 대단한 의미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80년 광주 이후에 적지 않게 일들이 계속 터졌죠. 학내 문제나 분신이나 계속 터졌어요. 5·3이 연속된 사건들의 한 분출 지점,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폭력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던 간에. 그런 지점에서 5·3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은 자기 현실의 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모두 던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직의 운동론이나 관점에서 변화시키는 계기,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하죠. 의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다 던지고 땡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의를 찾아요, 반성은 안하고. 우선적으론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의를 찾아가야죠. 그게 수순이에요. 운동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까지도. 오히려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면 얘기는 되겠죠. 생각의 다름은 있겠지만 이야기는 되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억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운동의 궤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가가 가능하겠죠.

대중을 움직인 건 '직선제 개헌'이었어요

이민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1955년 서산 출생
- 1981년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EYC) 회장
- 1981년 인천지역 교사로 재직 중 제일교회 사건으로 구속
- 1982년 영등포산업선교회 간사
- 1984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 1999년 교사 복직
- 현 인천여고 교사.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제일교회 사건과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이민우는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실무자로 활동했다. 노동운동 지원사업을 담당했고 이후 1987년 6월항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민우는 대학시절부터 기독교운동을 했다. 1981년에는 인천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던 '제일교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때는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이면서 인성여고 교사이기도 했다. 기독교학생운동, 기독교청년협의회, 도시산업선교회로 이어지는 기독교운동과 함께 노동운동 지원 활동, 전교조 교사 활동 등 종교와 노동이 연계된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1981년 5월 21일에 있었던 인천제일교회 사건은 당시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제일교회 대학부에서 개최했던 청년선교대회였다. 제일교회 사건으로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이었던 이민우를 포함해 정희운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부회장, 강우경 광야서점 대표 등 7명이 구속됐다. 이민우는 이 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일을 맡는 한편, 인천에서 공장생활도 하고 1984년 말부터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동구 화수동 183번지에 있었다. 미국 선교사 조지 오글이 1961년 인천에 정착한 후 이곳에서 인천산업선교 및 노동목회를 이끌어 갔다. 노동목회를 할 목사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의 공장생활을 거쳐야 했다. 초대 총무 조승혁 목사는 대성제재소에 들어가 나무를 나르고 무거운 합판을 트럭과 유개차에 싣는 일을 기꺼이 해 나갔다. 2대 총무 조화순 목사도 동일방직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했다. 이민우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동운동 및 교육을 지원하였고 인천5·3민주항쟁 당시에는 일꾼교회 노동문제연구소 자료연구실 실장을 하고 있었다.

저는 EYC 교육청년협의회 활동을 했고 1981년도에 감옥가기 전까지 인천 EYC 활동을 했죠. 인천EYC 제일교회 사건으로 구속 된 후 1년 살고 나와서, 1982년도에 다시 서울 가서 영등포산업선교회, 원풍모방 대책위 간사, 콘트롤테이터 대책위 간사 이런 노동현장 쪽 활동을 했어요. 인천으로 내려온 게 1983년도였고 공장을 1년 다녔어요. 84년 말부터는 산업선교회 실무 간사로 있었구요. 5·3 때는 산업선교회 실무자로 있으면서 일꾼교회 노동문제연구소 자료연구실 실장을 할 때였어요. 이때도 노동자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집 내고 했어요. 그 시기에 현장 사건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산업선교회는 1994년까지 있었어요. 당시 산선에 서너 명 정도의 실무자가 있었죠. 노동자교육하고 집회 있으면 함께 하고 노래집 같은 자료집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도시산업선교회의 역할

인천5·3민주항쟁은 신민당 개헌 현판식이 광주, 대구, 대전을 거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있던 대회였다. 대부분의 인천 기독교운동단체 및 사회운동단체, 학생운동 세력들도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인천에서는 주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 담당했고, 노동계에서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이 중심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기획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행사에 연계가 있는 노동자나 조직을 동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하였다.

5·3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최된 신민당 현판식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5·3 집회를 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죠. 기독교노동청년회, EYC, 산업선교회, 노동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5·3항쟁을 준비하는 데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인사련, 민통련, 신민당이 주로 관여했고 인천의 선진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인노련이 참여했어요. 현장 쪽에서는 동원하지는 이야기를 했었죠. 'EYC, 산업선교회에서 사람들을 총동원하자. 적극 참여하자.'라는 논의를 했죠. 조퇴투쟁 등 동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10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거죠. 각자 대오를 형성해서 참여했어요.

인천5·3민주항쟁은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타협적 보수야당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 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며 급진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에 대해 시위는 고조되었다. 결국 신민당 현판식은 무산됐다.

이민우는 인천5·3민주항쟁에서 통일된 구호가 없었다는 점이 어려운 지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독재정권에 의해 억눌려 있기도 했고 변혁사상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인천 5·3민주항쟁을 통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는 노동자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학생운동, 노동자, 시민들이 모두 인천5·3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외쳤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시민회관 집회 중간에 있었죠. 어려운 지점이 통일된 구호가 없었어요. 제현의회파나 정치적 노동자그룹이 모두 다 쏟아져 나온 거야. 모든 비합법단체들이 나와서 자기주장을 했던 장이라고 할 만큼, 그동안 문서로 떠돌았던 자기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대중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직선제 개헌'이죠. 우리가 평가할 때 6월항쟁의 전초전이라고 말하는 건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직선제 개헌이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체육관 선거가 있었고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인천의 역량들이 많이 모였어요. 최하 1만 명 이상은 됐으니까. 학생도 노동자도 많이 나왔어요. 택시노동자 분들도 교대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소위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들도 많이 나왔구요.

5·3전에 회의를 한 적은 없었어요. 각자 집회에 참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인노련은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미 일반 대중조직들은 그동안 많이 싸움을 해 왔어요. 5·3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일 선두에 섰던 것은 학생이었죠.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의 인사들, 인천의 상층 인사들, 청년학생들,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반제 반파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등 다양한 구호가 있었어요.

저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는 장이 열리는 공간에 함께 참여한 거죠. 기노련에서도 많이 참석했어요. 주로 우리는 이쪽에서 했어요. 기노가 주장한 구호 중에는 '삼반정권 타도하고 해방된 민중세상 건설하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5·3민주항쟁에서 1987년 민주화투쟁으로

인천5·3민주항쟁 현장에서 나왔던 구호들은 직선제 개헌과 삼민헌법, 노동해방, 반미 구호 등 다양했지만 시민회관 본 대회와 주안역 및 제물포역으로 밀려가면서도 참여자

들이 느낀 점은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민우는 5·3민주항쟁 바로 다음 날 인사련 및 민통련, 인노련 등 주최 간부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가 이루어지는 했지만 19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5·3 때는 현장에 있다가 주안역 쪽으로 밀려갔어요. 현장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구요. 잠깐 옆으로 피했다가 주안역에서 제물포역으로 갔고 나중에는 전철타고 부평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물포역에서 집회는 거의 끝났죠. 철로를 타고 가다가 제물포역까지 밀려갔어요. 철로에서 쫓겨서 주변 골목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 철로로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동했어요. 경찰들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대면서 밀려들어오던지 거기서는 어찌할 바가 없더라구요.

이호용 선배 같은 분은 수배됐다가 잡혀가기도 했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참가자였어요. 산업선교회 차원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5·3항쟁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도 없어요. 저는 공개적인 산업선교회의 실무자였으니까요. 산선과 기노에서는 5·3 때 구속된 사람이 없었어요. 학생들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로 잡혔죠.

이민우는 1986년에는 구속과 수배를 당하지 않았다. 산업선교회 실무자의 위치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경찰에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1년 후 상황이 변했다. 87년 6월의 집회 공간에서 이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결국 수배를 당한다.

1987년 5월, 인천지역에서 인노련,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인천산업선교회 등 7개 단체가 모여 '4·13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월 24일 부평역 광장에서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대회 이후 전개된 가두시위로 인해 149명이 연행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19명이 즉심에 회부됐다.

7개 지역단체가 함께 구성한 인천공대위는 실무회의를 통해 인천의 6·10항쟁을 이끌어갔다. 5월 24일 집회에 이어 6월 10일과 18일, 26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다. 공대위에는 7개 단체 이외에도 비공개로 활동하던 노동운동 단체와 학생 등 인천의 민주, 민중운동 세력 전반이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면서 협의체로 운영해나갔다.

이민우는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시기에 노동현장 및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인천5·3민주항쟁의 경험이 1987년 민주항쟁에서 '직선제 쟁취,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통일된 구호를 나오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중에 6월항쟁 때는 마이크를 잡고 한 적은 있어요. 그 때는 저도 수배를 당했어요. 김영철 목사, 이우재 등 7명이 수배됐어요. 처음에는 7개 단체가 모여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거든. 중간에 동인천역에서 국민대회 할 때 사회를 봤어요.

7·8월 투쟁 때도 바빴어요. 우리가 지원한 사업장이 100개 정도는 될 걸요. 현장 싸움하랴 실무자 교육하랴 정신없이 너무 바빴어요. 6월항쟁 때 수배됐다가 6·29 이후에 풀렸죠.

이민우는 인사련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창립할 때 사회부장을 맡았다. 회원이긴 했지만 주로 활동한 곳은 인천산선이었다. 노동부문 업무를 담당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사련과 노동 쪽이 주장이나 수위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인사련에서는 창립 멤버로 사회부장을 했는데 이것도 산업선교회 활동으로 한 거죠. 인사련이 처음에는 회원 조직이 아니라 연합조직의 형태였기 때문에 산업선교회 뒤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인사련을 만드는 데만 참여했고 주로 산업선교회에서 노동관련 일을 했어요.

인사련은 그렇게 세계 나가지 않았고 비합법단체인 노동 쪽이 세계 나갔어요. '반제 반파쇼'라든가 구호를 강하게 내세운 게 노동 쪽이었어요. 언더 쪽에서 돌아다니던 구호들이 5·3을 통해서 배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가 대중적 구호로는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거치면서 6월항쟁으로 '직선제 쟁취'라는 통일된 구호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산층까지 합의할 수 있는 구호가 되었던 거죠. 단일한 구호에 국민적 요구도 통일됐기 때문에 6월항쟁이라는 대중적 투쟁이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5·3 이후에도 싸움은 계속 벌어졌어요. 권인숙 사건도 일어나고 1987년 초에는 박종철 사건도 일어나고 계속 이어진 거죠. 주장이 다르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5·3때 민통련 등이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87년 6월 항쟁에서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다시 운동이 힘을 회복하게 된 거죠. 5·3항쟁은 그때 당시 조직되

어 있던 정치조직들이 다 참여해서 많은 구호들이 나왔고 나중에는 국민적 구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6월항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1995년 중반에는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역 사회 복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변경했다. 이민우가 산업선교회에 있을 때는 노사갈등도 심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여전해서 1987년 이후에도 산업선교회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어려울 때면 노사투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많이 하였다.

지금은 산업선교회가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가 산업선교회에 있을 때는 노동 현장에서 싸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산선에서 관계 안한 사업장이 없어요. 심지어 김우중 회장도 만났으니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투쟁도 열린 공간이 생기니까 7·8월 투쟁을 노동자들이 계속한 거야. 당장 임금을 올려 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해라,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요 주장이었어요.

노사투쟁이 생기면 중재해달라고 일꾼자료실에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경찰들이 사업장 투쟁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상대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했어요.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을 때려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때예요. 중재 과정에서 경찰들은 임금인상이나 다른 조건은 들어줘도, 지식노동자 복직은 못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을 노동조합에 가서 이야기 해주고 노사가 합의하도록 중재역할을 했어요. 지역의 노동자들은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아니까 협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교단에 다시 서다

이민우는 학생운동, 기독교청년운동, 산업선교회 활동을 거쳐 1999년에 교사로 복직을 하게 됐다. 1981년 제일교회 사건이 있을 때 하고 있던 교사의 직을 다시 새로이 접하면서 교사 활동과 함께 이제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난 1974년부터 학교에서 학생운동부터 시작했고 1978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1981년도에 인천에서 구속될 때는 교사생활을 하던 시기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기독교운동을 했었어요. 나중에 기독교청년협의회를 만들었죠. 1994년도에 산업선교회를 그만두고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하고 인천대 비서실장 하다가 1999년에 다시 교사 복직을 하면서 지금은 교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반면교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우재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 1957년 인천 출생
-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
- 1988년 소요죄 위반 구속
- 서울대북학추진위원회 위원장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 제30주년 인천 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장
- 현 인문학 서당 온고재 대표

지리산 탈출기

도망다닐 때 우리 큰 애도 낳고 한 일 많죠(웃음).

인천5·3민주항쟁으로 이우재는 2년간 수배생활을 했다. 당시 배후세력으로 수배가 내린 인물들은 모두 45명이었다. 서울시경은 그중 12명을 특별검거대상으로 선정,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민통련 간부 8명을 제외하고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의 양승조 위원장,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의 이호웅 의장과 홍성복 편집국장, 그리고 이우재가 포함됐다.¹ 이우재는 인사련 집행국장을 맡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잡혀 들어가면 평생 골골대고 살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분명히 고문을 당할 테니까.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무조건 튀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친구 집들을 전전했죠. 친구하고 친구 와이프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친구 집에 가 있으면, TV에서는 계속 얼굴이 나오면서 이 사람 숨겨 주면 숨겨준 사람까지 처벌한다고 계속 떠들어대죠. 열흘을 못 있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미안하니까 음식하고 술을 매일 먹이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잠이나 실컷 자고 싶는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더라고요. 계속 설사를 하고 술병이 나니까 이대로 있으면 제명에 못 살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서울대에서 복대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서울대 ‘빵집이들’ 후배들을 많이 알아요. 그때 후배 하나가 자기 친구 중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고시공부하는 애가 있는데 한가하니까 거기 가 있으라고 해서 그리로 찾아갔죠. 원래 그런 데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배 중에는 사람 속에 숨어야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반드시 잡혀요. 그땐 여기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죠. 그래서 지리산에 내려갔어요.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2개월만이였다. 이우재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갔다. 두 달 간의 수배생활에 지친 탓인지 집주인에게 신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혔다. 다행히 집주인은 무던한

사람이었다.

집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가명을 쓰지 않고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5·3사태로 수배중이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 덕에 살았어요. “나는 모르는 일 이니까 당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요.

지리산 산골 생활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외지인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경남도 경에서 덮친 것이다.

마을에 한 십여 가구가 있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술을 마시러 산 아래 있는 덕산읍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신고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 데는 외지인은 단번에 눈에 띄거든요.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술 생각도 나고 해서 땡벌에 그 집 애들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거기서 한참 내려가면 덕산이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장에 가서 이것저것 물건도 사고 술도 한잔하고 올라와서 집에서 한잔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여기서 자고 아침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 집을 새벽에 경찰이 덮친 거예요. 이 집 아주머니가 밥을 하러 나갔다가 웬 차량 두 대가 딱 올라오더니 내가 머물던 집에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수배중인 걸 몰랐으면 잡혔겠죠. 내가 수배중인 걸 아니까 “삼촌, 삼촌 나와 봐. 저기 경찰 들어간 거 같애.”라고 해요. 아차 싶었는데 아주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가려고 했더니 ‘삼촌 나오지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경찰들이 뒷집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언덕이니까 올라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방 안에 있고 경찰은 밖에 있었어요. “주인장! 좀 봅시다.” 그러니까 주인장이 아주 태연하게 이불을 확 뒤집어서 내 위에다 탁 올려놓더니 문을 확 제끼고 나갔어요. 경찰은 여름 햇빛에 방 안이 보일 리가 없죠. 옛날 흙집이었어요. 게다가 주인장이 이불을 제끼고 간 줄 알지 내가 이불 속에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숨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런 대화 소리가 들려요. 주인장이 ‘더덕 캐러 다니곤 하는데 한 번 나가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온다. 이 산중에 어딜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잠깐 딴 데 간 사이에 부엌에 숨어 있다가 산 넘어서 튀었어요.

¹ 『동아일보』, 1986년 6월 3일자.

거기 내 신분증도 있고 그랬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덮어버린 이유가 있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갔는데 못 잡은 거잖아요. 엄청 깨지거든요. 없던 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장 아저씨도 아무 일 없었죠. 잡혔으면 구속됐겠죠. 내가 안 잡혔으니 주인장도 무사했던 거죠. 88년에 잡혀갔더니 동부경찰서장이 “이 선생님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1억 깨졌죠.” 그러더라고요.

이우재는 그 때의 지리산 탈출기를 『민통련 20년사』에 생생히 소개했다.

“산죽과 덤불로 짙은 숲을 뚫고 그냥 위로만 올라갔다. 산죽에 걸려 안경은 자꾸 벗겨지고 운동화가 큰 탓에 발가락이 점점 아파 왔지만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날이 어둡기 전에 산을 넘어가야 했다. 그러기를 한참, 무심코 바위에 발을 딛으려는데 큼직한 살모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꼬리를 들고 있는 것 아닌가.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깊은 산중에서 뱀에 물리면 속수무책으로 죽는 수밖에 없었다. 내 시체는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아마 이 산속에 웬 까마귀가 저렇게 물려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나 찾아지겠지. 발밑을 살피면서 올라가기를 한 삼십분쯤 했을까 바위 위에서 살모사 한 마리가 또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지체되건 말건 조심조심 살피고 살피면서 산을 올라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 능선에 오르고 나니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 밑으로 천왕봉과 지리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을 감상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내려가기를 또 한참 사람이 지나다 흔적들이 보였다. 그리고 좀더 내려가니 머루밭이 나타나고 또 내려가니 길이 나타났다. 일단 산을 넘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올라왔더니 아우 도망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망자들을 찾았죠. 고대 출신 중에 안희대라고 있어요. 역시 고대 출신으로 박계동도 수배 중이었죠. 돈을 얼마씩 모아서 아파트 월세 하나 구하기로 했어요. 월세 구하면서 아내한테 빠져나오라고 해서 합류해서 화곡동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잠수 타면 불문율이 있어요. 3개월마다 옮겨 다녀야 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봐서는 사람을 못 잡아요. 하지만 실물을 오래 보고 사진을 보면 대번에 알아요. 사진은 아무리 봐도 실물이 돌아다니는 걸 못 알아봐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두세 번 옮겨 다녔죠.

6월항쟁이 일어나고 수배자들을 다 풀어줬는데 여덟 명은 안 풀어줬어요. 거기 또 들어갔어요. 나, 박계동, 안희대 셋이 다 걸렸어요. 지치기도 하니까 김병상 신부님 통해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자수하면 없던 길로 해주냐?’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야 한대요. 그러니 자수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도망다니는 거예요? 들어가면 1심에서 나오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대선도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면서 다 해산했어요. 각자 도생하기로 하고 아내는 집에 돌아가고 나는 맨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낫술 먹고 다녔어요. 항상 양복에 넥타이 매고, 삼성 배지 하나 붙이고 다녔죠.

그날도 낫술 한잔 먹고 가는데 누가 신분증 보자고 해서 남의 거 안 주고 그냥 내 거를 뒀어요. 시청 앞 지하도였어요. 그랬더니 “잠깐 가서야 하겠는데요.” 하죠. 그 경찰은 입이 이만해졌죠. 아마 포상금에 휴가에 이것저것 많았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고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넘어 갑시다.’ 그래요. ‘싫은데.’ ‘아유 서로 좋게 좋게 합시다.’ ‘그럼 저녁에 소주나 한 잔 사.’ 그렇게 해서 부대찌개 하나 시키고 소주 한 잔 하고 나면 그땐 유치장이었는데 술이 이만큼 올라서 자고 그랬어요.

이우재는 인천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1988년 3월 21일 구속됐다. 1978년 서울대에서 시위를 하다 처음 감옥에 들어간 후 세 번째 구속이었다. 이우재가 잡힌 뒤 넉 달 가량이 지났을 무렵, 민통련과 민청련 간부들이 차례로 자수를 하거나 연행됐다. 민통련 인권부장이었던 곽태영은 7월 22일 경찰에 연행됐고 이우재와 은신처를 함께 쓰기도 했던 박계동과 안희대는 7월 28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다. 이에 앞서 1988년 5월 19일, 평민당·민주당·공화당 세 야당의 인권위원장들이 모여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양심수 석방, 사면 복권, 수배 해제’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작성한 양심수 명단을 민정당에 건넸다. ‘5·3시위 배후’였던 이우재와 장기표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²

나는 시민회관에서 주안역 뒤로 해서 도망갔죠. 집회가 종료되고 그런 건 없어요. 지랄탄이 한 번 터지면 숨도 못 쉬는데 시위고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뿔

2 『동아일보』, 1988년 5월 19일자.

뿔이 흩어졌는데 기표 형을 탈출을 시켜야 하나까 기표 형이 인천 지리도 모르고 해서 기표 형하고 같이 빠져 나갔죠. 주안역 넘어서 석바위로 해서 넘어가서 간석역 건너편에서 택시 잡아서 기표형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인천에 있었는지 서울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다녔죠. 한 2년 수배 생활을 했어요. 1계급 특진에 300만 원이었어요.

민주정부의 의미

민통련의 주된 구호는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였다. 1970년대 성명서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민주헌법’은 ‘유신헌법’의 대항어였다. ‘민주헌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어이기도 했다. 인천5·3민주항쟁을 거쳐 ‘민주헌법’이란 구호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건 6월항쟁을 이끌었던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출현이다. 인천5·3민주항쟁에서 등장한 ‘민주헌법’과 ‘민주정부’는 70년대의 반유신투쟁과 87년의 6월항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날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외쳤던 구호는 의미가 달랐을까.

그게 그 당시 논쟁거리였죠. 노동 쪽에서는 삼민헌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삼민헌법 쟁취하자’가 구호였죠. 이게 87년으로 가면 단순하게 직선제로 갔죠. ‘민주헌법 쟁취하자’라는 게 어정쩡한 게 뭐였냐 하면, 대중적 구호로는 직선제가 더 분명하죠. 아주 명백해요. 근데 그거는 당시 우리 의식으로는 신민당의 ‘딱같이’에 불과하다. 그거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래도 삼민헌법은 아직은 아닌 거 같다. 그런 정도의 의식 속에서의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정부, 민주헌법이란 건 한마디로 ‘민중의 권력’이죠.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삼민헌법은 너무 과격하다고 봤고, 직선제는 신민당의 들러리라고 봤어요. 적어도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신민당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신민당과 같지는 않다. 신민당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어정쩡하게 표현된 거예요. 구체적인 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민주와 통일, 민생은 거의 모든 단체들이 내건 과제였다.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역시 1984년 10월 25일 발표한 출범 발기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라는 우리시대의 과제가 각계각층은 물론,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됨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통일의 달성’을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우재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집행국장을 맡는다. 당시 발기인에는 이우재 외에 제정구, 이명준, 이호웅, 김영준, 김정택, 김도연, 황선진, 장정옥, 한상희, 이민우, 조용호가 이름을 올렸다.³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은 민통련의 가맹 단체였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였기 때문에 인천5·3민주항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헌법’이니 ‘삼민헌법’이니 이런 말들이 ‘말의 성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일종의 ‘투쟁의 언어’였다. 1986년 5월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민주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담겨 있었다. 그에 따라 투쟁의 방식도 변혁의 전망도 바뀔 터였다. 물론, 정교한 이론 체계가 만들어져 있던 건 아니다. 이우재가 그때 중요시 생각한 건 시의성이다. ‘근로인민대중’을 한가운데 놓고 ‘미국에 예속된 독점자본주의정권’을 뒤엎어 민중의 권력을 쟁취한다는, 이런 내용을 좀더 다듬고 구체화 해 ‘민중의 언어’로 만들고 싶었으나 5·3의 대대적인 탄압국면은 그럴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예전에 민통련 토론회 때도 그 얘길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때 기표 형하고 만나서, 민통련 강령을 만들려고 했어요. ‘민주헌법’을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잡혀가서 끝났고 완성을 못했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인민대중,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때는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하지는 못했고 아직은 단계가 민중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빠르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것이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는 깔려야 한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5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했죠. ‘미국에 예속된 독점자본주의 정권’이라고 읽고 있었죠. ‘완전히 식민지 상태냐 아니냐.’ 이런 거는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하

3 「인천지역 사회운동 연합 발기문」(1984. 10. 25).

지만 광주에서 봤으니까. '결국은 미국이 군대 동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한국사회성격에 대한 논쟁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인천 지역 운동계에 인사련만이 있던 건 아니었다. 인사련과 쌍벽을 이루는 단체가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다. 청계피복노동조합 지부장 출신 양승조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우재는 인노련과의 협력을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고 한다. 인사련과 인노련 간의 조율 시도는 5·3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시위 당일에도 시도됐다.

민통련 가맹단체 형식으로 모임이 있었거든요. 월례 모임으로 시작한 거예요. 개헌 현판식이 85년 3월인가 광주에서 있었고, 2주마다 신민당이 광주, 대구, 부산에서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할 때 우리 예상을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30만 명인가, 하여간 엄청 모였어요. '이 동력을 운동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민통련 각 지역 가맹단체들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이용해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전에 약속이 됐어요. 대구 가면 대구경북 민통련 가맹단체 친구들이 주동을 해서 붙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팀들이 모인 거죠. 주로 지우협 멤버들이죠.

내가 5·3 이전에 만난 인노련 사람이 양승조 선배하고 김지선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불행히도 실권자가 아니었어요. 실권은 학생출신들이 잡고 있었죠. 소위 안개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5월 3일 당일에도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표 형한테 "형님이 김문수나 이쪽을 한 번 만나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기표 형이 조율하려고 김문수도 만나 보고 그랬는데 잘 안됐어요.

하다가 난리가 나니까 집회를 잠시 보류하고 기표 형이 김문수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집회 장소를 비워줬어요,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대로 통과를 해버리더라구요. 통과해서 저기로 가버렸어요. 같이 하기 싫다는 거죠.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릴 무시한 거죠.

인하대하고 인천대 학생들하고도 만났죠. 서울지역 학생운동권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자민투, 민민투가 생겼을 때예요.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그 선을 더는 못 뚫었어요.

민통련은 우여곡절 끝에 1시 30분,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시간 인천 시민회관 앞은 말 그대로 빨갱게 달아 오른 도가니였다. 언제 깨져 쇠물이 녹아내릴지 모를 긴장감이 아스팔트 위를 가득 채웠다. 곳곳에서 작은 집회가 별도로 열렸고, 구호도 제각각이었다. 마이크 소리는 뒤섞여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전부 다 따로따로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었죠. 인민노련도 따로 했을 테고, 자민투 따로, 민민투 따로 그랬을 거예요. 학생들은 집회보다는 '싸움'을 했죠. 외곽에서는 싸우고 안에서는 집회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마이크 소리도 섞이고 이수라장이었어요.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죠. 자기가 있던 곳만 알 수 있는 거예요.

2일 저녁에 시위에 필요한 물품을 주안1동 성당 지하실에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나올 때는 지하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죠. 그 이후에 다른 팀들이 들어온 거 같아요. 우리 동선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실을 사용한다는 건 인사련 실무자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12시 5분쯤 성당을 나갔어요. 길거리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주안 사거리까지 가니까, 한 50미터 쯤 됐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고, 30분쯤 지나니까 확 터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플래카드를 펼쳐서 한 쪽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앞에 웬 여자들 둘이 오더니 자기들 플래카드를 짹 펼치고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인노련 사람들이었어요. 그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너무 일찍부터 붙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현상들이 보여요. 전경들이 갑자기 차를 한 대 몰고 시위대 한 복판에 기어 들어오고 그래요. 차 놓고 도망가기도 하구요.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저 차는 왜 들어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인사련은 민통련에 소속된 지역가맹단체였죠.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민통련 가

맹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자는 건 지운협 결정이에요. 중앙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넘긴 거죠. 중앙에서 지시한 건 없어요. 우리 지운협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천은 인천에서 담당하는 건데 인천의 행사는 상황이 수도권 일대가 다 모이는 거니까 인천 자체로 좁게 보지 말고 전국적인 단위로 놓고 생각하자는 거였어요. 작전계획이나 이런 건 인사련이 다 했죠. 수도권 일대가 다 모이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요.

원래 우리 전술은 시민회관 사거리를 점거해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창할 것 같아도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 선생이나 계훈제, 백기완 선생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와서 하는 거지 뭘 결정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다 결정하는 거죠. 최고 결정은 장기표가 하는 거였어요. 그때 기표 형은 수배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대신했죠. 5·3으로 가는 결정은 제가 다 했어요. 인천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호웅, 홍성범, 윤승권, 조형욱, 권병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관여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이호웅, 홍성범, 이우재 셋만 잡혀가기로 합의를 봤어요. 나머지는 다 빼는 걸로 사전에 약속을 했죠.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포집이나 이런 데서 결정하죠. 그리고 호웅이 형하고는 각 지역에서 현판식 대회를 할 때마다 같이 내려가서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서. 몇 달 동안 얘기하면서 결정한 거죠. 어느 한 회의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은 이리이러하니까 우린 이런 걸 보완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구체적으로 삼정동 성당에서는 플래카드, 피켓 이런 걸 제작했고, 주안1동성당은 집결지였어요. 삼정동 성당에서 만든 걸 그 전날 주안1동성당에 집어넣어 뒀어요. 삼정동 성당은 신부님이 우리 인사련 지도위원이었어요. 주안1동성당은 우리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성당인데 호인수 신부님이 주선했어요. 호인수 신부님이 자금을 한 3백만 원 정도 내셨어요.

인천에 총집결한다는 건 뻔한 거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봤죠. 지역마다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천은 서울하고 가깝고, 당시 한국의 페테르부르크라고 했거든요. 공장에 가면 열 명 중에 두 명은 학생운동 출신이었어요. 나중에 대부분 교도소에 갔지만. 그러니 여기서 뭔가 터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

는 일이었죠. 5·3 다음에 마산에서 한 번 있었고 이어지긴 했지만 판은 이미 인천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 학생은 5백 명 정도 동원이 가능했어요. 학생운동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었으니 6월 항쟁까지 간 거죠. 이게 나중에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완전히 운동가에 의한 운동으로 가 버리니까 고립돼 버린 거지. 제가 78년도에 운동할 때도 한 2천 명 모였어요. 인력 동원은 서클 아이들이 주로 동원이 됐는데 '뭐 있다는 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끌고 오죠. 서클이 그때 몇 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은 잘 안나요. 인천대는 학생회가 운동권으로 장악이 됐는데 인하대는 아마 장악이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가 아니라 서클 라인으로 접촉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집결지는 주안1동성당이었어요. 민통련 사람들하고 내가 동원한 인하대, 인천대 학생들 해서 한 3, 4백 명 됐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성당 마당에 모였어요. 어차피 신민당 행사였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었어요. 원래는 막았을 텐데 미국 국무부장관인가, 코멘트를 했어요. '민주국가에서 의사 표시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원천봉쇄 당했겠죠.

인천5·3민주항쟁을 위한 마지막 점검 회의는 고잔동 성당에서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민통련 사람들이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만나 고잔동 성당으로 이동했다. 시민회관 앞을 메인으로 놓는데 여기를 방어하려면 주안역하고 석바위 쪽을 장악해야 확보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 결정하자는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민통련과 인사련은 시민회관 앞에만 있다가 마무리를 지었다.

‘한복투쟁’과 ‘민주화촉진 시민대회’

이우재가 생각한 5·3의 기본 방향은 철야농성이었다. 평화집회였다. 민통련과 인사련은 인천5·3민주항쟁 과정 중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화염병은 준비하지 않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끝다가 경찰이 진압해 들어오면 또 다른 국면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우재는 집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몇 명과 함께 ‘한복투쟁’을 벌인다.

철야 농성이니까 평화시위죠. 화염병은 우린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안1동성당 지하실에는 화염병이 쌓여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텍’을 우리 인사련 실무자 중 한 명이 인노련에 알렸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텍’을 알고 역이용한 거죠. 우리가 주안1동성당에 모인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싹 빠진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화염병 만든 거예요. 우리가 12시쯤에 나왔어요. 원래 계획은 철야 농성이었어요. 철야농성이라는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결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란 이름을 걸고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개헌 약속을 해라. 개헌 약속을 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결국은 하루 정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강제진압을 들어오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시위 지도부가 대중집회할 때 부각이 돼야 하잖아요. 한복투쟁이란 건 시위 지도부란 걸 알리기 위해서 위에만 하얀색 한복을 입은 거예요. ‘여기가 시위 지도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저하고 기표 형하고 몇 사람만 입었어요. 그래야 대중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호응이 형도 입었을 거예요 아마.

화염병은 사용하지 않아도 방어 차원에서 투석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화염병은 일체 제조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죠. 하루 철야농성하면 다음날 뭘 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현관식은 하도록 내버려 두고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그 자리를 장악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 행사 자체는 께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시 반쯤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 행사에 들어갈 생각으로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화염병이 날라 다니고 난리가 났으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는 신민당을 일종의 제휴 세력으로 본 거죠.

5·3은 광주 이후에 6월항쟁으로 가는 도중 발생한 가장 큰 투쟁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그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갔고 우리가 수세적인 국면으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하나씩 하나씩 깨져 나갔어요. 서노련도 다 끌려갔고 인천도 풍비박산 나면서 깨졌어요.

5·3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토론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좌익모험주의, 종파주의, 이 반대 급부로 6월항쟁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5·3을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5·3 이후 운동권의 변화 중 가장 주된 것이 주사파가 운동 전면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철서신」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운동 이전에 사람이 되어라.’ 즉 품성론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운동 일선에 있던 활동가들에게는 절절했거든요. 같은 동지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씹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하는 건가 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고 대동단결하지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5·3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없었을 거예요. 주사파들이 최초로 등장한 게 85년 3월이었어요. 구학련 친구들이죠. 서울대학교 시위에서 최초로 반미구호만 딱 전면에 내세운 투쟁이 붙거든요. 그 전에는 ‘광주학살 방조한...’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건데 그때 서울대 집회에서는 앞뒤 아무것도 없이 ‘미제 물리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다른 흐름이었죠. 김세진하고 이세호가 분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3이 끝나고 3, 4개월 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주사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조금 있니까 인노련도 없어지고 주사파 노동조직들이 생기고 그랬죠. 반면교사의 입장에서 5·3이후 주사파가 세력을 확장한 거죠. 5·3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한편 거꾸로 들여다보면, 반면교사라는 건 우리 내부에서의 정리예요. 전체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3이 과격한 게 있긴 했지만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큰 흐름은 같이 하죠. 그런데 이게 억압에 눌려서 극단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억압 당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립투쟁도 3·1운동 하다보니까 결국엔 무장투쟁 밖에 길이 없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개헌 현판식 싸움’의 끝에서

지역운동협의회와 ‘활용론’

신민당이 2·12총선 때 상당히 선전을 했잖아요.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개헌하자.’라고 전두환 정권에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을 받지 않으면서 공전하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신민당에서 지부를 형성하면서 개헌 현판식을 하는 형태였어요. 현판식을 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도 모이고 당원들도 모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대중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이쪽에서 대중집회를 해보자.’는 거였죠. 요구는 역시 ‘개헌하자.’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마산, 부산, 광주, 청주, 이렇게 갔죠. 마지막이 인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논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했던 데가 지역운동협의회였어요.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는 크게 부문운동협의회와 지역운동협의회가 있었거든요. 부문은 노동이라든가 농민, 여성운동 협의체였고, 지역운동협의회는 각 지역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런 데였어요. 지역운동협의회는 상당히 결속력이 강했어요. 얘기도 잘 됐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서 거의 만나고 그랬는데 현판식 준비를 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에서 할 때 연설을 누구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거기서 다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웃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산인가 어딘가에서 박계동 선배나 장기표 선배가 나서서 했죠. 그때는 하고 나면 바로 수배가 되니까 도망가고 그랬어요. 특히 박계동 선배는 계속 숨어다니면서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나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중동원이 잘 됐고, 개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만이 아니라 재야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신문에도 잘 다뤄졌어요. 내 기억으로는 ‘현판식 싸움’ 하면서 박계동 선배가 마치 스타처럼 굉장히 떴어요. (웃음) 홍길동이란 별명도 갖고 있고 그랬어요. 연사로 이쪽 저쪽에서 지역마다 나타났으니까요. (이지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은 1985년 12월 20일, ‘지역운동과 민주·통일·민중운동’이란 제하의 좌담회를 개최하며 지역운동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9월 20일의 민통련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지역운동이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극적 규모의 연합통일운동 틀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지역운동론과 연대

이지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총무부장

유종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문화부장



이지호

- 1959년 출생
- 1985. 5. 10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총무부장

유종순

- 1958년 출생
- 1986년 3. 2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문화부장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했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는 지역운동을 '이 땅의 모든 운동이 갖는 보편적인 과제, 즉 민주·통일·민중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후,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지역운동 단위의 조직은 그 자체가 지역편제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선 지역운동의 활동가들이 대부분 학생운동 출신들이나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학생운동의 사고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¹ 인천지역의 사정에 기초한 언급이기도 할 것이다.

민통련을 움직였던 두 개의 동력은 부문운동협의회와 지역운동협의회(약칭 '지운협')였다.² 지운협은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한 공간 '활용론'의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민통련은 3월 31일 원주에서 열린 제2차 정기총회에서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³ 지운협은 이후 사실상 신민당 개헌 현판식에 맞춰 개최된 민통련 집회를 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주도해 갔다.

민통련 본부에서 했다고 해서 5·3까지 이어진 행사가 민통련 본부에서 다 관할 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역이 더 중심이죠. 인천항쟁도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이름은 민통련이란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지역단체들이 더 중심인 거였어요. 인천에서 인사련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은 부산시민협의회든가 그런 데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현판식 싸움을. 민통련 본부에서는 지원하는 거죠. 내려가서 같이 해주기도 하구요. (이지호)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당시 공소장이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서울 민통련에서 수배되고 잡혀가고 구속된 사람들 기소장을 보면 회의 내용이 다 같아요. 한 3분의 1이. (웃음) 모월 모일 모시 어디에서 누가 모의하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 것 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아마. (유종순)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는 5월 23일 구속됐다. 소요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공소장에는 문익환 목사가 '민통련 산하 단체로 하여금 같은 해 3. 23. 이후 4. 27. 사이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지에서 개최된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지부결성 대회를 계기로 이에 편승, 동당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가두시위, 유인물 살포 등을 주도하도록 조종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천5·3민주항쟁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같은날 11:00경부터 5. 2. 11:00경 사이에 홍보국장 박계동, 사무처장 이부영, 대변인 김종철 등은 민통련 총무국 간사 임병주, 동 이달원에게 피고인이 인쇄 지시한 위 유인물을 각 2만부씩 인쇄하고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제하의 소책자는 500부, "민주헌법을 우리 힘으로" 제하의 소책자는 3,000부를 추가 인쇄하되 민통련 자료 보관실에 있는 각종 유인물과 책자 재고분을 전부 수집하여 포장해 두라고 지시하여 위 임병주, 이달원이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세진인쇄소 및 대동인쇄소에서 인쇄한 유인물과 보관 중인 재고분 유인물 및 책자 도합 8종 약 51,000부를 라면 박스 등에 포장하고, 같은 해 5. 2. 22:30경 위 박계동은 위 이달원과 함께 포장한 위 유인물을 번호불상 봉고차에 싣고 출발하여, 같은 날 24:00경 인천시 주안5동 소재 주안5동 성당에 도착,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해 5. 3. 06:00경 인천시 주안1동 소재 주안1동 성당으로 옮겨 위 유인물 상자를 그곳에 은닉하여 두고, 같은 해 5. 3. 11:00경 위 주안1동 성당에서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 동 편집실장 홍성복 등의 지휘로 민통련 산하단체 회원 20여 명이 손수레에 확장기와 마이크 앰프 등을 설치하는 한편 그곳 지하실에서 플래카드, 화염병, 각목 등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그때 대학생, 근로자, 시민 등 군중이 인천시 주안동 190 소재 시민회관 방향 차도를 메우고 진행하자 위 이우재, 홍성복, 인사련 회원 김종현, 민불련 집행위원장 서동석, 민통련 서울지부 간사 이남희, 성명불상 민문협, 충북민협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확장기를 설치한 위 손수레에 각목, 화염병을 싣고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위 군중들과 합류……" ("공소장"(1986. 06. 19), 서울지방검찰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자료)

문익환 목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에서의 민통련 행사는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와 편집실장 홍성복이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온다. 각 지역 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현판식 싸움'을 이끌었던 건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에 바탕을 두기도 했겠지만 사실상 현실

1 『민주통일』 제4호(1986. 02. 20),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2 『다시! 함께! 민주와 통일을 향하여!』 민통련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2015, 44쪽.

3 『6월항쟁을 기록하다』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50쪽.

적 여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민통련은 연합단체다. 별도의 회원들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통련 본부에서 회원들과 함께 별도의 활동을 진행한다는 건 어려웠다. 인사련이 민통련의 인천 지역 산하 단체였던 것처럼 서울민통련은 자체적으로 회원을 갖춘 민통련의 서울지역 조직이었다. 서울민통련의 정식 명칭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다. 1985년 5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민통련 조직요강에 따라 '민주통일국민회의 서울지부'를 바꾼 이름이다. 백기완이 의장을 계속 맡았고 상임부의장에 이재오, 부의장에 윤순녀를 선출했다.⁴ 서울민통련이 '지부'란 명칭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인사련은 내부의 논의구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민통련 인천지역 회원단체식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군데는 명칭을 통일했어요. 그게 전사(前史)가 있어요. 민통련이 생길 당시에 민주통일국민회의하고 민중민주운동협의회하고 둘이 통합했는데 국민회의 쪽 조직은 민통련 이름을 그대로 썼고,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쪽은 자기들 이름을 거의 썼던 걸로 기억해요. (유종순)

민통련도 현장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 진행과는 상관 없이 독자적인 '텍'에 의해 일정을 짰다.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민통련 본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집회에 대한 계획을 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 '개헌 현판식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개헌 현판식 싸움에 대한 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을 거고 거기에 합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런 거죠. 정권을 압박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민당을 압박하는 것도 있었어요. 신민당이 전두환하고 타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사들을 배치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가용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죠. 연사는 그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마이크를 잡으면 바로 수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결단이었죠.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지역단체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지호)

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경과보고서』(1985. 06. 22),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부.

연단에는 많이 올라갔죠.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 장기표, 권오국, 한 열 명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원래 그 전에 회의할 때 단체들마다 징역갈 사람 다 정하고 간 거였거든요. 연설은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우리는 사실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짠 텍에 따라서 움직였지 신민당이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유종순)

우려를 안고 찾아 온 인천

인천은 다양한 정파들이 다 집결돼 있는 곳이었다. 상존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보기엔 '복잡한' 도시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다 드러내면서 나왔다.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던 '개헌 현판식 싸움'의 상승 기운이 인천으로 몰리면서 전국 집회의 성격을 띠게 됐다.

3월에서 5월까지 우리가 대전에 내려가서 회의를 계속 해요. 점검하는 거죠. 그때 인천 내부의 운동 사정에 대해서 들어오잖아요. 다들 인천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요. 엄청나게 모일 거 같다는 것도 알구요. '노동운동 쪽 정치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거나 '이쪽이 총 집결할 것 같다.'라는 정보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의 민통련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끝나는 형태였어요. 다른 노동조직들은 정말 민통련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조직들은 민통련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민통련 차원에서 '인천으로 다들 몰려가자!'라든가,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민통련의 동원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학생조직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민통련에서 현장을 책임진 사람은 이호웅, 이우재 선배예요. 두 사람이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도 보고 진행을 했고, 연사들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이어갔죠. 그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5·3 때는 연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웃음) 웬만한 간부들은 다. 선배들이었죠 대개.

인천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신문에도 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신문에 거의 톱으로 났으니까 마산에서 쪽 올라오는 게. 크게 공간이

확보된다. 한번 나가서 자신들의 이념 등을 펼쳐볼 만한 공간이다. 하는 건 있었
겠죠. 그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5·3처럼 많은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운동세력들이
다 집결한 거라고 보인단 말이죠.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운동역량이 다 결집했
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계산하지 않고 마구 쏟아낸 거 아니에
요? 유인물들도 그렇잖아요.

대중의 성격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인천은 정말 운동권들만 모였을 거
고, 대중은 없었어요. 밑에는 당원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광주 같
은 데는. '정치 지도자 누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모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지호)

연설한 것만 보면 전국 집회였어요. 지역에서 다 올라와서. 거의 민통련이 전체
적으로 큰 동원역량이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다 몰려왔으니
까. 민통련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본 후배들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애
들은 다 온 거 같아요.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나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우리 회원들 찾느라고 주안 사거리 전화박
스에 올라갔더니 어떤 놈이 마스크 쓰고 손을 잡아요. '아 형씨 올라오셔' 하길래
올라갔는데 마스크 벗고 나니까 후배더라고. (웃음) 개는 인천이 아닌데 무대가.
하여튼 수도권 쪽은 다 온 거죠. (유종순)

당시 민통련의 정치이념은 크게 반외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로 정리된다. 자주화
의 핵심은 반미였지만 '미군철수'나 이런 구호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크게 보면, 슬로건으로 표현하면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딱 요거 두 개에
요. 정파적으로만 보면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백기완
선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두 가지 슬로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운협 보다는 오히려 부문 쪽에서 정파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스펙트
럼이 좀 있었죠. 지운협 같은 데서는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 같아요. (유종순)

반미 자주화 문제는, 문익환 목사님을 떠올리면 될 거라고 보는데 통일을 중요
시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통일운동 쪽이 강했죠.

경제적으로는 외국자본에 예속되는 경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
고,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구요.
(이지호)

이런 슬로건 아래 5·3 때는 '개헌'으로 집중된다. 지역의 '개헌 현판식 싸움'을 이어서
인천에서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현판식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민통련
은 초기에 '직선제'라는 말을 직접 꺼냈지만 인천에서는 '직선제' 구호가 사라진다.

광주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민통련에서 직선제라는 것을 직접
쓰지 않기로 했을 거예요. 그건 광주의 독특한 것 중의 하나예요. 우리는 개헌이
라는 게 직선제만은 아니었어요. 민주헌법 개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민주헌법쟁
취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민주헌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지 직선
제라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걸지 않았어요. 차별화하려고 하던 게 있었죠. 그러
다가 87년도로 오면서 나중에는 직선제로 다 모아져 버리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
았어요. (이지호)

극심한 혼란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하에 대회가 시작됐다. 통제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서울민통련 회원들은 대개 집회에 나가 민주화 요구를 한다
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인천으로 들어왔다.

열기가 굉장히 달아올랐죠. 신경을 좀 쓰긴 했던 집회였어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연합선전대를 직접 꾸리기도 했구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뭘 해야 하는데. (웃음) 사람들도
많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유종순)

저는 5·3을 생각하면 진짜 혼란이예요. 그리고 과격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역
회의에 가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우재[이우재] 형이 많이
하고, 신민당이 할 때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따
라가면서 직선제 개헌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세를 같이 보일 필

요가 있는데 국면이 어쨌든 개헌이잖아요. 개헌을 따내느냐 마느냐 하는 거였고, 그걸 압박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야당처럼 직선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폭넓은 사회적 과제들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여겼죠.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집회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거였어요, 사실. 집회하면 우리가 연설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흩어지는 거였죠. (이지호)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정파들끼리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왜냐하면 그쪽 사정들을 보면, 그거 아니면 논쟁을 하거나 실천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좋은 기회였죠. 일부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가고, 무리지어서 가고, 들고 가고. (유종순)

나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민통련이 결정한 수준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동의 과격성보다 구호, 이념적 구호들이 막 튀어 나왔어요. 아마 5·3때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 노동운동 쪽에서 준비해 왔던, 일반 노동대중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노동정치조직들이 있었거든요. 서노련도 그런 거고, 인노련도 그런 쪽이잖아요. 그들이 이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때 계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입장이나 존재를 과시했는지. (이지호)

민통련은 대회를 진행한 후 철수하는 게 기본 계획이었다. 대회가 끝나면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다. 경찰병력은 초기에는 외곽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민통련 회원들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회원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흩어질 것을 대비해 ‘싸움’ 후 동암역에서 집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다.

이런 집회를 하면 흩어지면 어디서 모이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립돼서 뭘 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한 30명 정도 참여했어요. 회원들은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자랑스럽게 ‘나 민통련 회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민통련 회원이라고 하면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거죠. 잡히면 그러지 말라고. (이지호)

민통련에서는 그 다음에 어디를 타격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모여 있는데 들어오니까 일부는 도망가고 그런 거였죠. 서울민통련 회원들은 총 동원했어요. 인천에서 주안역 사거리, 시민회관 앞인데 중간중간에 두세 팀으로 나와서 어디 모여서 들어왔죠.

나는 문화선전부장을 해서 우리 쪽 풍물패 사람들하고 며칠 연습을 했어요. 서울민통련에 극단이 하나 있어요. 통일무대라고. 그 배우들이 우리 악기랑 다 해서 민문협 풍물패들과 같이 연합해서 처음에 언덕 넘어가고 그럴 때 치고 올라가고 사거리 집결할 때 그랬어요. 인천에서도 풍물패가 있었을 테니까 했겠죠. 당시 민문협에서 아마 풍물패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때는 극단이 잘 돼서 전국 순회공연을 했다고요. 악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악기들 다 갖다 쓴 거예요. 우리 악기들 거기서 다 갖다 버렸어요. 악기 들고 도망가겠어요. 그거 버리고 가는 바람에.

우리는 주안 성당까지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에는 주안 작은 언덕 밑에 모여서 회원들과 길놀이 풍물패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구요. 거기서 자리잡고 왔다갔다 하니까 두 시간 정도 있다가 사방이 소란해지면서 애들이 쳐들어오더라구. 최루탄 쏘면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면 동암역에서 보기로 했어요.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누가 안 오면, ‘아, 애는 잡힌 거 같다.’ 그렇게 돼죠. 동암역까지 걸어가서 회원들 추슬러서 가고. 이제 헤어지면서 몸 조심해서 잘 살자 그랬는데 저녁 때 보니까 노동자복지협회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웃음) 서로 도망다니면서 잘 살아라 하면서 헤어졌는데. 서울민통련 식구들은 누가 휴가 간 빈 집에 한 이틀을 살았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지호] 함을 지러 갔는데 우리가 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함 받는 집에서 최루탄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재채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음) 하여튼 이 날부터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유종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다 이름을 건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총무부장으로 있고, 경찰이 우리 선까지 잡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다들 집을 나가 있었죠. (이지호)

‘민통련 운동’과 인천

인천5·3민주항쟁을 이야기할 때 흔히 6월항쟁과 연결해 언급하고는 한다. 민주화운동을 추동해서 6월항쟁까지 끌고 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거나, 반면교사로 삼아 비슷한 오류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했다거나, 민주화운동의 긍정적 성과를 얻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개별 사건으로 바라보거나, 시각은 다양하다. 인천을 이은 ‘개헌 현판식 싸움’의 다음 개최지는 서울이었다. 만일, 인천5·3민주항쟁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면 서울 대회는 서울민통련에서 일정 부분 준비해 갔을 것이다. 마지막 개최지, 서울지역의 실무자였던 이지호, 유중순은 ‘민통련 운동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인천의 ‘개헌 현판식 싸움’을 들여다봤다.

‘민통련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한 거죠. 물론,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가령,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5·3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지는 민통련 초기 시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잖아요? 5·3이 규모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컸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 모인 거잖아요. 다만,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와서 같이 준비하고 설득하면서 한 목소리로 뭔가를 짜고 그런 건 없었어요.

5·3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을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민통련이 깨진 거고, 우리도 사무실 강제 폐쇄 당하고,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87년 6월항쟁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의 민중적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하는 것을 ‘5·3이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87년 6월항쟁의 경우는 박종철 고문치사가 결정적인 거였죠. 그 전까지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불타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은 그림상으로는 인천대회를 끝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에서 대규모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애들이 그런 거 가만 놔둘 리는 없었겠죠. 인천을 빌미로 다 깨버린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어요. (유중순)

5·3에 대해서 다 모여서 공식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에 대한 합의를 내거나 아

마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도부가 다 수배가 돼서 흩어지고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저는 이후 민통련 운동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고 보거든요. 수배가 민통련 분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사실은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분열될 때 그걸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데는 민통련이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지지하고 나가버리면서 끝났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5·3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5·3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지역에서부터 주욱 이어져서 인천에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타격이 너무 심했어요. 인천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고,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도 있겠죠. 5·3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하는 건 있겠죠. 더구나 첫 대중투쟁이었고 그 뒤에 대중노선이 크게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중투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거나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성을 이끌어 내는 영향이라면 그걸 영향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6월항쟁과의 연결점은 크지 않다고 봐요. 6월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었죠. (이지호)

민통련의 ‘개헌 현판식 싸움’은 인사련의 독자적인 ‘작품’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통련의 지원과 지운협외의 주도 하에 지역 단체의 역량이 결합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만 독립적으로 떼어서 바라본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민통련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다. 인천까지 오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인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쪽은 또 다른 문제다. 여러 진영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운동세력한테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학생운동에는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제부문 내지는 제운동과의 연대라든가 자기들 조직문제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인천이 자기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었을 거라구요. 5·3에는 학생들이 있긴 해도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동운동 쪽도 5·3 이후 노선의 분화라는 건 필연적인 거 아닐까요. 그 전까지 인천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노동현장의 투쟁 말고는 대규모의 정치투쟁이 없었는데 5·3이라는 현장을 겪은 거잖아요. 대중투쟁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겪어보는 것

과 자기들이 공부를 했건 학습을 했건 그 내용은 많이 다르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거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분화라는 걸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종순)

민통련은 노선에 있어서는 포괄적이었죠.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는 편이었어요. 포용하는 형태였구요. 어른들 중심이었죠. 그걸 정치적인 관계에서 보면 수위를 더 느슨하게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민통련을 여러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봤을 때, 이념적인 단체라든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민통련은 정말 야당 꼬나풀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전선, 연합운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약했어요. 그런 것도 이해하면서 결합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죠. 민통련도 당시에 보면 부문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노동운동이 거의 포함이 안 됐으니까.

1988년 1월 12일, 서울민통련 의장 이재오가 민통련 탈퇴 성명을 발표하고 독자노선을 표방했다.⁵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에 대한 '후보 단일화론' 그룹의 독자노선 천명이었다.⁶ 이후 1988년 3월 5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서울민중연합'(약칭 '서민련')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의장은 이재오, 상임고문은 계훈제였다.⁷ 앞서 민통련 부의장이었던 계훈제는 1월 11일 부의장직을 사퇴하며 "민통련은 특징인 지지로 인해 보수야당을 분당시키는 씨앗이 되었고, 특징인의 비판적 지지에서 광신적 지지로 바뀌으로써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참패를 몰아왔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⁸ 서울민통련은 일부가 탈퇴한 뒤에도 계속 단체의 이름을 유지했다.

서울 민통련은 계속 있었어요. 회원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 엘리트 조직이 아니라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인데, 민주화를 열망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할 수는 없고, 정황에 맞게 해나가는 거죠. 결

국에는 지역 주민운동 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지호)

두 번에 걸쳐서 이름을 바꾸는데 서울민주시민연합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됐죠. 아직도 하고 있어요. (유종순)

민통련 해산될 때 저는 그랬어요. 서울민통련 이름 쓰지 말자. 다른 이름으로 쓰자. 회원들이 싫어하는 거죠. 나는 민통련을 보고 와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민통련 이름을 없애냐. 그래서 계속 유지됐어요. (이지호)

유종순과 이지호는 지금은 주 활동무대가 다르긴 해도 여전히 '현역'이다. 인천5·3민주항쟁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인천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못하지만 당시에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CNP 논쟁이나 그 정도고,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메카로써 기본적인 PD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정파의 이름은 가령 일동그룹 애들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웃음) 노동운동하러 들어간 후배들 만나서 가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도 들린다고. 두세 명이 모여서 구멍가게 하나 차렸다는 등. 두세 명이야 넘었겠지만. (웃음) 구멍가게라는 게 자기 정파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지. (유종순)

인천은 한국의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했죠. 그만큼 다양한 정파들이 모여 있고, 통일되기 보다는 분열돼서 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노동운동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을 지도해요. 지역운동협의회 가면 지역운동협의회 단체들은 사실 민통련 본부 쪽에서 강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단체들, 노동운동 이런 쪽이 연합적인 성격보다는 약간 정치 조직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단체활동가들이 학생운동 쪽이나 이런 쪽하고도 선후배 관계니까 잘 소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모여서 선배가 같이 하자 그러면 하고. 인천은 전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인사련이라고 하는 위상이 인천 전체 운동에서 사실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도력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한다하는 대장들

5 『동아일보』, 1988년 1월 12일자.

6 『성명서-민통련을 탈퇴하면서』(1988. 1. 12),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서울민중연합.

7 『민중의 벗』, 제2호(1988. 04. 23), 서울민중연합.

8 『경향신문』, 1988년 1월 11일자.

이 전부 인천에 와서 있으니까요. 인천이 그렇게 통일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지호)

인천이 좀 지리적으로 중요한 거 같아요. 만약 5·3같은 경우가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다면 더 큰 과급력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계급의 반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참 중요한데 5·3항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반면교사라는 건 운동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인천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폭압적인 전두환 군부 통치 하에서 그런 항쟁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집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유중순)

요즘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주변에서 보면. 야당이 워낙 힘을 못 쓰고 하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소위 좌파, 진보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걸 반성한다.’라고 하기도 했죠. 좀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죠. 저는 5·3의 어떤 분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면교사가 여전히 있다고 봐요. 지금도 진보정당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따로 목소리를 내지만 결합할 때는 결합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한 모습, 5·3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지호)

'5월 3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해미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3학년



- 1994년 인천 출생
- 2014년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입학

탈진한 역사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나? 거의 없었어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고 시작하긴 했지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미는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5·3인천민주항쟁을 경험한 몇 안 되는 20대 청년 중 한명이다. 물론 1986년 5월 3일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다. 이해미는 1994년생이다. 서양화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옛 신문을 들추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시절 어른들을 만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되짚어 경험했다.

세상에 태어나기 10여 년 전 사건이라지만 흰머리만 조금 늘었을 뿐 항쟁의 주체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시민회관은 사라졌어도 주변 건물이나 거리는 거의 변함이 없다. 단지, 흑백사진 속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만 자취를 감췄다. 5·3인천민주항쟁은 이미 역사가 됐다. 이해미는 30년 전 사건을 추적하며 그날, 꿈같이 흘러간 하루 동안의 일들을 처음 접했다. 또래 학생들은 어떤지 궁금했다. 스스로 패널을 만들어 학교 안을 돌아다녔다. 대부분은 '5·3'이란 숫자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적잖이 놀랐다.

설문 판넬은 제가 하드보드지를 사다가 글씨 오려 붙여서 만들었어요. '5월 3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5·3인천항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항쟁이랑 사건·사태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거 같아요. 친구들 위주로 물어보고 밖에 혼자 다니면서 "이거 한 번 하고 가세요." 하면 재미로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답변을 뽁뽁하게 채운 건 아니었는데 반 정도는 채웠던 거 같아요.

스무 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5·3'이란 단어를 앞에 놓고 고개를 가우뚱하며 낮설어 하는 모습은 5·3인천민주항쟁이 가진 한계일 수도 있다. 기억 속에만 담아두려 하고 후속 세대들에 전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한계다. 이해미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확고한 시선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5·3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태인지 항쟁인지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대부분의 교과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항쟁이라고 이름 붙은 것만 배워요. 쿠데타 같이 큰 사건일 경우에 배우기도 하구요. 인천이란 한 지역

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 건 다루지 않는 거 같거든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빨리 명확히 해 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교과서는 미래 시민인 학생들을 위해 한 사회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 전하는 '우리 시대'의 그릇이다. 5·3인천민주항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교과서 수록 여부는 쉽게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천에서조차 5·3인천민주항쟁을 외면하는 건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인천에 대학이 여럿 있지만 지역을 '사(史)'의 관점에서 다룬 과목을 개설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지역을 배우긴 해도 적절한 교재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도 역사는 배우지만 수능시험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 더욱 힘든 일이다. 이해미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지역에서만이라도 '5월 3일'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3인천민주항쟁을 적극적으로 노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다.

확실히 얼마나 많이 알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 모르니까요. 언론에서 5·3을 '사태'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슈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일단 나오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구요.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근현대사반이었어요. 수업을 받으면서 독재 시절에 대해서 참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땐 근현대사반, 지리반, 이런 식으로 나뉘져 있었어요. 사회탐구영역을 뭘 볼지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사로 통합이 됐지만 제가 수능을 봤을 때는 근현대사하고 국사가 따로 구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웠거든요. 근현대사 부분은 만일 4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전에는 40문제가 전부 근현대사였는데 이제는 10문제 안팎으로 나온대요. 수능에서 근현대사만 따로 다루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5·3인천민주항쟁은 이미 1986년도를 거치며 힘을 다 빼버렸다. 구속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광범위한 수배령이 내려졌다. 민주화운동은 동력이 약화되고 노선의 분화는 속

도를 더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의 와해까지 겪은 단체들도 생겨났다. 항쟁을 겪으며 심화된 운동 내부의 갈등은 지금까지 앙금을 남긴 경우도 있다. 항쟁의 주체들이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깨진 고리를 다시 이으려는 손길이 미약하나마 조금씩 힘을 보태는 중이다. 이해미는 다행히 그런 손길에 닿을 수 있었다. 알게 모르게 쌓여 왔던 본인의 의지가 연결점을 찾게 해줬다.

강의실에서 만난 5·3인천민주항쟁

나를 역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역사 관련 과목을 하나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조별 과제도 재밌고, 기말고사도 많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학생들도 ‘역사관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좋은 강의라고 평가를 하길래 수강하게 됐어요. 일단 시작은 그런 거였어요.

인천대학교 이상의 교수는 2015년, ‘역사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강의를 맡았다. 일제강점기 노동정책을 연구한 식민지 노동문제 전문가다. 일제강점기 사회 성격을 파헤치는 데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인천’이란 화두도 관심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가계가 인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탓인지 수강생들도 노동자들의 문제나 인천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이해미의 전언이다. 이해미는 2015년 1학기에 개설된 이 과목을 수강했다.

독강했어요. 친구들과하고 같이 듣지 않고 혼자 들었어요. 리포트를 써야 했는데 주제는 자유였어요. 교수님이 정해 주지 않았어요. 역사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 하고 싶은 걸 정하는 거였죠. 조원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일을 잡은 조도 있었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정한 조도 있었죠.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도 뻔한 거는 하지 말자.’ (웃음)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뻔한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혼자 듣는 탓에 밖에 나가 있었더니 누가 다가와서 ‘같이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를 짜서 시작했어요. 조원은 모두 네 명이었어요. 다른 학과 분들이었죠.

이해미는 수업 리포트를 쓰기 위해 ‘인천 5·3’이란 주제를 조원들과 상의해 결정했다. 문헌을 통해 조사를 하는 것과 직접 현장을 밟는 건 다른 문제다. 얼핏 들으면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전태일이니 위안부니 5·3이니 하는 대상은 대학생들이 익숙해 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이해미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현장을 가보는 건 현대사 분야가 수월할 수도 있어서 주제를 선택했다고 한다. 거기에 5·3인천민주항쟁 평가에 대해 어렴풋이 들기 시작한 의문도 동기가 됐다.

리포트를 쓰는 데 시대이든 지역이든 특별한 범주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주제에 맞는 답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선정하느냐가 중요했을 뿐이죠. 처음에 우리 조는 인천에 있던 민주항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전부 다 다뤄보려고 했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으니까 압축해 보자고 하셔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재밌는 게 없을까?’하고 고민하는데 조원이었던 오빠가 찾아오더니 인천에 5·3항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천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천에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좀더 멀리 가서 답사도 해보고 싶었어요.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연구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5·3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5·3항쟁’으로 찾았거든요. 그때 같은 조원 오빠한테 ‘5·3사태’로 찾으시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역사 용어에 대한 걸 배웠어요. 사건, 사태, 항쟁 이런 용어 자체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5·3은 왜 사태라고 명명돼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흥미로웠고 주제를 그렇게 좁혀 가기 시작했죠.

5·3인천민주항쟁은 대학생인 이해미에게는 낯선 역사였다. 옛날 신문을 찾아보고, 타자기로 쓴 글들을 읽어보고,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도 방문했다. 당시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항쟁이 일어났던 주안과 부평의 거리를 답사지로 정했다. 그동안 술하게 오갔던 거리였지만 사람들로 가득찬 거리였다고 생각하니 아예 다른 거리가 됐다고 한다.

굉장히 자료가 적었어요. 많이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것도 우리가 사건 정황만 적어 나간다면 옮겨 적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인천이야기』란 책도 집에 있어서 봤는데 분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센터[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서 주신 책자도

보면서 '참고하기에는 양이 적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5·3만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6월항쟁까지 같이 한 거예요. 초기 진행을 시작할 땐 5·3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분량이 너무 적은 거 같고, 5·3항쟁으로 인해서 6월까지 갔으니깐 '같이 묶어서 해보자.' 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바꿔 보려 했지만 그만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겪으며 이해미는 5·3인천민주항쟁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게 됐다.

시민회관은 버스정류장

저한테 시민회관은 버스정류장 이름이었어요. (웃음) 구시민회관이라고 있잖아요. 시민회관은 얘기만 듣고 본 적은 없어요.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도 봤어요. 저는 보고서에도 소감을 썼는데 맨날 지나다니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웠어요. 조사를 하면서도 신기했던 게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런 일을 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당시에 도로를 꼭 메웠잖아요. '지금 하려면 못했을 것 같은 일을 어떻게 옛날에는 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주로 들었죠.

민주로드길이란 게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체험하는 탐방길이다. '전태일의 길,' '이한열의 길,' '4·19민주올레' 등의 이름이 붙었다.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건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 앞날을 바라보기 위함이고, 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안겨주기 위함이다.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길이 생기듯이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걸으며 만들어가는 길이 더 뜻깊다. 이해미의 조원들은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밟아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의 의미를 깨달아 갔다.

인천에서 있었다는 거 자체가 신기했어요. 전 6월항쟁이 전국적이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서울에서만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인천에서 6월항쟁이 있었다구?'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인천만 아니라 전국적이었던 것도 그랬고.

지금 모든 국민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조원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다 비슷한 의견들이었어요. 알고 돌아다니는 거 하고 모르고 돌아다니는 건 차이가 크죠. 그냥 후미진 데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5·3인천민주항쟁이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다. 항상 언급되는 폭력성의 문제도 그렇다. 특히 '가두투쟁'이 사라진 시대를 산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화염병과 투석, 전경의 방패와 최루탄은 이질감을 느낄만한 풍경일 수도 있다.

노동자도 많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6월항쟁까지 끊어 조사하긴 했지만 5·3항쟁이 6월항쟁, 노동자 문제까지 번져나갔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폭력성 때문에 사태나, 항쟁이나 하고 말이 많은 거 같은데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들도 많이 때려놓고 그런 걸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 같아도 화가 나서 같이 때릴 거 같거든요. 저는 시위대가 경찰과 싸우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광주민중항쟁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그만큼 많이 화나고 억울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 아예 무기고를 탈환해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평화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이해미가 주목한 건 5·3인천민주항쟁을 지칭하는 용어다. 단어 안에 의미를 가두어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꽤 큰 비중을 두고 찾아봤다.

저는 신문사에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 주로 조사를 했어요. 신문기사에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어떤 용어를 썼는지 이런 거요. 일단은 용어를 어떻

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사 한 줄을 쓰더라도 4·3사태로 쓰느냐 4·3항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 쓸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구요.

저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사태'란 말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용어는 '항쟁'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해미는 '당시 인천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는 말로 5·3인천민주항쟁의 의의를 정리했다. 그리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 비슷한 작업을 좀더 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제가 미대잖아요. 그때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밤새가면서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재수강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같은 주제로 하든 다른 주제로 하든 보고서를 좀더 끝장나게 써 보고 싶어요. 점수는 잘 안 나왔어요. (웃음)

저는 유치원때부터 그림만 그렸어요. 졸업 후에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요새 좀 관심 있는 건 '인스턴트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어떤 고시생이 그러더라고요. 컵라면은 거의 고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와 닿고 맞는 말인 거 같았어요. 저도 재수할 때 진짜 맨날 편의점 가서 인스턴트식품만 사 먹고 그랬거든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인스턴트 식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해미는 서양화를 전공한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이다. 민주주의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그림으로 말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5·3인천민주항쟁은 그렇게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미를 포함한 4명의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완성한 리포트, 「타오르는 열망 그리고 식지 않는 항쟁」은 '진짜 역사를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 정작 우리는 아닐까?'란 자문으로 끝난다. 앞서 인터뷰했던 많은 항쟁의 주역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해미 외, 「타오르는 열망 그리고 식지 않는 항쟁」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들은 인천 지역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서린 민주화를 위한 발걸음과 노력들을 알게 되었다. 불과 20~3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행된 일이었다. 인천이라는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무장한 경찰들과 대치하고 억압된 세상을 위해 시위와 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상당수이다. 우리 조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요즘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 힘든 현상이 되어 버렸다.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혹시 모를 피해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 또한 한 몫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직도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천시 위 또는 인천소요사태로 4줄~ 6줄도 안 되는 심지어 단 2줄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민주항쟁이 아닌 소요사태, 시위로 낮추어 소개하고 있다. 과연 소요사태, 시위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인식해야 할까? 우리 조는 이 사건을 5·3민주항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다.

불과 몇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시위로 인해 전두환 정권은 압박을 느끼고 방송매체와 신문을 통해 여론 사냥과 민주화 운동세력과 야당을 분열시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고 탄압으로 인해 권인숙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사건이 일어나고 무고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고 1987년 부산 마산지역으로 시작된 6월항쟁의 서막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5·3사건이 제한적이었지만 6·29선언을 이어내어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운동, 즉 5·3사건은 6월 항쟁의 서막을 알리는 발판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비록 전국적인 시위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시위가 저평가 되고 오히려 여론사냥을 당해 억울하게 잡혀야 했던 분들의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주고 이제는 잊혀져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흔히들 우리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라는 말을 쓴다. 근데 과연 진짜 역사를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 정작 우리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요약 : 편집자)

노동운동의 진원지에서 외친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현경

아남전기 해고노동자



- 1962년 서울 출생
- 198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입학
- 1983년 초원야학 교사
- 1985년 부평 아남전기 위장취업
-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2월 출소
- 1989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간사

대학 졸업과 '노동현장 이전'

주안역 담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었어요. 주안역으로 다들 몰려갔는데 경찰이 막 빠른 속도로 쫓아오니까 담을 넘으려고 했던 거죠. 불력담이었던 거 같아요. 제법 높았어요. 매달렸는데 저는 못 넘어간 채로 거기서 잡힌 거죠. 담을 뛰어 넘을 체력이 안돼서 잡혔어요. (웃음)

서울대학교 사범대 81학번. 대학시절 초원야학 교사. 졸업 후 6개월 간 무학여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1985년부터 아남전기에 위장취업하며 인천으로 이주. 5·3인천민주항쟁 직전까지 이현경의 간단한 이력이다. 교사가 되는 걸 꿈꾼 적도 있지만 1986년 5월 3일 오후, 주안역의 막다른 담장 밑에서 경찰의 손에 붙잡힐 당시 이현경은 부평공단의 해직 노동자였다. 소위 '이전'을 한 거다.

두렵잖아요, 현장에 간다는 게. 노동 속에 들어가서 최전선에 선다는 건데. 기득권도 기득권이지만 경찰과 공권력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부담들도 크고. 우리가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웃음)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두고 먼저 교사로 생활하는 쪽을 택했는데, 그 때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배신자 같은 마음으로 시달려야 했죠.

저도 당연히 두려웠죠.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때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전'할 때는 아예 이렇다 저렇다 말 안하고 집을 나와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인천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죠. 부모님은 공장에 가는 것도 전혀 모르셨죠. 집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간 다음에나 소재를 아셨을 거예요.

'이전'을 할 무렵 이현경은 무학여고 교사 신분이었다. 당시 사범대 졸업생들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직에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했다. 6개월 동안 무학여고에 근무했던 이현경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잘 따르던 예쁜 여고생들을 뒤로 하고 교사자격증을 반납한다. 이전팀은 이미 대학 졸업 직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교사로 나갈 때부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무학여고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이예요. 정말 여

고생들이 얼마나 예뻐는지 몰라요. 애들도 잘 따랐고.

그때는 학생운동을 하면 노동운동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가정대, 이렇게 네 개가 주로 여학생들이 있는 단과대였는데 이 친구들을 통합해서 현장 갈 팀을 여자선배들이 뒤에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전팀을 꾸린 거죠. 그게 4학년 후반쯤일 텐데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때 처음 다른 단과대 친구들을 만나서 열 몇 명을 두 팀으로 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부모님들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교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후발대로 이전을 하는 쪽이었어요. 바로 졸업하자마자 이전을 하는 팀하고, 저처럼 후발대로 몇 개월 직장생활을 거쳐서 이전을 하는 팀하고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거예요.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뉜 그룹에서 이현경은 후발대에 합류해 현장에 들어간다. 1985년 여름의 일이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 혹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¹이라고 부르는 구로동맹파업이 해산당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노학연대투쟁’이 무르익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과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각 대학을 수색, ‘삼민투위 사건’을 발표한 후 1985년 7월 18일 대학생 56명을 구속한다.² 삼민투위는 전국학생총연합(약칭 ‘전학련’) 산하에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를 말한다. 앞서 1985년 5월 23일, 삼민투 주도 하에 5개 대학 73명의 대학생들이 서울미국문화원을 기습적으로 점거하며 4일간 농성을 벌이자 삼민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³ ‘탄압은 시작되었다’⁴고 느낄 정도로 1983년 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유화국면이 서서히 끝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학생운동진영 일부에서는 ‘80년 서울의 봄’과 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변혁운동에 대한 전망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가는 중이었고, 미국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민중’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고민해 가던 때였다. 그동안 관념적 존재로 남아 있던 민중을 운동의 주체적, 실천적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반성으로부터 나온 문제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로동맹파업.
2 『동아일보』, 1985년 7월 18일자.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미문화원점거사건.
4 『민주화의 길』 제10호(1985. 8. 1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제기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은 학생운동진영에서 발간한 문건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가령, 전학련이 1985년 5월 연합심포지움 자료집으로 펴낸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이란 간행물에서는, ‘민중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성격규명이 관념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민중의 실천성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⁵ 1985년 여름호로 나온 『일보전진』이란 팜플렛에서 삼민투의 장 허인회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감상적·피해적 형태’의 싸움에서 벗어나 ‘항쟁 주체의 80% 이상이 열악한 빈농이나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주체화된 민중에 대한 신념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⁶ 이런 고민 속에서 민중지향성을 실현해 가는 방법으로 등장한 개념이 노학연대였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현장으로의 이전’이 ‘위장취업’의 형태로 급속히 나타나게 된다.

노학연대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학생간의 연대를 말한다. 연대의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개념은 달라질 수 있으나⁷ 적어도 1985년 무렵의 노학연대투쟁은 ‘선도적 정치투쟁’과 더불어 노동자들을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 지원 투쟁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현경은 이와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전’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인천이었다.

아남전기 입사와 해직

선발대로 이전한 팀들이 서노련 쪽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저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먼저 서울로 들어가니까 후발대 팀은 ‘그러면 인천으로,’ 이러면서 인천 선배들하고 연결이 돼서 가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인천이란 지역을 결정한 바가 없어요. (웃음) 이전팀 중에 인문대 친구 하나가 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친한 선배들이 인천에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민노련’ 사람들이더라구요. 나중에 인천에 들어와 보니까 사노맹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어느 쪽인지 모른 채로 이전팀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가서 노

5 『(전학련 연합심포지움 자료집)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전국학생연합회, 1985. 5. 5쪽.
6 『일보전진』, 1985 여름, 고려대학교총학생회·고려대학교 언론출판연합체, 14쪽.
7 예를 들어, 유경순은 ‘노동현장 투신’이 이미 1960년대 후반기부터 등장하여 지속해 오다가 1980년대 학생들의 집단적인 투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유경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참여양상과 영향』, 『기억과 전망』 29,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동운동을 한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85년도 여름방학 때 집을 마무리하고 내려왔으니까 8월이나 돼서 인천에 왔죠? 와서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 정도는 취업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랬다가 추석 지나고 10월경에 아남전기에 들어갔어요. 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위장취업을 했죠. 그때 아남전기는 TV, 오디오 이런 걸 만들고 있어서 규모가 제법 컸어요. 더구나 공단 안에 있어서 좋아했죠. 당시는 활동가들이 공단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때는 비밀리에 소모임을 했어요. 조직이란 것도 한 사람만 연결이 돼 있고 전체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모임을 하는 거죠. 만나서 학습도 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서로 체크도 하고. 그럼 그중의 한 친구가 선배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그 선배들의 그룹에서 또 의논이 된 다음에 그 친구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이현경은 부평 효성동에 혼자 집을 얻어 살았다. 노동자들의 주거지는 공단 뒤편, 산곡동과 효성동 일대에 쭉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이 넘쳐나서 아파트에도 방 한 칸짜리 월세가 있을 때였다. 서로 초면인 사람들이 방을 따로 얻어 아파트 한 채에 기거하며 살기도 했다. 노동운동을 위해 공단을 찾은 '운동가'들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꺼렸다. 가급적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엌 하나에 방 하나가 딸린, 작은 규모의 집들이 오히려 편했다. 그런 집들을 돌며 2주에 한 번 정도 같은 팀들끼리 모임을 가졌다. 그러던 중 위장취업이 탄로나 이현경은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3월말쯤에 가명이란 게 탄로나서 잘려요. 그 회사를 5개월 정도 다녔던 거 같아요. 그 사이에 현장 친구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중 한 친구를 프락치로 만든 거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미 감새를 채고 있었고, 회사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현장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니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뭘 캐내게 했던 거 같아요. 위장취업이라고 해서 잘리기만 했지 아무일 없이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윗선을 잡으려고 경찰에서도 일부러 풀어준 거 같더라고요.

이현경은 해직되고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다시 공장 담을 넘는다. 당시는 한창 '생활임금 보장하라'는 슬로건이 나오던 시기였다. 현장에 들어가서 전투적으로 생활임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팀'의 권유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 담을 뛰어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유인물을 뿌리면서 구호를 외쳤다. 이 일로 다시 경찰서에 끌려갔으나 역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5·3인천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의 일이다.

이현경은 공장에선 나왔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현장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썼다. 그건 개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임금을 얼마 올린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현경은 보다 장기적으로 노동문제를 들여다봤다. 공장 생활 중에도 천천히, 한 사람씩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 조직보다 우선은 사람이 먼저였다. 그러기 위해선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생산라인이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라인들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TV 조립하고, 저쪽은 오디오 조립하고 이렇게. 라인에 컨베이어벨트를 놓고 마주 앉아요. 마주 앉은 애들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애들 중에 좀 푹푹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말을 붙이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처음에는 '우리 계 하자,' '놀러가자.' 이런 식으로 친목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만든 다음에는 슬그머니 노동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죠. 책을 읽거나 유인물을 갖다 주거나 하는 거 까지는 어렵고, 노동자 수기라든가 아주 얇게 나오는 노동문고 같은 책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전해줄만한 친구한테 전해주고 반응을 보고,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요런 정도였죠.

평범한 노동자를 '학출'이 원하는 대로 '의식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관심도 없었다. 집에 돈을 보내 주는 일을 더 걱정하고, 돈을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걸 꿈꾸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었다. 구로동맹파업 직후 결성된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처럼 운동의 민중지향성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직 그러한 시도는 숙성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85년 11월 13일, 청계피복노동조합과 함께 청량리에서 '전태일 15주기 추모식'과 동시에 '파쇼헌법철폐 범국민실천대회'를 개최했던 전학련은 이 날의 '싸움'이 '노학연대의 실상'을 보여준 실패한 싸움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부대중 정치역량의 미숙과 투쟁지

도력의 통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⁸ 개별사업장을 뛰어 넘는 '대중정치투쟁조직'이 결성됐으나 여전히 실체화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5·3인천민주항쟁으로 서서히 다가서는 기로에서 노학연대는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었다. 80년대의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들의 현장 투신은 막 출발점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현경에게도 노동자들은 변혁의 주체세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현경이 '이전'을 할 때 어떤 특정 노선을 의식적으로 따랐던 건 아니다. 그저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동가가 되어 사회변혁을 이끌어가길 이현경은 바랐다. 때문에 1986년 5월 3일의 인천에서 어떤 이슈가 대두됐는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이 함께 집회에 나왔다는 사실,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구호를 외친다는 사실, 중요한 건 이런 '실천' 과정이었다.

공장은 공장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게 첫 번째 목표죠. 그때는 노동조합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구요. 우리는 해방과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출[학생출신]로 현장을 들어간 거지만 건강한 노동자 출신 운동가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노조를 할 수도 있고, 노동자 정치조직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정치세력화 되려면 당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벌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화된 것처럼 의식이 있는 노동자, 이 사람들을 진정한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일조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주의를 만들자,' '공산주의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변혁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 그래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걸 만든다.'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였던 거죠.

5·3은 그야말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노동자가 투쟁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다.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의의를 느끼면서 열심히 참여했던 거 같아요.

어떤 집회가 될지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랑 비슷한 가두시위들 중의 하나일 텐데 이번 건은 좀 클 거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갔어요. 현판식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죠. 다른 지역에서 현판식이 있었다는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시위의 한 형태라고 봤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가두시위라는 데에 큰 의미를 뒀을 뿐이죠.

인천지역이 변혁의 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천지역을 꽤 중요시하고 있었죠. 여기서 노동자 출신 활동가들이 나와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의의가 그때는 꽤 컸던 거예요. 정말,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가두시위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현장이니까 '그런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초원야학과 야학연합회 사건

이현경이 노동현장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대학교 3학년 때 야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는 교육연구회와 사대문학회, 두 개의 오픈 서클이 있었다. 이현경은 2학년 때 사대문학회에 들어가 김지하의 시를 읽거나 근현대 문학을 공부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겪었다. 그후 야학에 발을 들여놓으며 청계천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공부를 함께 한다.

제가 조금 더 의식이 생기고 운동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면서 대학교 3학년때 야학을 나가요. 초원야학이라고 아주 작은 야학이었어요. 청계피복노조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때 청계천에서는 박형규 목사님 계시던 제일교회나 그런 데, 한 두 군데가 좀 크게 하고 있었고 초원은 창신동 밑에 있기는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야학팀이었어요. 제가 한 기 정도 했을 거예요. 한 기가 1년이 안됐을 텐데. 그거 하고 마지막 끝낼 때쯤에 권인숙이 잠깐 들어왔죠. 그래서 권인숙을 거기서 후배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구요.

그때 야학은 검정고시 야학과 민중야학으로 구분할 때였어요. 우리는 민중야학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여기 온 친구들이 청계천에서 미싱사나 시다 일을 하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준비까진 아니지만 학과공부를 하면서 약간의 의식화를 시켰죠. 그중에 한 서너 명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1년에 몇 번씩 만나고 저하고 몇몇 선배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나요.

8 『백만학도』 제4호(1985. 11. 4), 전국학생총연합.

이현경이 초원야학에 다닐 무렵, 학생운동 진영에선 ‘무림-학림’ 논쟁의 뒤를 이어 이른바 ‘야비-전망’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야비’는 1982년 2월 초에 작성·배포된 『야학 비판』이란 소책자를 말한다. 희망야학 교사 출신 이장원이 저술한 이 팜플렛은 아래와 같이 학생이란 존재가 필연적으로 ‘존재의 이전’을 요구받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자질과 조건’을 갖춘 ‘민중예의 투신’을 강조하며 학생운동진영의 시위맹종주의를 비판했다.⁹

“학생 존재의 이러한 성격은 학생들이 그 존재의 이전, 즉 미래의 존재를 이전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학생운동 자체도 이전 준비를 본질로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위의 형성이라는 정책적 입장에서 이 ‘존재의 이전’ 문제는 중시되어야 한다.

(이장원, 『야학비판』, 학이시습, 2009, 83~84쪽)

『야학비판』이 나오고 1년 후, 이현경이 야학을 막 시작하던 무렵인 1983년, ‘야학연합회 사건’이 터졌다. 이현경은 이 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일주일 넘게 조사를 받는다.

대학교 3학년때 야연사건[야학연합회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정말 멧모르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갔어요. 그때가 유화국면이었기 때문에 취조를 받기는 했어도 전혀 구타를 당하진 않았어요. 새벽에 집으로 쳐들어와서 눈을 가리고 검은 차를 태우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걸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야연사건을 터트리기는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직 사건으로서 내용도 빈약했고 파급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야말로 야학들이었던 거고, 핵심 멤버로 몇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조직을 만들 만한 거리는 없었던 거죠. 일주일 이상은 취조를 받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진술서를 쓰게 했어요. 매일 백지를 갖다 주면서. 물론 당연히 협박도 하고 공갈도 쳤지만, 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취하지 않았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 초원야학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이라고 이대 선배가 있어요. 그 언니가 뚝섬 성수동 쪽에서 오랫동안 야학을 해온 선배들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불지도 모른

9 이장원, 『야학비판』, 학이시습, 2009, 83~88쪽.

다는 두려움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옷핀으로 자해를 시도해요. 잘못하다가는 학생 하나가 다치게 생겼으니까 치본[치안본부] 쪽에서 급히 놀라면서 ‘어떤 폭력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야학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노동현장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던 거 같구요.

5월 3일, 인천

5월 3일 시점에 이현경은 공장을 나와 있는 상태였으나 인천에 같이 내려온 현장 이전팀들은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천 현판식 때 집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어딘가로부터 ‘팀’으로 전달돼 내려왔고, 이전팀 5~6명과 그동안 연계를 맺어 왔던 노동자 몇 명이 함께 시민회관 앞으로 향했다.

어떻게 집회를 알게 됐는지는 기억 안 나죠. 굉장히 커다란 집회가 있을 거고, 노동자의 의식화와 세력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참여를 해야 돼서 갔던 거예요. 어쨌든 5, 6명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는 공장 밖에 나와 있긴 했어도 이미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만날 때였어요. 제가 아남전기에서는 시도만 하다가 끝난 케이스였지만 우리쪽 그룹에서 길러내고 있는, 의식화가 제법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한두 그룹 같이 갔었던 거 같아요.

이현경이 시민회관 앞에서 낯설 게 느꼈던 건 구호였다. 특히 민주정부 수립을 넘어서 특정한 세력이 집중적으로 외쳤던 ‘미제축출’이란 외침은 노동자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 ‘노동자들의 집회’라고 생각을 하며 왔는데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호도 정확하게 ‘이걸 외쳐야 된다’라고 전달이 안 돼 있었어요. 다수가 외치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거였어요. ‘미제축출, 독재타도’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구호였어요. 시위대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있던 구역이 유난히 그랬던 거 같아요. 그 구호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검거와 인천구치소 수감

결국 이현경은 경찰에 밀려 주안역 쪽으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와 함께 붙잡힌다.

오후 5시 반 정도쯤 잡혔을 거예요. 시민회관 근처에 있다가 주안역 쪽으로 밀린 거죠. 담장을 못 넘었는데 뒤에서 콧 잡더라구요. 연행이 400명 됐다니깐요. 400명을 다 수용을 못해서 여기저기 분산 수용을 했던 거 같고. 그 자리에서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야말로 그물을 쳐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담을 다 못 넘으니까. 똑같이 매달려도 남자들은 뛰어 넘잖아요. 여자들이 못 넘으니까 여자들이 대거 잡혔죠.

경찰에 붙잡혀 끌려간 곳은 전경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현경은 그곳을 ‘전경들의 숙소’로 기억했다. 잡혀간 50~60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돌아 앉아 있다가 일명 ‘원산폭격’을 당하거나 각목으로 돌아가면서 맞았다. 한 두 명의 전경에 의해 이런 일이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

전경들의 방이었던 거 같아요. 무슨 큰 경찰서의 전경들 숙소였겠죠. 여자들이 5, 60여 명은 된 거 같은데 제 기억에 거의 24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어요. 정말 전경들이 거의 돌아있었어요. 끌려가자마자 밤새 안 재우고 때리고, 하여튼 그날 밤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밤 정도까지를 여자들을 전부 원산폭격을 시키고 이만한 각목으로 돌아가면서 때렸죠. 전경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맞을 일이 없었잖아요. 24시간을 맞으면서 ‘맞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거의 대학생 여자애들 아니면 제 또래 여자들이었는데 나중에 구치소로 넘어가서 집행유예로 나올 때까지 한 5개월 반쯤 있었을 거예요. 거의 나오기 전까지 엉덩이가, 각목으로 맞은 자리가 살이 밀려서 패어 있었고 까맣게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몰랐죠. 그렇게 된 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교도관들이 보잖아요.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랬어요.

‘독재타도’는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미제축출’이 나와서, ‘이걸 노동자들이 소화할까?’ 라고 생각했죠.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동맹에 위협을 가하는 걸 불온시하던 때니까. ‘굉장히 구호가 세다.’ 그랬죠.

시위 현장에서 보였던 폭력적인 모습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의 참여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폐퍼포그차가 돌진해 오다 돌을 맞고 불타거나 전경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 폭행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의 가두시위와 비교할 때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꽤 과격한 장면들이었다. 폭력성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의 이탈과 시위대의 고립도 함께 가속화 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두려움 속에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때 본 건지 나중에 기록으로 본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한편에선 계속 보도블록을 깨고, 폐퍼포그 차 하나를 아주 망가뜨렸어요. 그런 게 불안하고 두렵죠.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일반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결국은 핵심 세력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면서 경찰들이 방패 들고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고립되는 느낌이 점점 들 수밖에 없죠.

그 전에는 과격성을 보일 수 있는 시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경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5분 대기조처럼 있었어요. ‘찍차기’ 하고 놀면서 상주하고 있을 때죠. 어느 선배가 ‘오늘이 나의 날이다’ 이러면서 돌을 뜨면 5분도 안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짧게 구호 외치고, 몇몇이 있다가 모여 들어서 같이 구호 외치고 그러면 바로 경찰이 들어와서 주동자 잡아가고. 이런 게 학생운동에서 고작이었죠.

특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었죠. 그냥 ‘산업역군’이었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주도적인 의식이 없을 때죠. 그나마 그동안 비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팀에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같이 결의를 하고 가두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예를 들면 ‘노동해방, 독재타도’ 이런 걸 외친다는 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본 중에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시위였어요.

유치장으로 옮긴 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혼방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현경은 공장에 들어간 전력이 있는데다가 ‘학출’이란 게 밝혀져서 별도로 분류된 후 구치소로 이감됐다. 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학출’들이었다. 대학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른, 전혀 안면이 없던 사람들과 함께 구속 대상으로 분류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시민회관에 같이 간 ‘팀’ 중에 잡혀 온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5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인천구치소에서 보내게 된다.

경찰서 옆에 가면 수감 시켜놓는 데 있죠? 거기로 옮기면서 불러내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분류를 하기 시작 했던 거 같아요. 제가 결국은 분류가 된 거 같아요. 대학생들은 단순가담으로, ‘저 몰랐어요.’ 이런 애들은 다 빨리빨리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현장 출신 중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거리에 왔다가, 보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애들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약간 전력이 있을까, 저처럼. 학생 출신이면서, 저는 이미 현장에 들어갔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을 주동자급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추려내서 나중에 ‘학익동’(인천소년교도소)에 보냈어요. 여자감옥을 ‘여사’라고 하는데 여사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많으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딱 두 방에 나눠 넣었어요. 한 방에 여덟 명 정도씩 있었던 거 같아요. 열여섯 명 정도 처음에 있다가 거기서도 대학생들 중에 뺄 있는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애 별로 한 거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고, 나중에는 한 대여섯 명 정도 남아 있었나? 그냥 나이, 학생출신으로 현장에 왔었던 거, 이런 거로 주동자인 것처럼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재판관을 받게 된 거예요.

제 기억에 5월 3일에 그리고 나서 학익동으로 넘어간 게 일주일 정도 더 걸려요. 그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빨리 감옥으로 이송되기를 바랐던 거 같아요. 뭔가 힘든 점이 있었나 봐요.

권인숙과의 만남

학익동 인천소년교도소로 이송된 이현경은 이곳에서 1986년 6월 발생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희생자 권인숙을 만난다. 야학을 할 때 만난 인연이 서로를 알아보게 했다. 권

인숙이 이송돼 오면서 교도소에 있던 ‘5·3팀’은 부천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큰 싸움을 벌여 나간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감옥은 이미 ‘투쟁 현장’이었다. 출소할 때까지 이런저런 사안으로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복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방이 두 개 있고, 마주 보며 방이 두 개 있어요. 복도는 7자로 꺾여 있고 방들 옆으로는 독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사고치는 사람들을 뒤로 수감 채워서 넣어 놓을 때 쓰는 방이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볼 수가 없죠. 그래도 소통은 하죠. 온갖 토론도 하고 온갖 투쟁을 거기서 다 했죠. (웃음) 창살에 다 같이 매달려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랬어요. 여사 교도관들은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소위 정치사범이 집단적으로 들어온 게. 나중에 남자들 보니까 남자 사동에서는 감옥문 따줘서 복도에 나와 서로 축구도 했다고 그럴 정도로 이쪽의 파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5개월 반 있었는데 나중에 따져 보면, 그 절반 정도를 단식 투쟁을 해요. 사건만 터지면 별 방법이 없으니까 단식 돌입하면서 밤새, 플라스틱이었을 거 같아요. 베개가 있거든요. 그 베개로 쇠로 된 철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항의 수단이 없으니까.

권인숙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를 다니다 제적된 후 1986년 5월 20일, 부천에 있던 ‘성신’이란 회사에 위장취업을 해 근무하던 중 부천경찰서로 연행됐다. 6월 4일의 일이다. ‘허명숙’이란 가명을 써서 회사에 들어간 권인숙의 혐의는 주민등록증 위조 등에 관한 것이었지만 조사는 곧 양승조 등 5·3인천민주항쟁 관련 수배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성고문이 자행됐다.

권인숙이 조사를 끝내고 구속된 건 6월 7일. 그 후 열흘 가량이 지난 6월 16일 인천소년교도소로 송치됐다. 이현경은 이때 권인숙을 만난다. 그리고 권인숙으로부터 성고문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1987년 1월 6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있었던 「성고문 폭로투쟁의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좌담회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이현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16일 저녁 늦게서야 권양이 인천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저는 그때 체격이 좋고 얼굴도 둥글넓적하던 권양이 너무 마르고 왜소해져서 놀랐습니다.

다음날 둘이 의무과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조사과정이 어땠는가 하고 물어 보니까 성적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것과 그후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이야길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당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죠. 듣고 보니 너무 처참했어요.¹⁰

이현경은 이 말을 듣고 교도소에 있던 동료들과 의논 끝에 이 일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권인숙은 6월 중순쯤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독방에 집어 넣어서. '독방에 누가 왔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운동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어,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자기도 왔다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성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선배니까 저한테 해요.

이건 터뜨려야 하는 사건이니까 그때 제가 동생한테 "내 친구 하나를 데리고 면회를 와라. 긴급하다."고 해서 청년활동에 관계하던 친구가 와요. 친구는 면회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 놓고 내 동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부천서에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다. 명동성당에 알려라."는 말을 전했죠. 그래서 그걸 명동성당에서 시국에 대한 문제제기 형식으로 터뜨린 거예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커지면서 그게 딱 이슈가 됐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다시 단식에 돌입한 거죠.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우리가 다 지쳐 떨어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단식 투쟁을 해요.

단식투쟁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구나 일반 사범들도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최선의 항의 표시였다. 장기적인 준비 없이 상황이 터지면 바로 단식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 안에서는 단식이 끝난 후에도 회복과정을 적절히 거치지 못하는 탓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식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계속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권인숙은 금방 나갔어요. 다른 데로 이감을 시키죠. 나중에 추석 직후쯤인 거

10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우리들의 딸 권양』, 1987, 78쪽.

같은데 고대 여학생 둘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재판이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인천지법에 항의를 하러 간 일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방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를 시도하다가 잘못돼서 한 친구가 넓적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로 들어와요, 둘이. 그것도 밤에 들어왔는데 애는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안 보내고 수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때부터 긴급하게 싸움이 시작돼서 애를 빨리 의료적으로 조치하라고 요구했죠. 그렇다고 교도소라는 데가 즉각즉각 자체 결정력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명령을 다시 받을 때까지 방치한 채로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그래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 깨네들하고 같이 몇날 며칠을 단식하면서 싸웠죠.

‘5·3모임’과 5·3인천민주항쟁의 노동자들

인천에서 5·3인천민주항쟁의 첫 공판은 7월 18일에 있었다. 공판은 계속 이어졌다. 인원이 많아 남자와 여자 15~16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이현경은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공방을 겪으며 결국 12월 초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감옥을 나왔다.

아마 크게 수배가 돼 있었던 분들이 핵심이란 걸 애네들이 알았을 거고, 그냥 시위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현장에 있었을 뿐이란 걸 알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소요사건으로 키웠기 때문에 재판 절차나 이런 게 길었던 거죠.

재판에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 번 재판을 나가면 열 몇 명이 재판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하루종일 재판정에 나가 있고 그랬는데 앞에 팀이 먼저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우리가 꿈쩍없이 소요죄로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재판을 진행했나?' 물었더니 그날 있었던 아주 폭력적인 사건 사진들을 찍 보여주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 그날 장면 맞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맞다고 시인을 하면 검사가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길 듣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 팀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데 재판이 되게 길어져서 늦게까지 했는데 검사하고 변호사들하고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사진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남자들 쪽 지나서 여자들 쪽으로 왔는데 “이 사진이 그때 사진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잠깐만요. 이 사진은 그날의 장면 사진인 건 맞지만 내가 이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이것 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데 나한테도 나가서 내가 이런 폭력적인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갖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소요죄로 몰아가는 물증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진은 5·3때 페퍼포그차 불타고 전경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그게 한두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을 보여준 거였어요. 엄청 폭력적인 내용이었죠. 시위 이상의 폭력사태로 볼 만한. 근데 “내 증거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마침 판사가 실수를 한 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재판장은 일종의 야구심판 같은 것이어서 양쪽의 공방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별 권한이 없다.’는 식의 코멘트를 했어요.

그걸 『동아일보』 기자가 뒤늦게 기사로 내면서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소요죄의 물증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 판사는 좌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 간격으로는 재판을 나갔던 거 같은데 한동안 재판을 안 열었어요. 재판을 안 열다가 마지막에 거의 집유로 때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구속돼서 2심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이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3년 구형에 5년 집유인가 하여튼 세계 받고 12월 초쯤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어머님들이 그 신문 기사를 들고 와서 이제 살았다고, 이제 너희는 살았다고. 재판장 쫓겨났다고 이리셨죠. 뜻하지 않게. 정확하지 않은데 10월 말 아니면 11월이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외삼촌도 그 신문 기사를 오려 놓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포승줄에 묶인 채로 구호를 외치며 법정을 나오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무학여고 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6개월 밖에 근무는 안 했지만 거기서 친해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몇 분은 지금도 만나요. 그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청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

한테는 말을 못하다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면서 ‘민주화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런 식의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희 상황에서 판사가 갈리고 집유로 나온다는 건 전혀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때 30명 가까이 집유를 받고 나왔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폭력사태를 주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웃음) 그러면서 ‘기도해 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진 덕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죠.

인천소년교도소를 출소한 ‘5·3구속자’들은 5·3인천민주항쟁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간다. 서로간의 유대도 깊다. 뜻하지 않은 일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결국 우리 한 사건으로 묶인 사람들이 됐으니까 나와서 5·3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거기 주축이 된 게 권오광 선배라는 분하고 비슷한 또래의 몇 분이 있어요. 여자는 한두 명이구요. 원래 조직도 다르고 학교 출신도 다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 모이려고 했다가 점점 사람들이 추러지면서 거의 열 몇 명 정도가 굉장히 끈끈하게 정기적인 모임을 했죠. 지금도 만나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성남쪽 학생출신 활동가로, 후배였는데 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활동하다가 항의하면서 분신을 해요. 그 후로 그 친구의 어머니를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기일을 20년 넘게 계속 지켜서 산소를 가요.

또 80학번 선배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활동을 그만 둔 후 회사 생활하다가 5, 6년 전인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 분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기일도 지키죠. 5·3모임을 정말 끈끈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는 분들이예요. 나중에는 서로 노선이 좀 달랐는데 그 노선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려고 까지 했었죠. 근데 이미 5·3 지나고 나서는 저같이 활동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모임 자체는 잘 이어지고 있어요.

이현정은 노동자들이 집회에 나와 스스로의 의지로 정치적인 구호를 외쳤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 87년 6월 항쟁의 감동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5·3인천민주항쟁은 단체나 정치조직뿐만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항쟁이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1986년 5월 3일의 인천은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5·3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좁혀서 정리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느냐, 아니면 노동운동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정리하기 보다는 그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든, 혹은 안 했든 그날의 일들을 알게 되고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87년 투쟁을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거예요. 하나의 큰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징검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던 거죠.

정말, 노동자들이 산업 역군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학생운동 쪽에서 들어간 변혁지향적인 세력들과 만나면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들도 정치적인 욕구를 말할 수 있고 그걸 갖고 투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을 쌓는 계기였죠. 그건 표면적으로는 신민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과 관련된 집회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천이라는 노동운동의 한 진원지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경험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사건이었죠.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서울에서는 벡타이 부대의 운동으로 쭉 갔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뜨거웠고 노동자가 세력화될 수 있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는 5·3 이후 노조 결성으로 이어져 간 경험들이었어요. 대우자동차 근처 산곡동 일대에서 밤에 드림통에 불 피어 놓고 엄청난 형태의 가두 집회, 가두 행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전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경험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해방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하지만 도로로 흩어져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얼마든지 길거리에서 노동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우리도 우리 주장을 펼 수 있다고 하고 그게 또 힘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고 이랬던 과정이 저한테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5·3은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 불을 지피는 가능성, 노동자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그런 경험. 사실은 서울에서 많은 끈들이 왔겠죠. 그렇지만 그날 투쟁은, 인천지역에서

벌어졌던 시위 중에 노동자들이 상당 규모로 참여하고 그런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거는 아마 드물고 새로웠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기념행사를 한다면 정치조직들, 위에서 오더를 내리고 구호를 준비했던 분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그 집회에 와 있었던 사람, 막 의식화가 되기 시작했다가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뭔가를 느꼈을 사람,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노조 운동을 해서 간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기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몇 가지 기념행사가 있었던 거 같은데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몇 개의 자료들을 봤을 땐, 이것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떼어 내려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집단들이 움직였는지를 얘기하는 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단순 가담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른 느낌들도 있을 거 같고 그게 인천 자체, 인천의 이후 운동하고 어떤 접점이 되었고 어떤 불씨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소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더 들어와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이에요

장기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정책국장



- 1945년 경남 김해 출생
- 196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복역
- 1980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조직국장
- 1984년 민주통일국민회의 사무차장
-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정책연구실장
-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
- 1990년 민중당 정책위원장
- 현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부산대회에서 본 가능성

5·3인천대회지. 그때는 민중항쟁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고, '광주대회,' '부산대회,' 대회라고 그랬죠. 신민당 현판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현판식을 활용해서 우리 집회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집회'라고 했죠. 집회라고 하는 건 보통 명사니까. 그거 정말 한 번 알아봐야 할 텐데. 기획문서에 나와 있을 텐데. 그땐 아마 문서에는 집회라고 했을 거예요. 인천집회.

장기표는 자칫 빠질 수 있는 편협된 시각을 우려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인천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회다. 이곳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방향에 군중들이 흩어져 있었다. 주안역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석바위 방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노동자들도, 인하대학교 방향으로 뻗어 있는 좁은 도로를 지키던 학생들도 있었다.

이곳을 찾아 온 사람들의 목적 역시 모두 같을 수는 없었다.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삼민헌법 쟁취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군은 나가라'고 외치는 학생들은 물론 '8시간 노동제'를 지키라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는 인천5·3민주항쟁은 여러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들이 모일 때 사건의 제 모습이 어렵듯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쓰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자칫 하면 자기가 다 한 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공개를 하면 안 될 때거든. 비밀이 유지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만 아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만 한 거지. 나중에 기억을 해도 다른 사람이 한 거는 모르는 거야. 그런 한계가 있어요, 민주화운동은.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누구든지 가서 물어 보면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아는 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5·3은 조금은 덜하지. 민통련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일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숙명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에요.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백성 민'자 '주인 주'자 운동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운동이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은 민중민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와 민주

통일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가 통합해 결성한 단체다. 앞서 1983년에 들어와서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이 공개화운동을 선언하기도 하고 정권이 한 발 물러서면서 유화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걸 말하면 다른 데 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5·3 때는 전두환 정권을 끝장내려고 내가 아주 결심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전두환 정권이 계속 강압정책을 쓰다가 84년 김영삼 씨 단식을 즈음으로 해서 좀 풀렸지. 그 전에 학원안정법이란 게 있었어요. 학원안정법이란 걸 통해서 바짝 조이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었어.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런 가운데 김영삼 씨가 단식을 했어요. 그게 아마 84년도일 거야. 민청련이 83년도에 창립하죠. 이미 전두환 정권은 상당히 약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른바 그걸 '유화국면'이라고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 때 초기에는 구속이 많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구속이 잘 안됐어요. 구류만 살았죠. 민통련 이전에 민민협이라고 있었어요.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민민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해서 민주통일국민회의를 만들었어요. 84년 10월이지. 85년 3월에 민주통일국민회의하고 민중민주운동협의회하고 통합해서 민통련을 만든 거예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죠. 그때 2·12총선이 있고 하던 때라 상당히 활성화가 됐죠.

개헌 현판식을 신민당이 처음 한 게 아마 한 3월쯤 될 거예요. 흥사단에서 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때 집회가 잘 안됐거든. 조금만 모이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두 번째로 한 게 부산일 거예요. 부산집회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안 썼어요. 나도 민주당 이런 거 안중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산집회가 의외로 서면 일대를 꽉 채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한 거지. '아,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광주대회는 3월 30일이거든요. 부산대회는 아마 3월 23일이지? 일주일 단위로 했거든요. 부산대회 때까지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관찰 정도를 했어요. 조직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부산에 있는 민통련 지부가 갔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집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으리라고 봐요. 없었죠.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마침 3월 30일에 광주집회가 예정돼 있는 거야. 광주는 또 민주화운동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하

고. 그래서 광주대회 때는 아주 우리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을 했죠.

조직적이란 건, 민통련에는 지역조직이 다 있거든요. 지역조직을 다 동원했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구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다 있었던 말이에요. 지부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도 있었어요. 지부 이름이 약간씩 다른 곳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동원을 했어요. 인력동원도 하고 본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고 인쇄물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광주집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죠. 최소한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광주에 있는 신영일이라고 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죠. 신영일 동지 같은 경우에 가로수에 막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연설도 하고 그랬죠. 인파가 장관이었어요. 그걸 참, '3·30대회'라고 그래요. 광주 3·30대회가 우리로서도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하여튼 계획을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에 광주에서 하고 4월 5일에 대구에서 하고, 4월 19일인가 대전에서 하고, 4월 26일인가 청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회예요.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인천대회에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려고 했죠.

민통련은 부산대회에서 가능성을 보고 광주대회부터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현판식이 개최될 때 지역조직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은 서울이었다. 그 전에 인천에서 한 번 더 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회가 종지부를 찍는 대회였으나 장기표는 인천대회 때 정점을 찍으려 했다고 말한다.

서울 집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5·3인천대회에서 전두환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려고 했죠. 나는 '속으로' 10만 명을 끌고 서울로 북상하려고 생각했어요. 대오를 지어서 도로를 따라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인사선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호웅, 이우재가 중심이 됐죠. 본부 사람들도 그 전날 밤에 다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보통 핸드마이크로 하는데 우리는 작심을 한 사람들이니까 리어카에 마이크를 네 개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핸드마이크에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피해다니면서도 우리가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회의는 분도회관 옆에 '준'이라는, 마침 기억이 나네요. 그때로서는 참 드문 카페였죠. 거기서

다 만나서 했어요. 다른 지역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갔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버리면 더 못하잖아요. 인천대회는 내가 아주 결심을 했죠. 내가 직접 끌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집회는 성토대회였어요. 성토대회 하고 올라오려고 했죠.

민통련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회하는 거였어요. 서울까지 가자는 말은 잘 안했을 걸 아마. 집회 끝나면 오는 거니까. 사실 서울까지 다 올 수는 없죠. 중간에 막힌다는 건 너무 잘 아니까. 서울을 향해서 와서, 아까 제가 끝장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대단한 충격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중이 전두환 정권을 반대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지.

준비물이야 확성기 장치도 만들고 인쇄물 당연히 만들고, 그때 이호웅하고 이우재 몇 사람들은 옷도 다 아예 교도소 들어갈 각오하고 흰 옷 입고. 또 안희대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참 말을 잘해. 정말 운동도 잘하고 선동을 잘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안희대를 보고, “너 인천에 가서 연설 좀 해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인천에 가서 고함지르고 하다가 오랫동안 수배를 당했어요.

민주헌법과 민주정부

인천5·3민주항쟁 이전 장기표는 ‘민주통일민중운동론’이란 원고를 작성한다.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려 기소를 당한다. 초안이었다. 이론이란 것은 결국 운동 속에서 나온다고 보고 민통련에서 2년 가량 활동을 하며 운동을 하는 과정을 정리한 문건이다.

제가 사실 운동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학생운동을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예요. 그냥 학생 때 정의감으로 ‘독재와 부정부패를 막겠다.’ 이래서 한 사람이 아니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학생운동을 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대학 때는 수업도 안 들어갔어요. 대학강의도 안 들었어요. 1학년 때는 좀 들긴 했지만 71년도에는 전체 강의 중에 수업을 한 시간 들었어요. 그것도 들으려고 들었던 게 아니라 유기천 교수가 종신제 대통령을 만들어 영구집권하려고 개헌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하실려나 싶어서 한 번 들어가 본 일이 있죠. 그거 외에는 수업을 한 시간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직업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논리가 나름대로 있죠.

5·3인천대회는 운동권 백화점이었어요. 민민투, 자민투 등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나오고, 노동운동세력은 서노련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나오고. 민청련은 민청련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맡겨 놓으면 안되고 민통련이 주도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확성기 네 개를 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가 다 무엇인가 하면, 말하자면 주사파적인 경향이죠. 자민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예요? 반미, 민족해방 그런 경향이고, 또 민민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이고, 서노련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이고. 민청련은 ND라고 해서 민족민주라고 하는데 약간 주사파적이죠.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 전부 동의하지 않았거든. 여기에 뒷받침하는 학술적인 논리가 사회구성체 이론이란 말이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내놓은 게 주로 민청련에서 한 건데 CNP논쟁이라는 거죠. ‘시빌 데모크라시(Civil Democracy),’ ‘내셔널 데모크라시(National Democracy),’ ‘피플 데모크라시(People Democracy)’ 즉, 시민민주주의, 민족민주혁명, 인민민주주의죠. 이런 걸로 운동권을 갈기갈기 찢어 놔단 말이야.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시빌 데모크라시다.’ ‘쁘띠부르조아지다.’ 이랬어요. 내가 이걸 용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옛날에 다 마르크스레닌 주의 책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말을 갖고 하면 어디 먹혀들겠어요? 그래서 운동론을 만든 거죠.

인천에도 인노련이 있고, 또 서노련이라고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주의, 프롤레타리아혁명 그랬잖아요. 난 그런 걸 다 배격했어요. 왜 우리가 노동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민주통일민중운동론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계급을 전부 다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잖아요. 부르조아 계급, 노동자 계급, 뿌띠부르조아 계급 그러잖아요. 나는 뿌띠부르조아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침 5·3인천대회 전에도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운동을 한 거죠.

민주통일민중운동론은 그 전에 민통련 기관지에 계속 글을 써 왔던 거예요. 설명조로 안 하고 항목으로 돼 있어요. 설명이 붙은 건 5·3인천대회 이후예요. 5·3 때문에 수배 당해 도망 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경찰이 입수한 건 그 이후일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5·3인천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민통련 간부들이 비밀리에 만났거든요. 특히 이 문건을 내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김인환씨라고 우이동인가 집이 있었어요. 그 분이 점잖은 분인데, 그때 이부영 씨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운동론을 새

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론을 정립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논리가 있어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는 아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노동자는 노동자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가져야 하고, 부르조아는 반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부정했어요. 이 논리대로 하면 지식인들은 뿌띠부르조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놓고 분석하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주계급이란 말이죠. 이 자주계급은 출신이 부르조아지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자주계급이에요. 내가 이런 계급을 새로 만든 거예요, 운동론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운동이론은 현실에서 나온다구. 이념은 현실에서 나오고 전략은 투쟁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또 하나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결정하고 상황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내 생활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암만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서민적으로 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명적인 투쟁을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니까 정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전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잘못해서 뱀보이면 완전히 반동이 되니까요. 저는 '야, 이놈들아 너희 데모 안 할 때도 데모했고, 내가 지금도 너희들 보다 더 데모 치열하게 할 수 있는데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운동은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30년 전에 마르크스가 정립해 놓은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거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구로 지역에서 노동운동 특별히 하는 애들한테 '너희들 하는 유물론은 관념론이야.' 운동권의 유물론은 관념론이다 이거죠. 운동권의 변증법은 형이상학이다 이거예요. '정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정태론이에요. 이런 비판을 내가 계속 했죠. 또 하나는,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전세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이념이 한반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예요. 마침 내가 책을 내다보니까 기억을 하는데 안 그러면 뭐한다고 기억하겠어요. (웃음)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민통련은 '민주헌법'과 '민주정부'를 대표적인 구호로 내세웠다. 장기표는 민주헌법이란 결국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개헌'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민중봉기론에 입각한 '쟁취'가 최종 목표였다는 것이다.

물론 연결이야 되겠지만 논리가 개헌이 아니지.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데 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국회로 하여금 '개헌하라! 개헌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민주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민주헌법 쟁취'라고 그랬어요. 정부를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때 운동론이 민중봉기론이었어요. 선거를 통해서 안 된다. 결국은 민중이 봉기해서 행복을 받아내야 한다. 행복도 아니지 밀어내야 한다.

우리가 전두환 독재를 반대하는 건 독재만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전두환이 만일에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죠. 근데 잘못된 법, 간선제를 통해서 체육관에서 선거했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통련에서 민주헌법 쟁취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헌법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직선제죠. 그러나 그 방식이 개헌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쟁취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로간의 동의 차원에 머무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민통련이 중심이 돼서 정치권까지 끌어 모아서 만든 국민운동본부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란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그게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인 거예요. 체제내적인 개헌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는 개헌이 됐지만 쟁취한 거죠.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그때 민중권력, 민중정부, 그렇게 말했는데 운동권 사람들의 사상에 따라서 다르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정부를, 근데 뭐 실제로 노동자계급 정부냐 아니냐 하는 건 별도의 문제구요. 언필칭 소비에트 정부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는 편차가 많을 거예요. 운동권 사람 중에도 혁명적 사회주의적인 의식이 없이 그냥 진짜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데모를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많지 않겠어요? 숫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정부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안 하고 건설되는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생각했겠지.

만약에 우리가 힘이 세서 6월항쟁을 통해서 혁명을 했다면 혁명정부를 구성해야죠. 혁명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가 굉장히 민주주의자거든. 민주주의를 왜 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재자한테 넘기면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정치처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단 말이야. 나쁜 정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민주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회 발전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잘해 준다고 국민이 행복한 게 아니고 국민인 내가 주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5천만 명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5천만분의 1의 주인이잖아요. 즉, 5천만분의 1의 주인이라도 주인이 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즉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독재,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하고는 다른 거죠.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헌법 쟁취 운동

인천에는 일찍 갔지. 당일엔 갔어요. 시민회관으로 바로 갔죠. 주안성당은 안 들어갔어요. 이미 이호웅 등이 다 준비해서 나오기로 돼 있었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민회관 앞에 마당도 있고, 그 앞에 사거리가 넓어요. 굉장히 넓다고. 거기서 집회를 했죠.

신민당이 대회를 못 했어요. 총재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몇 시쯤에는 다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는 확성기 달아 놓은 걸 갖고 계속 연설을 했죠. 연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했지 뭐. 저도 물론 했죠.

집회 끝나무리가 안 됐죠. 주로 그때 화염병보다 더 많이 쓴 건 돌멩이예요. 돌멩이는 ‘쓰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통제불능이지.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페퍼포그가 막 밀려들어오는 거야. 최루탄을 잔뜩 뿌려놓고 가 버리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견뎠어요. 한 두 시쯤 됐을 텐데 다연발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배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난 속으로는 민통련 중심으로 집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꼭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건 지휘체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선 이념

적으로 서노련이나 이런 쪽이 다르고, 또 민청련은 이상하게 다르고. 그래서 속으로도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저 애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었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민통련 위주로 했죠. 민통련 이외에는 안 했어요. 5·3 때는 전두환 정권과의 갈등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운동권 내부도 복잡했어요.

저는 운동권의 잘못된 논리들을 굉장히 질타했어요. 뭐라고 질타했는가 하면, 운동권의 기회주의, 교조주의, 정치권의 개량주의. 이걸 3대 이념적 편향이란 이름으로 배격했어요. 또 운동권의 3대 콤플렉스가 있어요. 첫째가 학생콤플렉스. 학생들이 뭐 주장하면 줄줄이 따라가는 거야. 이게 운동권의 기회주의예요.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심했지. 학생들이 뭐 ‘반미직투’라고 하잖아요. 생전에 그런 말 안 써 봤지만. (웃음) 이런 운동권의 논리들을 가져와서 민통련 회의 같은 데서도 막 말을 한다고. 나는 자존심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걸 따라 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건 아니라구’라고 해도 도도히 살아있죠.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그 다음이 노동자 콤플렉스. 노동운동에서 주장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ML주의 콤플렉스예요. 나는 이걸 시대착오적인 거라 이거예요. 또 뭐가 있냐. 북한콤플렉스. 북한에서 뭐 주장하면 또 비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3대 기회주의, 3대 콤플렉스라고 해서 나는 이런 거를 철저히 배격했죠.

5·3 때 다양한 종류의 유인물이 나온 건 뜻밖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경향을 제가 잘 알죠.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못 일어나게 민통련을 중심으로 해서 압도를 하려고 했죠. 민통련은 그 집회에는 전두환 정권도 있지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경쟁의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서노련이든지 민청련이든지 또 학생들, 이런 주장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운동이 바로 선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못마땅하죠.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잘못됐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지. (웃음)

현판식이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신민당 현판식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를 바라서 오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신민당 현판식은 김영삼 씨가 와서 ‘개헌 합시다!’ 하고 가면 끝인 거야. 우리는 그 끝난 사람들을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이 어려워진 거는 학생들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데모를 해서 최루탄이 현판식 본부가 아니고 변두리에서부터 먼저 터져서 김영삼 씨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최루탄을 얼마나 들이붓던지 시민

회관 앞에는 밀가루를 막 푸대자루로 부어 놓은 거 같았어요. 막 저벅저벅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1시나 2시까지 김영삼 총재가 못 들어온 거예요. 집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제대로 질서가 안 잡혔어요. 신민당 현판식이 끝날 때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현판식을 못했으니 끝나지 않고 오래 끈 거지요. 게다가 계속 고성능 마이크로 ‘지금 곧 시작할 겁니다.’ 하니까 우리 마이크는 밧데리 갖고 하는데 우리들 말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웃음) 신민당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장기표는 5월 3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서울에 있었다. 교도소에 있을 때 인연을 만났던 교도관의 집에서 붙잡혔다. 잡으러 온 건 치안본부 대공분실 직원들이었다. 곧바로 구속된 후 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3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한다. 1987년 6월항쟁 직후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가 단행될 때도 명단에서 빠졌다. 1988년 10월 3일, 양심수 52명을 포함한 1천 26명의 개천절 가석방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서노련의 김문수는 이날 석방 조치됐다.¹ 이튿날, 평민당은 가석방 조치에서 제외된 양심수가 모두 514명이라며 ‘양심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한 사람들은 장기표를 비롯해 광태영, 박계동, 안희대, 양재원, 여익구 등 모두 6명이 이름을 올렸다.² 장기표가 석방자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조영래 변호사는 10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장기표는 무슨 죄가 그리 많은가」란 제목으로 쓴 칼럼에서 “양심수 전면석방”을 공약한 ‘6·29 선언’ 이후 벌써 몇 차례나 석방 조치가 있었는데도 그 때마다 ‘탈락’되어 아직껏 철창 신세를 져야 하는 그는 대체 무슨 죄가 그리 많은가?’라며 탄식했다.³ 장기표는 결국 같은 해 12월 20일, 이른바 ‘12·20 조치’로 사면·복권되며 2년 7개월여 간의 영어 생활을 끝내고 감옥문을 나섰다.

시민회관 앞에서 도망 나왔죠.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니까 온갖 군데 경찰이 있잖아요. 하여간 힘겹게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아파트촌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죠. 이미 5·3 인천대회 전부터 도망 다니던 중

1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2일자.
 2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5일자.
 3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6일자.

이었어요. 이철규 사건 때문에 도망 다녔죠. 인천을 나와서는 서울에 있었어요. 민통련 사람들 비밀리에 계속 만나고 그랬죠. 내가 피해 있던 곳은 이상경이라고 ‘형제’라는 출판사를 했는데 거기 위층에 방이 있었어요. 아현동이에요. 그곳에 있다가 전병용 씨 집에 있다가 잡혔어요. 나는 이미 안기부도 여러 번 가 본 사람이잖아요. 순순히 두드려 맞진 않았죠.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잡혀 간 승용차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죠. 집에서 잡혔어요. 그분은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사귀었던 교도관이에요. 김지하 양심선언하고 관련된 사람이죠. 김지하 양심선언을 교도소에서 밖으로 운반해 낸 사람이예요. 아주 뭐 민주투사죠. 징역도 살았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수배 당하고 피해를 봤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잡혀서 징역 6개월인가 살고 나왔잖아요.

그때 징역 7년 받았어요. 한 3년 반 살았어요. 5·3 인천대회가 86년이잖아요. 87년 6월항쟁 있고 나서 사람들이 석방 됐어요. 그때 6·29선언 직후에 석방된 사람도 반쯤 되고, 또 노태우 취임식, 88년 2월에 또 나머지 반쯤 나오고, 8·15라고 또 반이 풀려났고, 나는 88년 12월 말에 나왔어요. 내가 징역을 제일 오래 살았죠. 제일 늦게 나온 거야.

장기표가 공주교도소 정문을 나온 때는 이미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선거까지 끝난 뒤였다. 장기표는 6월 항쟁을 감옥 안에서 겪었다. 출옥한 이듬해 전민련 사무처장을 지내며 재야생활을 청산한다. 그리고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이죠.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 쪽 해 온 거죠. 민중당부터 지금까지.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지만 선거에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여러 번 나가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죠. 다 내탓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성찰하고 내가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가 적이 많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DJ 따라가고, YS도 따라가고, 김종필 당에서도 하고 같이 했잖아요. 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은 민중봉기론은 변화가 됐어요. 참고로 누구도 그렇게 말했지만 나만큼 진짜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인간해방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정치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니면 뭐하러 할 거요? 옛날에는 ‘민중봉기론’에 기초

해서 했지만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6월항쟁 이후에 내가 정당을 주장한 거예요. 민중당을 주장했어요. 6월항쟁 이후에는 민중봉기론, 말하자면 민중투쟁론 갖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책임지는 운동, 권력을 지향하는 운동,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당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게 합법정당론이에요. 요즘은 합법정당론이란 말이 웃기는 말이죠. 그때는 하도 우리가 불법에 꼭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정당론을 합법정당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합법정당 건설에 나서는가.' 이게 내 글의 제목이야. 요새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정당이면 당연히 합법정당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합법 전위정당이 기본으로 돼 있었던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합법정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의회민주주의는 수단이지만 이거를 너무 민중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되죠, 나도 굉장히 민중주의자인데 민중만으로는 안 되죠. 민중이 뭘 압니까. 민중이 어떤 세상이 건설돼야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민중운동에도 사상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상이란 건 인간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오는 거지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의회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즉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야 되지. 국민들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뭘 해요.

그때는 잘못된 선거제도였잖아요. 잘못된 국회의원들 뽑는 걸 상당히 배격했죠. 노동자나 농민이나 민중이 주도하는, 또 진보적인 목표를 가진 정당이 나와서 집권하기를 바랐죠. 내가 만약 6월항쟁 직후에 출소를 했다면 내가 정당을 만들었죠. 6월항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가 정당을 안 했죠. 계속 민중봉기론이지. 그런데 6월항쟁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당히 따냈잖아요. 그때는 민중봉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채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가 사회발전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는 거지. 그래야 참된 자유를 맛보는 거요.

함께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장영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



- 1948년 전라북도 남원 출생
- 1969년 국민대학교 입학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
-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
-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민청학련에서 민청련, 다시 민통련으로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모든 실무적인 문제를 통괄하는 거죠. 운동을 지원하는 업무예요. 행정이란 건 특별한 게 없어요.

5·3때는 일선에 나서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장기표 선생, 민통련 지도자들이 많이 나섰죠. ‘아무개는 고생을 너무 하니까 빼주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박계동 같은 사람. 박계동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기관에 밭보여서 걸핏하면 잡혀가서 구류를 살거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사회 부장인가 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계동 씨는 이번 5·3인천사태에서는 틀림없이 구속될 테니까 이번에는 빼주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했죠.

운동권에서 나오는 유인물 같은 게 있었어요. 박계동 씨가 그걸 좀 팔았어요. 리어가 위에 놓고 기금모금 곁해서. 민청련의 『민중화의 길』이나 노동단체에서 나오는 『노동자의 길』, 각 단체의 유인물, 이런 걸 싸게 팔았어요. 보급하려고 팔기도 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그랬죠. 그런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잡아가더라구. (웃음) 좀 빼준다고 유인물이나 팔라고 그랬는데.

장영달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총무국장이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을 맡았다가 민통련 발족과 함께 옮겼다. 당초 민청련은 민통련이 출범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당면 운동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었다. 협의체나 연합체나 단체 성격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¹ 민통련은 민중민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와 민주·통일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가 1985년 3월 29일 통합해 결성한 단체다. 그리고 민청련은 민민협에 가입해 있었다. 다소 불완전한 출발을 보였던 민통련은 1985년 9월 20일,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민청련을 포함한 11개 단체가 참여해 명실공히 연합운동 단체로 자리를 잡아갔다.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 등도 이때 합류한다.² 민통련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장영달은 총무국장을 맡았다.³

1 『다시! 함께! 민주와 통일을 향하여』, 민통련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2015, 94~95쪽.

2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일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3 『다시! 함께! 민주와 통일을 향하여』, 민통련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2015, 96쪽.

민청련은 1983년 9월 30일에 출범을 했어요. 의장이 김근태, 부의장이 저였어요. 전두환 때는 전두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 하면 구속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두환 체제하에서도 고개 들고 시내에서 데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청련을 결성했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최초의 공개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부는 2진으로 꾸렸어요. 1진은 출범만 하고 잡혀가는 조였어요. 김근태하고 저하고 인천의 박우섭 등등. 이 양반들이 1진이었어요. 창립대회만 끝내주는 역할이었죠. 창립하고 열 발자국을 가든, 다섯 발자국을 가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집회를 한 후에 끌려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집회를 어디서든지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2진은 우리가 다 잡혀 들어간다고 해도 ‘의장 또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2중으로 만들어 놔는데 남산 중앙정보부 잡혀갔더니 보름만인가 구속을 시키지 않고 내어놓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거죠. (웃음)

5·3인천민주항쟁으로 구속돼 징역을 살기도 했지만 장영달의 수감생활은 연원이 오래다. 이미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을 구형받고 모두 5년 7개월을 복역한 후 1981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유신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순수한 학생운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⁵ 당시 장영달은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출소 후 민청련을 거쳐 민통련에서 일을 시작한 장영달은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한 집회를 준비하며 1986년 전반기를 보낸다.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민통련 사무실이 분도회관이라고 장충단 올라가는 길에 있었어요. 이창복 선생이 민통련 부의장이었을 거예요. 가톨릭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선해서 분도회관에 마련했죠. 수련원이었어요. 방이 많아요. 거기서 주로 회의를 했죠. 5·3 때는 집행부 회의를 한 뒤에 산하단체하고 반드시 다시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입

4 『동아일보』, 1981년 8월 14일자.

5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 보고서·총론(1), 국가정보원, 2007, 302쪽.

장을 정리했죠. 갈등이 있었던 기억은 없어요. 잘하면 형무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기투합을 잘 한 걸로 기억을 해요.

5.3인천민주항쟁과 투옥

장영달은 1987년 8월 29일,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민통련 창립대회에서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⁶ 출소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후였다. 5.3인천민주항쟁으로 수배된 후 1986년 8월 21일 체포됐다⁷ 1987년 7월 9일 석방된 직후였다.⁸ 넉 달 가량 도망을 다니면서 폭력조직의 우두머리 출신이었던 김태춘과의 옛 인연으로 은신처를 구하기도 했다.

김태춘은 목포형무소에서 내가 알았는데 통화가 됐어요.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에서 경호원 했던 사람의 집을 알려주더라구요. 아마 강남 교대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알려준 주소를 갖고 교대 부근을 갔더니 그런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몇 달 머물렀죠. 전직 대통령 경호원 집은 항상 감시 대상인가봐요. 그 경호원은 외국을 못 나가더라구요. 통제를 받아요. 부인은 미국 가 있는데 본인은 나가질 못하는 상황이었죠. 불안정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국가대표 배구선수를 했던 유○○라는 선수가 있어요. 숨어 있다고 해도 매일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저녁에 어떻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우리 집에 한 번 놀러 갑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어쩌다 놀러간 집이 그 집이었어요. 거기서도 몇 달 있었어요. 제가 숨어 있던 집들이 탄로가 난 거 같아서 어디로 탈출하려다가 이동 중에 잡혔어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구요. 무엇 때문에 국가보안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에 온 것은 헌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은 좋은 활용 기회였다. 인력을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싸움'이었다. 장기집권의 의지를 인천에서 꺾어야 했다.

6 『민중신문』 제41호(1987. 09. 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 『동아일보』 1986년 8월 22일자.

8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촉구대회」(1988. 02. 22), 장영달 선생 사면복권운동시민위원회.

5.3이란 것이 신민당 직선제 개헌 현판식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전두환 정부가 헌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총동원을 이끌어 내 총력을 기울이지는 싸움이었죠.

저도 인천에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인천에 호인수 신부님인가 계셨어요. 신부님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죠. 하루 전쯤 가서 신부님 주선으로 어디서 묵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세한 기억은 없고, 하여간 그 전날 집에 있으면 미리 잡혀간다고 해서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천에 가니까 무슨 시민회관인가 있었어요. 최루탄을 워낙 많이 쓰니까 최루탄을 피한다고 시민회관에 들어갔는데 안에다가 최루탄을 들이붓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최루탄 마시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인천 다음에 서울대회도 남았는데 서울은 그야말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원천 봉쇄하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지대인 인천집회를 통해서 전두환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굴복시켜야 한다.' 그런 의지가 강했죠. 굴복시킨다는 건 헌법 개정을 받아들이고 장기집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인천집회를 통해서 '더 이상 독재를 못하겠구나.' '헌법개정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지막 경종을 일으킬 정도의 집회를 크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어요. 수도권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에요.

시민회관 앞에 공터가 좀 있어요. 거기서 민통련 리더들, 장기표씨라든가, 저도 연설을 했고 가운데 연단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연설을 했죠. '군사독재는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야당도 노동권이나 민생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 거 같아요. 정당에 대한 비판은 항상 그런 거였으니까. 그리고 '직선제 개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적당히 야합하면 안 된다.' '인천에서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모여서 저항운동을 하자.' 대개 그런 요지들이었어요.

장영달은 5.3인천민주항쟁이 정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고 기억한다. 특별한 요구를 했던 건 아니었다. 민청학련 때 기독교 단체 소속으로 구속이 됐으나 반드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운동을 해 온 것도 아니었다. 단지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원했다. 민중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독재를 해 먹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만 해도 큰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번 붙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장영달은

거기서 5·3인천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봤다.

우리 기억에는 10만 이상의 청중이 모였어요. 엄청 모였어요. 5·3항쟁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과 시민운동 세력들이 ‘우리도 이렇게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전두환 밑에서 맨날 별벌 기어서 주눅만 들 일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는 거구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계기였죠.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고 권부인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천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코밑에 있고, 적어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집권자들에게 경종을 줄 수 있으니까 인천대회를 중요시 한 거죠.

인천이란 곳은 대한민국이 정권에 의해 왜곡된 길을 갔을 때 민주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길 때린 거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만적인’ 직선제 구호를 밝고 가두투쟁으로

전희식

인천지역노동자연맹 대외담당



- 1958년 경남 함양 출생
- 1994년 전북 완주 귀농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조직원
- ‘아름다운 후퇴’, ‘소농은 혁명이다’ 등 저자
- 녹색당 농업 먹거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민투와의 만남

아, 생생하죠. 그때 제 역할이 준비단계 역할, 현장에서의 역할,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준비단계에서는 민통련이 주재하는 집회 방식을 전면 거부하고, 가두 투쟁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최대한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가두에서 투쟁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초기 무력 형성을 못하니까 학생 쪽 무력을 대거 끌어오려고 했고 그 관계를 준비단계에서 제가 맡았어요. 당시에는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가 굉장히 쇠락하고 민민투[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가 득세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민민투 무력조를 만나서 역량 배치,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대 앞 어떤 지하에서 늘 밤 12시에 만나서 셔터 내려놓고 새벽에 헤어지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만났죠. 전략은 둘이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진영의 전체 투쟁전술에 의해서 조율해야 하니까. 그쪽 대표가 들이었고, 이쪽 대표는 내가 나갔어요.

전희식이 인천에 온 건 1977년 무렵이다.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해고를 당했고, 1992년 김낙중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초를 겪은 후 인천을 떠났다. 지금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 산다. 본 마을이 20가구 정도 되는 동명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회관에서는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다. 옛 집터를 복구하고 새로 쌓기도 하며 벌써 네 채의 집을 새로 지었다. 그 덕에 책도 여러 차례 출간했다.

전라도, 경상도 경계지역이 장계면이거든요.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산 준령이 있는데 그게 덕유산 서봉 줄기예요. 해발 620m 나오더라구요. 상당히 높죠. 무주구천동하고 같은 줄기예요. 덕유산 정상 향적봉이 무주군에 있구요, 쪽 준령 타고 백두대간 거쳐서 남덕유산, 서봉, 이렇게 해서 우리집 뒤로 착 지나가요

전희식을 꼭 만나려고 했던 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 사람들의 손끝에 항상 전희식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전희식을 만나면 자세히 얘기해 줄거다.'라는 말이 반복해 들렸다. 그만큼 인천5·3민주항쟁에서 주도적으로 인노련 집회를 준비하고 이끌었다는 얘기다.

기억을 복기할 기회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웃음) 인천에 살았다면 친구들과 하고도 어울리고 이전 추억담을 나누기도 했을 텐데.

인노련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나 다른 그룹들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집회를 준비했다. 당시 인노련이나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서노련')의 주된 구호는 '삼반정권 타도,' '삼민헌법 쟁취' 등이었다.¹ 민통련의 '민주헌법', 혹은 '직선제' 등과 결을 달리하는 용어였다.

인노련, 서노련 공동주최였어요. 민민투도 같이 했어요. 민민투는 아마 유인물 등에 표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무력 쪽을 담당해서 협상을 했지만 아마 다른 선들이 여러 비합[비합법] 조직, 크고 작은 단위들을 만나면서 이름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선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이름을 걸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민헌법 쟁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논쟁이 많았는데 통합된 구호였던 걸로 기억해요. 삼민헌법에 대한 이해도 다들 달랐고, 그런 논쟁이 깔끔히 정리돼 있지는 않았어요.

전희식은 인노련에서 대외담당 업무를 맡았다. 어떤 부서를 맡았다고 해서 부서 활동이란 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정확히 수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5·3을 준비하며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약칭 '민민투')와의 접촉을 시도한 건 그동안 인노련 내에서 활동영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희식은 민민투 학생과의 만남에서 인천을 향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선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때 만난 민민투 학생 얼굴이야 기억하지만 그때는 확인도 안하고 몇 가지 표시를 갖고 만났고, 나중에 볼 일도 없었으니까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5·3을 위해서만 만난 거였어요. 지금 만나면 아마 알 거예요(웃음). 애가 너무 통통하고 스포츠 머리를 했는데 아주 땅땅하면서 이쁜 친구였어요. 대표였는지 대외담당학생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굉장한 고난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자민투 쪽은 안 만났어요. 노선도 노선이고, 그쪽 무력이 약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계속 만나

1 「삼반정권 타도하고 해방된 민중의 새세상을 건설하자!」, 인천지역노동자연맹·서울노동운동연합·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면서 '5·3에 관한 무력 관련 논의가 단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서로가 모르는 여러 선들이 작동하는 거 같더라구요. 비공개조직들이 작동을 다 했고, 이걸 통합할 여력은 서로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과 합의를 잘 이루어내는 데 만족해야 되겠다.' 이게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었어요.

당시 전회식은 '5·3을 가두투쟁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기 위해서 '민통련 집회를 깨부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통련 집회 자체를 부정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직선제'라는 것을 기만적인 구호로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은 학생들과도 의견이 맞는 부분이였다. 인천5·3민주항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민투 그룹과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현장에서의 전술만 절충하면 됐다.

정사에 의하면 '5·3 집회, 5·3 직선제 요구 투쟁이 6·29를 끌어낸 도화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직선제를 가장 대중적으로 여론화시킨 기점이 된 게 5·3 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선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아주 기만적인 것으로 봤죠. 그때는 간선제이다 보니까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 구호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대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고의 혁명적인 구호는 직선제라고 하기도 했구요. 물론 인노련 안에서는 그걸 갖고 전면적인 사투를 전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던 건 아니에요. '5·3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정도만 있었죠. 인노련 내에서도 아마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있던 그룹에서는 직선제는 기만이라고 봤던 거죠. 너무 억압의 연속이었으니까 혁명적으로 분출될 수 있고 억압이 완화될 수 있는 게 직선제이지만 그런 걸로 직선제를 달콤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견해가 우세했죠. 학생들이 그런 견해였어요. 그걸 갖고 논쟁을 벌였다면 계속 시간이 지연됐을 텐데 그 정도로 논쟁은 놓아두고 전술에 대한 절충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쉬웠죠. 그 친구들은 '동인천을 타격하자.'는 거였어요. 주안부터 시작해서 동인천까지 중심도로를 축으로 해서 진출하지는 전술을 가져왔더라구요. 시민회관하고 석바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요. 그건 우리하고 맞았어요. 석바위에서 일단 점화를 하고 대중이 최대한 모일 때까지 소위 북치고 장구치고 하자는 거죠. 화염병이 날아다니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긴장도 높아지니까 시민회관 앞의 집회가 최대한 커지면서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석바위에 전선을 치자는 거였죠. 그 다음에 퇴각 형식으로 해서 동

인천까지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쪽은 샐러리맨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전철도 동인천역에서 가장 많이 내리니까 그렇게 하자는 전술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꽃병[화염병]을 은닉해야 할 장소까지 지정해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왔더라구요. 우리 쪽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거기까지 대열이 이어질 수 없는 데다가 차단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소위 소브루조아적 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대신 '주안공단을 점령해야 한다.'고 했어요. (웃음) 시민회관에서 주안역으로 가서 주안역을 그대로 넘어 공단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인노련은 주안공단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자의든 타의든 일부는 주안역을 지나 주안공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이런 구상은 인노련 자체의 구상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회식이 현장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했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쪽 대표를 만날 때 논쟁을 벌이면서 제가 현장에서 내 판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자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수배돼 있었으니까. 거기서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우세하면 내 주장이 관철되는 거였죠. 이런 사전 준비단계에서 무력동원 관련 역할, 특히 학생 쪽과의 관계를 제가 맡은 거예요. 서노련은 다 붕괴돼서 인력도 없고 무력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서노련하고는 이름은 같이 신자고 해서 이름 같이 올리는 정도로만 정리했어요. 실제 무력은 전부 다 인노련이 동원했죠.

민정당사를 타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학생들이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냥 묵인, 또는 방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력을 그쪽으로 안 빼겠다고 했어요. 사전 논의 결과는 합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전술을 얘기했던 것 같고 결국은 학생들은 동인천으로 진출을 했죠. 우리는 공단으로 갔구요. 그게 합의가 안 됐어요.

민통련하고는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합법공간을 열고 합법공간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서 비중을 많이 뒀으니까. 박계동 씨라든가 근태 형[김근태]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다 했구요. 근태 형은 83년도에 민청련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만들 때 준비모임에 가고 그랬어요. 가담은 안 했구요. 근태 형이 너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공

개를 해서 공개 활동으로만 하고 모두 날라갈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랬죠. 준비 모임은 역곡에 있는 근태 형 집에서 했어요. 그때 분위기를 익히라고 해서 몇 차례 참여를 한 적이 있죠.

학생들과 가두투쟁 관련 역량을 규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끝낸 후 단위별로 실무준비팀이 꾸려졌다. 인노련의 목표는 삼민헌법과 같은 '혁명적 구호를 대중화시킨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현 정권은 직선제든 무엇이든 어떤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5·3 이전에 우리 조직세가 굉장히 컸어요. 비공개 조직 동원을 500명까지 해냈으니까. 5·3때도 조직 동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어오는 현장 계획들이 잘 세워졌을 거예요. 현장 활동가 그룹이라면 일정한 역할이 주어졌겠죠. 자기 주변 친구들을 주안역가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끌어내는 역할, 유인물을 은밀히 배포하는 역할, 그럴만한 단위들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5·3을 준비하면서 무력투쟁, 연단 전략전술, 현장동원 이 세 축을 갖고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서,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어요. 어쨌든 노동자들을 이리로 끌어내는 거니까. 현장책임단위들도 있었거든요. 주안 쪽, 부평 쪽, 동인천 쪽 이렇게 세 현장 책임자들이 회의 때 올라왔어요. 이 친구들이 보고를 하고, 결정이 나면 쪽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구별로 책임자가 다 있었죠. 5·3 이후에도 상당기간 사무실 없는 채 활동한 게 한 1~2년 되는 거 같은데 그때도 현장 단위들은 꽤 활발하게 작동했어요.

조직 안에 비공개 영역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여러 크고 작은 단위들의 비공개 조직 중 공개부의 한 무리가 우리 인노련에 스며들어 왔을 거예요. 저는 양쪽을 일찍 다 봤으니까. 승조 형이나 지선이 형 같은 경우는 불만이 컸죠. 맨날 말이 뒤집히니까. 자기 조직에 가서 다른 걸 들고 오잖아요. '안개'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로 굴러가다 보니까 빠뜨덕거리면서도 이 친구들은 어쨌든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절충도 해내고,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인노련 운영과 의사결정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실무준비는 단위별로 맡겼어요. 가두투쟁 용품준비팀, 화염병 준비팀, 선전물 준비팀,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했고, 준비한 것은 어디로 집결하기로 했죠.

특히 무력조들, 연단을 보호하는 무력조는 30~40명 정도 편성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누군지는 나는 전혀 모르죠. 7~8명 정도 수준에서 공개되는, 소위 동을 뜨는 진영이 구성되고, 이 진영끼리는 서로 알아요. 모두 구속될 거니까. 거기에 기화 형[서기화]이랑 나랑 다 포함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우리도 모르고 서로 만날 필요도 없는 무력 호위조가 있었어요. 30~40명 넘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 학생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연단을 철저히 호위하는 조예요. 각자가 필요한 거는 각자가 준비하는 걸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리어카, 앰프, 각목, 기타 등등을 인노련 돈으로 했을 거 같고, 학생들이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을 준비했을 거예요.

리어카 주력군

5·3전날은 서울에 있었다. 수배중이었기 때문이다. 거처를 옮겨 다니던 때였다.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도 다 정해서 집회 시작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전에 도착했다. 이미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였다.

현장에서는 연단에서 계속 떠들어댔죠. 아마 유인물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 정권의 야만성, 혹은 민통련이나 민청련 관련 유인물들도 계속 나왔으니까 그런 데 실린 내용들. 이런 걸 폭로하거나 했고 구호 제창을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연단은 교대로 올라갔는데 최고책임자는 저와 기화 형 둘이었던 거 같구요.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사거리에서 석바위 방향 중간, 그러니까 주안1동성당 앞쪽 부분에서 연단을 구성해서 선동을 시작하는데 이미 석바위 저쪽에서 붙어버렸어요. 누가 먼저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붙어버리니까 최루가스가 자욱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이게 원래는 일반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걸 전제로 대중적인 언어로 선동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능이 꽤 좋은 앰프도 사 갖고 와서 마이크를 작대기 박아서 양쪽으로 달았을 거예요. 근데 뭐 바로 싸움이 붙어 버리니까 주변에 싸움꾼 외에는 거의 없다가시피 했어요. 대회가 열리니까 시민회관 앞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고, 아마 그쪽도 동원된 사람들이지 일반시민들 얼마 안됐을 거예요. 제일

시장 쪽은 싸움이 안 붙었구요. 그쪽은 진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벌이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그쪽에서 온 대중들은 시민회관 마당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은 별로 없어서 주로 구호중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일반인 대상으로 연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싸움꾼만 있다 보니까 구호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민통련 집회 현장에 일부 군중들이 스크림을 짠 채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통련 쪽 사람들은 명백히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의 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희식은 지시 체계 속에서 벗어난 소규모 그룹이거나 학생운동그룹일 수 있다고 말한다. 비록 민통련 집회를 부정하기는 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길 만큼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민통련 집회 장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겹쳐요. 우리가 자꾸 그쪽을 힐끗거리면서 욱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쪽을 깨자고 하는 말이 나왔어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게 이미 싸움이 붙어 버려서, 싸움 붙으면 서로 먹살 잡고 욱도 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밀고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밀리니까 성당 지붕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왓장을 뜯어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성당 지붕에서 도로 위로 던지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민회관 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자.'라든가, 애초에 나왔던 얘기대로 진행할 경향이 없었죠.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서로 약간 소음이나 인원이 중첩되는 게 있긴 해도 서로 개입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인노련의 주력 세력은 리어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주안역까지 이르는 경로가 5월 3일 인노련의 주요 동선이다.

우리 호위조는 진짜 헌신적이었어요. 끝까지 리어카를 놓치지 않았죠. 리어카가 주안역까지 진출했거든요. 우리가 퇴로를 그쪽으로 잡았으니까. 사거리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틀고 보니까 주안역 쪽에서도 페퍼포그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싸움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했죠. 싸움이 있으니까 페퍼포그가 오죠.

그래서 석바위 쪽 진영 말고, 이거는 우리가 기획했던 거니까, 다른 단위들도 나름의 가투 준비들을 하고 온 그룹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안역 방향은 우리가 전략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곳인데 싸움이 벌어졌으니까요. 그쪽 경찰 병력들은 굉장히 약했어요. 리어카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페퍼포그가 등장하고 가스가 가득하다가 또 경찰은 약간은 취약하고 그러다가 페퍼포그가 밀고 들어오고 그렇게 이수라장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 전술들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한 게 현장 상황이 워낙 변수가 많아졌고 또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계획대로 진행된 건 주안역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대오를 틀었던 것, 그러다가 페퍼포그를 만났던 것 정도까지가 계획에 의한 조직적인 임무수행의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요. 리어카를 끌고 역까지 가고 역에서 앰프랑 이걸 어느 조그마한 자영업자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맡겨놓고 (웃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했으니까요. 맡겼던 앰프는 찾으러 안 갔어요. 이미 수배가 다 돼 버렸는데 찾으러 가면 잡히니까요.

주안역 앞에 도착해서는 철로를 지나 주안공단으로 진입했다. 전희식은 공단 노동자들을 유인해 집회를 벌일 생각이었으나 막상 공단 안으로 들어가니 노동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잔치를 벌여서' 유인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본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조우한다는 건 계획에 있던 거였다. 부평, 동인천, 주안 쪽에 현장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전달이 됐다고 한다.

주안역이 고가도로로 넘어다니는 거였는데 구름처럼 몰려갔으니까 역사도 점령했죠. 선도부대가 가니까 일반 사람들도 따라갔어요. 엄청 몰려갔어요. 거기서 공단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퇴근하는 노동자가 없었어요. 전부 잔업을 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주안공단 전부 다 퇴근을 안 시켰어요. 퇴근 시간을 우리가 겨우 맞춰서 유지를 한 건데. 내 기억에는 그 때 바로 '퇴자!'고 했던 거 같아요. 노동자들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계획이 실행될 수 없었어요. 서울로 갔죠. 멀리 튀자고 해서요. 한 10시 쯤이었던 것 같아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서 꽤 배회를 했던가 그랬겠죠.

주안역 쪽에는 경찰이 없었어요. 우리가 담을 밀고 할 때도 없었어요. 이쪽에는 화염병도 없었으니까 다른 쪽에 크게 붙은 쪽으로 다 간 거 같아요. 주안역에

서 잡힌 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배회하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술을 전달받은 하부단위는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고, 또 현장에서 대열을 지휘하지 못하잖아요. 지휘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주안에서 많이 배회해서 잡힌 것 같아요. ‘무슨 전술이 구사될 거다. 노동자들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것만 전달되고 그 이후는 전달이 안 되니까 아마 그 분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주안역을 넘을 때도 경찰은 없었어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때로 가고, 저쪽에서 계속 가투가 벌어지니까 그리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내 기억에 경찰들이 거의 없었어요.

학생들의 경우는 결국 동인천까지 진출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때 나한테 알려 주기를, 한 2~3백 미터 간격으로 화염병을 은닉시켜 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자취방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쓰레기통 속이라든가 그런 곳이에요. 화염병을 총 5천 개 만든다던가. 그런 것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자기들 진로에 따라서 숨겨놓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단일대오는 아닐 테고 간헐적으로 막히면 우회해서 그쪽 가서 화염병을 꺼내 와서 싸우고 하면서 동인천까지 진출을 했을 거예요. 동인천까지 진출해서 싸우다가 안 되면 답동성당으로 들어가서 농성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계획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행이 됐으면 언론에 나왔을 텐데.

저는 준비팀의 준비상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보고만 받았어요. 제가 준비가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됐다는 걸 알아야 동 뜨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기로 한 거 준비 끝났다.’ ‘호위조들이 검단 야산에 가서 화염병 투척 실습을 두 차례 잘 끝냈다.’ ‘화염병 성능 검사도 완벽했다.’ 이런 보고만 받았죠. 그때 화염병은 점화력, 폭발력 기준으로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신나 비율, 석유 비율, 다 맞춰서. 그걸 어디에 숨기고 하는 거는 전혀 저는 보고 받을 예정도 없었고, 보고 받지도 않았어요.

‘삼민’과 인노련의 분화

전희식은 이미 이전부터 대우자동차 3차 개입 문제로 수배중이었다. 인천5·3민주항쟁으로 500만 원에 1계급 특진이 걸리며 다시 수배가 떨어진다. 다방이나 전봇대에 지명 수배 전단이 붙었고 수사관들의 추적도 심했다. 해고되며 수배가 시작된 후 거의 7년여

간을 수배생활로 보낸다.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

안 잡혔죠! 그래서 그때 ‘전길동’이란 말도 나왔어요. 세 번 붙잡히긴 했지만 다 탈출했어요. 한 번은 48시간 묵비권 투쟁을 해서 제 신분을 못 알아낸 적도 있어요. 그때 재미있었던 게, 명동성당에서 금요일 밤 늦게 잡혀서 일요일 밤 늦게 48시간 만에 풀려났거든요. 풀려난 지 두시간만에 신분이 드러났어요. 다시 습격을 당했는데 튀었죠. 또 한 번은 잡혀서 수갑 다 채워지고 차에 실렸는데 구출대가 와서 경찰들 다 때려잡고 그러기도 했어요. 혈안들이 돼 있었죠. 1계급 특진에다가 5백만 원 현상금이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1계급 특진이 굉장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5·3은 폭력에다가 뭐 죄목이 많았어요. 기본이 폭력이고, 서너 개가 붙었어요. 그때 포스터를 한 장 떼 갖고 보관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천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주로 서울, 경기, 이쪽으로 거의 1, 2개월마다 거처를 옮기면서 지냈어요.

수배 생활 중 인노련이 ‘깨졌다.’ 전희식은 인민노련 전위조직으로 들어간다.

‘구인노’는 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를 말하는데 이게 인노련이 되면서 여러 비공개 조직들이 합류를 했어요. 삼민헌법이란 말도 ‘삼민’이란 비합조직이 있었거든요. 이○○하고 박○○, 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삼민 조직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협의회에 들어오면서 명칭을 바꾼 게 인노련이 된 거예요. 승조 형[양승조]은 우리 회원들이 늘어난 걸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때 ○○는 완전히 삼민 핵심 프락치였거든요. 저는 알았죠. 승조 형이 늘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이놈들이 맨날 말을 안 듣거든. (웃음) 결정을 뒤집어엮기도 하고.

인노련으로 다른 비합조직이 확 들어오기 전, 그 멤버들을 구인노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나하고, 김명중, 지선이 형[김지선], 승조 형, 기화 형, 이렇게 구인노 핵심이죠. 인노련이 되면서 강화가 됐죠. 저는 인천지역 노동자복지협의회 법규부장을 했어요.

전희식은 삼민 그룹이 인노련 안개 조직의 주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본다. 인노련의 안

개 조직은 서노련 안개조직과도 연결돼 있으면서 무력과 정보를 모두 갖춘 조직이었다. 당시에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김새’는 보였다.

삼민은, 우리가 그 친구들을 삼민주의라고 불렀거든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인노련 구호에 삼민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원래 단체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삼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친구들이 삼민 구호를 내걸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부르는 조직 명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직 명칭을 쓰지 않고 주로 구호나 주장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니셔티브를 드러내려고 할 때였으니까. 승조 형이 나중에 “삼민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삼민이야?” 이런 적도 있었어요. (웃음)

안개조직을 이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지도부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아마 그 친구들은 인노련을 지도의 대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안개조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인노련의 지도부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으로 봤다.’고 하는 게 좋겠죠. 승조 형이 그런 걸 용납을 못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독자적인 대중활동체로서의 자기 의사 결정력을 꾸준히 행사하려고, 발휘하려고 매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개는 무력과 정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학생망과 서울 쪽, 전국망이 다 있었죠. 이미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하고 우리는 거의 독립화 되다시피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아서 문수 형[김문수] 중심으로 학생들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류를 한 거죠. 합류할 때 지선이 형 역할이 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쇠신해야 한다.’라고 했죠. 합류를 해서 우리는 굉장히 활발해졌고 여러 사업도 벌이고 했는데 원동력은 안개친구들이었죠. 전국망도 있고 정보가 특히 정확했고 서울 쪽의 조직들과 연계하고 있어서 굉장한 원동력이 됐죠.

안개조직이 있다는 김새를 저는 알았어요. 또 그것이 발설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저도 지하조직에 관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인민노련을 제가 조금 있다가 가입해요. 인노련이 활동력은 폐쇄해도 아마 조직은 남았을 거예요. 제가 인노련에 있으면서 인민노련 활동을 했으니까. 인민노련 들어갈 때 입당식을 굉장히 엄숙하게 했어요. 우리가 당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부에서는 전위당으로 봤어요. 명칭은 인민노련인데 전위당으로 봤죠. 입당식은 외진 데 가서 했어요. 선서도 하고.

안개 조직과 인노련 공개지도부와의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다. 물론 공개적으로 대립 관계가 형성됐던 건 아니다. 무엇보다 많이 부딪힌 건 합의사항에 대한 빈번한 번복 때문이었다. 회의 과정 등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인노련 공개지도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기도 했다.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승조 형이 잘 알거예요. 합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진 않았으니까 결정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문제는 합의를 깬다는 거죠. 번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무실이 있다가 나중에는 수배되고 그러면서 사무실 없이 활동을 했거든요. 권인숙 사건 있을 때까지 인노련 회의는 있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할 때죠. 오죽하면 성심여대 뒷산에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87년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번복되고 재결정되고 이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많았던 거 같아요. 결정을 했는데 번복되는 과정에서는 저쪽의 논리가 우세했죠. 근거 제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발을 하다가도 논리에서 지고 밀리고 하면서 번복되고 이런 기억이 어렵듯이 나요. 구체적인 사안은 기억나지 않구요.

인노련은 5·3이후 분화된다. 전희식은 ‘다변화’란 표현을 썼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지도부의 구심력에서 찾았다.

첫 번째는 지도부의 구심력이 약화됐고, 약화되니까 생업 쪽으로 자기를 끄는 쪽이 있었고, 수배 되고 하니까 활동공간도 위축돼 있었죠. 또 하나는 5·3투쟁이란 걸 거치면서 내부 논의가 공개적인 대중투쟁, 직선제의 실현 가능성, 이쪽으로 많이 전환됐던 거 같아요. 전에는 이런 쪽의 통로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봤는데 5·3투쟁을 거치면서 그쪽 활로가 상당히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죠.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지형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내부 논란이 훨씬 더 다변화된 것도 있을 거예요.

전에는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화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자기 활동의 위상을 ‘대중적인 노동운동’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전면화될 만한 논쟁이 크게 없었죠. 만약에 ‘한국혁명’ 이렇게 잡았으면 논쟁이 컸을 텐데 ‘인천지

역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수행한다.' 또, '현장 조직을 지도한다.' 이런 걸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동상이몽하는 그룹들도 있었겠죠. 그래도 논쟁의 영역은 이렇게 딱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5·3이전에 큰 분란을 일으킬만한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광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투쟁’이었어요

정동근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조직원



- 1954년 전주 출생
- 1974년 군대 입대
- 1985년 동보전기 투쟁으로 구속
- 1986년 4월 23일 출감
- 1987년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사무장
- 현재 개인택시운전사. 민주평화 초심연대 지도자문위원

동보전기 노동조합 활동

정동근은 인천5·3민주항쟁 직전, 동보전기 투쟁으로 구속되었다가 1986년 4월에 출감했다. 1974년부터 1982년까지는 군대에 있었다. 정동근은 동보전기 노동조합에서 일하던 중 1985년 12월 13일, '체불임금 청산, 회사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 관리본부 상무이사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농성 중이던 조합원 13명이 모두 연행되었으며 농성 과정 중에 조합원 조광철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2월 16일에 동보전기 노동조합 위원장 이형범과 총무부장 정동근은 집시법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는 노동조합 운동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다. 정동근은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화 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인천5·3민주항쟁을 겪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5·3항쟁에 저는 사실 단순참여 성격이었어요. '뺨'[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될 때였어요. 86년 4월 23일에 출감해서 열흘이 지난 후였죠. 지역사회정이나 운동상황을 잘 몰랐던 상태였어요. 85년 12월 동보전기에서 일할 때 체불임금 청산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13명이 부평4공단본부에서 점거농성을 했어요. 이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투신하고 2명 정도가 심하게 다쳤어요. 이 일로 두 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였어요. 이때는 대한마이크로전자 투쟁 등으로 정부에 의한 민주노조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82년 1월에 군대 제대 후 콘크리트업체, 대성목재 등 사업체를 다니다가 84년에 동보전기에 입사해서 노조준비위원장을 했어요. 군대에는 74년 3월에 입대해서 82년 1월까지 거의 8년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동보전기 모임을 하고 있고 장학금도 내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만원 내고 있어요. 장학기금을 형성해서 우리 애들한테 1년에 100만원 씩 장학금을 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동보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죠.

출감하자마자 인노련 회원이 됐기 때문에 인노련으로 참여하기는 했는데 조직단위로 단순하게 참여했죠. 인노련 차원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에 서너 명과 함께 갔어요. 5·3항쟁 때 동보전기 출신도 많이 봤어요. 이 때 대부분이 참석했어요. 이 중 인노련 출신은 나하고 이형범 등 서너 명 정도였

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팀이나 씨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5·3현장에는 12시에 도착해서 시민회관에 있다가 주안역으로 이동했고 다시 시민회관 쪽으로 와서 참여했어요. 출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이 없어서 인노련 골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인노련 골방은 대부분 한 달에 1번씩 옮겨가면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인노련의 입장

민통련과 인사련, 그리고 인노련과 서노련은 투쟁방침이 달랐다. 정동근은 인노련 회원이었다. 주된 주장은 '삼반세력 타도하고 삼민정권 수립하자'는 것이었고, 조직적으로는 PMO(정치적 대중조직) 노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민정당과 전두환정권이 신민당과 일정하게 야합하려는 기미가 보였어요. 이에 대해 인노련은 '삼반세력 타도하고 삼민정권 수립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웠죠. 이후에 주사와 세력에 의해 비판받았는데 우리의 '삼민 주장'이 주체와 목적이 혼동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 때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을 타도하자는 주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삼민노선은 5·3항쟁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인노련은 이념적으로는 삼민주의, 조직적으로는 PMO(정치적대중조직)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5·3대회에는 12시에 만나기로 하고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서 가는 것도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만나기로 한 거지요.

5·3항쟁 때 구체적인 지침을 짠 것 같지는 않아요. '해방 공간'을 만든다거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난 인노련의 최말단 회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지침 같은 걸 받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것은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약칭 '해투위')에 있었던 신정길 선생이 잘 알 것 같아요. 그 때 내 나이는 32세였고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5·3투쟁은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민주노동조합 활동조차도 탄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동보전기 노동조합 활동으로 교도소에 가 있을 때에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노조투쟁으로 감옥에 갔거나 감옥에는 안 갔어도 해고자

가 되었거나 간에 모두 노조활동가들은 정치적 각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일상적으로 노사문제가 생기면 경찰 정보과, 안기부에서 항시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 동보전기는 어용노조가 있었어요. 난 군대에서 8년이나 있어서 중사로 제대했는데 경찰이 '중사 출신이 그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인노련은 인천5·3민주항쟁 이전부터 3·29투쟁과 4·30투쟁을 조직하여 가두투쟁을 했었다. 정동근은 당일에는 인노련 회원으로 참가했지만 그동안 노동자들 간에 교류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1985년 동보전기 조합원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인천5·3민주항쟁에서도 인노련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투쟁'에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3항쟁에서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오늘 시위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5·3항쟁 전에 인노련이 조직한 3·29투쟁, 4·30투쟁 등 가두투쟁도 몇 차례 있었어요. 물론 5·3항쟁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쟁은 아니었고 주로 조직원들이 참여하는 가두투쟁이었어요. 그 전에 사업장별로 상호 지원투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 간에는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 덕에 몇 백 명 정도는 얼굴을 아는 정도가 되긴 했어요. 이른바 선진노동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도 구속되기 전에 두 차례 학습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대우자동차 친구들과 학습을 했었고 그 때 송정평, 홍영표, 한광우 등을 봤던 기억이 나요. 「전환시대의 논리」를 함께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논란도 조금 있었어요. 노동자 출신들끼리 몇 개 사업장에서 모여서 학습을 하기도 했어요.

5·3항쟁 현장에서는 주로 시민회관에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경찰과 타격전을 했어요. 나중에 완전히 해산할 때에는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안역 가서 담을 밀어뜨리고 차를 못 가게 하기도 했죠. 인노련은 석바위 쪽에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오후 8시 쯤 200명 정도 모여서 해산집회를 하고 마무리했어요. 당시 인노련의 공식 의장은 양승조 선배였는데 비밀지도부로 '안개그룹'이 있었어요.

각 팀별, 조별, 현장별 조직이 있어서 비밀지도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5·3항쟁 당시에는 나는 아직 안개그룹이나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몰랐던 상황이었죠. 내가 5·3투쟁에서는 인노련 조직으로 단순참가자로 참여했어요. 단순참가자였지만 현장에서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게 되었던 거죠.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

정동근은 인천5·3민주항쟁이 대규모로 사회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에 나섰다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신민당 현판식이라는 공간에서 독재정권과 야당에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인천5·3민주항쟁에서 노동자, 학생,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 단합해서 질서정연하게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평가하고 있다.

노조활동을 뛰어넘는 대규모 정치투쟁에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나섰다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전체적인 정치투쟁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데 깊은 의미를 두었어요. 그런데 사분오열되고 구호도 각각이고 투쟁이 이수라장으로 보이는 것은 한계성으로 보였어요. 노동자, 학생,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 투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경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각 그룹이 다른 주장과 다른 행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안타까웠어요. 구호 중에서는 '군사독재 물러나라'는 것은 다 통일적인 것이었고 인노련은 삼민주의를 주장했는데, 다른 구호로는 '제헌의회 소집하자' 또는 '미제축출, 파쇼타도' 주장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구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진보진영이 이렇게 사분오열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하는 행사인데 인노련 중심으로 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단체별로 단합해서 함께 질서정연하게 나가지 못한 면에서는 안타까웠어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일정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나도 정치투쟁의 일원이 되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다짐을 했죠. 조직적으로는 '5·3투쟁을 통해서 단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구요. 5·3투쟁 당일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투쟁이 정부와 야당에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투쟁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동근은 인천5·3민주항쟁이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를 잇는 투쟁이었고 목적의식적인 대정부투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5·3민주항쟁의 경험으로 1987년 6월항쟁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노동자대투쟁에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3투쟁은 광주의 아픔을 딛고 정부에 대한 목적의식적이고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 것이라고 봐요.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쟁했지만 5·3투쟁은 목적의식적으로 대정부투쟁을 한 거죠. 당시에 노동자와 민주노동진영 및 야당까지 함께 투쟁을 했던 경험이 가장 커요. 5·3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민주투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 차원에서는 5·3투쟁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인천시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내부에서도 5·3투쟁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점도 있어요. 다만 자체적으로 매년 5·3항쟁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편이죠. 당시에 인노련은 가두투쟁을 주장했지만 민통련처럼 평화집회를 주장하는 그룹도 있어서 투쟁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5·3투쟁 때 가두투쟁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우리보고 박수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폭력시위를 거부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비교적 침묵을 지키는 분들이 다수였지요. 당시 시민회관에서는 최대 약 5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 내적으로 분열상을 보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잘못된 투쟁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한계적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5·3항쟁은 광주학살 민중항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시민사회진영들이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화투쟁을 전개해서 6월항쟁을 예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요. 결국 인노련, 서노련을 대표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치단체도 있었고, 기노련도 있었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섰고, 앞으로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투쟁이었어요. 5·3항쟁은 6월항쟁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 인정과 같은 대정부투쟁의 성격도 있어서 단순히 임금인상과 노조결성 요구를 넘어선 민주노조 설립과 같은 정치적 투쟁과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봐요. 5·3항쟁 30주년을 계기로 많은 주체들이 5·3의 의미를 주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해요. 이를 계기로 민주진보시민 진영이 역사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집회였어요

정성렬

놀이패 '한광대' 대표



- 1959년 인천 출생
- 1979년 서강대학교 입학
- 1982년 서울 애오개소극장 활동 참여
-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에 길놀이 주도 / 놀이패한광대 결성
-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초대 의장

탈춤을 통해 바라 본 세상

정성렬은 인천 출신이다. 초·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다. 대학은 재수를 해서 서울로 다녔다. 그때는 각 대학에 '탈반' 혹은 '민속극연구회'란 이름의 동아리들이 1970년대초부터 속속 생겨나고 있었다. 본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적어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대사조인 것처럼, 마치 사명감처럼 '운동'을 담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성렬은 대학 입학 후 스스로 찾아가 탈반에 가입하고부터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간다.

저희 부모님은 1·4후퇴 월남하신 분들이세요. 차이나타운 바로 밑 언덕길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애오개소극장에서 주로 일을 했었죠. 82년에 만들어진 애오개 소극장에서 창립멤버로 활동했습니다. 문화예술 각 장르별 일꾼들의 총합체로서 진보적 활동을 위한 협의체이자 공동 문화예술창작의 산실이었습니다. 흥대 탈춤반출신이 중심이었던 미술패 두령이 창립예행전을 열게 돼요. 창작 풍자 마당극 "두령" 공연도 있었구요. 82년 겨울 인가, 83년 봄인가 그럴 겁니다.

대학은 서울로 다녔어요. 민속극연구회란 동아리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며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탈춤반은 당시 학생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지요. 체계적으로 지속된 학습과 실증적인 실천 활동은 탈춤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많은 선후배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감옥에 가는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압제와 비민주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고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마당극이 채희완선배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탈춤을 발전적으로 대체하며 급속도로 자가발전을 하게 됩니다. 80년경엔 수시로 단막극 형태의 마당극을 만들어 공연할 정도로 치열하게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급조한 탓에 완성된 대본없이 공연할 때는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되곤 했었지요. 물론 완성도 높은 정기 공연도 있었지만. 전통 탈춤은 민중의 애환을 보듬고 해학과 풍자로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종합예술이지요. 사회변혁운동을 담보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담아내는 훌륭한 유산인 셈입니다.

탈반에서는 기능과 더불어 정치, 경제, 철학, 문화예술, 교육, 역사 등 인문학에 관한 총체적인 학습을 받았다. 각 대학 탈출반들끼리 교류도 있어서 대학 탈출반 간의 연대 조직도 결성됐다. 한 대학에서 행사가 있으면 다른 대학 팀들이 지원을 나갔다. 정성렬은 인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하대나 인천교대, 경기간호전문대 등을 나가 탈출을 가르치기도 했다. 정성렬의 삶은 사실상 탈출반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됐다.

세상에 거의 알려진 바 없지만 인천지역에도 문화패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습니다. 79년도에 연대 탈반출신의 현광일선배, “한두레”에서 활동했던 임명구선배, 그리고 황선진선배. 이 분들이 주축을 이뤄 지역운동, 문화예술운동을 축으로 하는 사회변혁에 뜻을 두고 실천에 들어 갑니다. 곧 10여명이 함께 하게 되지요. 화평동인 듯한데 당시 은율탈출 전수관을 빌려 춤, 악기연습과 더불어 계획된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도 맹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시간 집중공부도 했었구요. 지향점을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지역문화운동이었어요. 준비과정에서 팀은 자진해체를 하였지만 모두 사명감과 목적의식은 상당히 고무됐던게 사실입니다. 광주 이후에 지역문화운동을 넘어 “자기가 소속한 곳에서 좀더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발전적 해체를 한 거였어요. 지금도 비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임명구선배, 당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채홍기선배, 고규홍, 장석홍등이 그들입니다. 다른분들도 각자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였지요.

문화패 모임이 80년을 거치며 해소된 후 정성렬은 야학활동으로 눈을 돌렸다. 한편으로는 마당극을 연출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생활이 몇 해 동안 이어지다가 1982년 서울 애오개소극장에 합류한다.

80년 이후에는 지역 문화조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는 없었구요. 단지 대학 탈반만 존재했던 것 같고 지역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했어요. 노동야학 일이 많았었네요. 정신적, 물질적? 지주이셨던 호인수 신부님과 함께 했던 성심야학과 한길야학이 있었구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근태선배님과 자리했던 YWCA 노동야학이 있었고, 특히 안양 노동자회관야학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임명구, 유동우선배와 함께 했지요. 한편으로는 창작마당극이었던 “예수전”, “공장의 불빛” 등 뛰어난 작품으로 교회나 학교, 단체에 가서 연출을 담당하고 공

연도 했었죠. 인천이란 곳이 특이해요. 다른 도시에 비해 학연 등의 연고가 비교적 느슨한 것 같아요. 특히 문화적으로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초라하고 소외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82년에 황선진 선배의 제안으로 북아현동에 있는 애오개 소극장 창립에 합류하게 됩니다. 탈출반 출신이 많았어요. 황선진 선배와 이야기꾼 홍석화 선배, 마당극의 채희완 선배, 민중미술의 김봉준 장진영 연성수 선배, 민요의 김애영 선배, 영화 평론 곳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그 때 막내로서 김원호 선배와 풍물과 놀이를 맡았구요. 그해 겨울 가톨릭 농민단체의 결성을 목적으로 안성 미양면 갈전리에 파견되어 장기간 활동하게 됩니다. 83년 가을에 군대에 갑니다.

숨막히는 길놀이

85년에 제대를 하고 나오니까 동료들이 다 감옥에 있거나 졸업했거나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던 때여서 저는 그때부터 지역활동에 전념하게 돼요. 85년 제대하 업자마자 처음 시작했던 게 놀이패 한광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기획하게 돼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79년도에 시작했던 문화패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다들 자기 역할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간 게 송성섭입니다.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갔어요. 그날 밤에 퇴근하는 성섭이랑 소주 마시면서 설득을 했죠. 그때 성섭이는 노동현장에 있을 때였어요. “너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 많아. 노동운동 할 사람 많아. 너는 나와서 나랑 문화운동 할 놈이야.”라고 했죠. 참고로 성섭이는 같은 대학 문화패입니다. 결국은 동의를 받아 내서 같이 하게 되면서 친군만마를 얻었고, 당시에 부평에서 지역활동을 하던 박영준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섭외를 해요. 오래 전 간암으로 먼저 갔지만, 또, 가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고등학교 동기 중에 신영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명이 다 동갑내기였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을 때 문화예술적 전문성을 담보해내지 않고는 어떤 설득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놀이패 한광대를 만들게 돼요.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86년 내내 준비를 하고 가을 정도

에 결성했죠.

정성렬은 한광대를 출범시키기 이전에도 지역활동은 계속 해 오고 있었다.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에서도 객원 활동을 하며 개인 차원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1986년 5월 3일의 집회에서 역할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황선진 선배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집회를 만드는 데 성렬이 네가 앞에 나와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팽과리를 들고 집회 장소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잠시의 고민도 없이 “하겠습니다.” 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열댓명 정도로 풍물패가 구성이 됐어요. 민문협 멤버 들하고, 지역 내에서는 저하고 연고 있는 대학 쪽 졸업생들이나 재학생, 일부 가청 문화패 들이 참여했죠.

팀들은 당일 만났어요. 약기가 주안1동성당에 일부 있었을 거예요. 일부를 전전날인가 옮겼고, 그날 참여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성당에 모였어요. 지하에 모여서 온갖 ‘만장,’ ‘플래카드’를 준비했지요. 준비해 왔던 걸 대나무에 묶고 하던 기억이 나요. 그 때 쓰였던 대나무는 제가 배다리 근처에서 직접 구입해서 미리 가져간 거였어요. 나중에 선진이 형[황선진]인가 호웅이 형[이호웅]이 문화패를 따로 모이게 해서 역할에 대한 지시를 내렸죠. 민통련 집회를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산개되어 있는 대중들을 모아서 집회장소를 꾸리는 역할을 부여바닷죠. 내가 받은 임무는 그거 하나였어요.

이 대목에서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요. “너가 이 일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할 중에 네가 최초로 플래카드 앞세워서 튀어나가는 거다. 그 뒤에 관계자들이 줄지어 나갈 것이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나보다 누가 먼저 튀어나갔어요.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행사를 준비했던 한 단체가 구호를 외치면서 먼저 튀어나갔어요. 그렇게 기억나요.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어, 이거 왜 이리지.’ 하면서 저도 ‘나가자!’ 하면서 앞에서 치고 나간 기억이 나는데 애초에는 그게 아니었죠.

밖으로 나가보니 석바위 쪽에 사람들이 엄청 있었어요. 신기촌 방향의 민정당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도 많이 있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바로 집회를 열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제 임무는 거기까지였거든요.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한 판 신나게 놓고 대중의 시선을 모아서 그 장소를 바로 집회 장소로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안 됐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어수선했어요. 집회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따로 놀았어요. 제가 풍물패를 끌고 기계공고 방향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 귀신에 홀린 거 같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구경꾼들 모으려면 길놀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주변을 돌자고 했겠죠. 길놀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중간 중간에 선진이 형이나 다른 분들이 지시도 있었어요. ‘준비 안 됐으니까 좀더 시간 끌어.’라든가 그런 거죠.

시민회관으로 오자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막 집결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제 역할은 끝났죠.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집행부도 일부 따라왔구요. 길놀이 하던 앞에 플래카드가 일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일관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주저할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하여간 숨막히는 길놀이였어요. 그런 길놀이는 처음이었어요. (웃음) 우리 역할이 끝난 뒤에는 다 개별 ‘투사’로 자기 역할을 했어요.

약기는 다 버렸던 거 같아요. 이미 성당 안에 경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기를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디에 숨겼거나. 그건 잘 몰라요. 길놀이가 끝난 다음에 풍물패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저는 팽과리를 뺏속에 넣어 두고 다녔거든요, 가벼우니까. 하지만 장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웃음)

정성렬은 인천5·3민주항쟁이 철저하게 실패한 집회였다고 평가한다. 준비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재했던 데다가 동지로서의 애정과 믿음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도 든다.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집회였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평은 하고 싶지 않지만 뭐 했나 싶기도 해요. ‘목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중들한테 과연 명확하게 전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구요. 저는 민통련 집회로 알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개헌 투쟁 집회로 알았죠. ‘다른 단체들도 연대해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과격시위도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전부터 시위는 많이 참여했지만 그날 집회가 학생들도 아니고 일반 사회운동 단체가 집회를 주

도했기 때문에 몸싸움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고 처음에는 순차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그렇게 열렬하게 투쟁으로 갈 줄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리 갔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가.'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운동적 성향도 그날의 영향이 좀 많이 좌우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인문연 초대 의장을 하면서 많은 구성원들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오랫동안 준비하고 결성했던 인문연을 떠납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조금한 정치조직화에 대하여는 반대했었어요. 정치투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중 조직 없이 일반 선진그룹들의 치열한 투쟁으로만 국한된다면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탄탄한 대중조직을 만들어 가길 원했죠. 대중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화가 갖는 좋은 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는 대중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정말 많은 대중조직들이 만들어져요.

5·3이 기본적으로 개헌이나 민주화를 목적으로 했던 투쟁이고, 집회였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집회의 기본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갔잖아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조직들이 헤게모니 싸움 양상을 보임으로써 운동권의 분열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전 5·3이 전적으로 6월항쟁으로 이어진 도화선 내지 모태가 됐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5·3은 자체만으로 실패한 집회였다고 생각해요. 집회 지도부(민통련, 인사연)의 어설픈 연대와 합의로 올바른 대중투쟁의 구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좀더 합일되고 상호 신뢰하는 동지애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충실히 하는 자세가 아쉬운 거죠. 인천이 노동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잖아요. 좀 더 잘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인천5.3민주항쟁의 난장적 축제로 민주화운동 열어

최원식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지도위원



- 1949년 인천 출생
- 1982년 인하대교수
- 1986년 서울대 국문학 박사
- 1986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지도위원
- 1996~2005년 창작과비평사 편집주간
- 현 인하대 명예교수,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과 교수 시국선언

최원식은 인천5·3민주항쟁 당시 인하대 교수에 재직 중이었고 인사련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에는 독재정권 상황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교수 및 전문가 계층에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기였다.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은 1984년 11월 19일에 결성하며 창립선언문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인천지역의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적극 동참 지원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모든 주체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이기심과 퇴폐적 향락주의, 부당한 남녀차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에 최선을 다한다.'가 그것이다.

최원식은 인사련 지도위원으로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1980년대에 운영했던 '시민학교'라고 한다. 당시에는 인사련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및 종교운동단체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인사련 시민학교에서 강의하였던 인천 향토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천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상태여서 1950년대 인천이 지녔던 정치적, 경제적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사련에 지도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일 저일 많이 끌려 다녔죠. 인사련 시민학교를 중심으로 그 시절엔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시민학교에 대해 인사련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시민과의 접촉 통로로 만든 거였어요. 시민학교가 대단히 활성화되었어요. 운동 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루어졌어요. 저는 주로 인천 향토사를 주제로 했어요. 인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어요. 인천에 와서 보니까 내가 어릴 때보다 더 주변화 되어 있더라고요. 서해안의 항구는 분단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인천은 홍콩, 마카오 등과 연결통로가 있어서 군산, 목포 보다는 안 망했지. 원조경제 창구로 인천은 그래도 숨통이 있었는데, 50년대 인천 출신 정치가들이 계속 몰락해요. 남로당 2인자였던 이승엽이 먼저 날라 가고, 죽산 조봉암도 사회민주주의자인데 59년에 처형되어서 끝나고, 4월 혁명으로 장면이 총리가 되었지만 5·16으로 몰락하고 이후로 인천의 정치는 몰락했어요.

인사련 지도위원에는 주로 전문직들이 병풍처럼 외곽에 포진해 있었다. 실제로 인사련의 사회운동은 내부의 운동조직들이 움직였지만 전문직들이 합류하면서 인사련의 의미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5·3민주항쟁의 공간을 제공한 신민당 현판식이 전국적으로 돌아 인천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이에 맞춰 인하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었다.

인사련에는 이호용이 있고 그 밑에 이우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도위원들은 말하자면 병풍들이지. 지도위원은 변호사, 의사, 교수, 신부, 목사들이 외곽으로 있었죠. 그때는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부채를 가지던 시기였으니까, 전문직들이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요. 인사련이 여러 조직을 묶은 점도 있지만 전문직들이 많이 참여한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지도위원은 운동과 전문직을 연결하는 통로를 뚫었던 거예요.

신민당 현판식이 다른 지역을 돌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뭔가 흥흥하면서도 기운이 올라오는 징후들이 있었어요. 전두환정권의 지식인 탄압도 심했고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연쇄적으로 크게 있었어요. 무슨 운동이건 마지막에는 넥타이부대가 움직이는 건데, 교수들이 움직이니까 매일같이 신문에 대학 교수 시국선언이 났어요. 인하대에서도 문과대 선배교수가 '우리도 해야지.'라고 했죠. 그 분은 활동적인 분은 아닌데도 그 때는 교수들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지.

실제로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1986년 4월 23일에 인하대학교 교수 20명이 '현 시국과 관련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문과 학원의 자유 보장,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당국의 물리적인 과잉저지 자제, 개헌서명 운동 존중, 언론의 활성화' 등을 당국에 촉구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를 최원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문과대와 경상대가 중심이 되어서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공대교수 한 명이 공대에서 유일하게 같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수들의 의식이 고조되었지요. 하여튼 인하대에서는 그 전에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인천의 정보당국에서는 인하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국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시국선언 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우리 집에는 협박

전화가 왔어요. 1985년에는 창작과비평사를 출판 등록을 취소시켜버렸어요. 이에 항의하는 지식인들의 서명운동이 타올라서 오히려 지식인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사건 또한 1986년 교수들 시국선언에 밑불이 된 셈이에요.

5.3민주항쟁 상황과 평가

최원식은 인천5·3민주항쟁이 전에는 겪어 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일에는 한신대교수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 인천대회 장소는 평평 터지고 딱 막히고 난리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인천에서 그만큼 커다란 집회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인천5·3민주항쟁 대회 자체가 있었던 시간은 당일 하루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였지만 이 일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었다.

5·3때 한신대 교수들이 인하대에 눌러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시국선언 교수들이 한신대에도 있고 인하대에도 있었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한신대 교수들과 인하대 교수들이 같이 시민회관에 갔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평평 터지고 흥흥하기도 한데 축제 같기도 하고 뽕 둘러싸여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없으니까 수원에서 온 교수들과 같이 시위장이 내다보이는 내가 잘 가던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내 5·3에 대한 기억은 그거예요. 다음 날 방송, 신문을 보니까 난리가 나 있던데, 이상하게도 어떤 축제 같다는 생각이 철딱서니 없이 들더라구요. 그동안 딱 막혔던 것들이 인천에서 터지는구나, 하는.

인천에서는 그동안 5·3만한 큰 집회나 시위가 없었어요. 5·16 이전에는 완전히 인천은 야도(野都)였죠. 이승엽, 조봉암의 역사도 깊었고. 장면 총리는 박문학교를 나왔고 뿌리 깊은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부자들이 돈 대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금책들은 5·16 이후 몰락하거나 서울로 다 갔어요. 이승엽은 쌀장사들이 기반이었어요. 조봉암은 쌀겨조합 이사장이예요. 그때 쌀겨장사가 연탄장사랑 똑같대. 이 양반은 대중 소통적이어서, 인천의 의사 등 전문직들을 민주주의민족전선에 다 영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곽상훈 국회의장도

있었어요. 인천이 국회의원 3명을 뽑는데 항상 민주당이 되거나 했어요. 자유당이 잘 안 됐어요. 인천은 민주당 신평의 뿌리가 깊었어요. 5·16 이후에 여당 도시가 된 거죠.

그래도 80년대는 유신 때보다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인사련 지도위원한테는 특별하게 탄압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호웅, 황선진 등 수배한 사람들 연락 오면 알려 달라고 경찰들이 자주 찾아오긴 했어요.

최원식은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변혁운동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셋째는 민주화운동에 내재화되어 있던 것이 다 쏟아져 나와 축제의 성격을 지니면서 한 가지로 모아졌다는 것이다.

5·3은 최소한 세 겹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의 한 도정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변혁운동이 본격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혁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결합되어 있던 것이 민주화운동 바깥으로 분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운동 쪽에서 이렇게 변혁이라는 주장과 구호가 강력하게 등장한 거예요.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변혁으로 옮겨가는 2단계 운동으로 산정했던 것에서, 민주화운동을 거치지 않고 변혁운동으로 직접 가는 방향이 분출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5·3이 부산미문화원 사건과 인민노련 사건 중간에 있던 거죠.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주장이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이 축제 같다고 생각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내재화되어 있던 것이 다 나왔다는 점에서 축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5·3을 민주화운동이라고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이 깨지면서 정권의 빌미를 주기는 했죠. 5·3을 계기로 대 분화가 일어났다가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통일적 구호로 모여며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운동이 하나가 됐어요. 결국 제한된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죠. 6월 항쟁의 대승리를 끌어 온 데에는 5·3항쟁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난 번 5·3 토론회에서 실감한 건데 노동자들은 5·3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더라구요. 노동자들이 5·3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주장했던 때였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 원미정, 이충각 같은 노동운동가들이 5·3을 보는 시각은

많이 다를 거예요.

노동운동의 구호는 소수자운동의 발화

최원식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수자운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인천5·3민주항쟁 당시 노동자들이 벌였던 투쟁들이 한편으로는 소수자 계층들이 자신을 표현하려는 목소리였을 거라는 평가를 한다. 난장적 투쟁성으로 소수자계층도 함께 가면서 1987년 민주항쟁으로 모아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의해 폭력집회로 규정되며 공격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통일적인 구호로 행사가 함께 진행되지도 못했지만 결국에는 5·3의 경험이 민주화로 가는 길목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회주의혁명으로 부르조아정권이 타도되어도 여전히 억압받는 계층이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노동자들도 소수자였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도 변혁운동에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성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난장적 투쟁성으로 민주화운동을 열었고 87년 6월 항쟁으로 가는 결정적 길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5·3에서 인천의 역할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인천이었기 때문에 5·3이 난장적 축제로 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인천이 수도권의 중요한 곳이면서도 변방이에요. 이와 같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5·3항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억압도 있고 운동 내의 억압도 있잖아요. 운동권에서도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때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주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소수자였던 거죠. 5·3은 이 소수자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출구였다는 점에서 87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선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3이 준 최고의 교훈은 이런 난장을 벌이고 나니까 권력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권력이 운동을 때려잡는 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난장이 된 것도 권력 측이 일부러 난리를 부리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80년 봄에 서울 역에서도 전두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민교육운동의 필요성과 축제의 효과

최원식은 인천5·3민주항쟁 앞뒤에 인사련에서 진행한 시민학교 운동을 재평가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 시대에 인사련 시민학교에서 했던 교육내용과 방식에 대한 자료 정리도 필요하고 현 시대에 적절한 시민교육 운동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5·3민주항쟁을 축제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만을 해소하는 성격도 있지만 축제를 통해 새로운 방향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5·3 앞뒤에는 민중학교, 시민학교 운동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이 바빴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걸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교육운동을 지금은 제도권 교육에서 하고 있어요. 학습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함께 모임을 가지는 활동으로 발전되어 갔어요. 제가 시민학교 교장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시민학교 운동은 언젠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축제라는 게 현존 질서의 일시적 전복이에요. 노련한 지배층은 축제를 허용하거든요. 근데 축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풀어주면서 다시 통제하는 거지요. 안동 하회탈춤이 있어요. 그곳은 양반이 썼는데 하회탈춤은 노비들이 노는 거예요. 양반들은 축제에서는 양반을 풍자하는 탈춤을 허용하곤 그 풀이가 끝난 뒤에는 다시 기존 질서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거부하지는 급진파도 있지만 역시 축제가 지닌 해방적 기능을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축제 한판 벌이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계기를 잡아채어 지속적 교육과 실천의 장으로 들어올리는 노력이에요. 이 점에서 5·3과 시민학교를 함께 묶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커집니다.

저항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호인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지도위원



- 1948년 과산 출생
- 1976년 사제 서품
- 1986년 2월 3일, 주안5동성당 부임
- 1986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지도위원
- 1987년 국민운동본부 조직위원장
- 현 부개동 성당 주임신부

불 붙은 드럼통

주안1동 성당이 약간 경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준비한 거예요. 휘발유였는지 뭔지 드럼통에 불을 붙여서 굴러 내려 보내더라구. 사거리의 이미 전쟁터가 된 뒤였어요. 성당 마당에서 큰 길로 굴러 나갔죠. 깜짝 놀랐어요. 거긴 대문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성당 위로 올라오고 또 도망가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성당 마당도 완전히 현장이나 마찬가지로였어요. 불덩어리가 그렇게 구르면서 나가니까 최루탄이 성당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성당 안으로 최루탄을 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난리였죠. 최루탄을 그렇게 썩대길래, 안기부 인천지부장이 육군대령 출신이었는데 제가 바로 전화해서 육했던 기억이 나요. 가끔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특하면 쫓아왔잖아요.

호인수 신부는 5·3인천민주항쟁 당시 주안1동성당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건 좀 뜻밖의 사실이다. 주안1동성당은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 입장에서는 항쟁의 '간이역' 같은 곳이었다. 사람들이 이곳 지하실에서 만났고 집회를 위한 물품들이 모두 여기로 집결됐다. 5월 3일 정오, 처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광장'을 향해 발을 댄 곳도 여기다. 그만큼 중요한 거점이었다. 당시 호인수 신부의 근무지는 주안역 너머 이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주안5동성당이었다. 1986년 2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 주임신부로 있었다.¹

성당의 지하실을 시위를 하겠다고 몰려 온 사람들에게 선뜻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다. 여차하면 안기부나 경찰서니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고초를 겪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을 거치며 쓴 맛을 본 뒤라 정권의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서 있던 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호인수 신부는 주안1동성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주안1동성당은 박성규 신부가 주임신부를 맡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신문에 계속 해서 주안1동 천주교의 P신부 뭐 어찌구 이렇게 났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됐죠. 그 분이 주동하고 뒤를 대 준 것처

1 『가톨릭신문』, 1986년 2월 2일자.

림. 그래서 경찰이 쫓아갔잖아요 박신부님한테. 그러니까 박신부님이 “나 아무것도 몰라 재한테 가서 물어봐.” (웃음) 그렇게 된 거죠. 박성규 신부님은 이런 활동은 안했어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좋은 일 한다는 데 뭐 그래.” 이런 정도로 했고.

천주교 인천교구가 5·3인천민주항쟁에 교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런 성격의 집회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주교 인천교구 내의 개헌 요구는 이미 86년 초부터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수환 추기경의 ‘9일 기도 요청’에 의해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1986년 2월 22일, 김수환 추기경은 교구 공문을 통해 3월 1일부터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9일 기도’를 시작하자고 모든 본당에 제안한다. 현 시국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나아간 데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취지였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과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의 어두운 정치 사회적 현실을 무관심으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² 뒤를 이어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3월 4일 명동 사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일자로 작성된 「민주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란 제하의 시국성명을 발표했다.³ 여기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인 개헌서명운동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리라는 엄연한 진리’라고 천명하고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권력당국의 법적 및 물리적 제재조치는 국민에게 더 이상 자신이 주권자임과 민주사회의 자유민임을 포기케 하는 반민주적인 폭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⁴ 이튿날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선언」을 발표한 후 ‘서명민주인사’ 30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⁵ 같은날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민추협’)도 2월 12일부터 시작한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개헌촉진 1천만인 서명운동」의 1차 서명자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신민당 쪽 서명자 5,941명, 민추협 쪽 서명자 5백여 명이었다.⁶ 민통련이 공개한 서명자 명단에는 호인수 신부도 포함돼 있는데 서명에 참여한 경기·인천지구 신

2 『가톨릭신문』, 1986년 3월 2일자.

3 『가톨릭신문』, 1986년 3월 9일자.

4 「민주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1986. 3. 3),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5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선언」(1986. 3. 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6 『동아일보』, 1986년 3월 6일자.

부들은 모두 33명이었다.

개헌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3월 9일, ‘9일 기도’를 끝내며 행한 강론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전에 개헌을 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내용의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⁷ 천주교 인천교구에서도 이 무렵부터 각 성당별로 개헌서명운동을 전개, 4월 27일 현재 서명자 수는 2,163명에 달하고 있었다.⁸ 서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광주와 대구 등 타 지역에서 개최된 신민당 현판식에 수십 만의 군중이 참석했다는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주교 인천교구 내에서도 5월 3일로 예정된 인천에서의 현판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⁹ 주안5동성당 주임신부로 있던 호인수 신부에게 인사련 회원들이 찾아간 건 이 즈음이다.

저는 인사련하고는 거의 매일 만났죠. 지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기도 했구요. 5·3때는 제 기억으로 신부들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조직적으로 참여한 건 없었어요. 어느날 5·3 직전인데 인사련에서 저한테 와서 인천시 민회관을 중심으로 집회를 하려는데 준비도 하고 해야 하니까 주안1동성당이 제일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이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유인물도 갖다 놓고 플래카드도 갖다 놓고 하자고 제안을 해 왔죠. 그때 저는 주안5동[주안5동성당]에 살았어요. 그 친구들이 아는 데도 없고, 주안1동성당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님한테 가자고 해서 같이 갔죠. 우리 선배님이니까요. 박성규 신부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구요. 신부님을 뵙고 지하실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는 몰라,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실을 빌리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전쟁터가 될 줄은 몰랐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보니까 지하실 유리창이 다 깨져있고 화염병이 널려 있고 엉망이었죠.

‘전쟁터’란 표현은 시위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당 지하실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호인수 신부를 찾아왔던 인사련 쪽 사람들 외에 다른 팀들이 지하실을 사용했고

7 「민주화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 - 김수환 추기경 강론」(1986. 3. 9),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8 『인천주보』, 1986년 5월 4일자.

9 「개헌 서명운동의 참여는 크리스찬의 참 신앙고백」, 『가톨릭청년』, 1986년 4월 17일자.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인사련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화염병들이 지하실에서 제작·보관되기도 했다. 앞서 드림통에 불을 붙여 굴리며 나갔다는 ‘이 사람들’ 역시 주안1동성당 지하실에 있던, 인사련이나 민통련과는 다른 ‘어떤’ 그룹을 말한다.

호인수 신부는 인사련 지도위원이었다. 인사련은 1984년 11월 19일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족했는데 창립 당시 지도위원은 호인수 신부를 비롯해 김용환 신부, 이성득 신부, 조성교 신부, 홍창만 신부, 황상근 신부, 이은규 목사, 정일우 목사, 조화순 목사 등 9명이었다.¹⁰ 지도위원들이 신부와 목사 등 종교계 인사로 꾸려진 데에는 인천지역의 종교계가 이미 1960년대부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사련 조직과 회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사련은 제가 보기엔 과격하고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욕도 얻어먹고 그랬죠. 개량주의니 온정주의니 별 얘기 다하고, 인사련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인사련 초대 의장이 제정구 선배였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지금처럼 운동단체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바람막이도 필요하고 해서 의도적으로 신부님, 목사님을 바람막이로 세웠어요.

호인수 신부는 5월 3일 당일 주안1동성당 사제관에 머물면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혼란한 집회 현장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당일에는 아침부터 사제관에 계속 있었어요. 왔다갔다하면서 거의 다 진압될 때까지 있었어요. 아주 죽을 뻔 했어요. 정문에서 들어가면 맞은편이 사제관이예요. 거기 있으면 밖이 다 보여요. 여기가 관제탑처럼 사용됐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 나이드신 분들을 사제관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이죠. 한 분 두 분 사제관으로 찾아오셨어요. 많았어요. 하나 기억나는 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거리를 나가서 보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성○○ 교수가 거기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서 최루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걸 사제관에 모시고 온 건 기억나요.

10 『민중화의 물결』 창간호, 1984년 12월 25일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속상하죠. 그렇게 해서 절대 못 이기거든요. 드림통에다 불 붙여 내려서 그걸 갖고 어떻게 이겨요. 저는 그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때리면 반응하게 돼요. 그건 인간본성이니까. 그렇지만 같이 덤벼들어서 서로 싸움박질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거 같아요. 되지도 안잖아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수쟁이라서 그런 건진 몰라도. (웃음) 그런 건 지나기도 했으니까 크게 반성도 하고. 그런데 참여했던 분들이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국선언문 낭독과 자성(自省)의 경험

호인수 신부는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학교는 계속 서울로 통학을 해서 동성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호인수 신부는 이 부분을 못내 아쉬워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후배 관계가 부재한 데 대한 아쉬움이 었다. 그후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다. 신부가 되자마자 우연한 기회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일이 호인수 신부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든 출발점이 됐다.

제가 76년에 신부가 됐거든요. 77년에 뭘 썼는데 이게 걸려서 붙들려 갔어요. 교구청 답동 집회 때 선언문을 써서. 그게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다 알고 와서 잡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조사 좀 받고 나왔어요.

집회를 할 때 성명서 같은 걸 쓰잖아요. 보통. 그 일로 김병상 신부님이 구속돼서 또 그걸 내놓으라고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제일 쫓따구 신부였어요. 76년에 신부가 됐으니까. 그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 뭘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틀을 남겨놓고 와서 쓰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최분도 신부님하고 은퇴하신 황신부님하고 와서 저한테 쓰라고 해서 제가 제일 줄병인데 뭐 아는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만 자료를 이만큼 갖다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참고해서 적당히 쓰래요. 내일 아침까지 써내라는 거야, 저녁에 와서. 어떻게 해요, 줄병이. 그래서 밤새도록 앉아서, 학교에서 신문도 좀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했으니까 적당히 짜집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냈죠. 그때는 어디 가서 인쇄도 못하잖아

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집회를 하는데 우린 물론 다 갔죠. 인천교구 신부님들이 다 합해서 스물 몇 명밖에 안됐으니까.

집회를 하고 미사도 다 끝나서 성명서를 읽어야 하는데 저는 신부들 중에 제일 고참인 누가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지나서 오더니 “야, 너가 썼으니까 너가 읽어.” 그러는 거예요. (웃음) 좀 치사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한 건 ‘너가 썼으니까 너가 읽으면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도 인천교구 사제단의 권위가 있지 어떻게 제일 꼴따구가 그걸 읽어.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그랬는데 벌써 앞에서는 ‘성명서 낭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해 버리니까. 나가서 잘 읽었죠. (웃음)

제가 그때 소사 살았거든요. 소사성당에. 소사성당 보좌신부를 했어요. 집에 왔는데. 한 사흘인가 지났는데 꼭두새벽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저를 잡아갔어요. 그때 부천에는 경찰서가 없고, 부평경찰서가 부천까지 다 했거든요. 거기 잡혀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조사도 받고. 그때 저는 조사라는 걸 처음 받아봤으니까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묻고 그러는 건 처음 봤어요. 하루 조사 받았어요. 새벽에 세 시던가 두 시경에 잡혀가서 밤에 나왔으니까. 제가 잡혀가니까 인천교구 모든 신부들이 경찰서 마당에 앉아서 연좌데모를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야, 그걸 보니까 아주 가슴이 좀 찡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각서를 하나 쓰고 나온 거예요. 각서를 안 쓰면 안 내보낸다는 거죠. 저는 각서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이거는 정말 교회를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는 건 줄 알고 안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 전에 붙들려 들어가서 나온 신부들의 각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부도 이렇게 쓰고, 이 신부도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거기서 우기고 있을 일이 없더라고. (웃음) 그리고 거기서 자꾸 뭘 묻는데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쓰긴 썼지만 그거야 뭐 이것저것 자료 짜깁기 한 거 정도 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무지하게 창피하더라고. 엄청 창피하고 속에서 말도 못하게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한 번 당하고 와서 그 다음날 또 붙들려 갔어요. 각서를 잘못 썼다고.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받았는데 올라가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서 다시 쓰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백 번이라도 써주고 나올 걸. (웃음)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때 우리 소사성당에 유근일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분이 저에게 사람을 소개해 주러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구요. 그때 처음 창작과비평사를 가서 이영희 선생도 봤고, 조태희, 글쓰는 사람들, 고은 선생, 신경림 선생, 중앙대학교 유인호 교수, 서울대학교 박현재 교수, 이런 분들 다 그때 다니면서 만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랬죠.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동안 열심히 책도 읽고 그 양반들 쫓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야금야금 보이는 거 같아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잡혀 간 게 계기가 된 거죠. 그냥 뇌뒀으면 아마 지금 골프치러 다녔을 거야. (웃음) 그게 77년도였어요.

세상살이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잘 인도해주고 도와준,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돌아가신 정호경 신부예요. 가톨릭농민회 지도했던 신부님이죠. 그 양반이 저를 이 사람 저사람, 사람도 많이 소개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 분한테 저는 아주 큰 영향을 받았어요.

호인수 신부에게 5·3인천민주항쟁은 그런 긴 시간 속의 한 과정이었다. 그래도 스쳐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계속 수배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도망다니는 사람들하고도 가끔 연락도 좀 났고. 경찰들이 하여튼 저만 잡고 있으면 도망간 사람들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집을 감시했죠. 잊어버리거나 어떻게 그 사건에서 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경찰들은 제가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 간줄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잘 감시하고 전화 도청이라도 하면 수배자들 잡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대공분실에서 오라고 소환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갔죠. 거기 가면 맞아죽을라고 가? 안가고 버티고 그랬더니 그래도 천주교 신부라고 이만큼 조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와서 주안5동성당 사제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질

문지를 두 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5·3으로 해서 도망간 사람들, 배후조종자, 나머지 하나는 김영환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김영환이 도망가지 말라니까 도망가서 부산에서 바로 잡혔어요. 대공분실 직원이 제일 처음에 인사하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평생 빨갱이 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구요.

김영환은 1986년 초 결성된 ‘구국학생연맹(약칭 ‘구학련’)의 핵심 멤버였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82학번으로 흔히 ‘주사과의 대부’, ‘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대부’, 「강철서신」, 혹은 「강철시리즈」의 저자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구학련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서울대 학내 씨클 ‘단체사상연구회’를 모태로 한다. 주사과의 대중조직으로 알려졌으며 반미자주화반과소민주화투쟁위원회(약칭 ‘자민투’)를 대중조직으로 내세웠다. 구학련이 결성된 건 5·3인천민주항쟁 발발 한달여 전인 3월 29일이다. 김영환은 이 무렵 부평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며 「강철시리즈」를 집필했다고 한다.¹¹

‘한 노동운동가가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배포된 「강철시리즈」는 당시 학생운동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폼성론’은 강한 흡입력으로 학생들을 빨아들였다. 폼성론은 ‘혁명적 순수성을 지키며 현장에서의 모든 투쟁을 지도’할 ‘공장핵’을 발굴할 때 적용할 기준이라고 제시된 내용이다. ‘술직, 소박, 겸손, 성실, 용감한 폼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란 물음이 핵심이었다.¹² 학생들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문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서신’에 급속히 매료돼 갔다.

김영환이 호인수 신부를 찾은 건 구학련 사건으로 수배중인 때였다. 그후 1986년 12월 6일 부산에서 검거돼 구속됐고¹³ 이듬해 2월, 검찰은 ‘학원 및 노동계포섭 친북괴반미공산혁명음모사건’이란 이름으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이때 김영환 등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이론에 입각해 인천지역에 침투, ‘민족해방노동자당’을 결성하려 했다고 발표했다.¹⁴ 김영환은 1988년 12월 20일 석방됐다가 1999년 다시 ‘민족민주혁명당(약칭 ‘민혁명’) 사건’으로 구속됐다.¹⁵ 당시 국정원은 민혁당이 1989년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을 주축으로 한다고 봤고, ‘자생적 주체사상 추종자들의

11 『동아일보』, 2006년 11월 13일자.
12 『강철서신』, 도서출판 눈, 1989.
13 『동아일보』, 1986년 12월 9일자.
14 『동아일보』, 1987년 2월 24일자.
15 『동아일보』, 1999년 9월 10일자.

북한 지하당 조직’의 첫 사례라며 주목을 받았다.¹⁶ 김영환은 이후 1997년 민혁명당을 해체하며 전향한다. 5·3인천민주항쟁 몇 달 전부터 소위 주체사상의 바람이 인천에서 조금씩 바람을 타고 퍼져 가고 있었다.

그 전에 그런 애긴 했었죠. 만약에 좀 급하면 신부가 시켰다고 하라고, 그렇게 짜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그런 건 있었죠. 똑같이 잡혀 들어가도 신부는 덜 당하고 그러니까. 일단 빨갱이로 몰리지 않잖아요, 천주교 신자니까.

김영환은 그 전부터 알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왔어요. 와서 어디든 있을 때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신동, 지금 일신동 성당이에요. 그때 막 짓고 있던. 돌아가신 노경삼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수도원 소속이에요. 그 분이 성당을 짓고 거기 계셨어요. 그 양반은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도 의심은 하지 않는 그런 분이니까. 제가 그 분한테 가서 “이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데리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 데리고 오나.” 그래서 거기에 데려다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성당 제대 옆에 제의실이라고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쥐서 거기 있도록 했죠.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수도원 들어올 지원생이라고 그렇게 해서 심부름도 좀 시켜가면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도 안하고 잘 있었죠. 그리고 가끔 제가 거기로 가던가, 아니면 그 친구가 답답하다고 할 때 재주껏 오라고 해서 백운역 옆에 건물 2층에 흰구름다방인가, 백운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가끔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살별할 때. “가지마라. 여기가 얼마나 좋으나 편안하고 아무도 의심도 안하고.” 신부님도 잘 데리고 계시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재우고 그랬는데. 그런데 굳이 간다고 하더니만 부산 가자마자 걸려가지고, 부산 가서 걸린 것도 몰랐죠. 경찰이 알려줘서 알았죠. 그러면서 제가 김영환이를 숨겨놓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구속자 가족분들하고도 많이 만났죠. 우리집에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도 답답하니까요. 제가 주안5동[주안5동성당]엔 딱 2년 밖에 안 살았는데 그때 2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가 전교조 전신이었던 전교협도 만들고 하던 땐데 그것도 다 우리집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안역 뒤쪽이 맨날 하루 종일 경찰들

16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10일자.

있고, 어떨 때는 성당 들어가는 골목 양쪽에다가 소방차를 갖다 놓고 밤새도록 사 이렌을 틀어 놓기도 했어요. 동네사람들 시끄럽고 귀찮게 하는 거죠. 86년, 87년 을 거기 살았어요. 그 때가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어요. 모든 게 거기 서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온통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성찰과 반성의 시간

5·3인천민주항쟁으로 호인수 신부는 백령도로 전출을 간다. 백령도에 가서도 감시의 눈길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 있는 동안은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백령도에 있던 군부 대에서는 ‘이상한 놈 하나 오니까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백령도의 한 군속으로부터 들은 건 훨씬 나중 일이다. 섬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항상 체크가 되고 있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인천교구청에 있는 신부님이 어느날 급히 쫓아 와서 “너 준비하고 있어라. 너 이제 들어간단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고 하니깐 안기부 대장하고 경기도경 경찰청장하고 들어서 주교님한테 왔대요. 인사하러 온다고 와서는 어떻게든 빠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호인수 신부 를 좀 데려가야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요. 저는 통보한다는 걸 생전 처음 들어봤어 요, 그때. 언제 통보하고 잡아갔나요? 77년에 잡아갈 때도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새벽에 와서 뉘아채서 갔지 통보는 처음 들어봤어요. 주교님하고 그 사람들이 인 사하러 와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교구청에 신부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득달같이 찾아와서 들어간다고 알려준 거 죠. 그래서 유인물이고 뭐고 몽땅 가져다 불살라 버렸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웃음) 신부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데려가지는 않았는데 대신 백령도 로 쫓겨 갔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미국 신부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 서 무마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백령도는 1988년 1월에 갔어요. 1987년 가을인가, 늦여름인가 우리집에 드나 드는 경찰이 와서 “아, 백령도 가신다면서요?” 이러더라구요. 우리는 보통 빨리 알 아도 보름이나 한 달 전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인사문제는. 별소리를 다하고 있

네. 지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백령도로 가더라구. (웃음)

호인수 신부는 최근 들어 자리를 잡아 가는 5·3인천민주항쟁의 계승 시도들에 대해 그 리 달가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기념비를 세우거나 하는 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필 요하다고 해도 성찰과 반성 없이 기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쫓겨나지 못한 항쟁에서 되짚어 봐야 할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이다. 이 시대는 아직도 저항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저항정신 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방식이 있겠습니까. 가만있지 않는, 이를 테 면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기지만 그래도 저항 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만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큰 거 하나는 가만있도록 만들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저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 요. 저는 지금의 탄압이 아주 약화된 탄압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죠. 아주 교묘하게 달라졌죠. 이게 무슨 그전보다, 경찰들이 물론 우리 집에 와 서 쫓아다니거나 감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벌써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전에 비해서 탄압이나 이런 것 들이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점점 더 무서워지고 그래요. 그런 게 폭력 이지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야 폭력인가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5·3으로 인해서 6월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 구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인천 5·3이 인천시민 전체의 쫓겨났 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인천시민들이 정말 다들 울분이나 분노로 들고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었구요. 분위기도 좀 그랬죠. 조직활동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이 여기저기서 상당수가 모여서 ‘이 사람들만의 큰 사건이었다.’ 하는 정도, 그 정 도로 생각하죠.

6월항쟁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굉장히 큰 역 할을 했지만 서울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그 힘 이 폭발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5·3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구요. 조직 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싸움이나 시위는 아니었다고 봐요. 다 제각각이었죠. 그

거 이왕 좀 잘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어때. 이쪽 골목 다른 놈. 저쪽 골목 다른 놈. 하는 것도 죄다 다르고.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땐 우스워보였을 지도 몰라요. 현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다른 조직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왕에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가 안됐을까? 이걸 너무 큰 욕심이죠? 각 조직들의 대표들이라도 모여서 '이런 거 할텐데 너는 뭘 말아라. 이렇게 하자.' 그야말로 작전계획이라도 세웠으면. (웃음) 서로 원수 같고, 우리편 아니면 다 적이고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전 5·3을 통해서 그때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못한 거죠. 잘 못했던 걸 자꾸자꾸 들춰내서 이런 걸 꼬집어내고 그래야 앞으로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한 거죠

황선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1952년 강화도 출생
- 1972년 서울대학교 입학
-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참여
- 1984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 1986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1989년 인천민주시민공동회 의장

인천과 함께 한 문화운동

인터뷰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땐 당한 거 같아요. 구심점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전체적으로 ‘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특별히 없었어요. 내 느낌으로는 재들이 위장 도발 한 거 같아요. ‘저거 우리 아니다.’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재 네들한테 당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선진은 민중문화운동협의회(약칭 ‘민문협’) 사무국장으로 5·3인천민주항쟁에 참여했다. 민문협은 1984년 4월 14일 서울 흥사단에서 창립한 단체다. 탈춤, 문학,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교육부문까지 포괄한 협의체다. 발기인 및 대표위원은 송기숙, 원동석, 김종철, 황석영, 여익구, 허병섭, 호인수였다.¹

황선진은 1986년 3월 6일 민문협 제3차 총회에서 사무국장에 임명됐다.² 민통련의 연대 테이블에 민문협도 참여를 했다. 회의가 있을 때 민문협 사무국장 자격으로 참석하긴 했으나 5·3인천민주항쟁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련’)이 주관한 사전 회의에는 별도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5월 3일 집회를 위해서는 깃발과 유인물을 준비했다. 서울팀과 인천팀이 모여 풍물패도 조직했다.

민문협에 주문사항이 있긴 했을 텐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어쨌든 직접 한 거는 긴 깃발, ‘만장’이라고 하는데 만장은 틀린 말이에요. ‘만’ 자에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깐. 긴 깃발, 세로로 된 깃발 수십 개를 만들고 독자적인 유인물을 만들었죠. 깃발은 주안1동성당에서 만든 거 같은데 전날 만들었어요. 유인물은 따로 미리 제작해 뒀구요. 풍물패가 서울팀하고 인천팀 합해서 40명 정도 조직되지 않았나 싶고, 상쇠를 김봉조 씨가 했을 거예요. 민문협은 산하에 2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었으니까 전체 인원은 몇 백 명 됐는데 5·3에 100여 명 정도 참석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왔어요.

강화도가 고향인 황선진은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 때부터 ‘탈반’ 활동

1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총회보고서』(1984. 04. 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2 『민중문화』 제11호(1986. 04. 12),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을 시작했다. 인천에 살 때여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지역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대학에서 제적당했다가 졸업은 80년도에 했어요. 박대통령 돌아가고 나서. 인천에서 활동을 시작한 건 73년부터였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럴까, 팀들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였거든요. 서로 자연스럽게 만났죠. 활동은 대학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강령탈춤, 은율탈춤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했죠. ‘지역팀’이라고 있었던 거 같아요. 세미나도 하고 그러던 팀이 있었어요. 그중에 문화패도 있었죠. 인천에 초기 문화패들이 그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75년, 76년 이 때부터 형성된 것 같네요. 운동성을 가진 문화패들이 인천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졸업 후 잠시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해고됐다. 전력이 문제였다.³ 부당해고로 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⁴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이 발족할 때 참여한다. 민청련의 창립선언문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⁵ 1984년 인사련이 결성될 때는 다시 인천으로 와 인사련 초대 집행국장을 맡는다. 지역운동단체들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인사련에서 활동하던 중 서울에서 초빙을 받아 민문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5·3인천민주항쟁이 일어나기 두 달 전 일이다.

민문협은 대학에서 문화패 활동 하던 사람들이나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 안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굿패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분과가 있었어요. 가맹 소그룹들이 또 20여 개 있었구요. 전국 조직이었어요. 인천에서는 개별적으로들 참여를 했죠.

3 『해임통고서』(황선진), 1982. 08. 14.

4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 30일자.

5 권형택,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창립대회 발기문과 창립선언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kdemo.or.kr/>).

인천시민회관 앞 길놀이

민통련 입장에서 5·3인천민주항쟁을 시작한 건 길놀이였다. 민문협 연합 풍물패가 길을 열었다. 민통련 집회는 길놀이가 끝난 후 시작됐다.

5·3때 제가 한 거는 민문협 단위의 문선대 팀하고 정성렬 씨 등 인천에서 문화운동 하시던 분들하고 결합해서 벌인 문화선전 활동이에요. 민문협, 인천문화패, 인천문화패들한테 배운 인천간전[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학생들, 다 합쳐서 했죠. 바로 시민회관 맞은편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들어서 민통련이 집회를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공간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때 풍물패가 길을 열어서 집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통련 집회가 열렸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진행했어요. 막 노동운동 정파들이 세를 불려서 활동할 때니까 제각기 집회들을 했어요.

길놀이가 시작되기 전에는 풍물패들은 주안1동성당에도 있었고 저는 맞은편에 있었어요. 인천에는 전날 왔죠. 준비를 해야 하나니까요. 길놀이가 끝난 뒤에는 그냥 참여자의 일원이었죠. 시민회관 앞에만 있었어요. 아마 성당으로 피신했을 거예요. 그쪽으로는 경찰이 못 들어왔으니까. 다 끝난 뒤에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랫녘으로부터 열기는 계속 올라왔다. 운동권도 중간쯤부터 신민당 개헌 현판식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황선진은 타지역에서 열린 개헌 현판식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점점 거세지는 대중들의 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 열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과격시위로 발전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운동세력의 판도는 아군인지 적군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아군’이 아닐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날도 느낀 건데 경찰 쪽에서 선제 작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백골단’ [사복체포조]이 있을 때였어요. 선제 도발을 하면서 처음 돌을 깨기 시작한 것도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복 입은 사람들 말고 사복 입은 사람들이 운동세력 인양 돌을 깨서 던지고 그러면서 최루탄 쏘 대고 그런 거 같아요. 집회다운 집회 한 번 못해보고 각종 유인물만 뿌려졌죠.

구호들도 다양했다. ‘노동해방,’ ‘민중권력’이나 직선제 개헌과 미군문제 등에 관한 구호들이 황선진의 귀에 들렸다. 전에도 얼마간 들어봤던 구호들이었다. 민문협에서도 이미 이전부터 내부적인 균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그룹과 소그룹 단위의 현장팀들의 분화가 서서히 심화됐다. 특히 노동자 의식화를 위한 선전 활동, 혹은 의식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려는 쪽과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려는 쪽이 서로 입장들을 정리해 가고 있었다. 혁명을 하자는 것과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황선진은 그런 내부적 분화가 5·3을 통해 특별히 영향을 받은 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5월 3일의 현장에서 총체적인 전략 하에 구심점을 갖고 지휘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게 더 큰 한계였다고 한다.

돌은 던졌지만 화염병은 나왔나요? 나왔다면 그건 민통련 차원에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기획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해방구를 만든다는 얘기가 노동운동 진영에서부터 나왔고, 민통련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인 인천을 해방구로 만든다는 말을 아마 대전쯤 올라올 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대중들의 열기가 워낙 거세니까 ‘인천에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민통련이 전체 판을 주도하지는 못했어요. 노동운동 쪽에서도 세력들이 밀고 올라올 때니까.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이 세가 아주 왕성할 때였을 거예요. 노동운동은 그런 정파 중심의 주도하에 있었죠. 민통련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했어요. ‘해방구를 만들자.’ 그런 건 다 노동운동 쪽에서 나왔어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간 거죠.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기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조직을 하나 세우려고 했겠죠. 다들 그렇게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판 전체를 지휘할 만한 구심점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드러난 건 민통련인데 민통련이 주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총체적인 전략도 없었죠. 그럴만한 하부 조직이 있던 것도 아니구요. 노동운동 정파 조직들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제각각 나왔으니까 전체 지휘부가 없었던 셈이죠.

황선진은 5·3인천민주항쟁으로 수배를 받았다가 이듬해 7월 8일, 6월항쟁을 계기로 해제됐다.⁶ 수배생활 중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갔다.

민문협 사무실은 아현동에 있었어요. 수배 받는 동안 사무실은 들어가지 못하고 실무자 통해서 이것저것 진행할 거 진행하고 그랬죠. 수배는 받았지만 비교적 자유로웠으니까요. 화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국면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의식화팀이나 소모임들 지도하면서 지냈어요.

대중들의 힘

1988년 10월 17일,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약칭 '인문연')이 창립총회를 열었다.⁷ 황선진은 인문연 지도위원을 맡긴 했으나 이 무렵은 문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해 갈 때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인천에 내려와 자리를 잡으며 운동의 중심을 변화시켜 갔다. 민중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만든 게 1989년 4월 개소식을 한 인천민주시민공동회다. 주안역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민중해방'과 '민족통일'을 구호로 내세운 단체였다. 이후 주로 합법정당 건설에 힘을 쏟는다.

민주시민공동회 만들면서 '민중해방, 민족통일'을 내세웠죠. 급기야는 이름도 민중연합으로 바뀌었어요. 1년 반 정도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인민련(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죠. 시민공동회 참여했던 분들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주로 자생적이고 양심적인 시민들이었어요. 독서모임도 있었고, 처음에는 한 3, 4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민중연합 의장하고 있을 당시 노동운동 정파가 크게 들어있었어요. 그중에 PD계열 노동자 조직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가 91년 겨울인가 인민노련이 사회주의 정당 만든다고 할 때 합류를 했죠. 새로 만드는 조직, 노정추진 거 같아요,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노정추를 하다가 한국사회당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갔다가 세부적으로 민중당과 통합했죠. 그래서 통합민중당이 됐어요. 그게 92년 봄인 거

6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7 『인문연 창립총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같은데.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죠. 부위원장이 네다섯 명 됐어요. 위원장은 주대환 선생이었고. 통합민중당은 중앙당 기획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사회당 하던 분들 주력이 잡혀 들어가면서 그쪽 대표 역할을 해서 민중당하고 통합 대표로 나갔어요. 장기표 선생, 이우재, 이재오 이런 분들 있을 때죠. 민주노동당까지 계속 같이 했죠.

그런 활동들을 해 오는 과정에서 5·3인천민주항쟁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아니다. 최근들어 기념식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수준이었다. 그건 5·3인천민주항쟁이 전체 운동 과정에서 주목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로 큰 영향은 없어요. 수십년 동안 집회를 봐왔잖아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거 같아요. 87년도까지만 해도 감동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슴이 뛰는 게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감동이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 젊은 사람한테는 감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감동이 없어, 그런 집회들이.

5·3때는 이제 뭐 좀 되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5·3 이전부터 계속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5·3 이전의 대중들의 열기 속에서 얻은 게 컸어요. 그러한 대중열기를 5·3때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야당세력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대중의 열기를 살리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다만 운동하시는 분들의 자기 드러냄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죠. 온갖 정파에서 유인물을 찍 깔았으니까요. 다 드러났잖아요.

황선진은 5·3인천민주항쟁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건 경험의 미숙함, 지혜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봤다. 대중적 열기를 모으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다. 그걸 한계라고 생각한다. 운동은 대중적 분노와 열기, 이것이 결합되면서 끌고 가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1987년 광화문에 백만 명이 모일 수 있던 것은 공분을 느낀 대중들의 힘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글쎄요. 큰 시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량이라고 그럴까. 없는 게 한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전모를 다 파악하고서 일 할 사

람이 어디 많이 있었겠어요. 다들 학생운동 좀 하고 노동운동 좀 하고 또 정치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또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을 때니까. 87년 이후에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YS 손 붙잡고, DJ 손 붙잡고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당시는 전체를 읽을 만한 지혜, 눈이 부족했던 거죠. 잘못했다기보다 한계를 드러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5·3 결과로 생긴 게 없잖아요. 다들 원위치로 돌아갔지. 나중에 국민운동본부가 대중의 열기에 힘입어서 나왔구요. 5·3을 통해서 생긴 성과는 없다고 봐요. 나는 큰 점수는 못 줘요. 오히려 5·3 이전까지의 일들에 기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특별한 준비 없이 선제 작전에 당하고 말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당했다! 재네들한테 당했다.’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발행일 2016.6.10.

발행인 이우재

발행처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506-45호

대표전화 032-441-0288

디자인 도서출판 다인아트

인쇄 장원인쇄

증언채록 김현석, 인수범

정리 김현석

기획·진행 오경중

* 이 증언록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예산을 지원 받아 인쇄되었습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